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0조의 위원의 제척·기피 등에 관련된 내용과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의 회의록 공개 및 관리에 관련된 내용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였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그 밖에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회의내용은 기록·녹취 되며 회의 결과는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9조 및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에 따라 의결 방식은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야 하며, 과반수의 찬성에 따라 의결됨을 알려드립니다.



2018년도 문화재위원회

**제7차 동상분화재분과위원회 회의자료**

▣ 회의일시 : 2018. 9. 13.(목) 14:0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문 화 재 위 원 회



## 목 차

### 【심의사항】 4건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1	진도 쌍계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공 개
2	대구 동화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공 개
3	김홍도 필 삼공불환도	공 개
4	자치통감 권129~132	공 개

### 【검토사항】 9건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5	군위 범주사 괘불도	공 개
6	예산 대련사 비로자나불 괘불도	공 개
7	상주 남장사 영산회 괘불도	공 개
8	백자 청화 ‘성화3년’명 황수신 묘지	공 개
9	백자 철화운룡문 향아리	공 개
10	‘경선사’명 청동북	공 개
11	장철 정사공신녹권	공 개
12	청주 사뇌사지 동제현향로	공 개
13	경주 얼굴무늬 수막새	공 개



심 의 사 항





## I.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안건번호 동산 2018-07-001

### 01. 진도 쌍계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珍島 雙溪寺 木造釋迦如來三尊坐像)

#### 가. 심의사항

‘진도 쌍계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전라남도자사로부터 ‘진도 쌍계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6.2.24.)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7.7.10)를 실시하고, 2017년 제7차 위원회에 검토사항으로 부의하였으나, 대좌 등 추가조사 보완사유로 보류됨.
- 이에, 관계전문가에 의한 보완조사(’18.5.25)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제4차 회의(’18.6.13)에 재부의 하였으나, 지정대상 및 수량 재검토 사유로 보류되었음.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 제5차 회의(’18.7.12)에 재부의 하였고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18.7.24~’18.8.24)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221호(1995. 8. 5 지정)
- 명 칭 : 진도 쌍계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珍島 雙溪寺 木造釋迦如來三尊坐像)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쌍계사
- 소재지 :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운림산방로 299-30 쌍계사
- 수 량 : 불상 3구(불좌상 1구, 보살좌상 2구), 발원문 3점, 후령통 3점
- 규 격 : 불좌상 높이 140cm, 좌협시 높이 131.5cm, 우협시 높이 130cm

석가여래 발원문 1면 15.2x10.0cm, 15.2×320.5(32.5면 /절첩본)  
 좌협시발원문 1면 14.1x7.2cm, 전체 14.1×290.5cm(40면/절첩본)  
 우협시 발원문 1면 15.6x9.1cm, 전체 15.7x90.8cm(10면/절첩본)  
 석가여래 후령통 13.1x9.0cm(해포하지 않음)  
 좌협시 후령통 13.8x7.0(해포하지 않음)  
 우협시 후령통 11.0x5.0cm(황초폭자 38.0×36.0cm, 동경 9.0cm)

- 재 질 : 목조
- 형 식 : 삼존상
- 조성연대 : 1665년(현종 6)
- 제 작 자 : 熙壯, 道雨, 宝海, 敬信, 玉淳, 一訓, 新學, 呂尙, 道澄

##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 (지정 가치 있음)

진도 쌍계사 대웅전에 봉안되어 있는 삼존상은 조성발원문 기록을 통해 조각승 회장 등 9명의 조각승이 1665년 6월에 완성한 석가여래삼존상으로 확인되었으며, 좌우 보처상은 미륵과 제화갈라 보살상으로 추정되었다. 수조각승 회장은 보조 조각승 시기인 1630-40년대에 청헌, 승일 등 현진·청헌파의 주요 조각승들을 따라 수련기를 거쳤으며, 1640년대 후반부터 1660년대 중반까지 주로 전라도 지역을 거점으로 활발한 조상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들 삼존상은 제작연대, 조각승의 이름, 봉안처 등 조선 후기 불교조각사 연구에 매우 중요한 학술 정보를 잘 구비하고 있으며, 17세기 중반 전라도 지역 불상 제작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을뿐더러 작품의 완성도도 높다고 판단된다. 또한 불상이 조성된 이후 원 봉안처를 떠나지 않아, 원래의 전각과 불상이 갖는 종교적 컨텍스트가 잘 간직되어 있는 점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국가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사료된다.

### ○ (지정 가치 있음)

1. 이번에 지정신청된 진도 쌍계사 대웅전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과 작가, 연대, 출처 등 제반 조건이 유사한 범어사 대웅전의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은 보물 제1526호 지정되어 있으므로 쌍계사 대웅전 삼존불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조선후기 조각사에 있어 회장파는 매우 중요한 위상을 지니고 있는바, 그 대표적인 인물인 회장이 진도와 같은 고립된 섬에서도 직접 작업한 작품이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특별히 주목되는 사례로 생각된다. 또한 그의 활동범위에 있어 가장 남단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출토된 복장기록물을 통해 회장과 조각승들의 활동과 당시 지역민들의 후원상황 등을 알 수 있어 진도의 지역사와 역사적 위상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4. 진도라고 하는 비교적 고립된 지역에서 사찰이 창건된 후 400여년 동안 유일한 전통사찰로서 기능해온 진도 쌍계사에 봉안된 중요한 불상군이 오랜 기간 진도 군민들에게 신앙의 대상으로서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종교문화적 위상이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
5. 회장의 다른 조각사례와 비교했을 때 보관의 형식, 좌우보처보살이 연화가지를 들고 있는 방식, 별도의 손을 조합하는 방식 등 모든 면에서 공통점이 보여 이 삼존 불상은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상황을 통해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는데 있어 문제가 없으며, 이를 계기로 이 삼존불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보존이 더욱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 (지정 가치 있음)

이 삼존상은 지금까지 알려진 조각승 회장의 만년기의 작품이다. 절첩식으로 작성된 조연문을 통해 1665년이라는 정확한 제작시기, 불상제작에 필요한 각종 시주물목과 시주자, 그리고 제작에 직접 참여한 증명, 조각승, 화주 등 불상연구에 귀중한 정보를 모두 알 수 있어 17세기 후반기 불교조각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는 작품이다. 본존 석가여래와 좌우 협시보살상의 보존 상태와 도상의 구성, 대좌 등도 당시의 형태에서 크게 변화 없이 완전한 편이며, 작품에서도 조각승 회장의 조각적 특징이 잘 반영되어 있다. 조형적으로도 17세기 전반기 장중한 대형불상의 여운을 계승하려는 의지가 엿보이면서도, 불신에 비해 머리가 보다 강조되었고, 무릎도 한결 넓고 높아졌으며 주름선도 얇고 간결해지는 등 시대흐름에 따른 양식과 미감의 변화를 읽을 수 있어 주목된다. 이외 불상의 복장에서는 후령통을 비롯한 복장유물이 安立 당시의 모습을 크게 훼손 하지 않고 발견되어 17세기 중·후반기 불상의 복장법식 연구에도 귀중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삼존상은 우리나라 서남단 도서 지역에서 제작된 17세기 조각 작품이라는 점도 주목되고, 당시 珍島 城主 景成翼이 시주자의 제일 첫머리에 이름을 올려 불사를 이끌고, 이에 僧俗의 사부대중이 일심으로 발원, 동참하여 제작한 진도군의 기념비적 불상으로 평가된다.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대좌의 지정가치

##### 1) (지정 가치 없음)

진도 쌍계사에 소장되어 있는 목조석가여래삼존상의 목조대좌는 <조성발원문>에 의해 좌대의 시주자(文信元 兩主, 權得精 兩主, 朴毘伊)가 밝혀져 있어 삼존상과 동시대에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고, 절대연대를 가진 대좌라면 그 역사적 가치는 높다. 더욱이 3기의 대좌의 하층부를 이루는 팔각연엽대좌의 경우 상중하대의 수미좌형식을 가지고 있으며, 가운데 부분이 방형으로 뚫려 있어 목재의 통기성이나 통풍을 용이하게 하여 원형을 유지하기에 적합한 구조여서, 목조 대좌가 목조 불상의 보존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있는 편이다.

그러나 삼존상의 대좌는 여러 면에서 원형이 훼손되어 있다. 우선 불보살상마다 각각 팔각난간형 대좌가 상층부 양복련이어야 하는데, 복련끼리 겹쳐져 있다.

이렇게 대좌 받침의 원형을 유지하지 못한 것은 목부재의 교체나 단청 채색 등을 하면서 상하가 교란되면서 그 원형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라 여겨진다. 다음으로 3좌의 팔각난간형 대좌 또한 상당히 많은 상중하대의 목부재가 교체되거나 난간의 하엽이나 중대의 궁창널 등의 조각양식이 후대의 모작이나 근래에 제작된 것으로 여겨지고, 단청의 개채로 인하여 원형을 간직하고 있지 못하는 등 훼손이 심하여 예술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진도 쌍계사 목조석가여래삼존상의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와 비교할 때 목조대좌는 여러 가지 점으로 미루어 그에 미치지 못하여 국가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 2) (지정 가치 있음)

현지에서 좌대 3기를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살펴볼 때 조사대상 좌대는 하대, 중대, 상대로 구성된 것이다. 중대의 궁창널에 베푼 조각은 조형성이 우수하며, 특히 상대목의 외곽을 장식한 용(龍)과 하엽을 주제로 한 난간은 그 구성과 조각 수법 면에서 우수하다. 중대목의 궁창널과 상대목 주위의 난간 등은 제작수법과 양식으로 볼 때 좌대는 삼존불상 봉안시인 1665년에 만든 것으로 추정되나 중대 상하의 층단받침과 단청 등은 후대(後代) 수차례 개변된 것으로 보인다.

불상조성기를 볼 때 이들 좌대는 불상 조성시 함께 만든 것으로 추정될 뿐 그 이후의 수리 연혁은 분명하지 않다. 좌대의 당초 원형과 개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후 불상을 이안하고 좌대의 구조와 각부형식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변형 여부, 목재 수종 조사, 실측, 안료 조사 등)할 필요가 있다.

이들 좌대 상부에 모신 불상(佛像)의 미술사적 문화재적 가치는 이미 여러 학자에 의해 규명된바 있어 여기서 재론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다만 지금까지 대개 불상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때 불상 자체 가치에만 치중하여 불상과 일체로 제작한 좌대 등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하지만 불상과 일체로 만든 좌대 등은 귀중한 전통공예의 유산으로 유형문화재적 가치가 큰바 불상과 함께 보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특히 목조 좌대의 경우 석조에 비해 보존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쉽게 망실 및 훼손될 수 있다. 따라서 진도 쌍계사 대웅전의 목조 석가여래 삼존상을 모신 3기의 좌대는 17세기 중엽에 만든 것으로 보이는 우수한 전통공예 유산으로 불상과 함께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 3) (지정 가치 있음)

진도 쌍계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의 대좌는 상·중·하대로 구성된 삼단 팔각대좌이며, 팔각대좌의 윗면에는 다시 연화좌를 놓고 불상을 안치한 형태이다. 하대는 족대와 운각이 새겨진 족통, 하대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대는 3단의 중대받침과 청판으로 구성되어 있고, 청판에는 꽃무늬를 새겨넣었다. 상대는 3단의 상대받침과 보좌난간과 난간사이에는 십자형 풍혈을 마련하였다. 본존의 난간은 아홉 마리 용머리를 조각하여 난간대를 물고 있는 모습이며, 좌우 협시보살상의 난간은 하엽으로 구성하여 격 차이를 두었다. 팔각대좌의 윗면의 연화좌는 양복련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지금은 두 개의 연화좌 모두 없어 놓아 원래의 형태에서 벗어나 있는 모양이다. 대좌는 여러 개의 나무를 결구한 뒤 꺾쇠 못으로 고정하였다. 대좌에서는 제작당시나 중수 때 기록된 묵서는 확인되지 않으며, 최근의 개금불사에서 개채되어 원래의 채색 흔적도 찾을 수 없다. 불상의 대좌는 일반적으로 조성 이후 중간중간 개금 개채하는 과정에서 일부 손상된 부위는 새로운 부재로 보강하거나 보수하는 것이 일반 사례이므로, 쌍계사 대웅전 불상의 대좌도 마찬가지로 생각되지만 해체하지 않고 육안으로만 정확히 어느 부위가 수리되었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제작 당시의 모습에서 크게 변형되지 않고 부분적으로 보수하여 오늘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불상과 함께 지정 보존 관리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 지정

조사보고서

#### □ (대좌 조사)

## ○ 현 상

진도 쌍계사에 소장되어 있는 목조석가여래삼존상의 목조대좌는 삼존의 불보살상을 각각 떠 받치는 팔각형 대좌로 되어 있다. 대좌는 상층부에는 복련이 2중으로 겹쳐 있고, 팔각난간형의 3층부는 상중하대로 구성된 수미단형 식이다. 팔각대좌는 방형대좌의 네 모퉁이를 모죽임한 것에 가까우며 17세기의 전형적인 대좌의 특징을 보이는 상중하단을 갖춘 수미좌 형식이다. 좌우 보살상의 대좌의 중대에는 연꽃과 모란꽃 등의 화문이 투조로 조각하고 단청 채색이 되어 있고, 석가모니의 대좌에는 중대의 정면에 운룡문이 투조되어 있다. 특히 석가모니 본존불은 대좌의 난간은 9마리의 용, 구룡이 배치되고 있어 양 협시보살과 차별화 되고 있다. 팔각난간형 대좌 위에는 다시 복련의 연화대좌가 방석처럼 2중으로 받쳐져 있는데, 원래는 복련과 앙연으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복련으로 2겹 받친 것은 향후 앙연으로 되돌려야 한다.

## ○ 내용 및 특징

진도 쌍계사 목조석가불좌상의 조성발원문에는 ‘-----座臺大施主文信元 兩主-----座臺施主權得精 兩主---座臺施主朴毘伊 保体---“라 하여 대좌 혹은 좌대의 시주자 명단이 명문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1665년에 불상을 조성할 당시 대좌 또한 같은 시기에 만들었다면 그것이 역사적, 예술적 가치를 가질 것으로 여겨져 현장을 조사하게 되었다.

목조석가불좌상의 대좌는 상층부와 하층부로 나뉘는 중첩구조로 불보살상을 떠 받치게 되어 있다. 상층부는 복련(覆蓮)이 2중으로 중첩된 복연(複蓮) 형식이고, 하층부는 상중하 수미단 형식의 난간형 대좌로 구성된 것이다.

첫째, 좌상과 맞닿은 부분은 연잎이 아래를 향한 복련관 형식인데, 이 복련이 2번 겹쳐진 이중 복련 형식이다. 복련 위에 복련이 겹쳐 있어서 대좌의 크기가 불상보다 작게 느껴져 원래의 짝이 아닌 것처럼 보여진다. 그러나 복장을 해체할 당시의 아래쪽에 있는 대좌를 찍은 사진을 확인한 결과, 원래는 2중 복련이 중첩되어 떠받치는 특이한 형식이 아니라, 아래쪽은 복련을 놓고 위쪽의 것은 앙연으로서 올려놓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2중 복련을 앙연과 복련으로 돌려놓은 다음 삼존불의 무릎 하단과 대좌의 크기가 거의 맞는지의 여부는 확인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앙연의 연화좌도 앞쪽의 길이와 옆쪽의 폭이 오히려 위쪽 불상의 무릎이나 앉은 자세보다는 다소 작게 여겨져 원래부터 삼존불상의 좌대로 사용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게다가 앙연이 불상의 좌대로 사용되기 위해서라면 불상의 앉은 자세에 딱 맞게 만들어져야 할 터이지만, 현재 상태로는 불상 아래쪽과 만나는 부분이 금빛 찬란한 불상과 달리 아무런 치장이 되어 있지 않아 이 불상을 위한 좌대로 보기에 의문점이 남는다.

게다가 양련의 경우 위쪽에 부분적으로 손상된 흔적과 이것을 수리한 흔적이 남아 있어 양련을 수리하면서 복련으로 돌려서 사용한 것이 아닌가 여겨지지만 명확하지 않다. 무엇보다도 잘 마감된 불상과 달리 현재 이중의 복련은 연화관의 단청도 앞쪽 1/2 부분만 되어 있고 나머지는 거의 채색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2중 복련판, 원래 양련판의 수리 흔적, 1/2만 단청칠이 된 복련판의 채색 등 여러 면에서 볼 때 본 대좌는 예술적 가치가 떨어진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 복련 위에 복련을 겹쳐 둔 위쪽 복련은 양련 형식으로 바꾸어 놓아야 불상의 하단 폭과 양련 대좌의 크기가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삼존상과 양복련좌 위에는 어느 것이나 솜으로 누빈 방식을 깔았는데, 이 방식이 여름에는 습기를 머금고 통풍을 막음으로써 삼존불의 보존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대좌 위에 깐 방식을 제거하도록 제안한다.

둘째, 난간형의 대좌는 상층부의 복련판 하단을 떠받치며, 모두 팔각형이면서 상중하단으로 구성된 수미단 형식이 공통된다. 이 하층 대좌는 구조적인 면에서 상하 양복련판을 지지하고 있으면서, 가운데 부분이 뚫려 있어 전체적으로 통풍을 고려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 또한 나무가 자체적으로 습기를 제거하면서 오랜 세월동안 나무가 틀어지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고려한 과학적인 배려라 여겨진다.

다만 불보살 3좌의 대좌는 그동안 여러 차례 보수된 흔적을 너무 많은 부분에서 찾을 수 있다. 전통적으로는 나무를 다룰 때 깎기질로 처리하여 그 흔적이 남는데, 현재 3좌의 대좌에서는 모두 상대와 하대를 4단씩 만들어 층을 주어 처리할 때 나무결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대패로 절단한 흔적을 다수 찾을 수 있다. 이것은 곧 상대와 하대가 원래의 부재가 아닌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가장 아래쪽 하대 아래의 여의두형 풍혈은 상대나 중대와 달리 깎기질을 하여 투박하게 제작하면서 모죽임을 한 것으로 미루어 원래의 부재를 가지고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이것 또한 안쪽을 들여다보면 좌우 단면이 만나는 곳에 꺾쇠를 사용하여 근대기에 들어 수리한 흔적이 현저하게 남아 있다. 게다가 풍혈과 어울리지 않게 근래에 초엽의 끝을 선적으로 처리하면서 원래의 풍혈이 개변된 것도 발견되었다. 풍혈의 단청과 상대 및 하대의 단청칠은 근래에 여러 차례 개칠하면서 서로 다른 채색을 한 것도 원형과 달라진 것을 알 수 있는 증거이다.

셋째, 삼존상이 앉은 팔각연화대좌는, 상중하 삼단의 수미단 형식이다. 하대는 풍혈을 뚫었고, 중대는 팔각에 연화나 모란 및 용을 투각하였다.

우선, 본존상의 중대와 난간은 용이 조각되어 있다. 중대에는 황룡과 모란 및 구름문양을 양각하거나 투각하고 있는데, 비교적 생동감이 넘치고 있다. 모죽임된 좌우에는 모란꽃이 단순화되어 있고, 그 뒤쪽부터는 궁창널에 마름모형 문양을 단순하게 처리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앞쪽은 불상을 제작할 당시의 원형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나 8면 중 5면의 경우 층급형으로 간략화된 상대와 하대처럼 원형이 훼손되면서 수리되었을 개연성이 높다.

이것은 상대 위쪽 난간동자주로서 9마리 용을 사용한 것에서도 확인된다. 난간을 장식하는 중앙의 구룡은 용이 입을 벌리고 이를 옹다문 사이로 돌란대가 지나가도록 제작되었으며, 좌우 옆의 돌란대는 손실되어 없어졌다. 난간의 용은 입을 양다문 형태와 입을 벌린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돌란대로 연결된 5마리의 용도 얼굴 표정이나 입, 뿔의 모양 등에서 제각각이고 다양하다. 좌우에 각각 2마리씩 배치된 용은 앞쪽 5마리 용보다 크기나 형태 등에서 조형감이 다르다. 이로 미루어 난간대가 손상되고 수리하면서 각각의 크기나 배치 면에서 원형에서 변화되었다고 여겨진다.

넷째, 좌우 협시보살의 좌대는 본존불의 좌대와 구조적으로 동일하나 크기나 규모는 조금 작은 편이다. 2중 복련 위에 보살상을 안치한 것도 마찬가지이다. 상중하대로 구성된 수미단형에서 상대와 하대의 층급형 4단 받침이나, 풍혈의 처리도 본존불의 것과 마찬가지로 수리된 것으로 여겨진다. 중대의 궁창널은 모란과 연꽃을 투각했는데, 본존의 중대와 비교하면 솜씨가 떨어져 후대의 모각으로 여겨진다.

좌우의 대좌의 난간은 하엽형으로서, 하엽을 난간동주로 삼아 돌란대로 두른 형태이다. 이러한 하엽형 난간은 앞에서 뒤쪽까지 하나의 손상도 없이 완전하다. 이것은 본존불의 구룡난간이나 중대 부분의 궁창널 투각 등이 대부분 3/8 부분만 제대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대충 마무리된 것과 비교할 때 제작 시기나 조형양식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또한 후대에 제작된 사례로 여겨진다.

## ○ 문헌자료

「珍島 雙溪寺 木造釋迦佛坐像 造成發願文」, 1665년 6월 목서명

## □ (대좌 조사)

진도 쌍계사 대웅전의 수미단에는 좌대 위에 모신 목조 석가여래삼존상이 봉안되어 있다. 불상의 배치를 살펴보면 가운데 본존 불상을 두고, 그 좌우에 협시불로 문수와 보현보살상을 모셨다. 본존 불상(높이 140cm)은 항마촉지인의 수인(手印)을 하고 있어 석가여래임을 알 수 있고, 좌우의 문수와 보현 보살상의 경우 보관(寶冠)과 영락(瓔珞)을 착용하고, 양손에 연줄기와 연봉(蓮峯)을 대칭되게 쥐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삼존 불상은 모두 정면 좌우 모서리를 사절(斜切)하여 모를 죽인 목조(木造) 좌대(座臺) 위에 모셔져 있다.



삼존불상을 모신 좌대는 ‘康熙四年乙巳’명 발원문에 ...座臺大施主文信元 兩主, 唐荷葉大施主戒璘 比丘...라는 명문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1665년(숙종 6) 불상 제작시 좌대도 함께 만든 것으로 보인다. 위 발원문에 근거할 때 좌대는 17세기 중엽에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3기의 좌대는 불상의 크기를 고려하여 만든 것으로, 중앙에 놓인 본존 불상의 좌대에 비해 좌우 협시불상을 모신 좌대가 다소는 작은 편이다. 3기의 좌대는 공히 하대(下臺), 중대(中臺), 상대(上臺)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허리에 해당하는 중대 부분의 폭이 상대와 하대보다 작은 잘룩한 형태이다. 상대의 맨 위쪽에는 아름다운 난간을 들렀으며, 중대의 정면에는 용문 또는 모란문을 섬세하게 새긴 궁창널을 끼워 좌대의 상징성과 위계를 잘 표현했다.



양련과 복련으로 구성된 연화좌 사례

좌대의 최상부에는 공히 타원형의 널판자 둘레에 연꽃을 양각한 두 장의 연화좌를 겹쳐 놓고, 그 위에 다시 두꺼운 방석을 깔고 불상을 모셨다. 방석 밑에 놓인 두 장의 연화좌(蓮花座)는 본래 복련(覆蓮)과 양련(仰蓮) 한 틀로 만들어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나 지금은 제작 당시 의도와는 달리 두 장의 연화좌를 복련 형태로 겹쳐 사용했다. 연화좌의 경우 전면(前面) 길이와 측면 폭이 오히려 위에 놓인 불상보다 다소 작아 처

음부터 삼존불상의 좌대로 사용하기 위해 만든 것인지 더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부분적으로 파손된 부분을 수리한 흔적이 남아 있다. 연화좌는 대개 좌대와 함께 만든 것이라도 후대 노후한 좌대를 수리하면서 개변(改變)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실측자료와 옛 사진, 기록 등이 없어 더 이상 상세하게 언급하기 어렵다.

끝으로 좌대(3기)의 단청을 살펴보면 하대목은 진갈색의 안료를 사용하여 바탕칠이 되어 있으며, 중대목의 상하 층단 받침과 소형 탕주에는 주칠(朱漆)을 했다. 다만 중대목의 중앙부에 있는 궁창널 및 상대의 난간만 오색(五色)을 사용하여 단청했다. 하대목의 진갈색은 중대 층단받침의 주칠과 다른 것으로 이는 후대 수리시 개채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의 좌대 전반적인 단청은 근년에 대응전을 단청하면서 개채(改彩)한 것으로 고단청과는 거리가 있다.

### 1) 본존불 좌대(座臺)

본존불의 좌대(座臺)는 방형 탁자의 전면(前面) 모서리 부분을 사절(斜切)하여 각을 죽인 형태이다. 이 좌대는 하대목(下臺木), 중대목(中臺木), 상대목(上臺木)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대 부분이 상대와 하대에 비해 폭이 좁은 것이

특징이다. 하대목은 외반(外反)된 곡면으로 만든 것으로, 각 면에는 중앙에 여의두문을 조각하고 그 좌우에 초엽(草葉) 무늬를 넣어 장식했다. 여의두문과 초엽문을 새기지 않은 부분은 모두 깎아 내는 수법으로 장식문양을 강조했다. 각면의 하대목이 만나는 모서리의 경우 안쪽에는 가는 격쇠(원형 단면)를 사용하여 결구부가 하중에 의해 벌어지지 않도록 했는데, 이는 근대기에 수리시 시설한 것으로 보인다.



본존불 좌대 상세와 중대의 궁창널



본존불의 좌대 청면



중대의 상하에 위치하는 층단받침 사이의 각 면에는 아름답게 조각한 궁창널을 끼워 장식했다. 이 궁창널은 황룡(黃龍)과 모란 무늬를 정교하게 양각 또는 투각(透刻)한 것으로, 특히 전면의 궁창널에는 모란문 또는 운문(雲文)과 황룡(黃龍)을 생동감 있게 조각되어 있다. 전면의 장식적인 궁창널과 달리 양 측면의 궁창널에는 간략한 마름모형의 기하 문양을 넣어 장식했다. 측면의 궁창널에 새긴 마름모형 문양은 모서리를 반원형으로 처리한 것으로 단순 간략한 형태가 특징이다. 중대의 궁창널 상하(上下)에는 계단 모양으로 만든 4단의 층단 받침(4단)이 있으며, 이 층단받침은 목재를 한 단씩 들여 넣거나 내밀어 만든 것으로, 목재의 상태와 가공수

법 등을 볼 때 후대 수리시 변형 또는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상대목의 앞쪽과 측면에는 아름답게 꾸민 낮은 목조 난간이 시설되어 있다. 이 난간은 일정한 간격으로 용신(龍身)과 용두(龍頭)를 조각한 난간동자를 벌여 세우고 돌란대와 판재를 사용하여 정교하게 만든 것이다. 난간 상부에는 하엽을 사용하지 않고 대신 용두(龍頭)의 입 부분에 구멍을 뚫어 돌란대를 고정했다. 난간의 용두(龍頭)는 입을 다문 형태와 입을 벌린 두 가지 형태가 있으며, 용두의 세부 형태는 위치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난간 하부에는 풍혈(風穴) 대신 십자형 문양을 넣은 작은 판자를 사용하여 장식했다.

상대에는 2~3매의 판재를 깔아 바닥을 형성한 다음 그 위에 연꽃을 새긴 두 장의 연꽃받침(연화좌)을 겹쳐 놓고 그 위에 본존 불상을 모셨다. 연화좌가 불상의 폭보다 다소 작고, 연화좌를 복련과 양련 형태로 조립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세밀한 조사를 요한다.

## 2) 좌우 협시불 좌대(2기)

좌우 협시불의 좌대 외형은 본존불의 좌대와 대동소이하되, 다만 크기, 문양 등 세부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협시불의 좌대도 본존 불상의 좌대와 같이 방형 탁자의 전면(前面) 모서리 부분을 사절(斜切)하여 각을 죽인 형태이다. 본존 불상보다 낮은 협시불의 위계(位階)를 고려하여 상대의 난간과 중대의 궁창널 조각 등을 간략하게 처리한 특징이 있다.



좌협시불의 좌대(정면)」



우협시불의 좌대」

협시불의 좌대도 하대목(下臺木), 중대목(中臺木), 상대목(上臺木)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대 부분을 상하대보다 높고 좁게 처리한 것도 본존불상의 좌대와 같다. 하대목의 중앙에 여의두문을 조각하고, 그 좌우에 초엽(草葉) 등을 대칭으로 새긴 것 그리고 문양 없는 부분은 모두 깎아 낸 것도 본존불의 좌대와 같다.

하대목의 모퉁이 내측에 가는 꺾쇠(원형 단면)를 사용하여 결구를 보강한 것도 같다.

중대의 층단받침 사이에는 문양을 새긴 궁창널을 끼워 장식했다. 정면성을 강조하여 전면의 궁창널에는 모란문을 아름답게 투각했으나 양 측면에는 모서리를 반원형으로 처리한 마름모형 간략한 기하문양을 넣어 장식했다. 상대목과 하대목에 접하는 중대목의 궁창널 상하(上下)에는 각각 4단의 계단형 층단받침을 형성하고, 층단받침이 하대목, 상대목을 받도록 했다.

상대목의 전면(前面)과 측면에는 밖으로 돌출된 낮은 난간을 둘러놓았다. 이 난간은 일정한 간격으로 큰 하엽과 난간동자를 배치하고 돌란대를 두른 형태이다. 난간 하부에는 십자형 풍혈(風穴)을 새긴 널판자를 끼워 장식했으며, 난간에 사용된 하엽은 정교하게 조각하여 만든 것으로 세부 형태와 크기는 큰 차이가 없다.

상대 부분에는 본존불상의 좌대와 같이 2~3매의 판재를 깔아 바닥을 만들고, 그 위에 연화를 새긴 두 장의 타원형에 가까운 연꽃받침을 상하로 겹쳐 놓고 그 위에 협시불을 모셨다. 상대에 놓인 두 장의 목조 연꽃받침(연화좌)이 불상보다 다소 작고, 연화좌도 복련(下)+양련(上) 형태로 조립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추후 불상을 이안하고 세밀한 조사를 실시하여 연화좌의 변형 여부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 □

### ○ 현상 및 특징

석가모니불을 중심으로 좌우에 두 보살이 협시하고 있는 석가여래삼존상이다. 주존 석가모니불은 오른팔을 정강이까지 내려 항마촉지인을 짓고 있으며, 왼팔은 결가부좌한 오른발 위로 45도 각도로 손바닥을 위로 하여 두었다. 좌보처보살상은 왼팔을 위로 들었으며, 우보처보살상은 오른팔을 위로 들어, 각각 연꽃으로 추정되는 가지를 들고 있다. 석가모니불과 양 협시보살은 좌우의 외곽을 보살의 두 팔로 감싸 안은 형상으로 전체적으로는 좌우대칭을 이루고 있다.

조선 후기의 삼존상 구성에서 주존 석가모니불의 좌우 협시는 아미타불-약사불이거나 제화갈라-미륵의 두 경우가 있을 뿐이며,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협시한 삼존상은 단 1건도 보고된 바 없다. 다만, 4보살상 또는 6보살상으로 구성된 보살들 중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등장하는 경우는 있는데, 이들 중에서도 제화갈라와 미륵은 좌상으로 나타나고, 문수, 보현, 관음 등은 모두 입상으로 표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완주 위봉사에 봉안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1605년 작 4보살상(문수, 보현, 관음, 지장)은 모두 입상이다. 또한, 고흥 능가사 응진당의 1685년 작 6보살상(제화갈라, 미륵, 가섭, 아난, 문수, 보현) 중 주존 석가불과 좌우보처인 제화갈라와 미륵은 좌상인데 반해 가섭과 아난은 입상이며, 문수와 보현은 좌상인지 입상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구례 화엄사 대

웅전의 1703년 작 3여래4보살상(문수, 보현, 관음, 지적) 중 3여래상은 좌상이고, 4보살상은 모두 입상이다. 이처럼 조선 후기 사찰에서는 석가모니불의 좌우의 협시보살로서는 미륵보살과 제화갈라보살이 봉안되었지,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봉안된 사례는 없었다. 그러므로 본 진도 쌍계사 대웅전의 석가모니불좌상 좌우의 두 보살좌상은 미륵보살과 제화갈라보살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것이다.

삼존상은 모두 머리의 앞뒤 깊이가 매우 두껍고 신체가 건장한 점은 熙藏派 불상 양식의 가장 큰 특징의 하나이다. 오른쪽 가슴의 대의 자락이 약간 아래로 튀어나와 있으며, 두 다리 사이에는 중앙에 폭이 넓은 옷주름을 중심으로 좌우로 정연하고 대칭으로 옷주름들이 배치되어 있으며, 왼쪽 다리의 정강이에 끝이 뾰족한 대의 모서리가 표현된 점도 역시 회장과 불상의 특징이다. 얼굴은 1660년대 초반의 작품인 부산 범어사 대웅전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의 둥근 형태보다 길어져 1660년대 후반의 특징을 보이고 있어, 발원문의 1665년 제작 기록과 일치하고 있다.

조각승 熙藏은 1630-40년대에 淸憲, 勝一 등 조각승들 문하에서 수련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며, 1649년 구미 水多寺에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을 조성한 이래 1660년대 후반인 1666년 진도 쌍계사 <목조지장보살좌상 및 시왕상> 까지 전라남도 일대에서 많은 조상활동을 하였다.

## □ 조성발원문

\*「珍島 雙溪寺 木造釋迦佛坐像 造成發願文」<sup>1)</sup> 1665년 6월, 白紙墨書, 절첩본 4張 32.5面, 1면: 15.0×10.0cm 전체: 15.0×320.5cm

康熙四年乙巳季夏<sup>2)</sup>日

助緣文

康熙四年乙巳季夏日全羅

道珍島尖察山雙溪寺

佛<sup>3)</sup>像助緣文

願以此功德 普及於一切

我等汝衆生 皆共成佛道

城主景成翼<sup>4)</sup>

一代教主釋<sup>5)</sup>迦如來大施主申儀<sup>6)</sup>色兩主

1) 2015.9.21. 指定調査(古鏡). 절첩본(1面 6行 기준)

2) 康熙四年乙巳季夏: 1665.6.

3) 佛: ㅍ+天.

4) 景成翼: 珍島郡守 1665.2.15~1666.9.11

5) 釋: 釋.

6) 儀: ㅍ+又.

左補處大施主性印	比丘
右補處大施主太玄 <sup>7)</sup>	比丘
供養大施主金莫男	兩主
供養大施主郭起男	兩主
供養大施主處信 <sup>8)</sup>	比丘
供養大施主日惠	比丘
供養大施主立眞	兩主
黃金大施主朴氏	保体
布施大施主雪玉	比丘
体金大施主處熙	比丘
面金大施主礼仁	保体
体金大施主李起云	兩主
普施大施主郭忠信	兩主
布施大施主朴始海	兩主
面金大施主覺悟	比丘
面金大施主美 <sup>9)</sup> 生	兩主
泥金大施主雪眼	比丘
黃金大施主蓮清	兩主
黃金大施主郭清江	兩主
烏金大施主道習	比丘
黃丹大施主楚嘗 <sup>10)</sup>	比丘
燈 <sup>11)</sup> 燭大施主禮 <sup>12)</sup> 伊	保体
腹藏大施主金還 <sup>13)</sup> 來	兩主
座臺大施主文信元	兩主
唐荷葉大施主戒璘	比丘
楞嚴經大施主義俊 <sup>14)</sup>	比丘
腹藏大施主雄侃	比丘
腹藏大施主克英	比丘
引燈大施主崔好善	兩主

7) 太玄: 1677.4. 쌍계사 법당 상량문(本寺.施主)

8) 處信: 淸潭處信. 略譜 10世20番 참조. 1677.4. 쌍계사 법당 상량문(本寺. 嘉善)

9) 美: 美

10) 楚嘗: 1677.4. 쌍계사 법당 상량문(本寺)

11) 燈: 灯

12) 禮: 礼

13) 還: 还

14) 義俊: 雲坡義俊. 略譜 11世13番 참조

腹藏大施主徐仇屯	兩主
鋪團大施主宝堅	比丘
鋪團大施主郭忠興 <sup>15)</sup>	兩主
褰布大施主德厚 <sup>16)</sup>	比丘
褰布大施主自瓊	比丘
褰布大施主勝敏	比丘
喉玲桶施主朴以立	兩主
鐵物施主金海信	兩主
清蜜施主郭吹實 <sup>17)</sup>	兩主
朱紅施主覺信	比丘
嚙脂施主李成發	保体
腹藏施主先礼	兩主
腹藏施主粉上	保体
喉玲桶施主性云	比丘
喉玲桶施主玉玲 <sup>18)</sup>	比丘
三泉施主幸宣	比丘
鋪團施主從 <sup>19)</sup> 介	兩主
法華經施主天心	比丘
金剛經施主贅休	比丘
金剛經施主模屹	比丘
引燈施主朴五男	兩主
清蜜施主朴命 <sup>20)</sup> 漢	兩主
明鏡施主夢花	兩主
鐵物施主鄭得仁	兩主
揮帳施主朴千生	兩主
袂布施主僅問	比丘
座臺施主權得精	兩主
燈燭勸善紙施主贅悟	比丘
座臺施主朴靛 <sup>21)</sup> 伊	保体
灯燭施主天輝	比丘

15) 興: 吳

16) 德厚: 1677.4. 쌍계사 법당 상량문(本寺. 施主)

17) 實: 矣

18) 玉玲: 廣濟玉玲. 略譜 10世5番 참조

19) 從: 從

20) 命: 禽

21) 靛: 靛. ㄱㄴㅇ. 똥.

燈燭施主明益 <sup>22)</sup>	比丘
面金施主盧迂湜	兩主
點筆布施主裴幸得	兩主
點筆布施主文孟宗	兩主
點筆布施主韓日宗	保体
五藥施主姜湜	兩主
五色絲施主金應生	兩主
五寶施主盧鐵 <sup>23)</sup> 龜	兩主
揮帳施主金麗湜	兩主
明鏡施主能介	兩主
食塩施主朴驢 <sup>24)</sup> 芻伊	兩主
末髻施主金戒連	兩主
末髻施主朴孝奉	保体

緣化秩

證明勝浩

首畫員熙壯<sup>25)</sup>

道雨<sup>26)</sup>

宝海<sup>27)</sup>

敬信<sup>28)</sup>

玉淳<sup>29)</sup>

一訓<sup>30)</sup>

新學<sup>31)</sup>

呂尙<sup>32)</sup>

道澄<sup>33)</sup>

持殿道元

22) 明益: 1677.4. 쌍계사 법당 상량문(本寺)

23) 鐵: 鉄

24) 驢: 駟

25) 熙壯: 熙藏, 希藏. 조각승. 활동기간 1639~1661. 추가 1665

26) 道雨: 道祐. 조각승. 활동기간 1633~1664. 추가 1665

27) 宝海: 普海. 조각승. 활동기간 1646~1680

28) 敬信: 조각승. 활동기간 1655~1664. 추가 1665

29) 玉淳: 조각승. 활동기간 1649~1655. 추가 1665

30) 一訓: 一熏. 조각승. 활동기간 1660~1665

31) 新學: 神學. 조각승. 활동기간 1661. 추가 1665

32) 呂尙: 조각승. 첫등장

33) 道澄: 조각승. 첫등장



行者勝吉

宗吉

冶匠崔得哲

道習 比丘

雪眼 比丘

清澤<sup>34)</sup> 比丘

神玉 比丘

應和<sup>35)</sup> 比丘

供養主雪心<sup>36)</sup> 比丘

日惠 比丘

處信 比丘

性環 比丘

饌物化主思淨 比丘

外別座學贅 比丘

內別座覺信 比丘

副化主宝雄 比丘

清風衲子大功德<sup>37)</sup>主

敬遠 比丘

山中大德

大德義謹<sup>38)</sup> 大德守初<sup>39)</sup>

大德處愚<sup>40)</sup> 大德惠寬<sup>41)</sup>

大德廣海<sup>42)</sup> 大德覺圓<sup>43)</sup>

大德海寬 大德天敏<sup>44)</sup>

大德克和 大禪師義欽<sup>45)</sup>

大禪師猷克<sup>46)</sup> 大禪師克玄<sup>47)</sup>

34) 清澤: 清擇. 1677.4. 쌍계사 법당 상량문(本寺. 施主)

35) 應和: 朽木應和. 略譜 11世19番 참조

36) 雪心: 1677.4. 쌍계사 법당 상량문(化主)

37) 功德: 原文은 德功이나 上下 표시로 수정

38) 義謹: 楓潭義謹. 1592~1665.3.8. 금강산 정양사에서 入寂. 略譜 9世11番 참조.

39) 守初: 翠微守初. 1590~1668. 略譜 9世19番 참조

40) 處愚: 葆光處愚. 略譜 9世3番 참조

41) 惠寬: 龜嶼惠寬. 慧觀. 略譜 10世16番 참조

42) 廣海: 雙運廣海. 略譜 9世4番 참조

43) 覺圓: 寒梅覺圓. 略譜 9世 10番 참조

44) 天敏: 略譜 9世27番 참조

45) 義欽: 松坡義欽. 略譜 11世1番 참조

46) 猷克: 唯克. 略譜 9世26番 참조

大禪師玉俊<sup>48)</sup> 大禪師印閑<sup>49)</sup>  
 大禪師雲學<sup>50)</sup> 大禪玄卞<sup>51)</sup>  
 大禪師覺弘 大禪師妙蓮

本寺秩

信學	英允	哲文
性雲	性印	玉玲
太玄	覺悟	太瓊
處明 <sup>52)</sup>	處日	印天 <sup>53)</sup>
處熙	處閑	宗感
宗軒	學浩	幸宣
勝敏	勝宗	性心
智森 <sup>54)</sup>	正律	德厚
信卓	戒文 <sup>55)</sup>	日學
日機	模屹	勝輝
明湛	法敏 <sup>56)</sup>	英敏
太俊 <sup>57)</sup>	道尖	勝悅 <sup>58)</sup>
日熏	雪玉	尙卞
自瓊	道克	道尙
明卓	明照	道欣 <sup>59)</sup>
道式	道林 <sup>60)</sup>	道嚴 <sup>61)</sup>
道閑 <sup>62)</sup>	道嘿 <sup>63)</sup>	道應

- 
- 47) 克玄: 水月克玄. 略譜 9世9番 참조  
 48) 玉俊: 雲岩玉俊. 略譜 11世11番 참조  
 49) 印閑: 清湖印閑. 略譜 10世8番 참조  
 50) 雲學: 翠岩雲學. 略譜 10世7番 참조  
 51) 玄卞: 枕肱懸辯. 1616-1684. 略譜 9世2番 참조  
 52) 處明: 雲岩處明. 略譜 10世24番 참조  
 53) 印天: 1677.4. 쌍계사 법당 상량문(本寺. 大施主. 上樑布施主. 嘉善)  
 54) 智森: 太眞智森. 略譜 10世21番 참조  
 55) 戒文: 花谷戒文. 略譜 11世23番 참조  
 56) 法敏: 雲溪法敏. 略譜 10世18番 참조  
 57) 太俊: 1677.4. 쌍계사 법당 상량문(本寺. 施主)  
 58) 勝悅: 1677.4. 쌍계사 법당 상량문(本寺)  
 59) 道欣: 1677.4. 쌍계사 법당 상량문(本寺. 布施主)  
 60) 道林: 略譜 11世22番 참조. 1677.4. 쌍계사 법당 상량문(本寺)  
 61) 嚴: 卍  
 62) 道閑: 略譜 11世12番 참조  
 63) 道嘿: 1677.4. 쌍계사 법당 상량문(供養施主)

應暹<sup>64)</sup> 雪連 雪坦  
 道欽 清彦 清欽<sup>65)</sup>  
 清念 清淳<sup>66)</sup> 清揖<sup>67)</sup>  
 清益<sup>68)</sup> 清洽 清侃<sup>69)</sup>  
 清特 清測 清哲  
 清凜 清戒 清旭  
 清衍

三綱勝海

首僧思祐

小者 者斤同 春立  
           肉立 雖然  
           士連 起玄  
           信命 忝奉  
           善明

水陸助緣文

水陸大施主梁繼<sup>70)</sup>湜 兩主  
 佛事大施主妙尙 比丘  
 供養大施主朴以龍 保体  
 布施大施主任佺<sup>71)</sup>同 保体  
 供養大施主郭儀敏 兩主  
 佛奠大施主日學 比丘  
 佛奠大施主任俊敏 兩主  
 華盖大施主勝輝 比丘  
 大卓大施主處日 比丘  
 步蓮大施主朴太成 兩主  
 步蓮大施主戒文 比丘  
 步蓮大施主李三春 兩主  
 步蓮大施主任次方 兩主  
 長幡施主日熏 比丘

64) 應暹: 1677.4. 쌍계사 법당 상량문(本寺)

65) 清欽: 略譜 10世14番 참조

66) 清淳: 霽霞清淳. 淸順. 略譜 9世25番 참조

67) 清揖: 1677.4. 쌍계사 법당 상량문(本寺)

68) 清益: 1720.8. 쌍계사 중종 개주(山中老德)

69) 清侃: 凌虛清侃. 略譜 9世17番 참조

70) 繼: 繼

71) 佺: 갯

長幡施主從介	兩主
長幡施主朴信日	兩主
長幡施主朴宝陪	兩主
長幡施主李光春	兩主
䟽文紙施主宗軒	比丘
壇枋紙施主學贅	比丘
孤魂枋施主太俊	比丘
柱書紙施主金德男	兩主
銀錢施主道尙	比丘
紙衣施主法敏	比丘
丹木施主勝海	比丘
三象施主朴厚元	兩主

\*「珍島 雙溪寺 木造左補處(弥勒)菩薩坐像 造成發願文」<sup>72)</sup> 1665년 6월, 白紙墨書, 절  
 첩본 5張 40面, 1면: 14.1×7.2cm 전체: 14.1×290.5cm

康熙四年乙巳季夏日助緣文

康熙四年乙巳季夏日全羅右道

珍島郡尖察山雙溪寺

佛像助緣文

願以此功德 普及於一切

我等汝衆生 皆共成佛道

本郡城主景成翼

一代教主釋迦如來大施主申儀色兩主

左補處大施主性印比丘

右補處大施主太玄比丘

供養大施主金莫男兩主

供養大施主郭起男兩主

供養大施主處信 比丘

供養大施主日惠 比丘

供養大施主立眞 兩主

黃金大施主朴氏 保体

布施大施主雪玉比丘

体金大施主處熙比丘

面金大施主礼仁保体

72) 2015.9.10. 指定調査(古鏡). 절첩본(1面 4行 기준).

体金大施主李起云兩主  
普施大施主郭忠信兩主  
普施大施主朴始海兩主  
面金大施主覺悟比丘  
面金大施主羨生兩主  
泥金大施主雪眼 比丘  
黃金大施主蓮清 兩主  
黃金大施主郭清江兩主  
烏金大施主道習 比丘  
黃丹大施主楚豈 比丘  
灯燭大施主礼伊 保体  
腹藏大施主金還來兩主  
座臺大施主文信元兩主  
唐荷葉大施主戒磷比丘  
楞嚴經大施主義俊比丘  
腹藏大施主雄侃 比丘  
腹藏大施主克英 比丘  
引灯施主崔好善 兩主  
腹藏大施主徐仇屯兩主  
鋪團大施主宝堅 比丘  
鋪團大施主郭忠吳兩主  
褰布大施主德厚 比丘  
褰布大施主自瓊 比丘  
褰布大施主勝敏 比丘  
喉玲桶大施主朴以立兩主  
鐵物施主金海信兩主  
清蜜施主郭吹實<sup>73)</sup>兩主  
朱紅施主覺信 比丘  
腹藏施主先礼 兩主  
腹藏施主粉上 保体  
喉玲桶施主性云比丘  
喉玲桶施主玉玲比丘  
三泉施主幸宣 比丘  
鋪團施主終介 兩主  
法華經施主天心比丘

---

73) 實: 突.

金剛經施主贅休比丘  
引燈施主朴五男兩主  
    金剛經施主模屹比丘  
清蜜施主朴命<sup>74)</sup>漢兩主  
明鏡施主夢花 兩主  
鐵物施主鄭得仁兩主  
揮帳施主朴千生兩主  
袱布施主 儀<sup>75)</sup>罔比丘  
座臺施主權得精兩主  
座臺施主朴昞伊保体  
灯燭勸善紙施主贅悟比丘  
灯燭施主天輝 比丘  
灯燭施主明益 比丘  
面金施主盧迂湜兩主  
點筆布施主裴幸得兩主  
點筆布施主文孟宗兩主  
點筆布施主韓日宗保体  
五藥施主姜湜 兩主  
五宝施主盧鐵龜 兩主  
    五色絲施主金應生兩主  
揮帳施主金麗湜 兩主  
明鏡施主能介 兩主  
食塩施主朴駙伊兩主  
末醬施主金戒連 兩主  
末醬施主朴孝奉 保体  
    緣化秩  
證明勝浩  
首畫員熙壯  
    道雨  
    宝海  
    敬信  
    玉淳  
    一訓  
    新學

---

74) 命: 翁.

75) 儀: 彳+義. 儀.

道澄  
 呂尙  
 持殿道元  
 行者勝吉  
 宗吉  
 冶匠崔得哲  
 清澤<sup>76)</sup>比丘  
 神玉比丘  
 應和比丘  
 供養主雪心比丘  
 性環<sup>77)</sup>比丘  
 饌物化主思淨比丘  
 外別座學贅 比丘  
 內別座覺信 比丘  
 副化主宝雄 比丘  
 清風衲子大功德主敬遠比丘  
 山中大德  
 大德義謹 大德守初  
 大德處愚 大德惠寬  
 大德廣海 大德覺圓  
 大德海寬 大德天敏  
 大禪師克和 大禪師義欽  
 大禪師猷克 大禪師克玄  
 大禪師玉俊 大禪師印閑  
 大禪師雲學 大禪師覺弘  
 大禪師懸辨 大禪師妙蓮  
 本寺秩  
 信學 英允 哲文  
 性雲 性印 玉玲  
 太玄 覺悟 太瓊  
 處信 日惠  
 處明 處日 印天  
 處熙 處閑 宗感  
 宗軒 學浩 幸宣

---

76) 澤: 泽

77) 環: 王+衆.

勝敏 勝宗 性心  
智森 正律 德厚  
信卓 戒文 日學  
日機 模屹 勝輝  
明湛 法敏 英敏  
太俊 道尖 勝悅  
日熏 雪玉 尙卞  
自瓊 道克 道尙  
道欣 道式 道林  
道嚴<sup>78)</sup>道閑 道默  
道應 道習 應暹  
明照 雪連 明卓  
雪坦 清欽 清彥  
清念 清淳 清揖  
清益 清洽 清侃  
清特

三綱勝海

首僧思祐

水陸助緣文

水陸大施主梁繼湜兩主  
佛事大施主妙尙比丘  
供養大施主朴以龍保体  
普施大施主任佗同保体  
供養大施主郭義敏兩主  
佛<sup>79)</sup>奠大施主任俊敏兩主  
華盖大施主勝輝 比丘  
大卓大施主處日 比丘  
步蓮大施主朴太成兩主  
步蓮大施主戒文 比丘  
步蓮大施主李三春兩主  
佛奠大施主日學 比丘  
步蓮大施主道林 比丘  
長幡施主日熏 比丘  
長幡施主任次方 保体  
長幡施主朴信日 兩主

---

78) 嚴: 卍.

79) 佛: ㄚ+天.



\*「珍島 雙溪寺 木造右補處(提花揭羅)菩薩坐像 造成發願文」<sup>80)</sup> 1665년 6월, 白紙墨書, 절첩본 1張 10面, 1면: 15.6×9.1cm, 전체: 15.6×90.8cm

康熙四年乙巳季夏日

助緣文

康熙四年乙巳季夏日全羅道珍島

郡尖察山雙溪寺 佛像助緣文

願以此功德 普及於一切

我等汝衆生 皆共成佛道

本郡城主景成翼

一代教主釋<sup>81)</sup>迦如來大施主申義色兩主

左補處大施主性印 比丘

右補處大施主太玄 比丘

供養大施主金莫男 兩主

供養大施主郭己男 兩主

供養大施主處信 比丘

供養大施主日惠 比丘

供養大施主立眞 兩主

黃金大施主朴氏 保体

布施大施主雪玉 比丘

体金大施主處熙 比丘

面金大施主礼仁 保体

体金大施主李己云 兩主

緣化秩

證明勝浩

畫員熙壯

道雨

宝海

敬信

玉淳

一訓

新學

呂尙

道澄

持殿道元

80) 2015.9.21. 指定調査(古鏡). 절첩본(1面 6行 기준).

81) 釋: 采+又.

小者勝吉  
     宗吉  
 治匠崔得哲  
     道習  
     雪眼  
     淸擇  
     神玉  
     應和  
 供養主雪心  
     日憲  
     處信  
     性環  
 饌物化主思淨  
 外別座學蒼  
 內別座覺信  
 副化主宝雄  
 淸風衲子大切德主  
     敬遠

\*「珍島 雙溪寺 木造釋迦佛坐像 改金發願文」<sup>82)</sup> 1961년 3월 1일, 白紙墨書  
 改金佛事 佛紀四千九百八拾八年  
 (辛丑年)三月一日<sup>83)</sup>完成  
     光州市鶴洞一區十四番地  
         金喆鉉  
     雙溪寺 主持 金慧性<sup>84)</sup>  
         馬知錫<sup>85)</sup>

□

## ○ 현 상

현재 삼존불은 쌍계사 대웅전에 주불로 봉안되어 있으며, 목재로 짜인 2단의 장  
 방형 불단 위에 삼존이 함께 올라가 있고, 각각의 팔각형 대좌를 지니고 있다. 이  
 팔각대좌는 방형대좌의 네 모퉁이를 모죽임한 것에 가까운데 이 시대의 대좌로

82) 2015.9.10. 指定調査(古鏡).

83) 佛紀四千九百八拾八年(辛丑年)三月一日: 1961.3.1. 佛紀四千九百八十八年은 옛 佛紀로 二千九百八十八年の 오기

84) 慧性: 慧性榮培. 주지 1961.1.15 ~ 1965.3.2. 略譜 24世15番 참조

85) 知錫: 慧峰知錫. 前주지 1959.10.22 ~1961.1.14. 略譜 23世6番 참조

많이 보이는 형식이다. 대좌의 중대에는 연꽃이 조각되어 있고, 석가모니의 대좌만 중대 정면에는 윤통문, 난간도 용으로 조각하여 양협시와 차별을 두고 있다. 대좌 위에는 다시 복련의 연화대좌가 방석처럼 2단으로 받쳐져 있다.

본존 석가모니여래는 변형편단우견의 착의에 항마촉지인을 걸하고 있는데 왼손은 아마타구품인처럼 엄지와 중지를 구부려 맞대고 있다. 왼손은 손목부터 별도의 목재로 손을 제작하여 꽂아둔 것이어서 분리가 가능하며, 촉지인을 걸한 오른손은 팔뚝이 노출되는 팔굽부터 별도로 만들어 삽입한 것으로 보이는데, 접합 후에 개금을 하여 연결부위가 드러나지 않고 탈착도 불가하다. 오른손은 무릎 위에 완전히 밀착되어 올려진 것이 아니라 약간 이격되어 있다. 불두는 육계가 따로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둥근 정수리에 정상계주와 중간계주가 아담한 크기로 표현되었고, 나발의 머리카락과 이마의 연결선에는 윤표선을 따라 녹색으로 채색이 되어 있다. 턱선은 방향에 가깝고 측면에서 볼 때도 안면의 윤표선이 방향에 가까워 묵중하게 표현된 것에서 조각가의 조형감각을 엿볼 수 있다. 뒷면의 나발이 내려온 끝단과 컷불의 끝, 그리고 턱선이 대략 일직선상에 위치하는 비례를 보여서 전체적으로 일정한 틀 속에 상호가 배열된 느낌이 강하다. 목 위의 삼도와 내의의 끝단 옷주름이 수평적으로 흐르며 대응을 이루고, 양어깨에서 내려오는 옷주름이 수직적 대응을 이루면서 상의 단정한 인상을 강조한다. 또한 오른쪽 어깨에 걸쳐진 가사 자락의 옷자락과 왼팔 상박을 지나는 사선의 옷자락도 역시 유사한 각도로 좌우에서 대응구조를 보이며, 반대로 내의의 옷주름은 반대방향으로 사선으로 지나고 있어 이와 같은 정적이고 엄격한 틀 속에 갇힌 듯한 인상에 미묘한 운동감을 주는 역할을 한다. 걸가부좌한 두 발 사이로 흘러내리는 부채꼴 모양의 옷자락의 간격은 비교적 넓고 단순한 옷주름으로 간결하게 처리되었으며, 이 옷자락에 의해 감싸진 무릎은 둥그스름한 양감이 강조되었다.

양협시보살의 조형성은 본존불과 대체로 유사하다. 다만 통견착의라는 점과 보관을 쓰고 있는 점, 수인 및 지물을 들고 있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보관은 목재로 제작한 것으로 형태는 앞뒤가 높고 측면이 낮은 배모양이며, 여기에 철사를 이용해 얇은 금속판으로 제작한 마니보주 장식을 주축으로 연꽃, 여의두문장식을 화려하게 부착했다. 보관 측면에서 늘어지는 관대 장식은 마치 관을 가로지르는 비녀 및 비녀에 매달린 두 가닥의 띠자락이 ‘S’자형으로 꼬여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데 나무로 만들어 관 측면에 철사로 매달아 놓은 것이다. 수인은 좌우보살이 대칭이며 각각 본존불로부터 바깥 쪽 방향의 손을 들고 안쪽 손을 내려 엄지와 검지를 구부려 끝을 맞대다시피 한 상태에서 연꽃줄기를 잡고 있다. 연꽃도 나무로 별도로 만들어 조립한 것으로 탈착이 가능하다. 연꽃줄기는 끝에서 갈라지면서 여의두문 형식으로 장식화된 연잎과 아직 피지 않은 연꽃봉오리가 가지

끝에 표현되었다. 보살의 장엄은 보관 외에 귀걸이, 목걸이, 팔찌를 착용했다. 귀걸이는 컷볼 끝에 연관문의 귀걸이 장식을 새긴 것이고, 팔찌는 별도로 조각한 손의 손목을 감싸도록 양각으로 새겼는데 어떤 것은 완전히 감싸지 않고 손목 위에서 끊어진 것도 있다. 팔찌에는 얇은 부조로 장식이 새겨진 것 같지만 도금 과정에서 묻혀 잘 보이지 않는다.

목걸이도 가슴에 일체형으로 새겨진 것인데, 대의에 가려져 있지만 양어깨에 걸쳐진 금속제의 목걸이 양 끝단이 보주문으로 마감되어 있고 이 끝에서 다시 사슬 장식이 양쪽을 이어주며 이 사슬에서 세 줄기의 영락이 늘어지는 형태이다.

이 삼존불상은 조상기를 통해 희장이 만든 것임이 밝혀졌는데, 이중 두 협시보살상의 존명은 희장이 1661년에 제작한 범어사 대웅전 목조석가여래삼존불좌상과 양식 및 도상이 거의 같고, 또한 복장발원문을 통해 제화갈라와 미륵보살로 밝혀져 있어서 서로 유사한 범어사상의 사례를 통해 쌍계사 삼존불의 두 협시보살좌상도 미륵과 제화갈라로서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 ○ 내용 및 특징

### 1. 역사·문화사적 특징

불복장물에서 발견된 조상기의 내용을 검토해보면 이 삼존불은 1665년(강희 4년)에 조각승 희장(熙壯)이 도우(道雨), 보해(宝海), 경신(敬信), 옥순(玉淳), 일훈(一訓), 신학(新學), 여상(呂尙), 도징(道澄) 등과 조성하여 쌍계사에 봉안한 작품으로서 작자와 제작 연대, 봉안처 등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특히 전통사찰은 쌍계사 1곳 밖에 없는 진도라는 섬에서 17세기 전라·경상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던 조각가의 창작활동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진도가 조선후반기에 어떤 곳이었는데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진도 쌍계사는 비록 창건은 승려 의웅(義雄)에 의해 1648년(인조 26)에 창건되었지만, 이 삼존불은 창건과정에서의 주요 건축이 완공됨과 거의 동시에 조성되기 시작되어 대웅전에 봉안된 이후 지금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통해 조선후기 전 시기에 걸쳐 진도 주민들의 불교신앙의 상징적 존재였다고도 볼 수 있다. 또한 이 삼존불에 이어 1666년 쌍계사의 지장시왕상 역시 희장에 의해 조성되었기 때문에 희장은 대웅전 삼존불 조성을 마치고 곧바로 명부전 존상 조성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진도 쌍계사를 둘러싼 성속의 불사(佛事)에 대한 염원이 매우 컸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조성에 참여한 인물들의 분석을 통해 쌍계사가 비록 육지에서 가까운 섬이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섬이라는 고립된 환경속에서 이렇게 대규모의 불사를 일으키고 당대 이름난 조각승을 초빙하여 불상을 조성한 경제적 배경 등을 연구하는 것도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진도에는 고려시대부터 ‘금갑진성’이라고 하는 수군병영이 설치되어 있었고, 이후 갑오경장 이전까지 운영되었을 정도로 조선 수군의 주요 거점이었다. 또한 1808년에 씌여진 <쌍계사시왕전중수기>는 갑도에 귀양 와있던 호은노인(壺隱老人)이 찬했다고 되어 있고, 또 1863년에 씌여진 <대웅전불상개금소>는 초의 의순(草衣 意恂, 1786~1866)이 썼으며, 더불어 쌍계사 옆에는 소치 허련(小痴 許鍊, 1809~1892)의 ‘운림산방’이 있는 등 조선후기 진도는 지역유지 뿐 아니라 금갑진 방어를 위해 파견된 관리, 귀양온 지식인, 은둔한 예술가, 수행을 중시한 고승들이 서로 어울려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갔던 것으로 짐작되는 바, 회장과 같은 수준 높은 조각승에게 처음부터 쌍계사의 조상불사를 일임한 것은 이와 같은 높은 문화적 욕구에 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겠다.

## 2. 양식사적 특징

조각승 회장의 작품으로서 진도 쌍계사 불상과 가장 유사한 사례는 쌍계사보다 4년 전인 1661년에 제작한 부산 범어사 대웅전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보물 제 1526호)을 들 수 있다. 쌍계사 삼존불과는 양식적으로는 대동소이한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회장의 말년으로 가면서 그의 불상은 방형의 괴체감이 더욱 강조되는 묵중한 느낌이 강하며, 때로는 불두가 불신에 비해 조금 커지는 비례로 변화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쌍계사와 범어사의 본존불은 이와 달리 더 유연하고 양감이 풍부하며 비례도 더 안정적으로 보였던 회장의 가장 전성기 작품이라고 보아야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또한 보물로 지정된 범어사 불상에 보이는 그의 완숙한 양식이 이미 1665년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그의 조각양식 연구에 있어 새로운 자료로서 중요하다.

더불어 회장이 조성한 삼존불이 일괄로 남아있는 경우는 부산 범어사 대웅전 석가여래삼존불을 비롯하여 양산 통도사 극락전, 영천 은해사 백홍암 극락전, 상주 북장사 극락보전 등에 봉안된 아미타삼존불이 전하지만 이들 중 보물로 지정된 범어사 삼존불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원봉안처인지가 확실하지 않거나 혹은 다른 곳에 봉안되어 있던 불상을 옮겨온 것이다. 이에 반해 쌍계사 삼존불은 범어사 삼존불처럼 처음부터 쌍계사에 봉안하기 위해 조성된 것임이 밝혀졌고, 작품성 또한 거의 유사하다.

## ○ 기 타

조상발원문을 통해 현재의 위치가 원봉안처임이 밝혀졌다.



## ○ 내용 및 특징

진도 쌍계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22교구 본사 대흥사의 말사이다. 쌍계사는 1648년 義雄이 중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이 지역을 대표하는 사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경내 주요 문화재로는 대웅전 목조석가여래삼존상을 비롯하여 1666년에 조성된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일괄과 1695년에 중건된 시왕전, 그리고 1697년에 중창된 대웅전, 1702년에 조성된 범종 등이 있다.

대웅전에 봉안된 삼존불은 중앙에 석가여래를 안치하고, 좌우에 협시보살상을 배치한 석가여래삼존형식이다. 삼존상은 2015년 대웅전을 해체보수 하는 과정에서 불상을 이안하고 복장조사를 실시하였다. 복장에서는 조연문(발원문), 후령통, 경전, 다라니 등 조성 당시에 납입된 것으로 보이는 많은 복장유물이 발견되었다. 특히 발원문은 절첩식으로 만들어졌는데, 表題로 “康熙四年乙巳季夏日 助緣文”이라 묵서하였다. 조연문은 일종의 조성발원문인데, 이곳에는 발원목적, 시주물목과 시주자, 연화질, 산중대덕질, 본사질, 삼강, 수록조연문 순으로 당시의 불사 상황을 낱낱이 기록하였다. 시주질에는 시주물목과 시주자를 연계해서 기록하였는데, 시주 물목은 주로 불상 제작에 필요한 물목과 복장관련 물목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복장관련 목록에는 후령통·오약·오색사·오보·명경·『능엄경』·『법화경』·『금강경』 등의 물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당시의 복장의식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정보를 제공한다. 시주자의 제일 앞머리에는 진도군수 景成翼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는 1665년 2월 15일부터 1666년 9월11일까지 진도군수를 역임한 인물이다. 그가 제일 첫머리에 이름을 올린 것은 당시 쌍계사 불사가 진도군의 어떤 중요한 염원과 상징성을 담고 제작된 기념적인 불사였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라고 여겨진다. 증명은 勝浩이며, 수화조각승은 熙壯, 보조조각승은 道雨, 宝海, 敬信, 玉淳, 一訓, 新學, 呂尙, 道澄이 참여하였다. 수조각승 회장은 熙藏, 希藏, 熙莊 등으로 나타나는데, 그는 수조각승 청헌을 도와 1639년에 경남 하동 쌍계사 대웅전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사보살상을 7위의 조각승으로 참여하였고, 1646년에는 수조각승 승일을 도와 구례 천은사 수도암 목아미타불 및 대세지보살상 2위로 참여하였다. 수조각승으로서는 구미 수다사(원각사) 목조아미타불좌상 및 대세지보살상(1649년) 제작을 시작으로, 진안 금당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1650년), 고흥 능가사 목조약사불좌상(1653년), 청도 대운암 관음전 관음보살좌상(1654년), 부산 범어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1661년), 진도 쌍계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1666년) 등을 제작하였고, 1650년 군산 동국사 소조석가여래삼존상 조성에는 시주자로 참여하여 불상제작을 후원하였다. 차화원 도우는 무염파 조각승으로 회장과는 범어사 목조석가여래삼존상과 진도 쌍계사 목조석가여래삼존상,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조성 때 작업을 함께 하였다. 보해는 승일, 회장 등과 작업을 함께한 조각승으로, 대체로 회장과 많은 작품 활동을 함께하여 회장과 조각승으로 분류된다.

본존은 향마촉지인의 석가여래이며 좌우 협시는 보관을 쓰고 연꽃을 지물로 잡고 있는데, 발원문에 존명이 기재되지 않아 존명을 특정할 수 없다. 통상 대웅전에 봉안되는 석가여래의 좌우 협시보살상은 문수·보현보살상인데, 이 시기에는 미륵과 제화갈라보살이 등장하는 사례가 많다. 이 삼존상을 수조각승으로 제작한 회장이 이 보다 3년 전에 조성한 범어사 대웅전 석가여래삼존상에서는 석가-미륵-제화갈라, 즉 수기삼존상을 제작하였다는 기록이 보인다. 이 삼존상도 범어사상과 유사한 도상적 특징을 보이고 있어 이 역시 수기삼존상으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발원문에 左補處·右補處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때문에, 補處라는 의미는 부처가 입멸한 뒤 그 자리를 보충하는, 즉 석가여래에 이어 성불할 보살의 자리를 의미하므로 세대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존 석가여래의 앉은 높이가 140cm, 좌우보처 보살상이 121cm에 이를 정도로, 규모면에서 중량감이 넘치는 중형급 불상이다. 삼존상은 대웅전 후불벽면 앞쪽에 마련된 높은 직육면체의 수미단 위에 팔각연화대좌를 놓고 그 위에 올려 앉은 모습이어서, 더욱 장엄하고 웅장한 모습을 보여준다. 팔각대좌의 난간에는 龍을 조각하여 장엄하였고, 이는 좌우 협시 대좌의 荷葉形 寶欄과의 위계상의 차이를 두기 위한 장치로 여겨진다.

삼존상은 넓적한 얼굴에 뺨에 살집이 도톰하게 올라있고, 눈·코·입은 작고 부드럽게 모델링하여 이 시기 다른 조각승들의 불상들의 큼직한 콧날에 선 굵은 이목구비를 보여주는 것과는 다소 다른 조각적 특징을 구가하고 있다. 이보다 3년 앞서 제작된 범어사 대웅전 삼존상보다 형태적으로 길어지고 이목구비도 작아지는 등 약간의 양식적 변화를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부드러운 얼굴에 듬직한 신체, 얇고 섬세한 선묘의 특징은 회장의 불상에서 일반적으로 깔려있는 조각적 감성이다. 본존상의 오른쪽 어깨를 걸쳐 내려온 대의자락의 끝을 새 날개모양으로 예리하게 처리한 점과, 발목 아래로 도끼날처럼 벌어진 넓적한 띠 주름을 중심에 두고, 좌우로 여러 겹의 주름을 펼친 점은 회장의 조각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다. 좌우 협시보살상은 손의 위치만 달리하여 정확한 좌우 대칭을 이루도록 배려하였고, 형태나 표현기법은 거의 같은 모습이다. 머리에는 보관을 착용하였고, 구렛나루와 뒷머리를 타고 흘러내린 두 가닥의 머리카락은 어깨 위에서 둥근 고리모양으로 엮은 뒤 다시 세 가닥으로 드리웠다. 이러한 보살상의 머리모양은 17세기 보살상에서는 일반적인 것이지만, 큰 덩치에 비해 매우 세장하게 처리한 것이 특징이다. 두 손으로는 긴 줄기의 연꽃을 잡았고, 가슴에는 3줄로 늘어진 목걸이를 얇게 조각하여 佛身을 꾸몄다. 가슴에는 비스듬히 접어 주름 잡은 袪衣를 표현하였고, 원

쪽 무릎에는 발가락을 슬쩍 덮고 짧게 드리운 앞형의 소매자락이 표현되었다. 특히 좌협시 보살상은 상호의 표현과 주름은 본존과 우협시와 약간 다른 감각이 드러나 있는데, 차화원 도우 등 보조화승의 공동 작업에 따른 것으로 이 시기 불상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요소이다.

쌍계사 석가여래삼존상은 이 시기 다른 조각승의 작품에 비해 측면의 범량이 두터운 편인데, 이는 측면의 묵중한 중량감을 강조하여 안정감을 확보하려는 작자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구미 수다사목조아미타여래좌상(1649년), 진안 금당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1650년), 범어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1662년) 등 회장의 모든 시기의 조각 작품에서 찾을 수 있어 그가 추구한 조형미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삼존불상에서는 발원문과 후령통 등 복장의 핵심유물을 비롯한 경전류 등의 복장유물이 발견되었다. 후령통 중 우협시보살상의 것만 해포 조사하였다. 은제로 제작된 원통형으로써, 뚜껑에는 세장한 관 모양의 후혈을 가지고 있으며, 후령통 내부에 안립한 오보병을 감은 오색사를 후혈로 뽑아내어 후신을 감은 오색사와 감은 오색사와 결합시켰다. 후신의 네 면에는 사방경을 배치하고 오색사를 감아 고정시켰다. 후령통의 외부 밑바닥에는 圓鏡을 안치하고, 황초폭자로 감싸 묶고 謹封紙帶를 돌려 마감한 형태이다. 황초폭자 네 면에는 사방주를 방위색에 맞게 적었다. 후령통 외면 바닥에 둔 원경은 원래는 손잡이가 달린 ‘柄鏡’의 형태였던 것을 손잡이를 떼서 사용하였으며, 표면에는 산수문과 “天下一”이라는 명문이 양각되어 있다. 표면에 새겨진 문양이나 명문 등 양식적으로 볼 때 ‘倭鏡’으로 판단되며, 이는倭와의 교류를 통해 유입된 것으로 생각된다. 황초폭자로 완전히 감싼 후령통은 다시 몇 장의 주색인본다라니로 포장하고 마감하였다. 석가여래의 후령통은 우협시보살상의 그것과 형태적으로 거의 유사하지만, 좌협시 보살상은 원경 대신 方鏡을 사용한 점이 차이점이다.





그림 1 쌍계사 대웅전 전경



그림 2. 우협시



그림3. 본존



그림4. 좌협시

[석가여래 발원문]

1면

康熙四年乙巳季夏日 助緣文

2면 공란

3면

康熙四年乙巳季夏日 助緣文

康熙四年乙巳季夏日全羅

道珎島尖察山雙溪寺

伏像助緣文

願以此功德 普及於一切

我等汝衆生 皆共成伏道

城主景成翼

4면

一代教主釋迦如來大施主申仅色兩主

左補處大施主性印 比丘

右補處大施主太玄 比丘」

供養大施主金莫男 兩主」

供養大施主郭起男 兩主」

供養大施主處信 比丘」

5면

供養大施主日惠 比丘」

供養大施主立眞 比丘」

黃金大施主朴氏 保体」

布施大施主雪玉 比丘」

体金大施主處熙 比丘」

面金大施主礼仁 保体」

6면

体金大施主李己云 兩主」

普施大施主郭忠信 兩主」

布施大施主朴始海 兩主」

面金大施主覺悟 比丘」

面金大施主美生 兩主」

泥金大施主雪眼 比丘」

7면

黃金大施主蓮清 保体」

黃金大施主郭清江 兩主」

烏金大施主道習 比丘」

黃丹大施主楚豈 比丘」

灯燭大施主礼伊 保体」

腹藏大施主金还來 兩主」

8면

座臺大施主文信元 兩主」

唐荷葉大施主戒璘 比丘」

楞嚴經大施主義俊 比丘」

腹藏大施主雄侃 比丘」

腹藏大施主克英 比丘」

引燈大施主崔好善 兩主」

9면

腹藏大施主徐仇屯 兩主」

鋪團大施主宝堅 比丘  
鋪團大施主郭忠興兩主  
裹布大施主德厚 比丘  
裹布大施主自瓊 比丘  
裹布大施主勝敏 比丘

10면

喉玲桶施主朴以立 兩主  
鉄物施主金海信 兩主  
清蜜施主郭吹実 兩主  
朱紅施主覺信 比丘  
嚙脂施主李成發 保体  
腹藏施主先礼 兩主

11면

腹藏施主粉上 保体  
喉玲桶施主性云 比丘  
喉玲桶施主玉玲 比丘  
三糸施主幸宣 比丘  
鋪團施主從介 兩主  
法華經施主天心 比丘

12면

金剛經施主贊休 比丘  
金剛經施主模屹 比丘  
引灯施主朴五男 兩主  
清蜜施主朴命漢 兩主  
明鏡施主夢花 兩主  
鉄物施主鄭得仁 兩主

13면

揮帳施主朴千生 兩主  
袱布施主仅罔 比丘  
座臺施主權得精 兩主  
灯燭勸善紙施主贊悟比丘  
座臺施主朴毘伊 保体  
灯燭施主天輝 比丘

14면

灯燭施主明益 比丘」  
面金施主盧連(?)湜 兩主」  
點筆布施主裴幸得 兩主」  
點筆布施主文孟宗 兩主」  
點筆布施主韓日宗 保体」  
五藥施主姜湜 兩主」  
五色絲施主金應生 兩主」

15면

五宝施主盧鉄龜 兩主」  
揮帳施主金麗湜 兩主」  
明鏡施主能介 兩主」  
末醬施主金戒連 兩主」  
末醬施主朴孝奉 保体」

16면

緣化秩」  
證明勝浩」  
首畫員熙壯」  
道雨」

17면

宝海」  
敬信」  
玉淳」  
一訓」  
新學」  
呂尙」  
道澄」

18면

持殿 道元」  
行者勝吉」  
宗吉」  
冶匠崔得哲」  
道習 比丘」  
雪眼 比丘」

19면

清澤 比丘」  
神玉 比丘」  
應和 比丘」  
供養主雪心 比丘」  
日惠 比丘」  
處信 比丘」  
性環 比丘」

20면

饌物化主思淨 比丘」  
外別座學贊 比丘」  
內別座覺信 比丘」  
副化主宝雄 比丘」  
清風衲子大德(下)功(上)主」  
敬遠 比丘」

21면

山中大德  
大德義謹 大德守初」  
大德處愚 大德惠寬」  
大德廣海 大德覺圓」  
大禪師克和 大禪師義欽」  
本寺秩」

22면

信學 英允 哲文」  
性雲 性印 玉玲」  
太玄 覺悟 太瓊」  
處明 處日 印天」  
處熙 處閑 宗感」  
宗軒 學浩 幸宣」

23면

勝敏 勝宗 性心」  
智森 正律 德厚」  
信卓 戒文 日學」  
日機 模屹 勝輝」  
明湛 法敏 英敏」

太俊 道尖 勝悅」

24면

日熏 雪玉 尙卞」

自瓊 道克 道尙」

明卓 明照 道欣」

道式 道林 道叫」

道閑 道嘿 道應」

應暹 雪連 雪坦」

25면

道欽 清彥 清欽」

清念 清淳 清揖」

清益 清洽 清侃」

清特 清測 清哲」

清凜 清戒 清旭」

清衍」

26면

三剛勝海」

首僧思祐」

小者 者斤同 春立」

命立 雖然」

連士 起玄」

信命 聿奉」

27면

善明

28면

水陸助緣文」

水陸大施主梁繼湜 兩主」

佛事大施主妙尙 比丘」

供養大施主朴以龍 保体」

布施大施主任龔同 保体」

供養大施主郭仅敏 兩主」

29면

佛奠大施主日學 比丘」

佛奠大施主任俊敏 兩主」

華盖大施主勝輝 比丘」

大卓大施主處日 比丘」

步蓮大施主朴太成 兩主」

步蓮大施主戒文 比丘」

步蓮大施主李三春 兩主」

30면

步蓮大施主任次方 保体」

長幡施主日熏 比丘」

長幡施主從介 兩主」

長幡施主朴信日 兩主」

長幡施主朴宝陪 兩主」

長幡施主李光春 兩主」

31면

疏文紙施主宗軒 比丘」

壇枋紙施主學贊 比丘」

孤魂枋施主太俊 比丘」

柱書紙施主金德男 兩主」

32면

銀錢施主道尙 比丘」

紙衣施主法敏 比丘」

丹木施主勝海 比丘」

三象施主朴厚元 兩主」

[좌협시 보살상 발원문]

1면

康熙四年乙巳季夏日助緣文」

2면

康熙四年乙巳季夏日全羅右道」

珣島郡尖察山雙溪寺」

佛像助緣文」

3면

願以此功德 普及於一切」

我等汝衆生 皆共成佛道」

本郡城主景成翼」

一代教主釋迦如來大施主申仅色兩主」

4면

左補處大施主性印 比丘」

右補處大施主太玄 比丘」

供養大施主金莫男 兩主」

供養大施主郭起男 兩主

5면

供養大施主處信 比丘」

供養大施主日惠 比丘」

供養大施主立眞 比丘」

黃金大施主朴氏 保体」

6면

布施大施主雪玉 比丘」

体金大施主處熙 比丘」

面金大施主礼仁 保体」

体金大施主李己云 兩主」

7면

布施大施主雪玉 比丘」

体金大施主處熙 比丘」

面金大施主礼仁 保体」 ]

体金大施主李己云 兩主」

8면

普施大施主郭忠信 兩主」

布施大施主朴始海 兩主」

面金大施主覺悟 比丘」

面金大施主美生 兩主」

9면

泥金大施主雪眼 比丘」

黃金大施主蓮清 保体」

黃金大施主郭清江 兩主」

烏金大施主道習 比丘」

10면

黃丹大施主楚嘗 比丘」



灯燭大施主礼伊 保体」

腹藏大施主金還來 兩主」

座臺大施主文信元 兩主」

#### 11면

唐荷葉大施主戒璘 比丘」

楞嚴經大施主義俊 比丘」

腹藏大施主雄侃 比丘」

腹藏大施主克英 比丘」

#### 12면

引灯大施主崔好善 兩主」

腹藏大施主徐仇屯 兩主」

鋪團大施主宝堅 比丘

鋪團大施主郭忠興兩主

#### 13면

裹布大施主德厚 比丘」

裹布大施主自瓊 比丘」

裹布大施主勝敏 比丘」

喉玲桶施主朴以立 兩主」

#### 14면

鉄物施主金海信 兩主」

清蜜施主郭吹実 兩主」

朱紅施主覺信 比丘」

腹藏施主先礼 兩主」

#### 15면

腹藏施主粉上 保体」

喉玲桶施主性云 比丘」

喉玲桶施主玉玲 比丘」

三糸施主幸宣 比丘」

#### 16면

鋪團施主從介 兩主」

法華經施主天心 比丘」

金剛經施主贊休 比丘」

引灯施主朴五男 兩主」

金剛經施主模屹 比丘」

17면

清蜜施主朴命漢 兩主」

明鏡施主夢花 兩主」

鉄物施主鄭得仁 兩主」

揮帳施主朴千生 兩主」

18면

袱布施主仅罔 比丘」

座臺施主權得精 兩主」

座臺施主朴毘伊 保体」

灯燭勸善紙施主贊悟比丘」

19면

灯燭施主天輝 比丘」

灯燭施主明益 比丘」

面金施主盧連(?)湜 兩主」

點筆布施主裴幸得 兩主」

20면

點筆布施主文孟宗 兩主」

點筆布施主韓日宗 保体」

五藥施主姜湜 兩主」

五宝施主盧鉄龜 兩主」

五色絲施主金應生 兩主」

21면

揮帳施主金麗湜 兩主」

明鏡施主能介 兩主」

食塩施主朴駙翌伊兩主」

未醬施主金戒連 兩主」

22면

未醬施主朴孝奉 保体」

緣化秩」

證明勝浩」

23면

首畫員熙壯」

道雨」

宝海」

敬信」

24면

玉淳」

一訓」

新學」

道澄」

25면

呂尙」

持殿 道元」

行者勝吉」

宗吉」

26면

冶匠崔得哲」

清澤比丘

27면

神玉 比丘」

應和 比丘」

供養主雪心 比丘」

性環 比丘」

28면

饌物化主思淨 比丘」

外別座學贊 比丘」

內別座覺信 比丘」

副化主宝雄 比丘」

29면

清風衲子大功德主敬遠比丘」

山中大德

大德義謹 大德守初」

30면

大德處愚 大德惠寬」

大德廣海 大德覺圓」

大德海寬 大德天敏」

大禪師克和 大禪師義欽」

31면

大禪師猷克 大禪師克玄」

大禪師玉俊 大禪師印閑」

大禪師雲學 大禪師覺弘」

大禪師懸辨 大禪師妙蓮」

32면

本寺秩」

信學 英允 哲文」

性雲 性印 玉玲」

太玄 覺悟 太瓊」

33면

處信 日惠」

處明 處日 印天」

處熙 處閑 宗感」

宗軒 學浩 幸宣」

勝敏 勝宗 性心」

34면

智森 正律 德厚」

信卓 戒文 日學」

日機 模屹 勝輝」

明湛 法敏 英敏」

35면

太俊 道尖 勝悅」

日熏 雪玉 尙卞」

自瓊 道克 道尙」

道欣 道式 道林」

36면

道卍 道閑 道默」

道應 道習 應暹」

明照 雪連 明卓」

雪坦 清欽 清彥」

37면

清念 清淳 清揖」

清益 清洽 清侃」

清特」

三剛勝海」

首僧思祐」

38면

水陸助緣文」

水陸大施主梁繼湜 兩主」

佛事大施主妙尙 比丘」

供養大施主朴以龍 保体」

39면

布施大施主任念同 保体」

供養大施主郭義敏 兩主」

佛奠大施主任俊敏 兩主」

華盖大施主勝輝 比丘」

40면

大卓大施主處日 比丘」

步蓮大施主朴太成 兩主」

步蓮大施主戒文 比丘」

步蓮大施主李三春 兩主」

佛奠大施主日學 比丘」

41면

步蓮大施主道林 比丘」

長幡施主日熏 比丘」

長幡施主任次方 保体」

長幡施主朴信日 兩主」

[우협시 보살상 발원문]

1면

康熙四年乙巳季夏日」助緣文」

2면

康熙四年乙巳季夏日全羅道瑯島郡」

尖察山雙溪寺 佛像助緣文」

願以此功德 普及於一切」

我等汝衆生 皆共成佛道」

本郡城主景成翼」

一代教主釋迦如來大施主申義色兩主」

3면

左補處大施主性印 比丘」

右補處大施主太玄 比丘」

供養大施主金莫男 兩主」

供養大施主郭起男 兩主」

供養大施主處信 比丘」

供養大施主日惠 比丘」

4면

供養大施主立眞 比丘」

黃金大施主朴氏 保体」

布施大施主雪玉 比丘」

体金大施主處熙 比丘」

面金大施主礼仁 保体」

体金大施主李己云 兩主」

5면

緣化秩」

證明勝浩」

首畫員熙壯」

道雨」

宝海」

敬信」

6면

玉淳」

一訓」

新學」

呂尙」

道澄」

持殿 道元」

7면

小者勝吉」

宗吉」

冶匠崔得哲」

道習」

雪眼」

清擇」

8면

神玉」

應和」

供養主雪心」

日惠」

處信」

性環」

9면

饌物化主思淨」

外別座學贊」

內別座覺信」

副化主宝雄」

清風衲子大功德主」

敬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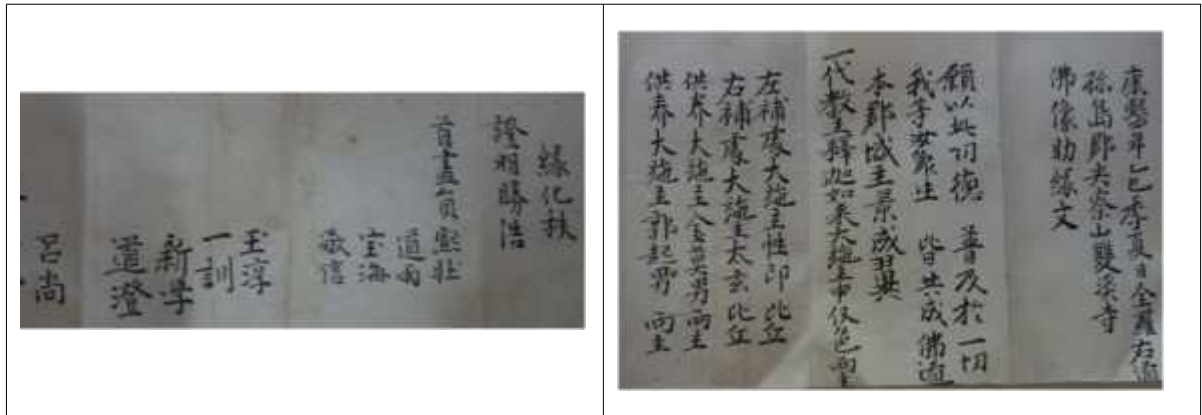
10면 공란

1. 釋迦牟尼佛坐像 造成發願文

白紙墨書, 절첩본 4張 32.5面, 1면: 15.0×10.0cm 전체: 15.0×320.5cm

表題 康熙四年乙巳季夏日 助緣文





康熙四年乙巳季夏<sup>86)</sup>日

助緣文

康熙四年乙巳季夏日全羅

道珣島尖察山雙溪寺

佛<sup>87)</sup>像助緣文

願以此功德 普及於一切

我等汝衆生 皆共成佛道

城主景成翼<sup>88)</sup>

一代教主釋<sup>89)</sup>迦如來大施主申儀<sup>90)</sup>色兩主

左補處大施主性印 比丘

右補處大施主太玄<sup>91)</sup> 比丘

供養大施主金莫男 兩主

供養大施主郭起男 兩主

供養大施主處信<sup>92)</sup> 比丘

供養大施主日惠 比丘

供養大施主立眞 兩主

黃金大施主朴氏 保体

布施大施主雪玉 比丘

体金大施主處熙 比丘

面金大施主礼仁 保体

86) 康熙四年乙巳季夏: 1665.6.

87) 佛: 1 + 天.

88) 景成翼: 珍島郡守 1665.2.15~1666.9.11

89) 釋: 释.

90) 儀: 1 + 又.

91) 太玄: 1677.4. 쌍계사 법당 상량문(本寺.施主)

92) 處信: 淸潭處信. 略譜 10世20番 참조. 1677.4. 쌍계사 법당 상량문(本寺. 嘉善)



体金大施主李起云	兩主
普施大施主郭忠信	兩主
布施大施主朴始海	兩主
面金大施主覺悟	比丘
面金大施主美 <sup>93)</sup> 生	兩主
泥金大施主雪眼	比丘
黃金大施主蓮清	兩主
黃金大施主郭清江	兩主
烏金大施主道習	比丘
黃丹大施主楚嘗 <sup>94)</sup>	比丘
燈 <sup>95)</sup> 燭大施主禮 <sup>96)</sup> 伊	保体
腹藏大施主金還 <sup>97)</sup> 來	兩主
座臺大施主文信元	兩主
唐荷葉大施主戒璘	比丘
楞嚴經大施主義俊 <sup>98)</sup>	比丘
腹藏大施主雄侃	比丘
腹藏大施主克英	比丘
引燈大施主崔好善	兩主
腹藏大施主徐仇屯	兩主
鋪團大施主宝堅	比丘
鋪團大施主郭忠興 <sup>99)</sup>	兩主
褰布大施主德厚 <sup>100)</sup>	比丘
褰布大施主自瓊	比丘
褰布大施主勝敏	比丘
喉玲桶施主朴以立	兩主
鐵物施主金海信	兩主
清蜜施主郭吹實 <sup>101)</sup>	兩主
朱紅施主覺信	比丘

---

93) 美: 美

94) 楚嘗: 1677.4. 쌍계사 법당 상량문(本寺)

95) 燈: 灯

96) 禮: 礼

97) 還: 还

98) 義俊: 雲坡義俊, 略譜 11世13番 참조

99) 興: 興

100) 德厚: 1677.4. 쌍계사 법당 상량문(本寺, 施主)

101) 實: 突

嚙脂施主李成發	保体
腹藏施主先礼	兩主
腹藏施主粉上	保体
喉玲桶施主性云	比丘
喉玲桶施主玉玲 <sup>102)</sup>	比丘
三泉施主幸宣	比丘
鋪團施主從 <sup>103)</sup> 介	兩主
法華經施主天心	比丘
金剛經施主贅休	比丘
金剛經施主模屹	比丘
引燈施主朴五男	兩主
清蜜施主朴命 <sup>104)</sup> 漢	兩主
明鏡施主夢花	兩主
鐵物施主鄭得仁	兩主
揮帳施主朴千生	兩主
袱布施主僅問	比丘
座臺施主權得精	兩主
燈燭勸善紙施主贅悟	比丘
座臺施主朴靛 <sup>105)</sup> 伊	保体
灯燭施主天輝	比丘
燈燭施主明益 <sup>106)</sup>	比丘
面金施主盧迂湜	兩主
點筆布施主裴幸得	兩主
點筆布施主文孟宗	兩主
點筆布施主韓日宗	保体
五藥施主姜湜	兩主
五色絲施主金應生	兩主
五宝施主盧鐵 <sup>107)</sup> 龜	兩主
揮帳施主金麗湜	兩主
明鏡施主能介	兩主
食塩施主朴驢 <sup>108)</sup> 芻伊	兩主

102) 玉玲: 廣濟玉玲. 略譜 10世5番 참조

103) 從: 從

104) 命: 命

105) 靛: 問. ㄹ. ㅓ. ㅓ.

106) 明益: 1677.4. 쌍계사 법당 상량문(本寺)

107) 鐵: 鐵

末醬施主金戒連      兩主  
 末醬施主朴孝奉      保休  
     緣化秩  
 證明勝浩  
 首畫員熙壯<sup>109)</sup>  
     道雨<sup>110)</sup>  
     宝海<sup>111)</sup>  
     敬信<sup>112)</sup>  
     玉淳<sup>113)</sup>  
     一訓<sup>114)</sup>  
     新學<sup>115)</sup>  
     呂尙<sup>116)</sup>  
     道澄<sup>117)</sup>  
 持殿道元  
     行者勝吉  
         宗吉  
 冶匠崔得哲  
     道習      比丘  
     雪眼      比丘  
     淸澤<sup>118)</sup> 比丘  
     神玉      比丘  
     應和<sup>119)</sup> 比丘  
 供養主雪心<sup>120)</sup> 比丘  
     日惠      比丘  
     處信      比丘

---

108) 驢: 駟

109) 熙壯: 熙藏, 希藏. 조각승. 활동기간 1639~1661. 추가 1665

110) 道雨: 道祐. 조각승. 활동기간 1633~1664. 추가 1665

111) 宝海: 普海. 조각승. 활동기간 1646~1680

112) 敬信: 조각승. 활동기간 1655~1664. 추가 1665

113) 玉淳: 조각승. 활동기간 1649~1655. 추가 1665

114) 一訓: 一熏. 조각승. 활동기간 1660~1665

115) 新學: 神學. 조각승. 활동기간 1661. 추가 1665

116) 呂尙: 조각승. 첫등장

117) 道澄: 조각승. 첫등장

118) 淸澤: 淸擇. 1677.4. 쌍계사 법당 상량문(本寺. 施主)

119) 應和: 朽木應和. 略譜 11世19番 참조

120) 雪心: 1677.4. 쌍계사 법당 상량문(化主)

性環 比丘  
 饌物化主思淨 比丘  
 外別座學贅 比丘  
 內別座覺信 比丘  
 副化主宝雄 比丘  
 清風衲子大功德<sup>121)</sup>主  
 敬遠 比丘  
 山中大德  
 大德義諶<sup>122)</sup> 大德守初<sup>123)</sup>  
 大德處愚<sup>124)</sup> 大德惠寬<sup>125)</sup>  
 大德廣海<sup>126)</sup> 大德覺圓<sup>127)</sup>  
 大德海寬 大德天敏<sup>128)</sup>  
 大德克和 大禪師義欽<sup>129)</sup>  
 大禪師猷克<sup>130)</sup> 大禪師克玄<sup>131)</sup>  
 大禪師玉俊<sup>132)</sup> 大禪師印閑<sup>133)</sup>  
 大禪師雲學<sup>134)</sup> 大禪玄卞<sup>135)</sup>  
 大禪師覺弘 大禪師妙蓮  
 本寺秩  
 信學 英允 哲文  
 性雲 性印 玉玲  
 太玄 覺悟 太瓊  
 處明<sup>136)</sup> 處日 印天<sup>137)</sup>

121) 功德: 原文은 德功이나 上下 표시로 수정

122) 義諶: 楓潭義諶. 1592~1665.3.8. 금강산 정양사에서 入寂. 略譜 9世11番 참조.

123) 守初: 翠微守初. 1590~1668. 略譜 9世19番 참조

124) 處愚: 葆光處愚. 略譜 9世3番 참조

125) 惠寬: 龜嶺惠寬. 慧觀. 略譜 10世16番 참조

126) 廣海: 雙運廣海. 略譜 9世4番 참조

127) 覺圓: 寒梅覺圓. 略譜 9世 10番 참조

128) 天敏: 略譜 9世27番 참조

129) 義欽: 松坡義欽. 略譜 11世1番 참조

130) 猷克: 唯克. 略譜 9世26番 참조

131) 克玄: 水月克玄. 略譜 9世9番 참조

132) 玉俊: 雲岩玉俊. 略譜 11世11番 참조

133) 印閑: 清湖印閑. 略譜 10世8番 참조

134) 雲學: 翠岩雲學. 略譜 10世7番 참조

135) 玄卞: 枕肱懸辯. 1616-1684. 略譜 9世2番 참조

136) 處明: 雲岩處明. 略譜 10世24番 참조

處熙	處閑	宗感
宗軒	學浩	幸宣
勝敏	勝宗	性心
智森 <sup>138)</sup>	正律	德厚
信卓	戒文 <sup>139)</sup>	日學
日機	模屹	勝輝
明湛	法敏 <sup>140)</sup>	英敏
太俊 <sup>141)</sup>	道尖	勝悅 <sup>142)</sup>
日熏	雪玉	尙卞
自瓊	道克	道尙
明卓	明照	道欣 <sup>143)</sup>
道式	道林 <sup>144)</sup>	道嚴 <sup>145)</sup>
道閑 <sup>146)</sup>	道嘿 <sup>147)</sup>	道應
應暹 <sup>148)</sup>	雪連	雪坦
道欽	清彥	清欽 <sup>149)</sup>
清念	清淳 <sup>150)</sup>	清揖 <sup>151)</sup>
清益 <sup>152)</sup>	清洽	清侃 <sup>153)</sup>
清特	清測	清哲
清凜	清戒	清旭
清衍		
三綱勝海		

---

137) 印天: 1677.4. 쌍계사 법당 상량문(本寺. 大施主. 上樑布施主. 嘉善)

138) 智森: 太眞智森. 略譜 10世21番 참조

139) 戒文: 花谷戒文. 略譜 11世23番 참조

140) 法敏: 雲溪法敏. 略譜 10世18番 참조

141) 太俊: 1677.4. 쌍계사 법당 상량문(本寺. 施主)

142) 勝悅: 1677.4. 쌍계사 법당 상량문(本寺)

143) 道欣: 1677.4. 쌍계사 법당 상량문(本寺. 布施主)

144) 道林: 略譜 11世22番 참조. 1677.4. 쌍계사 법당 상량문(本寺)

145) 嚴: 卍

146) 道閑: 略譜 11世12番 참조

147) 道嘿: 1677.4. 쌍계사 법당 상량문(供養施主)

148) 應暹: 1677.4. 쌍계사 법당 상량문(本寺)

149) 清欽: 略譜 10世14番 참조

150) 清淳: 霧霞清淳. 清順. 略譜 9世25番 참조

151) 清揖: 1677.4. 쌍계사 법당 상량문(本寺)

152) 清益: 1720.8. 쌍계사 중종 개주(山中老德)

153) 清侃: 凌虛清侃. 略譜 9世17番 참조

首僧思祐

小者 者斤同 春立  
  尙立  雖然  
  士連  起玄  
  信命  忞奉  
  善明

水陸助緣文

水陸大施主梁繼<sup>154)</sup>湜 兩主  
佛事大施主妙尙  比丘  
供養大施主朴以龍  保体  
布施大施主任佺<sup>155)</sup>同  保体  
供養大施主郭儀敏  兩主  
佛奠大施主日學  比丘  
佛奠大施主任俊敏  兩主  
華盖大施主勝輝  比丘  
大卓大施主處日  比丘  
步蓮大施主朴太成  兩主  
步蓮大施主戒文  比丘  
步蓮大施主李三春  兩主  
步蓮大施主任次方  兩主  
長幡施主日熏  比丘  
長幡施主從介  兩主  
長幡施主朴信日  兩主  
長幡施主朴宝陪  兩主  
長幡施主李光春  兩主  
䟽文紙施主宗軒  比丘  
壇枋紙施主學贅  比丘  
孤魂枋施主太俊  比丘  
柱書紙施主金德男  兩主  
銀錢施主道尙  比丘  
紙衣施主法敏  比丘  
丹木施主勝海  比丘  
三象施主朴厚元  兩主

2. 左挾侍菩薩坐像 造成發願文

---

154) 繼: 繼

155) 佺: 𨾏

白紙墨書, 절첩본 5張 40面, 1면: 14.1×7.2cm 전체: 14.1×290.5cm



康熙四年乙巳季夏日助緣文

康熙四年乙巳季夏日全羅右道

珣島郡尖察山雙溪寺

佛像助緣文

願以此功德 普及於一切

我等汝衆生 皆共成佛道

本郡城主景成翼

一代教主釋迦如來大施主申儀色兩主

左補處大施主性印比丘

右補處大施主太玄比丘

供養大施主金莫男兩主

供養大施主郭起男兩主

供養大施主處信 比丘

供養大施主日惠 比丘

供養大施主立眞 兩主

黃金大施主朴氏 保体

布施大施主雪玉比丘

体金大施主處熙比丘

面金大施主礼仁保体

体金大施主李起云兩主

普施大施主郭忠信兩主

普施大施主朴始海兩主

面金大施主覺悟比丘

面金大施主美生兩主

泥金大施主雪眼 比丘  
黃金大施主蓮清 兩主  
黃金大施主郭清江兩主  
烏金大施主道習 比丘  
黃丹大施主楚嘗 比丘  
灯燭大施主礼伊 保体  
腹藏大施主金還來兩主  
座臺大施主文信元兩主  
唐荷葉大施主戒磷比丘  
楞嚴經大施主義俊比丘  
腹藏大施主雄侃 比丘  
腹藏大施主克英 比丘  
引灯施主崔好善 兩主  
腹藏大施主徐仇屯兩主  
鋪團大施主宝堅 比丘  
鋪團大施主郭忠吳兩主  
裹布大施主德厚 比丘  
裹布大施主自瓊 比丘  
裹布大施主勝敏 比丘  
喉玲桶大施主朴以立兩主  
鐵物施主金海信兩主  
清蜜施主郭吹實<sup>156)</sup>兩主  
朱紅施主覺信 比丘  
腹藏施主先礼 兩主  
腹藏施主枌上 保体  
喉玲桶施主性云比丘  
喉玲桶施主玉玲比丘  
三象施主幸宣 比丘  
鋪團施主終介 兩主  
法華經施主天心比丘  
金剛經施主贅休比丘  
引燈施主朴五男兩主  
金剛經施主模屹比丘  
清蜜施主朴命<sup>157)</sup>漢兩主

---

156) 實: 矣.

157) 命: 禽.



明鏡施主夢花 兩主  
鐵物施主鄭得仁兩主  
揮帳施主朴千生兩主  
袱布施主 儀<sup>158)</sup>罔比丘  
座臺施主權得精兩主  
座臺施主朴昞伊保体  
灯燭勸善紙施主贅悟比丘  
灯燭施主天輝 比丘  
灯燭施主明益 比丘  
面金施主盧迂湜兩主  
點筆布施主裴幸得兩主  
點筆布施主文孟宗兩主  
點筆布施主韓日宗保体  
五藥施主姜湜 兩主  
五宝施主盧鐵龜 兩主  
五色絲施主金應生兩主  
揮帳施主金麗湜 兩主  
明鏡施主能介 兩主  
食塩施主朴駟芻伊兩主  
末醬施主金戒連 兩主  
末醬施主朴孝奉 保体  
緣化秩  
證明勝浩  
首畫員熙壯  
道雨  
宝海  
敬信  
玉淳  
一訓  
新學  
道澄  
呂尙  
持殿道元  
行者勝吉  
宗吉

---

158) 儀: 1+義. 仅.

冶匠崔得哲  
 清澤<sup>159</sup>比丘  
 神玉比丘  
 應和比丘  
 供養主雪心比丘  
 性環<sup>160</sup>比丘  
 饌物化主思淨比丘  
 外別座學贅 比丘  
 內別座覺信 比丘  
 副化主宝雄 比丘  
 清風衲子大功德主敬遠比丘  
 山中大德  
 大德義謹 大德守初  
 大德處愚 大德惠寬  
 大德廣海 大德覺圓  
 大德海寬 大德天敏  
 大禪師克和 大禪師義欽  
 大禪師猷克 大禪師克玄  
 大禪師玉俊 大禪師印閑  
 大禪師雲學 大禪師覺弘  
 大禪師懸辨 大禪師妙蓮  
 本寺秩  
 信學 英允 哲文  
 性雲 性印 玉玲  
 太玄 覺悟 太瓊  
 處信 日惠  
 處明 處日 印天  
 處熙 處閑 宗感  
 宗軒 學浩 幸宣  
 勝敏 勝宗 性心  
 智森 正律 德厚  
 信卓 戒文 日學  
 日機 模屹 勝輝  
 明湛 法敏 英敏

---

159) 澤: 泽

160) 環: 王+衆.

太俊 道尖 勝悅  
日熏 雪玉 尙卞  
自瓊 道克 道尙  
道欣 道式 道林  
道嚴<sup>161)</sup>道閑 道默  
道應 道習 應遲  
明照 雪連 明卓  
雪坦 清欽 清彥  
清念 清淳 清揖  
清益 清洽 清侃  
清特

三綱勝海

首僧思祐

水陸助緣文

水陸大施主梁繼湜兩主

佛事大施主妙尙比丘

供養大施主朴以龍保体

普施大施主任念同保体

供養大施主郭義敏兩主

佛<sup>162)</sup>奠大施主任俊敏兩主

華盖大施主勝輝 比丘

大卓大施主處日 比丘

步蓮大施主朴太成兩主

步蓮大施主戒文 比丘

步蓮大施主李三春兩主

佛奠大施主日學 比丘

步蓮大施主道林 比丘

長幡施主日熏 比丘

長幡施主任次方 保体

長幡施主朴信日 兩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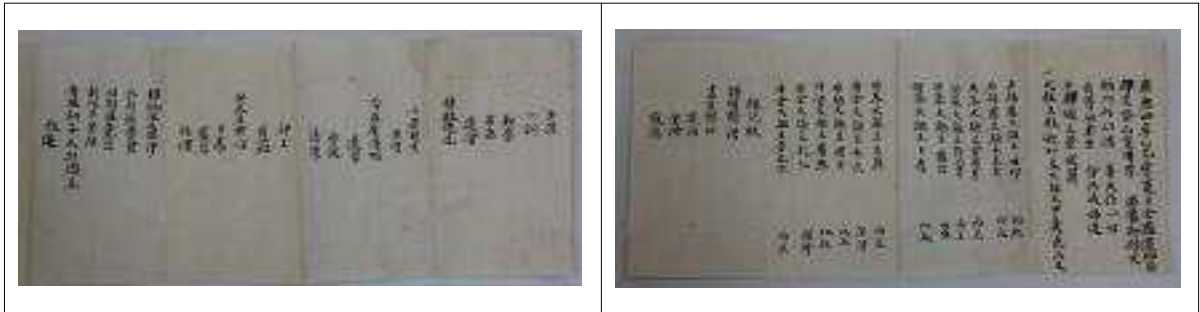
### 3. 右挾侍菩薩坐像 造成發願文

---

161) 嚴: 卍.

162) 佛: 卍+天.

白紙墨書, 절첩본 1張 10面, 1면: 15.6×9.1cm 전체: 15.6×90.8cm



康熙四年乙巳季夏日

助緣文

康熙四年乙巳季夏日全羅道瓊島

郡尖察山雙溪寺 佛像助緣文

願以此功德 普及於一切

我等汝衆生 皆共成佛道

本郡城主景成翼

一代教主釋<sup>163)</sup>迦如來大施主申義色兩主

左補處大施主性印 比丘

右補處大施主太玄 比丘

供養大施主金莫男 兩主

供養大施主郭己男 兩主

供養大施主處信 比丘

供養大施主日惠 比丘

供養大施主立眞 兩主

黃金大施主朴氏 保体

布施大施主雪玉 比丘

体金大施主處熙 比丘

面金大施主礼仁 保体

体金大施主李己云 兩主

緣化秩

證明勝浩

畫員熙壯

道雨

宝海

敬信

163) 釋: 采+又.

玉淳  
 一訓  
 新學  
 呂尙  
 道澄  
 持殿道元  
 小者勝吉  
 宗吉  
 冶匠崔得哲  
 道習  
 雪眼  
 淸擇  
 神玉  
 應和  
 供養主雪心  
 日憲  
 處信  
 性環  
 饌物化主思淨  
 外別座學贅  
 內別座覺信  
 副化主宝雄  
 淸風衲子大功德主  
 敬遠

조성발원문 기록을 통해 조각승 회장 등 9명의 조각승이 1665년 6월에 완성한 석가여래삼존상으로 확인되었다. 수조각승 회장은 보조 조각승 시기인 1630~40년대에 청헌, 승일 등 현진·청헌파의 주요 조각승들을 따라 수련기를 거쳤으며, 1640년대 후반부터 1660년대 중반까지 주로 전라도 지역을 거점으로 활발한 조상 활동을 전개하였던 장인으로 이해되고 있다.

## □ (복장유물)

### ○ 내용 및 특징

『진도 쌍계사 대웅전 목조삼존불좌상』의 복장 유물가운데 확인된 전적류 유물은 「발원문」을 포함하여 표지가 없는 책자(선장본) 형태로 발견된 『묘법연화경』과

일부 낙장본(落張本)의 『묘법연화경』과 『금강반야바라밀경』 그리고 낱장의 진언 등이다.

불경 가운데 간행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 ① 1417년(영락 15), 전라도 고창 문수사, 묘법연화경 권1-3
- ② 1493년(홍치 6), 충청 홍산 무량사, 묘법연화경 권5-7
- ③ 1570년(융경 4), 전라도 담양 폭포암, 묘법연화경 권1-7
- ④ 1633년(승정 6), 전라도 해남 대흥사, 묘법연화경 권1
- ⑤ 1646년(순치 3), 전라도 해남 대흥사, 금강반야바라밀경(낱장)
- ⑥ 1653년(순치 10), 전라도 해남 대흥사, 묘법연화경 권1(낱장)

임진란 이전 간행된 판본으로는 1417년 문수사 판각본과 매월당(梅月堂) 김시습(金時習, 1435~1493)이 죽기 직전에 남긴 발문(皇明弘治六年歲在癸丑仲春 贅世翁金悅卿謹跋)이 실려 있는 1493년 무량사 판본 그리고 1570년 담양 폭포암 판본이 있다. 그 중 김시습의 발문이 남아 있는 자료는 현재 국내에 남아 있는 판본이 희소한 자료에 속한다. 그밖에 1633년 해남 대흥사 판본, 1646년 해남 대흥사 판본 금강경, 1653년 해남 대흥사 판본 범화경 등은 모두 임진난 이후에 간행된 책들이다. 따라서 『진도 쌍계사 대웅전 목조삼존불좌상』에서 확인되는 자료 가운데 시대가 앞서는 자료로서 유일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아 별도로 지정할만한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진도 쌍계사 대웅전 목조삼존불좌상』의 복장 유물에 대한 내용과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腹藏		主佛(釋迦牟尼)	左補處 (文殊)	右補處 (普賢)
發願文	1665.6	1매	1매	1매
	改金 1961.3.1	1매		
喉玲桶	1665.6	1점	1점	1점
觀世音菩薩 寶齒眞言 外	朱印	317매	301매	462매
	墨印	1,229매	1,042매	1,199매
	계	1,546매	1,343매	1,691매
妙法蓮華經	戒環解 10行20字 高敞 文殊寺 1417	卷1-3 (1冊)		
	戒環解 10行18字 甲寅字本 미상	卷6-7 (1冊)	卷2-3 (1冊)	
	戒環解 10行18字 鴻山 無量寺 1493.5		卷4-5 (1冊)	卷5-7 (1冊)
	戒環解 10行20字 潭陽 龍泉寺 1570.4.	卷1-7 (2冊)		
	戒環解 10行18字 海南 大興寺 1633.6.			卷1 (1冊)
	戒環解 8行13字 海南 大興寺 1653.7	낱장 322매	낱장 145매	낱장 142매
金剛經	鳩摩羅什譯 8行17字 海南 大興寺 1646.12.	낱장 103매		

\* 복장유물 합계 : 5,370점(전적[묘법연화경 등] 8책, 발원문 및 후령통 7, 다라니  
진언 및 낱장 경전 5,355매)

# 1. 석가모니불

## 1) 發願文

康熙四年乙巳季夏日助緣文/ [編著者未詳]. - 筆寫本. - 珍島: 雙溪寺, 康熙4年(1665).

不分卷1冊(折帖本): 15.0×7.5(cm) / 총길이 320.0cm

表題: 康熙四年乙巳季夏日助緣文

卷首: 康熙四年乙巳季夏日全羅右道珍島郡尖察山雙溪寺佛像助緣文



석가모니불 조연문 / 표제

본존불에 있는 발원문은 길이 320cm, 세로 15cm이며, 1면 6행씩 구성되어 있다. 표지에는 2행으로 ‘康熙四年乙巳季夏日 / 助緣文’이라 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1665년(강희 4, 숙종 6)에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그 전문이다.

康熙四年乙巳季夏日全羅 / 道珍島尖察山雙溪寺 / 伏<sup>164</sup>像助緣文 / 願以此功德 普及於一切 / 我等汝衆生 皆共成伏道 / 城主景成翼<sup>165</sup>

一代教主釋<sup>166</sup>迦如來大施主申僅<sup>167</sup>色兩主 / 左補處大施主性印 比丘 / 右補處大施主太玄<sup>168</sup> 比丘 / 供養大施主金莫男 兩主 / 供養大施主郭起男 兩主 / 供養大施主處信<sup>169</sup> 比丘 / 供養大施主日惠 比丘 / 供養大施主立眞 兩主 / 黃金大施主朴氏 保体 / 布施大施主雪玉 比丘 / 体金大施主處熙 比丘 / 面金大施主礼仁 保体

164) 伏 : 佛

165) 景成翼 : 珍島郡守 1665. 2. 15~1666. 9. 11

166) 釋 : 釋

167) 僅 : 儀

168) 太玄 : 1677. 4. 쌍계사 법당 상량문(本寺.施主)

169) 處信 : 淸潭處信. 취미수초의 제자(부후파). 1677. 4. 쌍계사 법당 상량문(本寺. 嘉善)



体金大施主李起云 兩主 / 普施大施主郭忠信 兩主 / 布施大施主朴始海 兩主 / 面金  
 大施主覺悟 比丘 / 面金大施主美<sup>170)</sup>生 兩主 / 泥金大施主雪眼 比丘  
 黃金大施主蓮清 兩主 / 黃金大施主郭清江 兩主 / 烏金大施主道習 比丘 / 黃丹大施  
 主楚嘗<sup>171)</sup> 比丘 / 灯<sup>172)</sup>燭大施主礼<sup>173)</sup>伊 保体 / 腹藏大施主金還<sup>174)</sup>來 兩主  
 座臺大施主文信元 兩主 / 唐荷葉大施主戒璘 比丘 / 楞嚴經大施主義俊<sup>175)</sup> 比丘 /  
 腹藏大施主雄侃 比丘 / 腹藏大施主克英 比丘 / 引燈大施主崔好善 兩主  
 腹藏大施主徐仇屯 兩主 / 鋪團大施主宝堅 比丘 / 鋪團大施主郭忠吳<sup>176)</sup> 兩主 / 褁  
 布大施主德厚<sup>177)</sup> 比丘 / 褁布大施主自瓊 比丘 / 褁布大施主勝敏 比丘  
 喉玲桶施主朴以立 兩主 / 鐵物施主金海信 兩主 / 清蜜施主郭吹突<sup>178)</sup> 兩主 / 朱紅  
 施主覺信 比丘 / 嚙脂施主李成發 保体 / 腹藏施主先礼 兩主  
 腹藏施主粉上 保体 / 喉玲桶施主性云 比丘 / 喉玲桶施主玉玲<sup>179)</sup> 比丘 / 三泉施主  
 幸宣 比丘 / 鋪團施主從<sup>180)</sup>介 兩主 / 法華經施主天心 比丘  
 金剛經施主贅休 比丘 / 金剛經施主模屹 比丘 / 引灯施主朴五男 兩主 / 清蜜施主朴  
 禽<sup>181)</sup>漢 兩主 / 明鏡施主夢花 兩主 / 鐵物施主鄭得仁 兩主  
 揮帳施主朴千生 兩主 / 袱布施主僅罔 比丘 / 座臺施主權得精 兩主 / 灯燭勸善紙施  
 主贅悟 比丘 / 座臺施主朴靛<sup>182)</sup>伊 保体 / 灯燭施主天輝 比丘  
 灯燭施主明益<sup>183)</sup> 比丘 / 面金施主盧迂湜 兩主 / 點筆布施主裴幸得 兩主 / 點筆布  
 施主文孟宗 兩主 / 點筆布施主韓日宗 保体 / 五藥施主姜湜 兩主  
 五色絲施主金應生 兩主 / 五宝施主盧鐵<sup>184)</sup>龜 兩主 / 揮帳施主金麗湜 兩主 / 明鏡  
 施主能介 兩主 / 食塩施主朴駟<sup>185)</sup>芻伊 兩主 / 末醬施主金戒連 兩主 / 末醬施主朴  
 孝奉 保体

170) 美：美

171) 楚嘗：1677. 4. 쌍계사 법당 상량문(本寺)

172) 灯：燈

173) 礼：禮

174) 还：還

175) 義俊：雲坡義俊. 편영언기의 3세손(청허파).

176) 吳：興

177) 德厚：1677.4. 쌍계사 법당 상량문(本寺. 施主)

178) 突：實

179) 玉玲：廣濟玉玲. 소요태능의 손제자(청허파).

180) 從：從

181) 禽：命

182) 靛：靛. 靛. 靛. 靛. 靛

183) 明益：1677. 4. 쌍계사 법당 상량문(本寺)

184) 鐵：鐵

185) 駟：驢

緣化秩

證明 勝浩

首畫員 熙壯 / 道雨 / 宝海 / 敬信 / 玉淳 / 一訓 / 新學 / 呂尙 / 道澄

持殿 道元

行者 勝吉 / 宗吉

冶匠 崔得哲 / 道習 比丘 / 雪眼 比丘 / 清澤<sup>186)</sup> 比丘 / 神玉 比丘 / 應和<sup>187)</sup> 比丘

供養主 雪心<sup>188)</sup> 比丘 / 日惠 比丘 / 處信 比丘 / 性環 比丘

饌物化主 思淨 比丘

外別座 學贅 比丘

內別座 覺信 比丘

副化主 宝雄 比丘

清風衲子大功德<sup>189)</sup>主 敬遠 比丘

山中 大德

大德義謹 大德守初 大德處愚<sup>190)</sup> 大德惠寬<sup>191)</sup> 大德廣海<sup>192)</sup> 大德覺圓<sup>193)</sup> 大德海寬  
大德天敏<sup>194)</sup> 大德克和 大禪師義欽<sup>195)</sup> 大禪師猷克<sup>196)</sup> 大禪師克玄<sup>197)</sup> 大禪師玉  
俊<sup>198)</sup> 大禪師印閑<sup>199)</sup> 大禪師雲學<sup>200)</sup> 大禪師玄卞 大禪師覺弘 大禪師妙蓮

本寺秩

信學 英允 哲文 性雲 性印 玉玲 太玄 覺悟 太瓊 處明<sup>201)</sup> 處日 印天<sup>202)</sup> 處熙 處閑  
宗感 宗軒 學浩 幸宣 勝敏 勝宗 性心 智森<sup>203)</sup> 正律 德厚 信卓 戒文<sup>204)</sup> 日學 日機

186) 清澤 : 清澤. 1677. 4. 쌍계사 법당 상량문(本寺. 施主)

187) 應和 : 朽木應和. 취미수초의 손제자(부휴과).

188) 雪心 : 1677. 4. 쌍계사 법당 상량문(化主)

189) 功德 : 原文은 德功.

190) 處愚 : 葆光處愚. 소요태능의 제자(청허과).

191) 惠寬 : 龜嶺惠寬. 慧觀. 靜觀一禪의 손제자(청허과).

192) 廣海 : 雙運廣海. 소요태능의 제자(청허과).

193) 覺圓 : 寒梅覺圓. 소요태능의 제자(청허과).

194) 天敏 : 벽암각성의 제자(부휴과).

195) 義欽 : 松坡義欽. 송운유정의 손제자(청허과).

196) 猷克 : 唯克. 벽암각성의 제자(부휴과).

197) 克玄 : 水月克玄. 소요태능의 제자(청허과).

198) 玉俊 : 雲岩玉俊. 풍담의심의 손제자(청허과).

199) 印閑 : 淸湖印閑. 소요태능의 손제자(청허과).

200) 雲學 : 翠岩雲學. 소요태능의 손제자(청허과).

201) 處明 : 雲岩處明. 벽암각성의 손제자(부휴과).

202) 印天 : 1677. 4. 쌍계사 법당 상량문(本寺. 大施主. 上樑布施主. 嘉善)

203) 智森 : 太眞智森. 벽암각성의 손제자(부휴과).

模屹 勝輝 明湛 法敏<sup>205)</sup> 英敏 太俊<sup>206)</sup> 道尖 勝悅<sup>207)</sup> 日熏 雪玉 尙卞 自瓊 道克 道尙 明卓 明照 道欣<sup>208)</sup> 道式 道林<sup>209)</sup> 道卍<sup>210)</sup> 道閑<sup>211)</sup> 道嘿<sup>212)</sup> 道應 應暹<sup>213)</sup> 雪連 雪坦 道欽 清彥 清欽<sup>214)</sup> 清念 清淳<sup>215)</sup> 清揖<sup>216)</sup> 清益<sup>217)</sup> 清洽 清侃<sup>218)</sup> 清特 清測 清哲 清凜 清戒 清旭 清衍

三綱勝海

首僧思祐

小者 者斤同 春立 禽立 雖然 士連 起玄 信禽 忞奉 善明

水陸助緣文

水陸大施主梁繼<sup>219)</sup>湜 兩主 / 伏事大施主妙尙 比丘 / 供養大施主朴以龍 保体 / 布施大施主任畚<sup>220)</sup>同 保体 / 供養大施主郭僅敏 兩主

伏奠大施主日學 比丘 / 伏奠大施主任俊敏 兩主 / 華盖大施主勝輝 比丘 / 大卓大施主處日 比丘 / 步蓮大施主朴太成 兩主 / 步蓮大施主戒文 比丘 / 步蓮大施主李三春 兩主

步蓮大施主任次方 兩主 / 長幡施主日熏 比丘 / 長幡施主從介 兩主 / 長幡施主朴信日 兩主 / 長幡施主朴宝陪 兩主 / 長幡施主李光春 兩主

䟽文紙施主宗軒 比丘 / 壇枋紙施主學贅 比丘 / 孤魂枋施主太俊 比丘 / 柱書紙施主金德男 兩主 / 銀錢施主道尙 比丘 / 紙衣施主法敏 比丘

丹木施主勝海 比丘 / 三象施主朴厚元 兩主

시주는 본존불 시주 신의색(申儀色)을 비롯하여 73명이 동참하였는데 그 가운데 태현(太玄) 스님을 비롯해 28명의 스님들도 시주를 하였다.

204) 戒文 : 花谷戒文. 벽암각성의 4세손(부휴과).

205) 法敏 : 雲溪法敏. 청허휴정 4세손(友雲奇玄의 제자(청허과))

206) 太俊 : 1677. 4. 쌍계사 법당 상량문(本寺. 施主)

207) 勝悅 : 1677. 4. 쌍계사 법당 상량문(本寺)

208) 道欣 : 1677. 4. 쌍계사 법당 상량문(本寺. 布施主)

209) 道林 : 벽암각성의 3세손(부휴과).

210) 卍 : 嚴

211) 道閑 : 풍담의심의 손제자(청허과).

212) 道嘿 : 1677. 4. 쌍계사 법당 상량문(供養施主)

213) 應暹 : 1677. 4. 쌍계사 법당 상량문(本寺)

214) 清欽 : 편양언기의 손제자(청허과).

215) 清淳 : 霧霞清淳. 清順. 벽암각성의 제자(부휴과).

216) 清揖 : 1677. 4. 쌍계사 법당 상량문(本寺)

217) 清益 : 1720. 8. 쌍계사 중종 개주(山中老德)

218) 清侃 : 凌虛清侃. 중관해안의 제자(청허과).

219) 繼 : 繼

220) 畚 : 갯

시주 물목은 공양(5인), 황금(黃金(3인), 포(布)(2인), 체금(体金)(3인), 면금(面金)(4인), 니금(泥金), 오금(烏金), 황단(黃丹), 정촉(燈燭)(4인), 복장(腹藏)(6인), 좌대(座臺)(3인), 당하엽(唐荷葉), 능엄경(楞嚴經), 법화경(法華經), 금강경(金剛經)(2), 인등(引燈)(2인), 포단(鋪團)(3인), 척포(裋布)(3인), 후령통(喉玲桶)(3인), 철물(鐵物)(2인), 청밀(淸蜜), 주홍(朱紅), 연지(嚙脂), 삼록(三帛), 명경(明鏡)(2인), 휘장(揮帳)(2인), 목포(袂布), 필포(點筆布)(3인), 오약(五藥), 오색(五色), 오보(五寶), 식염(食鹽), 말장(末醬)(2인) 등이다.

한편, 석가모니불 복장에서는 1961년에 대웅전 불상을 개금하였던 개금기가 추가로 확인되었다. 기록은 다음과 같다.

改金佛事 佛紀四千九百八拾八年 / (辛丑年)三月一日<sup>221)</sup>完成  
 光州市鶴洞一區十四番地 / 金喆鉉  
 雙溪寺 主持 金慧性<sup>222)</sup> / 馬知錫<sup>223)</sup>

이 개금기에 따르면 쌍계사 대웅전 불상은 1961년 3월 1일에 개금을 완료하였으며, 시주는 광주의 김철현이 하였고, 당시 쌍계사 주지는 혜성 영배(慧性榮培)(주지 1961.1.15~1965.3.2)였으며, 혜봉 지석(慧峰知錫)은 전(前)주지(1959.10.22~1961.1.14)였다.

## 2) 妙法蓮華經

### ① 1417년(永樂15) 高敞 文殊寺 刻板 묘법연화경 권1-3

妙法蓮華經/ 戒環(宋) 解. - 木板本 - [高敞]: [文殊寺], [永樂15年(1417) 刻板].

零本1冊(卷1-3): 上下單邊 全郭(上-下) 20.8 cm, 無界, 10行20字, 無魚尾; 27.8 x 15.7 cm.

註記: 앞뒤 表紙 및 卷1 앞부분 및 卷3 뒷부분 일부 張탈락.

[刊記: 永樂15年丁酉(1417) 全羅道高敞地文殊寺刻板]

221) 佛紀四千九百八拾八年(辛丑年)三月一日 : 1961. 3. 1. 佛紀四千九百八十八年은 옛 佛紀로 二千九百八十八年の 오기.

222) 慧性 : 慧性榮培. 주지 1961. 1. 15 ~ 1965. 3. 2.

223) 知錫 : 慧峰知錫. 前주지 1959. 10. 22. ~1961. 1. 14.



1417년(永樂15) 高敞 文殊寺 刻板

② 갑인자본 묘법연화경 권6-7

妙法蓮華經/ 戒環(宋) 解. - 木板本 -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刊寫年未詳].

零本1冊(卷6-7): 四周單邊 半郭 24.8 x 15.9 cm, 無界, 10行18字, 上下下向3葉花紋魚尾(間出 上下下向黑魚尾); 35.3 x 22.1 cm.

註記: 앞뒤 表紙 탈락.



갑인자본 묘법연화경

③ 1570년(隆慶4) 潭陽 瀑布庵 板刻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戒環(宋) 解. - 木板本 - 潭陽: 瀑布庵, 隆慶4年(1570) 開板.

7卷2冊: 變相圖, 四周單邊 半郭 19.6 x 13.3 cm, 無界, 10行20字, 上下內向黑魚尾; 26.8 x 18.1 cm.

註記: 앞뒤 表紙 탈락.

妙法蓮華經弘傳序：終南山釋道宣述

妙法蓮華經要解序：前住福州上生禪院嗣祖沙門及南撰...靖康丁未暮春中澣日謹序

刊記：隆慶四年庚午(1570)四月日全羅道潭陽地秋月山瀑布庵開板移龍泉寺



1570년(隆慶4)潭陽瀑布庵板刻

④ 1653년(順治10)海南大興寺板刻 묘법연화경 권1

妙法蓮華經/戒環(宋)解. - 木板本 - 海南：大興寺，順治10年(1653)開板.

날장(322매)：變相，四周單邊 半郭 19.6x13.3cm，無界，8行13字，上下內向黑魚尾；

刊記：順治十年歲次癸巳七月日全羅道海南縣頭輪山大興寺 開板



1653년(順治10)海南大興寺板刻 묘법연화경 變相 (날장)



1653년(順治10)海南大興寺板刻 묘법연화경 권1 (날장)

### 3) 금강반야바라밀경

1646년(順治3) 海南 大興寺 板刻 금강반야바라밀경

金剛般若波羅密經/ [釋]鳩摩羅什(姚秦) 譯 . - 木板本 - 海南 : 大興寺, 順治3年(1646) 開板.

날장(103매) : 四周單邊 半郭 19.6x13.3cm, 無界, 8行17字, 上下內向黑魚尾; 刊記: 順治十年歲次癸巳七月日全羅道海南縣頭輪山大興寺 開板



1646년(順治3) 海南 大興寺 板刻 금강반야바라밀경 (날장)

### 4) 관세음보살보협진언(觀世音菩薩寶篋眞言) 등 다라니

관세음보살보협진언은 삼존불의 복장에서 모두 확인되었는데 주인(朱印)과 묵인(墨印) 2종이 있다. 석가모니불상에서는 모두 1,609매가 확인되었다.

광곽의 크기는 21.0x31.5(cm)로 동일하나 인출된 종이는 대(48.5x77.0cm), 중(33.0x46.0cm), 소(26.0x46.0cm)의 세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세음보살보협진언 등 다라니 (날장)

2. 좌협시보살(문수보살상)

1) 발원문

康熙四年乙巳季夏日助緣文/ [編著者未詳]. - 筆寫本. - 珍島: 雙溪寺, 康熙4年(1665).  
 不分卷1冊(折帖本): 14.0×7.5(cm) / 총길이 292.0cm  
 表題: 康熙四年乙巳季夏日助緣文  
 卷首: 康熙四年乙巳季夏日全羅右道珍島郡尖察山雙溪寺佛像助緣文

좌협시보살상 발원문은 가로 292cm, 세로 14cm크기이며, 종이 4장을 연결하여 작성되었다. 본존불의 조연문과 비교하여 크기는 다르나 ‘康熙四年乙巳’명 발원문으로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좌협시보살 조연문 / 표제

2) 妙法蓮華經

① 갑인자본 묘법연화경 권2-3

妙法蓮華經/ 戒環(宋) 解. - 木板本 -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刊寫年未詳].  
 零本1冊(卷2-3): 四周單邊 半郭 23.5 x 16.8 cm, 無界, 10行18字, 上下下向黑魚尾;  
 31.5 x 20.4 cm.  
 註記: 앞뒤 表紙 탈락. 卷2는 54-80張만 남아 있음.



갑인자본 묘법연화경 권2-3



② 갑인자본 묘법연화경 권4-5

妙法蓮華經/ 戒環(宋) 解. - 木板本 -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刊寫年未詳].

零本1冊(卷4-5): 四周單邊 半郭 25.0 x 16.1 cm, 無界, 10行18字, 上下下向黑魚尾; 35.5 x 22.3 cm.

註記: 앞뒤 表紙 탈락.



갑인자본 묘법연화경 권4-5

3. 우협시보살(보현보살상)

1) 발원문

康熙四年乙巳季夏日助緣文/ [編著者未詳]. - 筆寫本. - 珍島: 雙溪寺, 康熙4年(1665).

不分卷1冊(折帖本): 15.8×7.5(cm) / 총길이 90.0cm

表題: 康熙四年乙巳季夏日助緣文

卷首: 康熙四年乙巳季夏日全羅右道珍島郡尖察山雙溪寺佛像助緣文

우협시보살상 발원문은 가로 90cm, 세로 15.8cm크기이다. 본존불과 좌협시보살상의 조연문과 비교하여 크기는 다르나 '康熙四年乙巳'명 발원문으로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우협시보살 조연문 / 표제

## 2) 묘법연화경

### ① 1493년(弘治6) 鴻山 無量寺 板刻 묘법연화경 권5-7

妙法蓮華經/ 戒環(宋) 解. - 木板本 - [(忠淸)鴻山]: 無量寺, 弘治6年(1493) 謹跋.

零本1冊(卷5-7): 四周單邊 半郭 26.4 x 15.9 cm, 無界, 10行18字, 上下下向黑魚尾;  
36.8 x 21.1 cm.

註記: 앞뒤 表紙 탈락.

刊記: 萬壽山無量寺刊

跋: 皇明弘治六年歲在癸丑(1493)仲春 贅世翁金悅卿謹跋



### 1493년(弘治6) 鴻山 無量寺 板刻 묘법연화경 권5-7

### ② 1633년(崇禎6) 海南 大興寺 板刻 묘법연화경 권1

妙法蓮華經/ 戒環(宋) 解. - 木板本 - 海南: 大興寺, 崇禎6年(1633) 開板

零本1冊(卷1): 變相圖, 四周單邊 半郭 23.3 x 16.2 cm, 無界, 10行18字, 上下內向混  
葉花紋魚尾; 34.0 x 20.6 cm.

註記: 앞뒤 表紙 탈락.

妙法蓮華經弘傳序: 終南山釋道宣述...朴忠獻書

妙法蓮華經要解序: 前往福州上生禪院嗣祖沙門及南撰...靖康丁未暮春中澣日謹序

刊記: 崇禎六年歲在癸酉(1633)季下浣日全羅道海南縣南有崑崙山大興寺開板



### 1633년(崇禎6) 海南 大興寺 板刻 묘법연화경 권1

## 02. 대구 동화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大邱 桐華寺 木造阿彌陀如來三尊像)

### 가. 심의사항

‘대구 동화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대구광역시로부터 ‘대구 동화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5.7.15)이 있어 관계전문가 조사(’17.9.15) 및 복장유물 보완조사(’18.5.9)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의 검토사항으로 부의하였고 과학적 보완조사(’18.8.28~’18.8.29)를 실시하였음.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 제5차 회의(’18.7.12)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18.7.24~’18.8.24)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대구 동화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大邱 桐華寺 木造阿彌陀如來三尊像)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동화사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동화사길 1길
- 수 량 : 불상 3구, 대좌 3점, 발원문 1점, 시주질 1점
- 규 격 : 아미타여래 높이 225.0cm, 무릎폭 161.0cm, 연화대좌 35.5×197×169cm, 팔각대좌 109×240×223cm  
관음보살입상 높이 190.5cm, 연화대좌 36×101.5cm, 사각대좌 56.5×137×137cm  
대세지보살입상 높이 197.5cm, 연화대좌 37.9×105cm, 사각대좌 52×135×138cm  
발원문 40.3×101.3cm, 시주질 11.5×534.9cm

- 재 질 : 목조
- 형 식 : 삼존상
- 조성연대 : 1629년(인조 7)
- 제작자 : 玄眞, 勝一, 天敏, 哲行, 哲義

##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 (지정 가치 있음)

대구 동화사 금당선원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은 조선후기의 일반적인 특징을 지닌 작품이지만 2m가 넘는 대형에 아미타불은 좌상, 대세지와 관음보살은 입상으로 된 점에서 차별성을 보인다. 발원문을 통해 조각승 玄眞을 수화승으로 勝一 등 5명의 조각승이 참여하여 1629년에 제작되었음이 확실하게 밝혀졌다. 현진은 왕실의 불사에 참여한 17세기를 대표하는 우수한 조각승으로 소조상의 경우 1626년과 1633년에 5m가 넘는 대형소조불을 제작한 현진, 청현, 승일 등으로 이어지는 사승관계를 이루는 대표적인 계보를 지닌 조각승이다.

동화사 금당선원의 불상은 목조로서 2m가 넘는 대형 불상으로 현진의 조각적 역량을 다시 재조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작품이며, 좌상과 입상의 구성도 현진의 작품 중에서는 유일한 형식이다. 이 불상은 네모진 얼굴에 온화하고 친근한 인상, 둔중하면서 묵직한 무게감을 보이는 신체 표현 등이 특징으로 그만의 독자적인 특징과 역량을 보인다. 현진은 17세기, 18세기에 이르는 시기에 가장 뛰어난 활동을 보여 조선후기 불교조각의 흐름을 주도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금당선원의 아미타삼존상은 조각가, 제작연대, 봉안사찰과 전각 등에 대한 완전한 내력을 갖추고 있으며, 현존하는 유일한 현진의 입상 작품일 뿐 아니라 시대적 조형감각이 잘 표현되어 있어 예술적, 학술적 등의 모든 면에서 국가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해야 할 가치가 높은 작품으로 판단된다. 다만 현진이 제작한 1612년부터 1633년에 이르기까지의 불상 작품 중 현재 6건이 보물로 지정되었으며(보물 제 360, 1565, 1612, 1686, 1688, 1730호), 지방유형문화재도 3건이나 된다. 앞으로도 지정 신청은 계속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 (지정 가치 있음)

대구 동화사 금당선원 극락전에 봉안되어 있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은 좌상의 본존과 입상의 협시로 구성된 이 시기 불상으로는 많지 않은 삼존 형식을 갖추고 있다. 관음보살상의 복장에서 발견된 발원문과 대좌의 주서를 통해 동화사 금당이라는 정확한 봉안장소와 1629년이라는 정확한 제작시기, 그리고 발원자와 시주자, 조각승 등 당시 불상제작에 관여했던 모든 제작주체가 분명하게 밝혀져 있어 17세기

불상의 기준자료가 된다.

이 불상 조각한 현진은 이보다 7년 전에 광해군비 장렬왕후가 발원한 자인수양사의 11존의 불상 제작 시 팔도 조각승을 이끌었던 17세기 조각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조각승이었다. 이 불상은 듬직하고 중량감 넘치는 불신에 순박하고 인간미 넘치는 조각적 특징을 추구한 현진의 중·후반기 대표적인 작품으로 판단되며, 더욱이 이 시기 불상으로서는 드물게 사각연화대좌를 갖추고 있는 점도 그 가치를 더한다. 17세기 전반기 목불로 제작된 상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상으로 완전한 형태의 불신과 대좌를 모두 갖추었으며, 보살상의 보관과 대좌 등도 후대의 큰 변형 없이 제작 당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 17세기 불상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

따라서 동화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은 17세기 전반기의 대표적인 불교조각이자 현진의 대표작이므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보호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하겠다.

#### ○ (지정 가치 있음)

대구 동화사 금당선원 목조아미타삼존불상은 네모진 얼굴에 온화하고 친근한 인상, 둔중하면서 묵직한 무게감을 보이는 신체 표현 등 현진의 조형 감각이 잘 드러나 있다. 1629년 玄眞을 수장으로 勝一 등 5명의 조각승이 조성했으며, 이들은 창녕 관룡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조성에도 관여해 조선후기 불교조각사 연구의 한 분야인 조각승의 활동 관한 좋은 자료가 된다. 또한 대세지보살과 관음보살입상은 현진이 조성한 현존 유일의 입상으로 다른 유파와의 관계를 비교, 검토해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작품이다. 현진의 조각적 역량은 왕실의 불사를 책임질 정도였으며, 현진, 청현, 승일 등으로 이어지는 계보는 17세기를 통 털어 가장 뛰어난 활동을 보였으며, 17세기 후반을 거쳐 18세기에 이르기 까지 조선후기 불교 조각사에 그의 영향력은 매우 지대하다 할 것이다.

현존하는 다른 현진의 대작의 불상들과 마찬가지로 금당선원 목조아미타삼존상은 조각가, 제작연대, 봉안사찰과 전각 등에 대한 완벽한 기록을 갖고 있으며, 조각승 개인의 개성은 물론 시대적 조형 감각이 잘 표현되어 있어 국가 문화재인 보물로 지정·보호할 가치가 충분한 작품으로 판단된다.

####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 지정

## 조사보고서



### 2. 현상 및 특징

#### 1) 아미타삼존상

대구 동화사 금당선원의 극락전에는 본존불인 좌상의 아미타불과 입상의 관음과 대세지보살로 구성된 협시보살이 봉안되어 있다. 3존 모두 2m가 넘는 거대한 규모에 보존 상태도 좋은 편이다. 다만 대좌의 부재들이 서로 이격되어 있으며 연잎이 결손된 부분도 보이는데 이는 오랜 세월에 의한 이유도 있지만 존상들의 무게에 의한 훼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불상의 내부는 현재 비어있는 상태이며 주서로 인쇄된 다라니로 마감되어 있다.

본존불인 아미타여래좌상은 반듯한 자세에 넓은 어깨로 당당하고 안정감이 있는 상이다. 네모나고 납작한 얼굴형에 직선적인 이목구비로 수평으로 그은 반개한 눈과 큰 코에 넓은 인중을 가졌으며 입술은 약간 올려 미소가 머금은 모습이다. 육계는 편평하며 정상계주가 있다. 편삼에 변형 편단우견식 대의를 입었으며 끝단을 둥글게 처리하거나 가슴 부분의 승각기에 주름이 잡힌 형상, 결가부좌한 두 다리 사이에 흘러 내린 굵은 옷주름 등이 특징이다. 전체적으로 단정하면서도 온화한 인상을 풍기는데 1615년의 진주 청곡사 대웅전 목조석가여래삼존불좌상이나 1629년의 창녕 관룡사 대웅전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그리고 1633년에 제작된 부여 무량사 극락전 소조아미타삼존불좌상(1633) 등과 조형적인 느낌이 유사하다.

좌우협시인 관음보살상과 대세지보살입상 역시 본존불과 거의 비슷한 얼굴 모습에 짧고 둔중한 느낌의 5등신 신체 비례가 특징이다. 보관은 화염문과 운문, 화문, 봉황으로 장식하였으며 옆으로 휘날리는 관대와 장식수술이 표현되어 있다. 세 줄로 늘어진 간략화된 목걸이를 걸쳤으며 군의 밖으로 묶은 매듭띠와 영락을 표현하여 장식하였다. U자형의 층단식 옷주름은 무겁게 흘러 내려 묵중한 느낌을 준다. 수인은 대세지보살상은 오른손은 가슴 앞으로 올리고 다른 손은 허리 앞으로 들어 엄지와 중지를 맞댄 아미타인을, 관음보살상은 왼손을 가슴 위로 올려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다. 두 협시보살상은 단순한 본존불에 비해 보관이나 목걸이, 영락 장식으로 차별화하였지만 전체적인 조형성은 본존불과 거의 비슷하다.

#### 2) 복장물

불상에 납입되었던 복장물은 별도로 수습하여 동화사 성보박물관에 수장되어

있다. 본존불에서는 범화경, 보협진언, 다라니, 후령통 잔편 등이 조사되었으며, 관음보살상에서는 조성발원문이 확인되었다. 본존인 아미타상에서 발원문이 발견되지 않은 사항을 제외하면 삼존상의 복장물 목록은 수적인 차이가 있을 뿐 내용물은 거의 비슷하다. 각 존상에서는 寶齒眞言, 1703년 동화사 간행 隨求大陀羅尼, 法華經 등 비슷한 복장물이 확인되었다. 또한 대세지보살상의 연화대좌에는 건륭 23년(1758)중수발원문의 목서가 발견되었으며, 복장물에서 1998년 중수발원문이 확인되는 등 현대 까지 이어진 중수 현황을 알 수 있다. 관음보살입상에서 확인된 조성발원문에는 “崇禎二年己巳菊月旬二清信戒弟子…圓通教主觀世音菩薩奉安于桐華寺金堂 殿上焚香頂禮發大誓願 云願我臨終滅罪 障往參 圓通大教主三十二應蒙授記 盡未來際度衆 生虛空有盡願不盡 十方諸佛作證明 緣化秩 證師大禪師學玄 畫員大禪師玄眞 畫員 勝一 天敏 哲行 哲義…”이라 하여 1629년 9월 화원 현진, 승일, 천민, 철행, 철의가 동화사 금당전 불상을 조성해 봉안했음을 밝혔다. 즉 이 불상은 같은 해인 1629년 10월에 조성이 시작된 (5월 14일 완성) 창녕 관룡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보물 1730호)과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불상임을 알 수 있다. 조각승의 구성도 서로 비슷하다.

불상을 제작한 대선사 현진은 17세기초반경부터 불상을 제작한 내력이 알려졌으며 주로 충청도와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이 시기를 대표하는 조각승으로 유명하다. 특히 1622년에는 왕실에서 발원한 자수사와 인수사 11구의 불상에도 참여한 점에서 그의 역량이 감지된다. 현재 현진의 작품은 1612년 진주 월명암 목조아미타여래좌상(보물 제1686호), 1614년 구례 친은사 목조관음대제지보살좌상, 1626년 보은 범주사 대웅전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보물 제1360호), 1633년 부여 무량사 소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보물 제1565호) 등 다수가 남아 있다. 현진의 조각 양식은 이후 청현, 승일 등으로 그의 계보가 이어지면서 이 시기 대표적인 유풀을 이루게 된다.



○ 내용 및 특징

동화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 본사이며, 493년(소지왕 15) 極達이 창건하여 유가사라 하였다고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근거는 미약하다. 一然이 찬한 『三國遺事』에는 진표율사의 佛簡子가 永深을 거쳐 心地로 전승되었는데, 심지는 팔공산 와서 불간자를 던져 떨어진 곳에 절을 이룩하였다는 구체적인 기록이 전한다. 창건 뒤 靈照가 934년에 중창하였고, 1190년에는 보조국사 지눌이, 1298년에는 흥진국사가 중건하였다고 한다. 조선시대에는 사명당 유정이 1606년에 중창하였고, 1677년에는 尙崇이, 1732년에는 冠虛·雲丘·洛濱·晴月 등이 중창하여 오늘에 이르

고 있다.

이 삼존상은 동화사의 최고 고승이 주석하며 참선하는 금당선원의 주불전인 극락전에 봉안되어 있다. 삼존의 구성은 아미타여래좌상을 본존으로, 좌우에 관음과 대세지보살을 안치한 전통적인 아미타삼존 형식을 취하고 있다. 관음보살상의 복장에서 발견된 조성발원문을 통해 이 삼존불상은 1629년에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불상의 제작에는 쌍순, 담희가 발원하였고, 이응추, 박사남, 박석목, 현진 등 僧俗의 크고 작은 시주자들이 기쁘게 동참하였다. 불상을 조각한 조각가는 현진, 승일, 철행, 철의 등 현진과 조각승들이 담당하였다. 특히, 현진과 승일, 천민 등은 조각승이면서 시주자로도 참여한 점이 눈길을 끈다. 조선 후기 불사에서 계파가 다른 조각승들이 품앗이 하듯 상호 시주자로 참여하여 경우는 왕왕 있지만, 이처럼 자신들이 제작하는 불사에 시주자로 참여하는 경우는 희귀한 사례이다. 이 자료를 통해 당시 조각승들이 경제력을 엿볼 수 있어 흥미롭다.

본존불은 좌상이지만, 앉은 높이가 225cm되는 대형 불상으로서 여러 개의 나무를 접목해서 제작하였다. 아마도 일부에는 흙으로 보완하여 마무리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얼굴은 뺨이 편평하고 양악이 두툼하여 전반적으로 둥글 넓적한 형태이다. 삼각형의 큼직한 콧날, 납작한 뺨, 둔중한 턱, 슬그머니 미소 지은 순박한 표정은 수조각승 현진의 조각적 경향이다. 나발로 촘촘히 부착한 머리는 육계의 윤곽이 어렴풋하고, 중앙 계주는 생략하고 정상계주만 표현하였다. 신체는 블록을 쌓듯 듬직하게 표현하였는데 신체의 유연하고 자연스러운 굴곡보다는 기개 넘치고 듬직한 형태감 주안점을 둔듯하다. 착의형식은 上衣 위에 大衣를 걸친 이중착의이며, 가슴에는 꽃모양으로 주름잡은 군의를 표현하였다. 옷 주름은 신체의 윤곽을 중심으로 줄을 굵듯 간결하게 처리하였다. 이러한 주름 표현은 1633년에 현진 수조각승으로 제작한 부여 무량사 소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에도 그대로 연결된다. 오른손은 어깨까지 들어 엄지와 중지를 맞대었고, 왼손은 무릎 위에서 엄지와 중지를 맞대었다. 널찍하게 자리 잡은 무릎은 안정감을 주며, 발목을 덮어 내린 널찍한 주름을 다시 한 번 좁게 접어 주름 잡은 것과 측면의 ‘M’자형의 주름은 현진 조각의 특징이다.

불상은 사각연화대좌 위에 봉안하였는데, 사각 연화대좌는 사각대좌와 연화좌로 구별된다. 사각대좌는 사방에 모를 죽인 형태이다. 사각대좌의 구성은 하대, 중대, 상대로 구성되어 있다. 하대의 족대는 운각을 새겨 넣었고, 이음부에는 경첩을 모각하였다. 중대는 이중으로 구성하였다. 중대 청판에는 사자문과 꽃무늬를 화려하게 투각하였다. 상대는 ‘十’ 風穴을 뚫은 난간을 설치하였다. 사각대좌 위에는 둥근 연육부에 연꽃을 삼중으로 붙인 연화대좌를 놓았다. 이 사각연화대좌는 관음보살상의 연화대좌 윗면의 崇禎 2年(1629年)이라는 朱書銘을 통해 볼 때, 중수때마다



일부 수리는 있었겠지만 큰 틀은 제작 당시의 것으로 생각된다.

좌우 협시보살상도 사각연화대좌 위에 봉안하였다. 입상으로 제작되었으며, 늘씬함 보다는 단구적인 체구에 듬직하고 묵중한 힘을 강조하였다. 머리에는 꽃모양으로 형태를 잡고 바탕 면에 연화넝쿨문을 얇게 조각하고, 그 위에 따로 제작한 봉황과 구름, 꽃무늬, 화염, 관대 등을 꽃은 화려한 보관을 착용하였다. 이 보관은 후대 수리하는 과정에서 後補된 부분도 일부 있겠으나 조각수법상 제작 당시의 것으로 판단된다. 얼굴은 본과 마찬가지로 순박한 인상을 자아내며 천의는 본존불과 같은 형식을 따랐다. 목에는 세 줄의 영락장식이 길게 늘어져 있으며 팔목에도 팔찌를 착용하였다. 양 다리 사이에는 예쁘게 매듭지어 흘러내린 띠 자락과 영락 장식이 흘러 내렸다. 양 보살의 수인은 상호 대칭적으로 나타내었는데, 듬직한 신체에 비해 손이 작게 조각되어 신체는 더욱 둔중하게 보이는 효과를 보인다. 지물은 원래부터 그랬는지 알 수 없으나 현재는 아무것도 들지 않았다.

대좌는 사각의 대좌 위에 둥근 연육부에 4겹으로 연꽃을 부착한 연화대좌를 놓았다. 사각대좌는 삼단으로 구성되었는데, 하대는 운각을 새긴 족대와 하대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중대는 사단의 받침대와 청판으로 구성되었는데, 청판에는 본존불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꽃무늬를 화려하게 투각하였다. 상대는 상대목과 사단의 상대 받침으로 구성되었고, 상대목의 모서리와 가운데 지점에는 경첩을 모각하였다. 관음보살의 연육부 윗면에는 조성 당시의 주서(1629년)가 남아 있고, 대세지보살상의 연육부 윗면에는 중수 기록(1758년)이 남아 있다.

이 삼존상을 조각한 현진은 17세기 전반기에 활약한 조각승 중 가장 중요한 인물이다. 17세기 불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불사로 평가받는 慈仁壽兩寺의 11존의 불상 조성에서, 그는 팔도 내놓으라 하는 조각승을 대표하여 수조각승을 역임하며 각 계파의 조각승들을 진두지휘한 사실만으로도 그의 조각적 위상은 대단하였다. 현진은 1607년 백양사 극락전 아미타여래 제작을 시작으로 해서 1637년 성주 명적암 목조아미타여래좌상까지 왕성한 활동을 펼친 17세기의 대표적인 조각승이다. 특히 동화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이 제작되는 해인 1629년에는 이 불상 외 관룡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을 제작하였는데, 이 때 참여한 조각승들은 玄眞, 勝一, 天敏, 守英, 哲行, 哲義이다. 이 석가여래삼불좌상은 동화사 아미타여래삼존상보다 4개월 앞서 5월 14일에 완성한 불상이다. 이외 지금까지 현진이 수조각승으로 참여하여 제작한 작품은 삼양 상련대 목조관음보살좌상(1612년), 구례 화엄사 지장암 목조관음보살좌상(1612년), 구례 천은사 목조관음·대세지보살좌상(1614년), 서울 지장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1622년), 보은 범주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1626년), 부여 무량사 소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1633년), 청도 적천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1636년) 등이다. 차화원 승일은 현진을 도와 治匠의 소임을 맡아 서울 지장암 목조비

로자나불좌상 제작에 참여 하였으며, 창녕 관룡사 대웅전 목삼세불상(1629년, 2위, 수조각승 현진), 밀양 표충사 목조관음보살좌상(1634년, 수조각승), 영광 불갑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1635년, 2위, 수각승 무염), 하동 쌍계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1639년, 2위, 수조각승 청헌), 성주 명적암 목조아미타여래좌상(1639년, 2위, 수조각승 현진), 구례 천은사 수도암 목아미타불 및 대세지보살상(1646년, 1위), 강진 정수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1648년, 수조각승), 서울 봉은사 목조석가여래불좌상(1651년, 수조각승), 무주 북고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1657년, 수조각승), 문경 김룡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1658년, 수조각승), 서울 청룡사 석조지장시왕상(1660, 수조각승), 칠곡 송림사 석조삼장보살좌상 및 시왕상(1665년, 수조각승), 김천 직지사 목조비로자나불좌상(1668년, 수조각승), 김천 고방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1670년, 수조각승) 등을 제작하였다. 세 번째 조각승 천민은 수조각승 현진을 도와 창녕 관룡사 목조석가여래불좌상(1629년, 3위)을 제작하였고, 구례 화엄사 벽암국일도대전사비(1663년) 등장한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조각승 철행과 철의는 현진을 도와 창녕 관룡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1629년)을 제작하였다.



그림 46 목조대세지보살입상(우)



그림 47 목조아미타여래좌상(본존)



그림 48 목조관음보살입상(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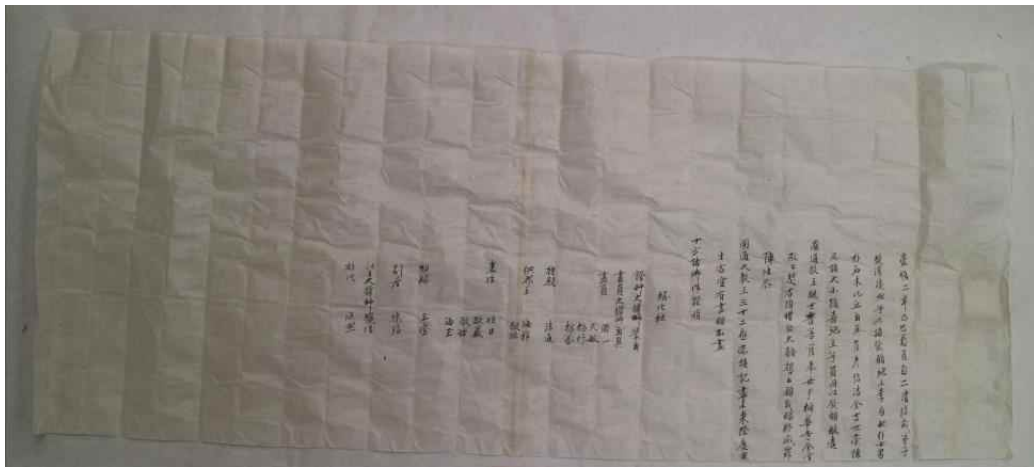


그림 49 조성발원문(16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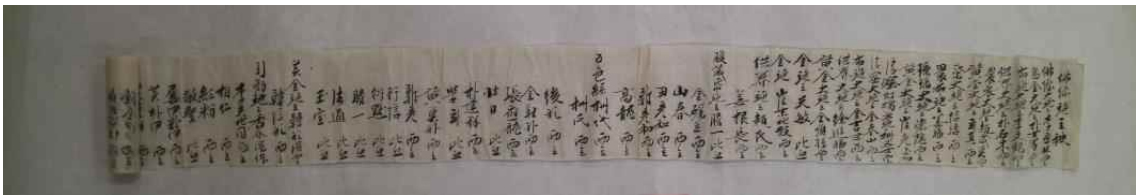


그림 50 조성시주질(1629)



그림 51 아미타여래 사각대좌



그림 52 관음보살상 사각연화대좌(1629)



그림 53 연화대좌 상면 주서(1629)



그림 54 대세지보살상 사각연화대좌(1629)



그림 55 중수목서(1758)

○ 관음보살입상 <발원문> 40.3×101.3cm

崇禎二年己巳菊月旬二清信戒弟子」

雙淳淡熙等與諸發願施主李應秋朴士男」

朴石木比丘玄眞崔彥信浩金吉世崇隱」

及諸大小隨喜施主等員同心發願敬造」

圓通教主觀世音菩薩奉安于桐華寺金堂」

殿上焚香頂禮發大願(下)誓(上)云願我臨終滅罪」

障往參」

圓通大教主三十二應蒙授記盡未來際度衆」

生虛空有盡願不盡」

十方諸佛作證明」

緣化秩」

證師大禪師 學玄」

畫員大禪師 玄眞」  
 畫員 勝一」  
           天敏」  
           哲行」  
           哲義」  
 持殿 法通」  
 供養主 海祥」  
           敬能」  
 往來 性日」  
           敬嚴」  
           敬性」  
           海玉」  
 助緣 玉宝」  
 別座 宗信」  
 化主大禪師 雙淳」  
 助化 淡熙」

○ 관음보살입상 <불상시주질> : 11.5×534.9cm(11매 연접)

佛像施主秩  
 佛像大施主李應秋兩主」  
 烏金大施主朴士男兩主」  
 布施大施主李文鶴兩主」  
 供養大施主朴石木兩主」  
 袈衣大施主趙咸英兩主」  
 黃金大施主 玄眞兩主」  
 柒 大施主 信浩兩主」  
 袈布施主 姜福兩主」  
 琉璃大施主 崇隱兩主」  
 黃金大施主 崔彦灵加」  
 清蜜大施主兼施主權必世兩主」  
 青蜜大施主金春山兩主」  
 布施大施主金吉世兩主」  
 供養大施主徐進福兩主」  
 黃金大施主金順孫兩主」  
 金施主 天敏 比丘」  
 金施 崔恣致兩主」  
 供養施主 趙氏 兩主」  
           姜根長兩主」  
 腹藏紙施主勝一比丘」  
           金礪立兩主」  
           山春 兩主」

尹彥和兩主」  
郭彥和兩主」  
高龍 兩主」  
五色絲 權氏 兩主」  
權氏 兩主」  
後禮 兩主」  
金難補 兩主」  
張應龍 兩主」  
性日 比丘」  
朴達祥 兩主」  
學玄 比丘」  
黃莫補 兩主」  
郭彥 兩主」  
行信 比丘」  
衍默 比丘」  
勝一 比丘」  
法通 比丘」  
玉宝 比丘」  
黃金施主韓禮得兩主」  
引勸施主 香介保体」  
李夫間兩主」  
相仁 兩主」  
紅粉 兩主」  
敬聖 比丘」  
屢以粉伊 兩主」  
黃補伊 兩主」  
黃元祥 兩主」  
秋音加石 兩主」  
智雄 比丘」  
白愁乙位兩主」  
徐金伊 兩主」  
國只伊 兩主」  
鄭常孫 兩主」  
徐仁祥 兩主」  
璧非 兩主」  
夢涯伊 保体」  
九利 保体」  
文得男 兩主」  
方千 兩主」  
梁云 兩主」  
金忞于伊兩主」  
權召吏 兩主」

權當 兩主」  
徐龍福 兩主」  
朴世福 兩主」  
金日連 兩主」  
今伊 兩主」  
遠立 兩主」  
尹今 兩主」  
尹根滿 兩主」  
鄭益崇 兩主」  
金吉萬 兩主」  
內(+ㄱ)非靈駕」  
豐守 兩主」  
食塩施主 金福兩主」  
黃山同 兩主」  
黃應林 兩主」  
丁玉 兩主」  
金春朴 兩主」  
鄭香介 兩主」  
金連山 兩主」  
金就礪 兩主」  
世良 兩主」  
李應吉 兩主」  
李思成 兩主」  
金召吏 兩主」  
金得伊 兩主」  
李仁夫 兩主」  
李忠九 兩主」  
金奉男 兩主」  
金守希 兩主」  
朴起云 兩主」  
元立 兩主」  
海祥 兩主」  
愛春 保体」  
池奉和 兩主」  
朱良 兩主」  
粉今 兩主」  
黃莫龍 兩主」  
朱銀福 兩主」  
趙彦希 兩主」  
尹山福 兩主」  
李希男 兩主」  
金漢立 兩主」

李所同 兩主」  
李信 兩主」  
柳一男 兩主」  
黃應立 兩主」  
申金伊生兩主」  
李丁良 兩主」  
眞珠大施主姜春同兩主」  
崔起林 兩主」  
崔國生 兩主」  
同德 兩主」  
李召吏 兩主」  
孫申榮 兩主」  
崔千男 兩主」  
鄭留業 兩主」  
許春祔 兩主」  
銀非 兩主」  
春今 兩主」  
守天 兩主」  
李難生 兩主」  
義哲 比丘」  
秋加音石兩主」  
道澄 比丘」  
累粉伊 兩主」  
李從萬 兩主」  
玉召吏 兩主」  
五十 兩主」  
戒月 比丘」  
性修 比究」  
方守永 兩主」  
朴忞祔 兩主」  
夏忞文 兩主」  
朴大春 兩主」  
金溫守 兩主」  
常生 兩主」  
金貴閑 兩主」  
金石夫 兩主」  
崔豐守 兩主」  
劉仲元 兩主」  
國伐 兩主」  
金起男 兩主」  
鄭命孫 兩主」  
梁日福 兩主」



眞玉 比丘」  
惠敬 比丘」  
思惠 比丘」  
祖心 比丘」  
眞玉 比丘」  
恔之 保体」  
彦代 保体」  
孫春补 兩主」  
齡补 兩主」  
一環 比丘」  
春眞 兩主」  
崔日萬 兩主」  
尙惠 比丘」  
幸珠 比丘」  
洪今 兩主」  
裴德峯 兩主」  
徐戒先 兩主」  
金海云 兩主」  
常信 兩主」  
玉立 比丘」  
覺圓 比丘」  
崔得龍 兩主」  
法井 比丘」  
印井 比丘」  
杜印 比丘」  
天雄 比丘」  
法玄 比丘」  
廣濟 比丘」  
尹波迴 兩主」  
業眞 兩主」  
林德伊 兩主」  
金恔守 兩主」  
李挨(?)文 兩主」  
金秋 兩主」  
李加于古伊兩主」  
李永俊 兩主」  
今日补 兩主」  
慈明 比丘」  
敬信 比丘」  
惠弘 比丘」  
大仅 比丘」  
仅淡 比丘

草明 比丘<sub>1</sub>  
惟寬 比丘<sub>1</sub>  
戒勳 比丘<sub>1</sub>  
元俊 比丘<sub>1</sub>  
祖鑑 比丘<sub>1</sub>  
內(+ㄋ)德 比丘<sub>1</sub>  
李奉得 兩主<sub>1</sub>  
仇逆 兩主<sub>1</sub>  
羅應吉 兩主<sub>1</sub>  
金召吏 兩主<sub>1</sub>  
朴番佐 兩主<sub>1</sub>  
白金松 兩主<sub>1</sub>  
朴好世 兩主<sub>1</sub>  
李長伊 兩主<sub>1</sub>  
印軒 比丘<sub>1</sub>  
仅玄 比丘<sub>1</sub>  
覺天 比丘<sub>1</sub>  
智和 比丘<sub>1</sub>  
善行 比丘<sub>1</sub>  
守法 比丘<sub>1</sub>  
仅哲 比丘<sub>1</sub>  
三益 比丘<sub>1</sub>  
仅英 比丘<sub>1</sub>  
靈贊 比丘<sub>1</sub>  
熙元 比丘<sub>1</sub>  
宝藏 比丘<sub>1</sub>  
崔千守 兩主<sub>1</sub>  
李從伊 兩主<sub>1</sub>  
道弘 比丘<sub>1</sub>  
朴文國 兩主<sub>1</sub>  
德卞 比丘<sub>1</sub>  
崔萬伊 兩主<sub>1</sub>  
雲日 比丘<sub>1</sub>  
李從萬 兩主<sub>1</sub>  
印元 比丘<sub>1</sub>  
金仁同 兩主<sub>1</sub>  
夢同 兩主<sub>1</sub>  
崔萬 兩主<sub>1</sub>  
李應朴 兩主<sub>1</sub>  
裴恁夫 兩主<sub>1</sub>  
李萬 兩主<sub>1</sub>  
加音春 兩主<sub>1</sub>

莫介 兩主」  
 朴古乙里兩主」  
 金義春 兩主」  
 今伊 兩主」  
 金一連 兩主」  
 金淡石 兩主」  
 羅士信 兩主」  
 姜根長 兩主」  
 末非 兩主」  
 李春立 兩主」  
 德云 比丘」  
 正元 比丘」  
 會運 比丘」  
 玄印 比丘」  
 淡熙 比丘」  
 祖明 比丘」  
 崔守千 兩主」  
 李從 兩主」  
 曹黑疾 兩主」  
 石疾 兩主」  
 戒祥 兩主」  
 梁同 兩主」  
 憶疾 兩主」  
 裴忞朴 兩主」

際

○ 관음보살입상 연화대좌 상부 주서

崇禎二年己巳九月二十日

○ 대세지보살입상 연화대좌 상부 묵서

乾隆貳拾參年戊寅四月初九日爲始重修改金畢功於二十九日回而奉安」

大檀越庚子申內四十二僧同願与諸寺衆同力成功」

證師宣芝誠衍快善等 都監海衍 別座呂寬」

時僧統懶澄

□

○ 현 상

대구 동화사 금당선원 극락전에는 본존인 좌상의 아미타여래를 중심으로, 좌우에 입상의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봉안되어 있다. 삼존상의 보존 상태는 대체로

양호한 편이지만 대좌는 상의 무게로 인해 부재 간에 이격과 결손 부분이 있으며, 연화좌의 연판도 파손되거나 없어진 것들이 보인다.

복장물은 이미 별도의 조사가 실시되었고, 확인된 모든 복장물은 수습해 동화사 정보박물관에서 따로 보관하고 있다. 법화경, 보치진언, 다라니, 후령통 잔편 등 가장 많은 양이 본존인 아미타상에서 조사되었으며, 관음보살상에서는 시주질, 연화질의 조성발원문이 확인되었다. 본존인 아미타상에서 발원문이 발견되지 않은 사항을 제외하면 삼존상의 복장물 목록은 수적인 차이가 있을 뿐 내용물은 거의 비슷하다.

그 외에도 관음보살상의 연화좌 상면에는 주서로 적인 조성시기의 명문이 있으며, 대세지보살상의 연화대좌 위에는 묵서로 적은 건륭 23년(1758)중수발원문이 확인되었다. 또한 복장물에서도 1998년 중수발원문이 확인되어 적어도 금당선월 삼존상은 2번 이상의 보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참조 1】③, ④)

## ○ 내용 및 특징

대구 동화사 금당선원 극락전에는 본존인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좌우에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의 아미타삼존상이 봉안되어 있다. 좌상의 본존은 높이 233cm의 장대한 상이며, 양측 보살은 본존보다 약 25cm 정도 작은 입상으로 자세에 차이는 있으나 조선후기 삼존상의 형식적 특징을 갖추고 있다.

삼존상의 얼굴 특징은 대동소이한데 턱 아래를 수평으로 깎아 네모지고 이마로부터 턱까지 나지막하게 조각되어 있으며, 머리 전후 두께도 두껍지 않고 전체적으로 납작한 편이다.

작은 입자의 나발을 붙인 머리는 육계와 경계가 없으며, 중간계주도 생략되었고, 정상부에만 정상계주를 두었다. 밋밋한 눈꺼풀, 수평으로 그은 반개한 눈, 큼직한 삼각형 코와 넓은 인중에 미소가 있는 가는 입술을 표현기법으로 인상이 단정하면서도 온화해 보이며, 진주 청곡사 대웅전 목조석가여래삼존불좌상(1615), 창녕 관룡사 대웅전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1629) 등 현진이 조성한 불상의 얼굴 특징을 갖고 있다.

본존인 아미타불좌상은 허리를 세우고 머리를 약간 앞으로 숙여 앉은 자세에 오른손은 가슴 앞으로 올리고, 왼손은 다리 위에서 두어 엄지와 중지를 ㄷ자형으로 구부려 맞대었다. 긴 상반신에 넓은 어깨와 다리가 이루는 비례가 좋아 안정감이 있으며, 전체적인 모습이 당당하다.

오른쪽 어깨에 편삼을 입고 그 위에 대의를 변형된 편단우견식으로 돌려 있었으며, 오른쪽 어깨에 3개로 접은 옷주름 끝단이 둥글게 처리되어 있다. 배 앞에는 대의와 편삼이 서로 교차하여 오른쪽 배 앞으로 편삼자락이 U자형의 층단식 주름

을 이루면서 대의 밖으로 드러나 있으며, 왼팔측면의 대의는 2개의 옷주름 끝단이 Ω형으로 동그랗게 올라가 있다. 가슴 아래의 승각기는 가운데 주름을 중심으로 맞주름을 잡았으며, 끈 아래도 양측으로 각각 2개의 옷주름을 잡아 사실감을 더했다. 양 다리 사이에 가운데의 넓은 두 개의 옷주름은 단 가장자리가 바깥으로 한번 접혀 끝단이 이어지는 형식도 주목되는 요소인데 현진계보 조각승의 불상에서만 보이는 특징이다.

좌우협시인 관음보살상과 세지보살상은 네모난 얼굴, 5등신의 신체 비례에 둔중해 보이는 신체 등의 특징은 대동소이하지만 착의법 등 세부 표현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

대세지보살상은 오른손은 가슴 앞으로 올리고 다른 손은 허리 앞으로 들어 엄지와 중지를 맞댄 아미타인을 하였으며, 관음보살상은 손 위치가 반대이다. 머리에는 2단의 능형(菱形) 테두리를 갖는 보관을 쓰고 있는데 불꽃, 구름, 꽃 등의 장식판을 붙이고 뒷면은 연꽃 하나를 조각하여 장식미를 더했으며, 관대 측면은 S자형을 그리는 끈 장식이 휘날린다. 머리카락을 모아 올린 보계는 아래를 한번 묶고 다시 가운데를 묶어 끝을 뒤로 넘긴 모양인데 조선 초를 전후한 보살상의 보계형식과 유사하나 형식화되어 있는 점은 다르다. 보관 아래는 작게 가닥을 나눈 머리카락을 세세하게 표현하였으며, 귀의 앞뒤로 내려오는 머리 가닥은 어깨에서 모아 둥근 원형을 이루면서 다시 두 가닥으로 흘러내린다.

법의는 변형된 통견식으로 편삼과 대의를 입고 그 위에 다시 천의를 솔처럼 걸쳐 그 자락이 가슴으로 내려와 허리 측면으로 빼내었다가 다시 양팔로 옷자락을 넘겨 입은 모습으로, 여러 옷을 겹쳐 입은 탓에 전체적으로 옷이 무겁고 신체가 둔중하게 느껴진다. 배 앞으로는 길게 5개의 U자형 옷주름을 이루는 대의자락이 흘러내리며, 오른쪽에는 대의 밖으로 편삼자락이 길게 드러나 있다. 왼팔 측면의 대의는 옷주름 1개의 끝단이 Ω형으로 동그랗게 올라가 본존과는 다른 모습이다. 가슴 아래에 승각기와 군의를 입었으며, 바닥까지 흘러내린 긴 군의 자락은 꽃잎처럼 접어 모양을 내었다. 양 다리 사이에는 화문 등이 장식된 폐슬(蔽膝)같은 띠가 내려오며, 양 다리 측면으로 영락 장식과 가슴에는 활짝 핀 연꽃을 중심으로 3줄의 긴 구슬장식의 목걸이를 하고 있다. 관음보살상은 변형된 통견식으로 대의와 편삼만을 입어 대세지보살상과는 다른 착의법이지만 목걸이, 영락 장식 등의 장식은 비슷하다.

관음보살상에서 확인된 조성발원문에 따르면 관음보살상은 1629년 음력9월12일 화원 현진, 승일, 천민, 철행, 철의가 조성해 동화사 금당전에 봉안했음을 알 수 있으며, 관음보살상의 대좌 상면에도 같은 시기가 적혀있다 (※ 【참조 1】 조성발원문). 흥미롭게도 이들 조각승은 같은 해인 1629년 창녕 관룡사 목조석가여래삼존불좌상 조성에도 관여해 금당전 삼존상이 관룡사 삼존상의 선례의 작품임을 알 수 있다 (‘崇禎二

年己巳十月日佛像象造成五月十四日已畢….”).

대선사 현진의 가장 오랜 기년명 불상은 함양 상련대 원통보전 관음보살좌상(1612)과 구례 화엄사 지장암 목조관음보살좌상(1612) 등으로 이 무렵에 수화승 활동이 시작되었으며, 구례 천은사 관음보살과 세지보살상(1614), 진주 청곡사 대웅전 목조석가여래삼존상(1615), 서울 자수사·인수사 삼존불좌상 조성(1622, 현 서울 지장암 비로자나불좌상) 등 전국을 활동 영역으로 1630년 전반까지 많은 불상들을 조성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참조 2】 현진불상 및 지정목록). 특히 왕실 발원으로 자수사, 인수사에 11구의 불상을 조성할 때에는 응원(應元), 수연(守衍), 법령(法玲), 청허(淸虛), 성인(性仁), 인균(印均) 등 당대 활발히 활동한 조각승의 수화승의 소임도 맡아 조각승 현진은 조선후기 17세기 전반을 대표하는 최고의 조각승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그의 계보를 잇는 청현, 승일 등 17세기 후반이후의 조선후기 불상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

#### ※ 【참고 1】 조성발원문

①「大邱 桐華寺 木造觀音菩薩立像 造成發願文」: 1629년 9월12일, 白紙墨書, 40.3×101.3cm.

崇禎二年己巳菊月旬二清信戒弟子

雙淳淡熙等與諸發願施主李應秋朴士男

朴石木比丘玄眞崔彦信浩金吉世崇隱

及諸大小隨喜施主等員同心發願敬造

圓通教主觀世音菩薩奉安于桐華寺金堂

殿上焚香頂禮發大誓願云願我臨終滅罪

障往參

圓通大教主三十二應蒙授記盡未來際度衆

生虛空有盡願不盡

十方諸佛作證明

緣化秩

證師大禪師學玄

畫員大禪師玄眞

畫員 勝一

天敏

哲行

哲義

持殿 法通

供養主 海祥  
敬能  
來往 性日  
敬嚴  
敬性  
海玉  
助緣 玉宝  
別座 宗信  
化主大禪師雙淳  
助化 淡熙

② 「大邱 桐華寺 木造觀音菩薩立像 造成發願文 施主秩」: 1629월9월12일, 白紙墨書

佛像施主秩

佛像大施主李應秋兩主

烏金大施主朴士男兩主

布施大施主李文鶴兩主

供養大施主朴石木兩主

褰衣大施主趙咸英兩主

黃金大施主玄眞 兩主

柒 大施主信浩 兩主

褰布 施主姜福 兩主

琉璃大施主崇隱 兩主

黃金大施主崔彦 灵加

清蜜灯燭兼施主權必世兩主

清蜜大施主金春山兩主

布施大施主金吉世兩主

供養大施主徐進福兩主

黃金大施主金順孫兩主

金施主 天敏 比丘

金施 崔恣致 兩主

供養施主 趙氏 兩主

姜根長兩主

腹藏紙施主勝一 比丘

金礪立兩主

山春 兩主  
尹彥和兩主  
郭彥和兩主  
高龍 兩主  
五色絲 權代 兩主  
權氏 兩主  
後禮 兩主  
金難福兩主  
張應龍兩主  
性日 比丘  
朴達祥兩主  
學玄 比丘  
黃莫福兩主  
郭彥 兩主  
行信 比丘  
衍默 比丘  
勝一 比丘  
法通 比丘  
玉宝 比丘  
黃金施主 韓禮得兩主  
韓信禮兩主  
引勸施主 香介 保体  
李忞同兩州  
相仁 兩主  
紅粉 兩主  
敬聖 比丘  
屢伊粉伊兩主  
黃福伊兩主  
黃元祥兩主  
秋加音石兩主  
智雄 比丘  
白秋乙位兩主  
徐金伊兩主



國只伊兩主  
鄭常孫兩主  
徐仁祥兩主  
壁非 兩主  
夢涯伊保体  
九利 保体  
文得男兩主  
方千 兩主  
梁云 兩主  
金忞丁伊兩主  
權召吏兩主  
權當 兩主  
徐龍福兩主  
朴世福兩主  
金日連兩主  
今伊 兩主  
遠立 保体  
尹今 兩主  
尹根滿兩主  
甘眞 保体  
鄭益崇兩主  
金吉萬兩主  
內ㄱ非 灵駕  
豐守 兩主  
食塩施主 金福 兩主  
黃山同兩主  
黃應林兩主  
丁玉 兩主  
金春福兩主  
鄭香介兩主  
金連山兩主  
金就礪兩主  
世良 兩主

李應吉兩主  
李思成兩主  
金召吏兩主  
金得伊兩主  
李仁夫兩主  
李忠九兩主  
金奉男兩主  
金守希兩主  
朴起云兩主  
元立 兩主  
海祥 保体  
愛春 保体  
池奉和兩主  
朱良 兩主  
粉今 兩主  
黃莫龍兩主  
朱銀福兩主  
趙彥希兩主  
尹山福兩主  
李希男兩主  
全漢立兩主  
李所同兩主  
李信 兩主  
柳一男兩主  
黃應立兩主  
申金伊生兩主  
李丁良兩主  
眞珠大施主姜春同兩主  
崔起林兩主  
崔國生兩主  
同德兩主  
李召吏兩主  
孫申榮兩主

崔千男兩主  
鄭留業兩主  
許春福兩主  
銀非 兩主  
春今 兩主  
守天 兩主  
李難生兩主  
義哲 比丘  
秋加音石兩主  
道澄 比丘  
累粉伊兩主  
李從萬兩主  
玉召吏兩主  
五十 兩主  
戒月 比丘  
性修 比丘  
方守永兩主  
朴忞福兩主  
夏忞文兩主  
朴大春兩主  
金溫守兩主  
常生 兩主  
金貴閑兩主  
金石夫兩主  
崔豐守兩主  
劉仲元兩主  
國伐 兩主  
金起男兩主  
郭命孫兩主  
梁日福兩主  
眞玉 比丘  
惠敬 比丘  
思惠 比丘

祖心 比丘  
眞玉 比丘  
忞之 保体  
彦代 保体  
孫春福兩主  
龔福 兩主  
一環 比丘  
春眞 兩主  
崔日萬兩主  
尙惠 比丘  
幸珠 比丘  
洪今 兩主  
裴德峯兩主  
徐戒先兩主  
金海云兩主  
常信 比丘  
玉立 比丘  
覺圓 比丘  
崔得龍兩主  
法井 比丘  
印井 比丘  
杜印 比丘  
天雄 比丘  
法玄 比丘  
廣濟 比丘  
尹波迴兩主  
業眞 兩主  
林億伊兩主  
金忞守兩主  
李檢文兩主  
金秋 兩主  
玉德 兩主  
李加于古伊兩主

李永俊兩主  
今日福兩主  
慈明 比丘  
敬信 比丘  
惠弘 比丘  
大儀 比丘  
儀淡 比丘  
草明 比丘  
惟寬 比丘  
戒勳 比丘  
元俊 比丘  
祖鑑 比丘  
內一德 比丘  
李奉得兩主  
仇逆 兩主  
羅應吉兩主  
聖德 兩主  
朴連守兩主  
金召吏兩主  
朴番佐兩主  
白金松兩主  
朴好世兩主  
李長伊兩主  
印軒 比丘  
儀玄 比丘  
覺天 比丘  
智和 比丘  
善行 比丘  
守清 比丘  
儀哲 比丘  
三益 比丘  
儀英 比丘  
靈贊 比丘

熙元 比丘  
宝藏 比丘  
崔千守兩主  
李從伊兩主  
道弘 比丘  
朴文國兩主  
德卞 比丘  
崔萬伊兩主  
靈日 比丘  
李從萬兩主  
印元 比丘  
金仁同兩主  
夢同 兩主  
崔萬 兩主  
李應福兩主  
裴忞夫兩主  
李萬 兩主  
加音春兩主  
莫介 兩主  
朴亨里兩主  
金義春兩主  
今伊 兩主  
金一連兩主  
金淡石兩主  
羅士信兩主  
姜根長兩主  
末非 兩主  
李春立兩主  
德云 比丘  
正元 比丘  
會運 比丘  
玄印 比丘  
淡熙 比丘

祖明 比丘  
崔守千兩主  
李從 兩主  
曹黑疾兩主  
石疾 兩主  
戒祥 兩主  
梁同 兩主  
憶疾 兩主  
裴忞福兩主  
際

③「大邱 桐華寺 木造大勢至菩薩立像 座臺 上部 墨書」

乾隆貳拾參年戊寅四月初九日爲始重修改金畢功於二十九日回而奉安  
大檀越庚子甲內四十二僧同願與諸寺衆同力成功  
證師宣之誠衍快善等 都監海衍 別座呂寬  
時僧統懶澄

④「大邱 桐華寺 木造觀音菩薩立像 蓮華座臺 上部 朱書」:

崇禎二年己巳九月十二日

※ 【참조 2】 현진 불상 및 지정목록

연번	봉안처 및 존명	조성시기	지정현황	원봉안처	비고
1	咸陽 上蓮臺 圓通寶殿 木造觀音菩薩坐像	1612년	경남 유형 제456호	未詳	
2	求禮 華嚴寺 地藏庵 木造觀音菩薩坐像	1612년		未詳	
3	晉州 月明庵 人法堂 木造阿彌陀佛坐像	1612년	보물 제1686호	未詳	
4	求禮 泉隱寺 明月寮 木造觀音·大勢至菩薩坐像	1614년		未詳	
5	晉州 靑谷寺 大雄殿 木造釋迦如來三尊坐像	1615년	보물 제1688호	晉州 靑谷寺 大雄殿	
6	서울 地藏庵 大雄殿 木造毘盧遮那佛坐像	1622년	보물 제1612호	서울 慈壽寺 仁壽寺	
7	報恩 法住寺 大雄殿 塑造毘盧遮那三佛坐像	1626년	보물 제360호	報恩 法住寺 大雄殿	
8	大邱 桐華寺 極樂殿 木造阿彌陀三尊佛坐像	1629년 9월12일		大邱 桐華寺 極樂殿	
9	昌寧 觀龍寺 大雄殿 木造釋迦如來三佛坐像·臺座	1629년	보물 제1730호	昌寧 觀龍寺 大雄殿	
10	扶餘 無量寺 極樂殿 塑造阿彌陀如來三尊坐像	1633년	보물 제1565호	扶餘 無量寺 極樂殿	
11	茂州 安國寺 極樂殿 木造阿彌陀三尊佛坐像	1630년대	전북 유형 제201호	未詳	
12	大邱 北地藏寺 大雄殿 木造阿彌陀佛坐像	1630년대	대구 유형 제51호	未詳	
13	靑道 磧川寺 大雄殿 木造釋迦如來三佛坐像	1636년		靑道 磧川寺 大雄殿	
14	慶山 嶺南大博物館 木造阿彌陀佛坐像	1637년		星州 明寂菴	



## □ (복장유물)

### ○ 내용 및 특징

『대구 동화사 극락전 목조아미타삼존상』 복장물은 현재 수습되어 동화사 성보 박물관에 별도 보관되어 있다. 복장에서 확인되는 유물은 발원문을 포함하여 『묘법연화경』 및 주서(朱書) 및 묵서(墨書)로 인출된 『보치진언(寶齒眞言)』 그리고 다라니 등이다.

『묘법연화경』은 1531년(중종26) 경상도 영천(永川) 공산본사(公山本寺)에서 1455년(세조1) 간행되었던 을해자본(乙亥字本) 묘법연화경을 다시 판각하여 인출한 책과 1604년 지리산 쌍계사의 말사인 능인암(能仁庵)에서 1443년(세종 25) 전라도 고산지 화암사(花岩寺)에서 찍은 판본을 저본으로 하여 다시 새겨 인출한 책 등 두 가지 유형이 확인되었다.

복장에서 확인되는 전적류 유물은 모두 임진난 이후의 것으로서 모두 『대구 동화사 극락전 목조아미타삼존상』의 조성 시기를 중심으로 간행된 자료들로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다만, 전적류 유물은 시대가 앞서는 자료로서 유일하거나 희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별도로 지정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대구 동화사 극락전 목조아미타삼존상』의 복장 유물에 대한 내용과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腹藏		主佛(阿彌陀佛)	左補處 (觀世音菩薩)	右補處 (大勢至菩薩)
發願文 施主秩	1629.9.10		2매	
	1998.4.25			1매
寶齒眞言	朱印	1,138매	686매	639매
	墨印	287매	1매	-
	소계	1,425매	687매	639매
隨求大陀羅尼	朱印	202매	437매	-
	墨印	-	-	-
	소계	202매	437매	-
首楞嚴神呪 陀羅尼	朱印	-	-	-
	墨印	2매	-	-
	소계	2매	-	-
陀羅尼	筆寫	1매	-	-
	墨印	799매	420매	116매
	소계	800매	420매	116매
妙法蓮華經	戒環解 9行16字 永川 公山本寺 1531	卷1(89), 卷2(85), 卷3(75), 卷4(78), 卷5(72), 卷6(30), 卷7(66) (날장 495매)	卷1(90) 卷4(80) 卷5 (4) 卷6(56) 卷7(49) (날장 279매)	卷2(86) 卷3(75) 卷6(41) (날장 202매)
	戒環解 10行20字 能仁庵 1604	-	卷3-5 1책 卷5-7 날장 109매	

## 1. 아미타불

### 1) 妙法蓮華經

1531년(嘉靖 10) 永川 公山本寺 重刻

妙法蓮華經/ 戒環(宋) 解. - 木板本 - [永川]: [公山本寺], [嘉靖 10年(1531) 重刻].

날장 권1-7 (495장) : 四周單邊 半郭 25.9x19.7cm. 有界, 9행 16자(小字 9行21字), 上下內向黑魚尾;

이 판본은 1531년(중종26) 경상도 영천(永川) 공산본사(公山本寺)에서 1455년(세조 1) 간행되었던 을해자본(乙亥字本) 모범연화경을 다시 판각하여 인출한 책이다. 변란의 밖에 시주자 및 발원자들의 이름을 새겨 넣었다.

모두 41.4×53.0cm 내외의 상품의 저지에 인출하였다.



1531년(嘉靖 10) 永川 公山本寺 重刻

### 2) 보치진언(寶篋眞言)

「보치진언」은 본존과 협시보살의 복장에서 모두 확인되었는데 주인(朱印)과 묵인(墨印) 2종이 있다. 아미타불상에서는 모두 1,425매가 확인되었다.

「보치진언」의 진언을 살펴보면 본래 「소보협다라니(小寶篋陀羅尼)」를 적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진언의 오기(誤記)는 16세기 이후 다라니류에서 종종 확인되는데 이역시 「보협진언」의 오기로 이해할 수 있다.

광곽의 크기는 23.0x14.0(cm)로 동일하나 인출된 종이는 26.9x16.9 내외로 상당히 다양하다.



보치진언(寶篋眞言) (낱장)

### 3) 수구대다라니(隨求大陀羅尼)

「수구대다라니」는 본존과 관세음보살의 복장에서만 확인되었다. 모두 주인(朱印)으로 인출되었는데 본존불에서는 모두 202매가 확인되었다.

「수구대다라니」는 8세기 중엽 인도 출신의 학승 불공이 번역한 『보편광명청정치성여의보인심무능승대명왕대수구타라니경(普遍光明清淨熾盛如意寶印心無能勝大明王大隨求陀羅尼經)』에 실해진 다라니로써 신비로운 힘과 그것을 외움으로써 얻게 되는 공덕은 매우 크다고 알려져 있다.

광곽의 크기는 17.2x27.0(cm)로 동일하나 인출된 종이는 큰 것은 45.0x50.0(cm) 내외, 작은 것은 29.8x49.3 내외로 상당히 다양하다. 다라니의 끝부분에 “康熙四十二年(1703)癸未二月日大丘八公山桐花寺開刊”이라 기록하여 간행된 시기를 파악할 수 있다.



수구대다라니(隨求大陀羅尼) (낱장)

4) 다라니(陀羅尼)

「다라니」는 본존과 협시보살의 복장에서 모두 확인되었는데 묵인(墨印)으로 인출되었다. 아미타불상에서는 필사본 1매, 인본 799매 등 모두 800매가 확인되었다. 한편 본존상에서만 「수능엄신주다라니」 2매 그리고 동일한 다라니 잔편들이 확인되었는데, 본래 상당 수량이 있었던 사실을 짐작할 수 있으나 현재는 상세하지 않다. 광곽의 크기는 23.1x49.0(cm)로 동일하나 인출된 종이는 29.0x51.6(cm) 내외로 상당히 다양하다.



다라니(陀羅尼) (낱장)



수능엄신주다라니

2. 좌협시보살(관음보살)

1) 造成發願文 / 施主秩

① 崇禎二年己巳菊月旬二觀世音菩薩造成發願文 / [編著者未詳]. - 筆寫本. - 大邱  
: 桐華寺, 崇禎二年(1629).

40.3x101.3cm

② 崇禎二年己巳菊月旬二觀世音菩薩造成施主秩 / [編著者未詳]. - 筆寫本. - 大邱  
: 桐華寺, 崇禎二年(1629).

11.5x534.9cm



觀世音菩薩造成發願文



施主秩

관음보살상에 있는 발원문은 길이 101.3cm, 세로 40.3cm이다. 발원문의 처음에 ‘崇禎二年’이라는 기록이 있어 작성 시기를 알 수 있다. 다음은 그 전문이다.

崇禎二年己巳菊月旬二清信戒弟子

雙淳淡熙等與諸發願施主李應秋朴士男

朴石木比丘玄眞崔彦信浩金吉世崇隱  
及諸大小隨喜施主等員同心發願敬造  
圓通教主觀世音菩薩奉安于桐華寺金堂  
殿上焚香頂禮發大誓願云願我臨終滅罪  
障往參  
圓通大教主三十二應蒙授記盡未來際度衆  
生虛空有盡願不盡  
十方諸佛作證明

緣化秩

證師大禪師學玄

畫員大禪師玄眞

畫員 勝一

天敏

哲行

哲義

持殿 法通

供養主 海祥

敬能

來往 性日

敬嚴

敬性

海玉

助緣 玉宝

別座 宗信

化主大禪師雙淳

助化 淡熙

한편, 조성에 참여하였던 시주길도 함께 확인되었다. 11장이 연결된 점련문서이다.  
기록은 다음과 같다.

佛像施主秩

佛像大施主李應秋兩主

烏金大施主朴士男兩主

布施大施主李文鶴兩主

供養大施主朴石木兩主

褰衣大施主趙咸英兩主

黃金大施主玄眞 兩主  
 柴 大施主信浩 兩主  
 裹布 施主姜福 兩主  
 琉璃大施主崇隱 兩主  
 黃金大施主崔彦 靈加  
 清蜜灯燭兼施主權必世兩主  
 清蜜大施主金春山兩主  
 布施大施主金吉世兩主  
 供養大施主徐進福兩主  
 黃金大施主金順孫兩主  
 金施主 天敏 比丘  
 金施 崔忞致 兩主  
 供養施主 趙氏 兩主」姜根長兩主  
 腹藏紙施主勝一 比丘」金礪立兩主  
     山春 兩主」尹彦和兩主  
     郭彦和兩主」高龍 兩主  
 五色絲 權代 兩主」權氏 兩主  
     後禮 兩主」金難福兩主  
     張應龍兩主」性日 比丘  
     朴達祥兩主」學玄 比丘  
     黃莫福兩主」郭彦 兩主  
     行信 比丘」衍默 比丘  
     勝一 比丘」法通 比丘  
     玉宝 比丘  
 黃金施主 韓禮得兩主」韓信禮兩主  
 引勸施主 香介 保体」李忞同兩州  
     相仁 兩主」紅粉 兩主  
     敬聖 比丘」屢伊粉伊兩主  
     黃福伊兩主」黃元祥兩主  
     秋加音石兩主」智雄 比丘  
     白秋乙位兩主」徐金伊兩主  
     國只伊兩主」鄭常孫兩主  
     徐仁祥兩主」壁非 兩主  
     夢涯伊保体」九利 保体  
     文得男兩主」方千 兩主  
     梁云 兩主」金忞丁伊兩主

權召吏兩主」權當 兩主  
徐龍福兩主」朴世福兩主  
金日連兩主」今伊 兩主  
遠立 保体」尹今 兩主  
尹根滿兩主」甘眞 保体  
鄭益崇兩主」金吉萬兩主  
內ㄱ非 灵駕」豐守 兩主

食塩施主 金福 兩主」黃山同兩主  
黃應林兩主」丁玉 兩主  
金春福兩主」鄭香介兩主  
金連山兩主」金就礪兩主  
世良 兩主」李應吉兩主  
李思成兩主」金召吏兩主  
金得伊兩主」李仁夫兩主  
李忠九兩主」金奉男兩主  
金守希兩主」朴起云兩主  
元立 兩主」海祥 保体  
愛春 保体」池奉和兩主  
朱良 兩主」粉今 兩主  
黃莫龍兩主」朱銀福兩主  
趙彦希兩主」尹山福兩主  
李希男兩主」全漢立兩主  
李所同兩主」李信 兩主  
柳一男兩主」黃應立兩主  
申金伊生兩主」李丁良兩主

眞珠大施主 姜春同兩主」崔起林兩主」崔國生兩主」同德兩主  
李召吏兩主」孫申榮兩主」崔千男兩主」鄭留業兩主  
許春福兩主」銀非 兩主」春今 兩主」守天 兩主  
李難生兩主」義哲 比丘」秋加音石兩主」道澄 比丘  
累粉伊兩主」李從萬兩主」玉召吏兩主」五十 兩主  
戒月 比丘」性修 比丘」方守永兩主」朴衺福兩主  
夏衺文兩主」朴大春兩主」金溫守兩主」常生 兩主  
金貴閑兩主」金石夫兩主」崔豐守兩主」劉仲元兩主  
國伐 兩主」金起男兩主」郭命孫兩主」梁日福兩主  
眞玉 比丘」惠敬 比丘」思惠 比丘」祖心 比丘  
眞玉 比丘」衺之 保体」彦代 保体」孫春福兩主



瓮福 兩主」一環 比丘」春眞 兩主」崔日萬兩主  
 尙惠 比丘」幸珠 比丘」洪今 兩主」裴德峯兩主  
 徐戒先兩主」金海云兩主」常信 比丘」玉立 比丘  
 覺圓 比丘」崔得龍兩主」法井 比丘」印井 比丘  
 杜印 比丘」天雄 比丘」法玄 比丘」廣濟 比丘  
 尹波迴兩主」業眞 兩主」林億伊兩主」金忞守兩主  
 李檢文兩主」金秋 兩主」玉德 兩主」李加于古伊兩主  
 李永俊兩主」今日福兩主」慈明 比丘」敬信 比丘  
 惠弘 比丘」大儀 比丘」儀淡 比丘」草明 比丘  
 惟寬 比丘」戒勳 比丘」元俊 比丘」祖鑑 比丘  
 內ㄱ德 比丘」李奉得兩主」仇逆 兩主」羅應吉兩主  
 聖德 兩主」朴連守兩主」金召吏兩主」朴番佐兩主  
 白金松兩主」朴好世兩主」李長伊兩主」印軒 比丘  
 儀玄 比丘」覺天 比丘」智和 比丘」善行 比丘  
 守清 比丘」儀哲 比丘」三益 比丘」儀英 比丘  
 靈贊 比丘」熙元 比丘」宝藏 比丘」崔千守兩主  
 李從伊兩主」道弘 比丘」朴文國兩主」德卞 比丘  
 崔萬伊兩主」靈日 比丘」李從萬兩主」印元 比丘  
 金仁同兩主」夢同 兩主」崔萬 兩主」李應福兩主  
 裴忞夫兩主」李萬 兩主」加音春兩主」莫介 兩主  
 朴亨里兩主」金義春兩主」今伊 兩主」金一連兩主  
 金淡石兩主」羅士信兩主」姜根長兩主」末非 兩主  
 李春立兩主」德云 比丘」正元 比丘」會運 比丘  
 玄印 比丘」淡熙 比丘」祖明 比丘」崔守千兩主  
 李從 兩主」曹黑疾兩主」石疾 兩主」戒祥 兩主  
 梁同 兩主」憶疾 兩主」裴忞福兩主  
 際

## 2) 妙法蓮華經

① 1531년(嘉靖 10) 永川 公山本寺 重刻

妙法蓮華經/ 戒環(宋) 解. - 木板本 - [永川]: [公山本寺], [嘉靖 10年(1531) 重刻].

날장 권1, 권4~7 (279장) : 四周單邊 半郭 25.9x19.7cm. 有界, 9행 16자(小字 9行 21字), 上下內向黑魚尾;

이 판본은 관음보살상의 복장에서는 권1 및 권4~7까지 일부만이 확인되었다. 모두 41.4×53.0cm 내외의 상품의 저지에 인출하였다.



1531년(嘉靖 10) 永川 公山本寺 重刻 妙法蓮華經 卷1 낱장

② 1604년(萬曆 32) 能仁庵 開刊 妙法蓮華經 권3-5

妙法蓮華經/ 戒環(宋) 解. - 木板本 - 能仁庵, 萬曆 32年(1604) 開刊  
 卷3-5 : 變相圖, 四周單邊 半郭 26.0x13.3 cm, 無界, 10行20字, cm.  
 刊記: 萬曆三十二年甲辰夏能仁庵開刊移鎮于双溪寺

1604년 지리산 쌍계사의 말사인 능인암(能仁庵)에서 1443년(세종 25) 전라도 고산지 화암사(花岩寺)에서 찍은 판본을 저본으로 하여 다시 새겨 인출한 책이다. 선장으로 묶인 것은 권3-5 1책이 확인되었고, 권5-7의 낱장으로 108매가 확인되었다.



1604년(萬曆 32) 能仁庵 開刊 묘법연화경 권3-5



1604년(萬曆 32) 能仁庵 開刊 묘법연화경 권5-7 날장

### 3) 보치진언(寶篋眞言)

관음보살의 복장에서 확인된 「보치진언」은 주인본(朱印本) 686매, 묵인본(墨印本) 1매이다. 광곽의 크기는 23.0x14.0(cm)로 동일하나 인출된 종이는 26.9x16.9 내외로 상당히 다양하다.



보치진언(寶篋眞言) (낱장)

4) 수구대다라니(隨求大陀羅尼)

관음보살상의 복장에서 확인된 「수구대다라니」는 주인(朱印)으로 인출되었는데 모두 437매가 확인되었다. 본존불과 같이 광곽의 크기는 17.2x27.0(cm)로 동일하나 인출된 종이는 상당히 다양하다.



수구대다라니(隨求大陀羅尼) (낱장)

5) 다라니(陀羅尼)

관음보살의 복장에서 확인된 「다라니」는 묵인본(墨印本) 420매이다. 광곽의 크기는 23.1x49.0(cm)로 동일하나 인출된 종이는 29.0x51.6(cm) 내외로 상당히 다양하다.



다라니(陀羅尼) (날장)

3. 우협시보살(대세지보살)

1) 妙法蓮華經

1531년(嘉靖 10) 永川 公山本寺 重刻

妙法蓮華經/ 戒環(宋) 解. - 木板本 - [永川]: [公山本寺], [嘉靖 10年(1531) 重刻].

날장 권2, 권3, 권6 (202장) : 四周單邊 半郭 25.9x19.7cm. 有界, 9행 16자(小字 9行21字), 上下內向黑魚尾;

이 판본은 대세지보살상의 복장에서는 권1, 권3, 권6 등 일부만이 확인되었다. 모두 41.4x53.0cm 내외의 상품의 저지에 인출하였다.



1531년(嘉靖 10) 永川 公山本寺 重刻  
妙法蓮華經 卷2 날장

## 2) 보치진언(寶篋眞言)

대세지보살상의 복장에서 확인된 「보치진언」은 주인본(朱印本) 639매 분이다. 묵인본(墨印本)이 하나도 없다는 점이 다른 존상과 구별된다. 광곽의 크기는 23.0x14.0(cm)로 동일하나 인출된 종이는 26.9x16.9 내외로 상당히 다양하다.



보치진언(寶篋眞言) (날장)

## 3) 다라니(陀羅尼)

대세지보살의 복장에서 확인된 「다라니」는 묵인본(墨印本) 116매이다. 광곽의 크기는 23.1x49.0(cm)로 동일하나 인출된 종이는 29.0x51.6(cm) 내외로 상당히 다양하다.

특별한 사실은 다른 존상에 비교하여 「수구대다라니(隨求大陀羅尼)」가 한 장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다라니(陀羅尼) (날장)

<참고>

## 17세기 활동 조각승 작품 지정현황

○ 광원(廣圓)

지정현황	작품명	연대	수량	비고
보물 제1789호	안성 청룡사 소조석가여래삼존상	1603년	3	

○ 원오(圓悟, 元悟)

지정현황	작품명	연대	수량	비고
경남유형 제533호	김해 선지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1605년	1	동산분과 부결
보물 제1605호	익산 관음사 목조보살입상	1605년	1	수조각승
보물 제1815호	논산 쌍계사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	1605년	3	수조각승
보물 제1852호	남원 선원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소조시왕상일괄	1610년	25	수조각승 1645년 도색이 중수

○ 각민(覺敏)

지정현황	작품명	연대	수량	비고
보물 제1719호	공주 동학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복장유물	1606년	3	
비지정	순천 송광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1614년	3	소실

○ 인일(仁日)

지정현황	작품명	연대	수량	비고
보물 제1791호	여주 신희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1610년	3	현 유일작

○ 현진(玄眞)

지정현황	작품명	연대	수량	비고
전남유형 제289호	장성 백양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1607년	1	최근 목서명 발견
보물 제1686호	진주 월명암 목조아미타여래좌상	1612년	1	
경남유형 제456호	함양 상련대 목조관음보살좌상	1612년	1	국가지정 부결
보물 제1889호	구례 천은사 목조관음보살 및 대세지보살	1614년	2	
보물 제1688호	진주 청곡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1615년	3	*현진추정 작
보물 제1621호	서울 지장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	1622년	1	*장열왕후 발원작
보물 제1460호	보은 법주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	1626년	3	*5.09m 초대형작
보물 제1730호	창녕 관룡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대좌	1629년	3	
보물 제1565호	부여 무량사 소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1633년	3	*5.21m 초대형작
비지정	성주 명적암 목조아미타여래좌상	1639년	1	*영남대박물관

○ 태전(太顛)

지정현황	작품명	연대	수량	비고
보물 제1863호	해남 대흥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1612년	3	*본존 후보
비지정	김제 금산사 독성상	1615년	1	*미상

○ 수연(守衍)

지정현황	작품명	연대	수량	비고
보물 제1751호	서천 봉서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1618년	3	*최선행작
보물 제1785호	강화 전등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1623년	3	
보물 제1834호	나주 다보사 목조석가여래삼존상 및 소조십육나한좌상	1625년	19	
전북유형 제189호	익산 송림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1634년	25	
보물 제1768호	강화 전등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1636년	31	
보물 제1381호	예산 수덕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복장유물	1639년	3구	

○ 응원(應原, 應圓)

지정현황	작품명	연대	수량	비고
전남문자 제172호	무안 목우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1614년	3	
보물 제1624호	순천 송광사 목조석가여래삼존상 및 소조십육나한상	1624년	26	
전남유형 제334호	순천 송광사 감로암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1624년		
보물 제1467호	순천 송광사 소조사천왕상	1628년	4	

○ 무염(無染)

지정현황	작품명	연대	수량	비고
보물 제1752호	고창 선운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	1633년	3	
보물 제1377호	영광 불갑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1635년	3	
비지정	남양주 불암사 목조관음보살좌상	1649년	1	*원 대둔산 묘련암 *18년 6차위원회 지정예고
보물 제1829호	대전 비래사 목조비로자나불좌상	1650년	1	*원 대둔산 안심사
전북유형216호	무주 관음사 목조관음보살좌상	1650년	1	
보물 제1721호	속초 신흥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1651년	3	
보물 제1749호	속초 신흥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1651년	3	
보물 제1853호	완주 정수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1652년	3	



○ 청헌(淸憲)

지정현황	작품명	연대	수량	비고
보물 제1548호	구례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	1636년	3	
보물 제1378호	하동 쌍계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사보살상	1639년	6구	
보물 제1274호	완주 송광사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복장유물	1641년	3구	*5.45m의 초대형작품
보물 제1678호	진주 응석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1643년	3구	

○ 청허(淸虛)

지정현황	작품명	연대	수량	비고
보물 제1690호	거창 심우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1636년	1	*원 덕유산 연수사
보물 제1378호	하동 쌍계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사보살상	1639년	6	
보물 제1750호	경산 경흥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1644년	3	* 금산사화원 원문기록
보물 제1635호	상주 남장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1645년	3	

○ 현욱(玄旭)

지정현황	작품명	연대	수량	비고
보물 제1801호	대구 보성선원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및 복장유물	1647년	3	*원 거창 견암사

○ 인균(仁均)

지정현황	작품명	연대	수량	비고
비지정	김제 귀신사 소조석가여래삼존좌상 및 16나한상 일괄	1633년	25	
전남유형 제371호	광양 백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1643년	1	*18년 5차위원회 부결
보물 제1566호	여수 흥국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시왕상 일괄 및 복장유물	1648년	21	
비지정	여수 흥국사 목조석가여래삼존상 및 나한상	1655년	일괄	
비지정	전주 학소암 자음전 목조약사여래좌상	1662년	1	

○ 승일(勝一, 勝日)

지정현황	작품명	연대	수량	비고
보물 제1843호	강진 정수사 석가여래삼불좌상	1648년	3	*좌협시 1561년작
보물 제1819호	서울 봉은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1651년	3	*본존 후보
전북유형 제183호	무주 북고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1657년	1	
비지정	문경 김룡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1658년	3	*국가지정신청
보물 제1821호	서울 청룡사 석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1660년	22	*원 경산 용밀사
경북유형 제360호	칠곡 송림사 석조삼장보살좌상 및 시왕상 일괄	1665년	일괄	
비지정	김천 직지사 목조비로자나불좌상	1668년	1	
경북문자 제467호	김천 고방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1670년	1	

○ 영철(靈哲)

지정현황	작품명	연대	수량	비고
보물 제1822호	서울 화계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1649년	25	

○ 운혜(雲惠)

지정현황	작품명	연대	수량	비고
보물 제1650호	해남 서동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1650년	3	
전남유형 제271호	곡성 도립사 보광전 목조아미타삼존불상	1665년	3	
보물 제1726호	화순 쌍봉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1667년	21	

○ 응매(應梅)

지정현황	작품명	연대	수량	비고
보물 제1718호	군산 동국사 소조석가여래삼존상 및 복장유물	1650년	3	

○ 도우(道雨, 道祐)

지정현황	작품명	연대	수량	비고
보물 제1814호	대구 운흥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1653년	3	
보물 제1606호	칠곡 송림사 석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1655년	3	
보물 제1813호	대구 용연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및 복장유물	1655년	3	
보물 제1605호	칠곡 송림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1657년	3	
비지정	나주 죽림사 목조삼존불좌상	1664년	3	

○ 혜희(惠熙)

지정현황	작품명	연대	수량	비고
경북유형 제429호	고령 반룡사 목조비로자나불삼존좌상	1642년	3	*국가지정 신청 중
보물 제1361호	보은 법주사 목조관음보살좌상	1655년	1	
보물 제1660호	순천 송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 및 복장유물	1662년	1	*경안군 발원
비지정	전주 일출암 목조약사여래좌상	1667년	1	
비지정	부산 금정암 목조아미타여래좌상	1667년	1	

○ 해심(海心)

지정현황	작품명	연대	수량	비고
보물 제1918년	고창 문수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1654년	3	
보물 제1920년	고창 문수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1654년	11	

○ 녹원(鹿苑)

지정현황	작품명	연대	수량	비고
보물 제1729호	창원 성주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1655년	3	
보물 제1824호	기장 장안사 석조석가여래삼불좌상	1659년	3	

○ 조능(祖能)

지정현황	작품명	연대	수량	비고
보물 제1833호	김계 청룡사 목조관음보살좌상	1655년	1	

○ 인영(印迎)

지정현황	작품명	연대	수량	비고
보물 제1689호	진주 청곡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1657년	21	

○ 영규(靈圭)

지정현황	작품명	연대	수량	비고
보물 제1691호	함양 법인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1657년	1	

○ 희장(熙莊)

지정현황	작품명	연대	수량	비고
경북유형 제334호	구미 수다사목조아미타여래좌상	1649년	1	
전북유형 제18호	진안 금당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1650년	1	
경북문자 제309호	청도 대운암 목조관음보살좌상	1654년	1	
보물 제1526호	부산 범어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1661년	3	
전남유형 제221호	진도 쌍계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1665년	3	*지정예고 중
전남유형 제222호	진도 쌍계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1666년	일괄	

○ 희감(懷鑒)

지정현황	작품명	연대	수량	비고
보물 제1811호	평창 상원사 목조문수보살좌상 및 복장유물	1661년	1	
비지정	강진 무위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1661년	일괄	
전북유형 제194호	군산 불주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1666년	1	

○ 단응(端應)

지정현황	작품명	연대	수량	비고
보물 제989-1호 보물 제989-2호	예천 용문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및 아미타여래설법상	1684년	21	
충북유형 제206호	제천 정방사 목조관음보살좌상	1689년	1	

### 03. 김홍도 필 삼공불환도 (金弘道 筆 三公不換圖)

#### 가. 심의사항

‘김홍도 필 삼공불환도’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김홍도 필 삼공불환도’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6.6.14)이 있어 관계전문가 조사('17.12.20)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의 검토 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 제5차 회의('18.7.12)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18.7.24~'18.8.24)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김홍도 필 삼공불환도(金弘道 筆 三公不換圖)
- 소유자(관리자) : 이○○(삼성문화재단)
- 소재지 : 서울시 용산구
- 수 량 : 1좌(8폭)
- 규 격 : 전체 177.0×424.8cm, 화면 139.4×54.0cm
- 재 질 : 비단에 수묵담채
- 형 식 : 병풍
- 조성연대 : 1801년(순조 1)

####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 (지정 가치 있음)

이 작품은 김홍도의 작품 중에서 드물게도 대작에 속하며 제작년도 제작배경이 확실히 밝혀져 있다는 점에서 회화사적 가치가 높다. 또한 화가 말년의 능숙한 필치가 장대한 구도를 배경으로 산수, 인물, 가옥 등에서 유감없이 발휘되어 예술적 가치 또한 뛰어나다. 현재 보물 제1393호로 지정된 <김홍도필 추성부도(金弘道筆 秋聲賦圖)>와 비교하여 뒤지지 않는 작품이다. 따라서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 (지정 가치 있음)

지금까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김홍도의 작품은 <군선도>(국보 제139호, 삼성미술관 리움), 《병진년 화첩》(보물 282호, 삼성미술관 리움), 《풍속도첩》(보물 제527호, 국립중앙박물관), <추성부도>(1805, 보물 제1393호) 4건 뿐이다. 《삼공불환도》 병풍은 이미 지정문화재로 등록된 그의 여타 작품들과 비교할 때 크기, 독창성, 사료로서의 가치 면에서 전혀 손색이 없는 그의 대표작이다.

《삼공불환도》 병풍은 김홍도가 1801년에 그렸다는, 즉 작가와 제작연도가 분명하게 밝혀졌고 왕실과 연관된 공적인 시각물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무엇보다도 《삼공불환도》 병풍은 조선시대 회화사에서 거의 활용되지 않았던 「낙지론(樂志論)」을 토대로 하여 이를 시각적으로 해석하여 문학과 회화와의 결합을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이며, 이 회화(繪事)의 내용을 기록한 간재 홍의영의 제발이 화면에 적혀 있어 그림의 제작 경위를 정확히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김홍도의 병풍 회화 중에서 드물게 8폭 전체에 『낙지론』 하나의 주제만을 그린 사례이며, 산수화, 풍속인물화, 화조화, 계화등이 한 화면에 모두 표현되어 있어 김홍도가 지닌 뛰어난 기량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총체적인 작품이다. 따라서 《삼공불환도》 병풍은 중국의 고전을 완전히 숙지한 김홍도의 탁월한 문학 작품의 해석력과 이를 재현한 화가로써의 역량이 충분히 발휘된 뛰어난 수작으로, 한국회화사에 한 좌표를 차지하는 중요한 작품이므로 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 (지정 가치 있음)

<삼공불환도>는 그의 말년 작품세계를 대표하는 것으로 사이즈와 그림의 질 모든 면에서 문화재적 가치가 높다. 김홍도의 다양한 장르가 한 화면 안에 높은 완성도로 집성, 융합되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깊다. 게다가 홍의영이 남긴 제발을 통해 제작 연대와 제작 배경이 확인된다는 점이 더욱 가치를 높여준다. 따라서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자격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 지정

### 조사보고서



### ○ 현 상

-여덟 폭으로 이루어진 한 점 병풍 형태다. 좌우로 펼쳐진 구도에 절벽과 바위로 둘러싸인 으리으리한 가옥이 자리잡고 그 앞편으로 너른 전답이 펼쳐진다. 멀리 강이 보이고 여백에는 제밭이 길게 적혀있다.

-제1폭에는 높은 절벽이 있고 아래 쪽에 육각지붕의 정자가 있다. 제2폭에서 제4폭까지는 절벽을 배경으로 여러 채로 이루어진 가옥이 담장에 둘러싸여 있다. 누각도 있으며 연못도 보인다. 건물 안과 밖에는 사람들이 있는데 공부, 베틀짜기, 물레젓기, 그네타기, 독서, 환담 등에 열중하는 남녀들이다. 사람들 뿐만 아니라 개, 닭, 학, 오리, 사슴 등 동물도 집안에 있다. 제5폭에서 제8폭에는 커다란 바위와 너른 전답이 있는데 김을 매는 사람들, 낚시하는 사람 등이 보인다. 제8폭 위편에는 돛단배가 보여 물가임을 알려준다.

-제6폭에서 제8폭의 상단에는 간재(艮齋) 홍의영(洪義榮, 1750-1815)이 후한 중장통(仲長統)이 지은 「낙지론(樂志論)」을 일부 구절을 제외하고 행서로 적었다. 글 앞머리에 백문 유인(遊印)과 끝에 백문 인장 2개를 찍었는데 글씨는 잘 판독되지 않는다. 그 뒤를 이어 병풍의 제작 배경을 행서로 썼고, 백문 방인을 찍었다. 이 제밭에 따르면 1801년 12월에 순조가 수두를 앓다가 병이 나아 이를 축하하는 계병(禊屏)을 김홍도의 그림으로 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작품은 원래 소설가 박종화(朴鍾和, 1901-1981)의 소장품이었는데, 1968년 2월 충신동 집에 있는 서재에 화재가 발생해 불에 그슬렸다고 한다. 이후 한 폭의 족자로 꾸며졌다가 2003년에서 2007년에 걸쳐 삼성미술관리움에서 병풍으로 다시 바꾸었다고 한다. 현재 제1폭에서 제3폭까지는 아래 쪽에 불에 타 없어진 부분이 있으며, 각 폭의 연결 부분이 손상되어 결실된 부분이 있다. 특히 제1폭은 화면이 상당히 훼손되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화면의 주요 부분은 큰 손상없이 양호한 편이다.

### ○ 내용 및 특징

-김홍도(金弘道, 1745-1806이후)는 본관은 김해로 자는 사능(士能), 호는 단원(檀

園), 서호(西湖), 단구(丹邱) 등이다. 대대로 무반을 배출한 중인 집안 출신으로 뛰어난 그림 실력을 바탕으로 도화서 화원이 되었고 정조의 신임을 얻어 안기찰방, 연풍현감 등 지방 수령을 지내기도 했다. 김홍도는 영조어진, 정조어진을 그렸고, 산수화, 인물화, 화조화, 도석화, 풍속화 등에 두루 능하여 당대 최고의 화가로 활동하였다. 그는 사대부를 비롯하여 중서인들과도 폭넓게 교류했다.

-그림의 내용은 여러 부분에서 「낙지론」의 구절과 상통한다. 산을 뒤로 하고 물을 앞으로 한 집에 연못을 만들고 대나무를 심은 것, 좋은 벗이 오면 술과 안주를 내어 기쁘게 하는 것 등이 그러하다. 반면 홍의영이 언급한 그림의 제목인 “삼공불환”은 「낙지론」과는 상관이 없고 송대 시인 대복고(戴復古)의 시 <조대(釣臺)>에 나오는 “삼공불환차강산(三公不換此江山)”라는 구절이다. 후한 광무제 때 벼슬을 마다하고 낙시하며 숨어살던 엄광(嚴光)을 지칭하는 것이다. 여하튼 한국은 물론 중국에서도 「낙지론」을 주제로 그림을 그린 것은 드문 실정에서 이 작품은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은 김홍도의 능숙한 기량으로 표현한 산수와 풍속 두 화제가 한 화면에 함께 담겨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 왔다. 특히 산수 및 인물풍속에서 나타나는 화풍은 김홍도 말년, 즉 1800년 이후에 즐겨 구사한 난숙한 필치의 두드러진 특징을 잘 보여준다.

-이 병풍에 글을 적은 홍의영은 김홍도 말년의 여러 작품에 제발을 남기고 있다. 그림의 제작 배경에 등장하는 “한공(韓公)”은 한용구(韓用龜, 1747-1828)로 추정된다. 홍의영과 더불어 노론 벽파에 속했던 인물인데, 이로써 이 병풍의 제작 배경으로 당시 새롭게 부상하던 노론 벽파의 존재를 유추해 볼 수 있다.

## ○ 참고문헌

조지윤, 「삼성미술관Leeum소장 단원 김홍도 <삼공불환도> 연구」, 『삼성미술관 Leeum 연구논문집』 제5호 (2009)

조지윤, 「단원 김홍도 筆 <三公不換圖> 연구」, 『美術史學研究』 275/276호 (2012)

오주석, 『단원 김홍도』 (열화당, 1998)

진준현, 『단원 김홍도 연구』 (일지사, 1999)

이원복, [일사일언] 살아남은 우리 명화 (조선일보 2015.10.28.)



그림 73. 김홍도 필 <삼공불환도>

□

○ 현 상

1. 상황 상태 : 1995년 학교재에서 구입 당시 두루마리 상태였음. 2003. 11-2007.5 삼성미술관 리움에서 8폭 병풍 형태로 다시 표구함. 화면 중간에 최초의 상황이 병풍이었음을 알려주는 소나무 골조의 자국이 남아있음.
2. 화면 상태 : 1-4폭 하단에 화재의 흔적이 남아 있음. 특히 1폭은 배접지를 너무 많이 베껴내어 박락이 심하고 비단의 울이 어긋났으며, 불타오른 자국이 화면 상단까지 남아 있음. 각 폭의 연결 부분이 조금씩 결손되어 그림이 이어지지 않으나 병풍으로의 재장황 과정에서 이를 최소화하고 복원하려고 시도함.

○ 내용 및 특징

1. 1801년 순조의 수두 완쾌를 기념하기 위해 유후 한공이 중심이 되어 만든 계병 중의 하나로서 18세기 후반을 대표하는 차비대령 화원인 단원 김홍도(檀園 金弘道, 1745-1806)가 제작했다. 현재 정확한 인명이 밝혀지지 않은 유후 한공은 김홍도에게 <신우치수도>, <화훼영모도>, <삼공불환도> 3점의 그림을 의뢰했는데 그중에서 <삼공불환도>를 간재(艮齋) 홍의영(洪儀泳, 1750-1815)이 소장했다.

2. 이 작품의 제목인 ‘삼공불환’은 송대(宋代) 시인 대복고(戴復古)의 시 「조대(釣臺)」에 나오는 구절로써, 전원의 즐거움을 삼공(三公)의 높은 벼슬과 바꾸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제발에는 후한(後漢) 중장통(仲長統)의 「낙지론(樂志論)」이 적혀있는데, 김홍도는 낙지론의 내용을 조선식 산수로 번안하여 배산임수의 구도로 “좋은 밭과 넓은 집”, 그리고 그 안에서 기거하는 백성들의 다양한 면모를 생생하게 표현했다. 따라서 <삼공불환도>는 김홍도 후기의 풍속화와 산수가 융합된 대표적 역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3. 제6폭에서 8폭에 이르는 화면 상단에 적혀 있는 「낙지론」의 번역문과 원문은 다음과 같다.(오탈자는 괄호로 표기하고 원문을 보충했음)



거처하는 곳에 좋은 논밭과 넓은 집이 있고 산을 등지고 냇물이 곁에 흐르고 도랑과 연못이 둘러 있으며, 대나무와 수목이 두루 펼쳐져 있고 타작마당과 채소밭이 집 앞에 있고 과수원이 집 뒤에 있다. 배와 수레가 걸거나 물을 건너는 어려움을 대신하여 줄 수 있고, 심부름하는 이가 육체를 부리는 일에서 실 수 있게 한다. 부모를 봉양함에는 진미를 곁들인 음식을 드리고 아내나 아이들은 몸을 괴롭히는 수고도 없다.

좋은 벗들이 모여 머무르면 술과 안주를 차려서 즐기며, 기쁠 때나 길한 날에는 염소와 대지를 삶아 바친다. (밭이랑이나 동산을 거닐고 평평한 숲에서 노닐며) 맑은 물에 몸을 씻고 시원한 바람을 좇으며, 헤엄치는 잉어를 낚고 높이 나는 기러기를 주살로 잡는다.

기우제를 지내는 제단 아래에서 바람을 씌며 놀다가 훌륭한 집으로 읊조리며 돌아온다. (안방에서 정신을 편안히 하고 노자의 현묘하고 허무한 도를 생각하며, 조화된 정기를 호흡하여 지인(至人)과 같아지기를 구한다.) 통달한 사람 몇 명과 도를 논하고 책을 강론하며, 하늘과 땅을 올려다보고 내려다보며 고금의 인물들은 한데 종합하여 평한다.

「남풍(南風)」 전아한 가락을 연주하고 「청상곡(淸商曲)」의 미묘한 곡도 연주한다. 온 세상을 초월한 위에서 거닐며 놀고 하늘과 땅 사이를 걸논질하며, 당시의 책임을 말지 않고 기약된 목숨을 길이 보존한다. 이렇게 하면 하늘을 넘어서 우주 밖으로 나갈 수가 있을 것이니, 어찌 제왕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부러워하겠는가?

使居有良田廣宅 背山臨流 溝地環匝 竹木周布 場圃築前 果園樹後 舟車足以代步涉之難 使令足以息四體之役 養親有兼珍之饌(膳) 妻孥無苦身之憂(勞) 良朋萃止 則陳酒肴(以)娛之 佳(嘉)時吉日 則烹羔豚而(以)奉之 (躊躇畦苑 遊戲平林) 濯清水 追涼風 釣遊鯉, 弋高鴻 風于(於)舞雩之下 詠歸高堂之上 (安神閨房 思老氏之玄虛 呼吸精和 求至人之彷彿) 與達者數(子) 論道講書 俯仰二儀 錯綜人物 彈南風之雅操 發淸商之妙曲 逍遙一世之上睥睨天地之間 不受當時之責 永保性命之期 如是則可以 凌霄漢 出宇宙之外矣 豈羨夫入帝王之門哉.

#### 4. 제8쪽에는 작품의 제작 경위를 알려주는 홍의영의 관지가 적혀있다.

신유(1801)년 겨울 12월 임금님의 수두가 나오셔서 온 나라가 기뻐하였다. 이에 유후(留後) 한공(韓公)이 계병을 만들어 휘하에 나누어 주었는데, 이는 전에 없던 경사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한공과 나는 <신우치수도>를 얻었고, 총제는 <화훼영모>를, 주판은 <삼공불환도>를 원하여 각기 좋아하는 바를 나누어 가졌다. 마침내 그림이 완성되자 종장통의 낙지론을 그 위에 제 했다. 그림과 부합되는 그 말을 취하고 또 좋아하는 바를 이루기를 기약하여 종장씨의 논과 단원 그림의 뜻을 저버리지 말기를 바란다. 간재가 단원의 삼공불환도에 제한다.

辛酉冬十二月 玉候水痘翌廖 八域欣忭 留後韓公作襖屏 分于僚屬 盖識曠前之慶也 韓公

及余得神禹治水圖 摠制得花卉翎毛 州判願爲三公不換圖 各取其好也 圖既成遂題仲長氏樂志論 取其語之副於圖 且期成其所好 無負仲長之論檀園之畫 良齋題于檀園三公不換圖

5. 홍의영의 간지 말미에 도장 2과가 찍혀있으나 관독이 되지 않는다.

6. 화면 전체에 강한 선으로 산수 배경이 펼쳐져 넓은 공간감이 형성되었고, 그 내부에 커다란 기와집과 여타 가옥들이 짜임새 있게 배치되었다. 또한 일상을 영위하는 수많은 인물상들이 묘사되었다.

□

### ○ 현 상

여덟 폭의 병풍으로 1-4폭의 하단부에 화재로 인해 불에 탄 흔적이 남아있다. 불에 훼손된 주변도 그림의 손상이 심한 편이나 그 외의 다른 곳은 상태가 양호하다. 각 폭의 좌우 끝 부분에 결실이 일부 있어 그림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는다.

### ○ 내용 및 특징 :

조선후기를 대표하는 화원 화가인 김홍도가 그린 대폭의 그림이다. 송대(宋代) 대복고(戴復古)의 시 「조대(釣臺)」의 구절인 ‘삼공불환(三公不換)’을 제목으로 삼고, 후한(後漢) 중장통(仲長統)의 「낙지론(樂志論)」을 주제로 삼아 그린 것이다. 1801년 순조(純祖)의 수두가 회복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사대부들이 김홍도에게 그리도록 한 계병 가운데 하나이다. 6-8폭의 상단에는 조선 후기의 문신 홍의영이 쓴 관지와 「낙지론」의 일부가 쓰여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신유년 겨울 12월에 임금의 병환인 수두가 나아서 온 나라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 유후 한공이 계병을 만들어 휘하의 벼슬아치에게 나누어 주니 대개 전에 없던 경사를 기념한 것이다. 한공과 나는 「신우치수도(神禹治水圖)」를 얻었고, 총제관은 <화훼영모도(花卉翎毛圖)>를 얻었으며, 주판은 <삼공불환도(三公不換圖)>로 하기를 원하니 각자 그 좋아하는 것을 얻었다. 그림이 이미 이루어졌으므로 드디어 중장통이 지은 「낙지론」을 화제로 썼는데, 그 말이 그림에 부합되는 것을 골랐다. 장차 그 좋아하는 바가 이루어지고 중장통이 논한 내용과 단원의 그림에 나타난 뜻을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 간재 홍의영이 단원이 그린 삼공불환도에 제를 쓰다.(辛酉冬十二月 玉候水痘翌瘳 八域欣忭 留後韓公作稷屏 分于僚屬 盖識曠前之慶也 韓公及余得神禹治水圖 摠制得花卉翎毛 州判願爲三公不換圖 各取其好也 圖既成遂題仲長氏樂志論 取其語之副於圖 且期成其所好 無負仲長之論檀園之畫也 良齋題于檀園三公不換圖)”

“만약 거처하는 곳에 좋은 밭과 넓은 집이 있다면 산을 뒤로 하고 물은 앞으로 한다. 연못을 둘러 만들고, 대나무를 두루 심으며, 채마밭은 앞에 만들고 과수원은 뒤에다 만든다. 배와 수레가 걷는 수고로움을 대신하고 심부름하는 아이는 몸 움직이는 일을 쉬게 해준다. 갖가지 진미로 부모를 모시고 아내와 자식들은 몸 고생하는 일 없이 편안하다. 좋은 벗이 오면 술과 안주를 내어 기쁘게 하고, 좋은 때와 길일에는 염소와 돼지를 잡는다. 동산을 거닐다가 숲에서 놀고 맑은 물에 몸을 씻고 서늘한 바람 맞으며 헤엄치는 잉어를 잡고 높이 나는 기러기를 잡는다. 물 아래서 바람 쏘이고 높은 집으로 노래 부르며 돌아간다. 도에 통달한 서너 명과 더불어 도를 논하고 책을 강론하며 하늘과 땅을 올려다보고 내려다보며 고금의 인물들을 평한다. 남풍의 전아한 가락을 연주하고 청상곡의 미묘한 곡도 연주한다. 온 세상을 초월한 위에서 거닐며 놀고 하늘과 땅 사이를 걸논질하며, 당시의 책임을 맡지 않고, 길이 성명을 보존한다. 이와 같이 한다면 하늘을 넘고 우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니 어찌 제왕의 문으로 들어가기에 부러워하겠는가. (使居有良田廣宅 背山臨流 溝池環匝. 竹木周布 場圃築前 果園樹後. 舟車足以代步涉之難 使令足以息四體之役. 養親有兼珍之膳 妻孥無苦身之憂. 良朋萃止 則陳酒肴以娛之 嘉時吉日 則烹羔豚以奉之. 濯清水 追涼風 釣游鯉 弋高鴻. 諷於舞雩之下 詠歸高堂之上. 與高士數人 論道講書 俯仰二儀 錯綜人物. 彈南風之雅操 發清商之妙曲. 逍遙一世之上 睥睨天地之間 不受當時之責 永保性命之期. 如是則可以凌霄漢 出宇宙之外矣. 豈羨夫入帝王之門哉.)”

강을 앞에 두고 산자락에 위치한 대형 기와집과 그에 딸린 논밭을 그린 것으로 그 안의 사람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모습을 다루었다. 모임 중인 주인과 손님, 심부름 하는 여인, 일하는 농부 등의 각종 인물과 닭, 개 등의 가축이 곳곳에 아기자기하게 그려져 있다.

양식적으로는 김홍도 특유의 역동적이고 리드미컬한 사선구도가 이용되었고, 그의 말년 작에서 중요했던 느슨하면서도 활달한 필치와 여백의 효과가 십분 반영되어있다. 또한 김홍도의 인물화, 산수화, 화조화가 커다란 화면 안에 높은 완성도와 짜임새로 배치되어있다. 따라서 김홍도 말년의 대표작품으로서 여러 장르에 두루 뛰어났던 그의 역량이 유감없이 발휘된 대작으로 평가할 수 있다.

#### ○ 문헌자료(없을 경우 생략)

- 오주석, 『단원 김홍도』 (열화당, 1998)
- 유홍준, 『화인열전』 (역사비평사, 2001)
- 진준현, 『단원 김홍도 연구』 (일지사, 1999)
- 조지윤, 「단원 김홍도 筆 <三公不換圖> 연구」, 『미술사학연구』 275 · 276,

한국미술사학회, 2012.

○ 기 타

현재의 소장자가 1995년 학고재 갤러리에서 구입했다. 조선시대 제작 당시에는 병풍이던 것이 명확치 않은 어느 시점에 족자로 표장되었고, 2003-2007년 무렵 다시 현재의 병풍 형태로 재표장되었다.

**04. 자치통감 권129~132**  
**(資治通鑑 卷一百二十九~一百三十二)**

**가. 심의사항**

‘자치통감 권129~132’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대구광역시로부터 ‘자치통감 권129~132’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6.12.7)이 있어 관계전문가 조사('18.3.13)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의 검토 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 제5차 회의('18.7.12)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18.7.24~'18.8.24)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자치통감 권129~132(資治通鑑 卷一百二十九~一百三十二)
- 소유자(관리자) : 권○○(한국불교조선종 성불사)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 1396-11
- 수 량 : 4권 1책
- 규 격 : 36.7×24.5cm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금속활자본(초주갑인자)
- 형 식 : 선장(線裝)
- 조성연대 : 1436년(세종 18) 경

##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 (지정 가치 있음)

#### ○ 지정 가치

司馬光의 「資治通鑑」은 정치와 군사의 서술을 위주로 통치자에게 국가의 治亂興亡의 借鑑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만큼, 조선에서도 국가의 경영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서적이었다.

指定申請本 「資治通鑑」(卷129-132)은 세종이 景福宮의 思政殿에서 名臣·學者들의 訓義와 校勘을 거쳐 「資治通鑑」의 편찬을 완료하고 柳義孫(1398-1450)의 서문을 붙여 세종 18(1436)년에 初鑄甲寅字로 간행하여 京外에 排布하였던 판본이다. 世宗朝에 鑄字所에서 初鑄甲寅字로 간행된 「資治通鑑」의 판본은 국립중앙도서관·규장각 등에 소장되고 있으나 그 傳本이 매우 희귀한 판본이다.

指定申請本 「資治通鑑」(卷129-132)은 歷史學·政治學·行政學·書誌學 등의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조선시대 초기의 金屬活字印刷術研究에도 크게 활용될 수 있을 자료이다. 따라서 指定申請本 「資治通鑑」(卷129-132)은 國家文化財로 指定하여 研究하고 管理·保存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 근거 기준

指定申請本 「資治通鑑」(卷129-132)과 同一 또는 類似한 版本이 國立中央圖書館·奎章閣 등에 소장되고 있으며, 國家文化財로 지정된 事例는 보물 제1281-1호(권236-238, 국립중앙박물관), 보물 제1281-2호(권131-135, 권246~250, 서울역사박물관), 보물 제1281-3(권193-195, 원각사), 보물 제1281-4호(권226-229, 울산박물관) 등 數件이 있다.

### □ (지정 가치 있음)

#### ○ 지정 가치

조사대상의 성불사 소장 『자치통감』 4권 1책은 세종의 명령으로 1436년 주자소에서 초주갑인자로 간행하여 신하들에게 보급한 294권의 완질본 가운데 권129~132로, 영본(零本)이며, 인출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인출정보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면서 당대의 현실정치의 운영철학 및 역사인식과 함께 출판인쇄문화의 실체와 역량 등을 진단할 수 있는 원천정보를 담고 있는 등 역사·문화적인 가치를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조사대상본과 같이 초주갑인자로 간행한 『자치통감』이 총 5건 정도로 국가기록유산으로 지정되어 있기도 하다. 더구나 동일 종류의 금속활자인 초주갑인자로 간행한 『자치통감』 권129~130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유일본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기도 한다.

때문에 조사대상의 『자치통감』 4권 1책은 국가기록유산(보물)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하는 동시에 보존·관리하는 것이 국가적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 근거 기준

조사대상의 『자치통감』 권129~132 1책은 동일 초주갑인자로 인출한 잔존의 기록유산이 현재까지 총 5건 정도가 보물 제1281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조선 세종 때의 출판인쇄술과 지식역량 및 통치철학 등 역사·문화적인 실체와 성격을 보완할 수 있는 원천자료로 학술적 가치도 확보하고 있다. 특히 조사대상본은 동일 금속활자경판의 인출본과 비교하여 문화적인 가치에서도 크게 뒤지지 않으며, 권129~130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자료적 희소성도 확보하고 있는 국가기록유산이라 판단된다. 때문에 조사대상본을 보물로 지정하여 동일 인출본과 역사·문화적인 보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향후에는 동일 인출본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체계적으로 비교·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국가기록유산으로의 지정에서 객관성과 신중성을 기할 필요가 있는 듯하다.

#### ○ (지정 가치 있음)

성불사 소장본 『자치통감』은 1434년(세종 16)년에 편찬에 착수한지 2년만인 1436년(세종 18)에 편찬이 완료되자마자 유의손의 서문을 붙여 주자소로 하여금 초주갑인자로 간행하여 경외에 배포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판본 가운데 권129~132의 4권 1책이다. 이 판본은 매우 희귀한 판본으로 아직까지 전권이 확인되지 않은 책이다.

조사본 가운데 이번에 확인된 권129 및 권130은 초주갑인자본으로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던 내용이라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관리·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 지정

조사보고서



○ 調査本の 書誌記述 및 現狀 및 價値

資治通鑑. 卷129-132. / 司馬光(1019-1086, 宋朝) 奉勅撰 ; 思政殿(朝鮮) 訓義. -- 金屬活字(初鑄甲寅字)本. -- [漢城] : [鑄字所], [世宗 18(1436)年 推定]. 4卷1冊(零本) : 四周單邊, 半郭 27.5×19.6cm, 無界, 10行19字, 註雙行, 上下下向黑魚尾 ; 36.7×24.5cm. 楮紙. 線裝(五針眼訂).

題簽題: 資治通鑑集賢殿修

卷頭題: 資治通鑑

版心題: 通鑑

卷尾題: 資治通鑑

內 容: 卷129; 宋紀十一(世祖孝武皇帝下), 卷130; 宋紀十二(太宗明皇帝上之上), 卷131; 宋紀十三(太宗明皇帝上之下), 卷132; 宋紀十四(太宗明皇帝中)

印 文: 法成, 行雲流水, 今中有古, 千秋, 千江, 權寧八印, 崇山, 韓國佛教/朝禪宗/聖佛寺印 등

所藏歷: 1985년 4월 20일에 釋 睡巖이 釋 法朱에게 기증한 것으로 보고됨. (遺物取得經緯書 參看)

既定指定: 보물 제1281호(권236~238, 국립중앙박물관), 보물 제1281-2호(권131~135, 권246~250, 서울역사박물관), 보물 제1281-3(권193~195, 원각사), 보물 제1281-4호(권226~229, 울산박물관) 등

○ 指定申請本の 內容 및 特徵 및 價値

「資治通鑑」은 중국 北宋 중기의 정치가이며 사학자인 司馬光(1019-1086)이 皇命으로 치평 2(1065)년부터 원풍 7(1084)년까지 19년간에 걸쳐 편찬한 編年體의 역사서이다. 편찬자인 司馬光은 북송의 정치가·학자로 자는 君實이고 호는 迂夫·迂叟 등이며, 시호는 文正이다. 山西省 夏縣 涑水鄉 출신이라 ‘涑水先生’이라고도 하며, 사후에 ‘溫國公’에 봉하여졌으므로 ‘司馬溫公’이라고도 한다. 보원 2(1039)년에 진사에 급제하여 지방관을 두루 역임한 뒤 가우 6(1061)년에 起居舍人同知諫員에 전직되고 神宗이 즉위하여 翰林學士에 임명하였으나, 駢文에 어둡다는 이유로 고사하여 御史中丞이 되었다. 희녕 3(1070)년에 神宗과 王安石(1021-1086)이 新法政治를 시행하자 이를 비판하고 舊法의 회복을 도모하다 실각하여 洛陽에 은둔하면서 神宗의 지원을 받아 전후 19년간에 걸쳐 「資治通鑑」 294권을 撰進하였다. 1086(원우 원)년에 尙書左僕射兼門下侍郎에 기용되어 ‘元祐更化’를 주도하여 신법을 차례로 폐지함으로써 사회를 혼란에 빠뜨렸으나 집정한지 8개월 만에 卒去하



었다. 溫公의 입장은 대지주와 대상인 등 보수 세력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었으며, 사후에 新法黨에 의해 명예가 박탈되었다가 南宋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명예가 회복되었다.

溫公은 치평 원(1064)년에 「春秋左氏傳」을 모방하여 戰國과 秦代의 史實을 서술한 「通志」 8권을 찬진하였는데, 이를 확대하여 편찬하라는 英宗의 황명으로 이듬해(1065)부터 崇文院에 史局을 설치하고 국가의 적극적인 후원 아래 劉放(1023-1089)이 前漢과 後漢을, 劉恕(1032-1078)가 三國부터 南北朝까지를, 范祖禹(1041-1098)가 唐朝 및 五代를 각각 분담·기술하여 착수한지 19년만인 원풍 7(1084)년에 戰國의 周 威烈王 23(BC 403)년에서 五代 後周의 顯德 6(959)년에 이르는 1,362년간의 역사를 294권으로 편년하여 찬진하였다. 편찬 당시까지의 정사는 물론 實錄·野史·小說·墓誌類 등 무려 322종의 각종 자료를 참고로 하여 「春秋左氏傳」의 書法에 따라 찬진되자, 神宗은 “지난 역사를 거울삼아 治道에 도움이 되리라”는 의미에서 ‘資治通鑑’이라는 서명과 서문을 내렸다. 溫公이 「資治通鑑」을 찬술한 목적은 역대의 사실을 밝혀 정치의 규범으로 삼고 왕조의 흥망성쇠의 원인과 大義名分을 밝히려는 것이었다. 따라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지 않고 독특한 史觀으로 기사를 선택하였으며, 정치나 인물의 득실을 평론하여 鑑戒가 될 만한 사적들을 주로 拾錄하였다.

또한 편년에 있어서도 삼국의 경우에는 魏朝의 연호를, 남북조의 경우에는 南朝의 연호로 각각 正統을 명시하였다. 특히 중요한 기사에는 ‘臣光曰’이라는 按語로 溫公 자신의 평론을 첨가하고 있어, 溫公의 사관을 뚜렷이 엿볼 수 있다. 사실의 진위여부에 대해서는 溫公 자신이 별도로 「通鑑考異」 30권을 저술하여 사실의 고증에 참고가 되도록 하였으며, <通鑑目錄>과 <通鑑釋例>에는 목록과 범례가 잘 나타나 있다. 또한 溫公은 「稽古錄」을 저술하여 부족한 「資治通鑑」의 내용을 보충하고 있다. 「資治通鑑」은 魏朝로 紀年을 삼아 直筆한데 반해, 朱子(1130-1200)는 溫公의 이러한 史筆을 마땅하지 않은 것으로 여겼다. 예를 들어 溫公은 삼국의 曹魏가 後漢을 계승한 정통으로 인정하여 <魏紀>를 기술하였으나, 朱子는 溫公의 이러한 사관을 문제로 여겨 昭烈帝(劉備)가 후한 獻帝를 이어 그 遺統을 계승한 것으로 바로 잡아 「資治通鑑綱目」을 찬술하기도 하였다. 「資治通鑑」은 “천지간에 없어서는 안 될 서적인 동시에 학자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서적”이라는 王鳴聲(1722-1797)의 평가처럼 학자들의 필독서가 되면서 많은 주석서가 편찬되었다.

그 중 劉安世(1048-1125)의 「資治通鑑音義」는 이미 실전되었고, 비교적 완전한 상태로 전해지는 것이 南宋 史炤(1090-?)의 「資治通鑑釋文」과 王應麟(1223-1296)의 「通鑑地理通釋」이다. 그러나 「資治通鑑」에 대한 전면적인 주석서는 宋末元初의 胡三省(1230-1302)의 「資治通鑑音註」이며, 이것이 통행본이다. 「資治通鑑」의 판본

은 원대 이후로 거의 모든 판본이 胡三省의 주석본이며, 祖本은 元祐年間に 간행된 杭州刻本이나 이조차 이미 실전되고 소흥 2(1132)년에 余姚에서 간행된 重刻本이 현존하고 있다.

「資治通鑑」은 정치와 군사의 서술을 위주로 통치자에게 국가의 治亂興亡의 借鑑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만큼, 조선에서도 국가의 경영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서적이었다. 그 결과 세종 16(1434)년에 世宗의 명으로 尹淮(1380-1436)·權韜(1387-1445)·薛循(?-1435) 등이 「通鑑源委」·「通鑑集覽」·「通鑑釋義」 등을 참고하여 「資治通鑑」의 難解한 곳에 註釋을 붙이고 金沫(1383-1464)·柳義孫(1398-1450)·李中允(?-?)·李師曾(1398-1464)·李季甸(1404-1459)·崔恒(1409-1474)·南季瑛(1415-?)·魚孝瞻(1405-1475)·姜孟卿(1410-1461)·閔媛(?-1458) 등에게 함께 參校하도록 하여 世宗이 친히 일일이 검토한 후 도합 294권으로 편찬을 완료한 바 있다. 본서의 편집이 景福宮의 思政殿에서 행하여진 관계로 국왕이 ‘思政殿訓義’로 賜名하여 ‘資治通鑑思政殿訓義’로 불리며, ‘思政殿訓義資治通鑑’ 또는 ‘通鑑訓義’라 別稱되기도 한다.

指定申請本 「資治通鑑」은 세종 16(1434)년에 편찬에 착수한지 2년만인 세종 18(1436)년에 편찬이 완료되자마자 柳義孫의 서문을 붙여 鑄字所로 하여금 初鑄甲寅字로 간행하여 京外에 배포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판본의 卷129-132의 4권 1책이다.

指定申請本 「資治通鑑」(卷129-132)의 卷頭題 및 卷尾題는 ‘資治通鑑’이고 版心題는 ‘通鑑’이며, 題簽題의 ‘資治通鑑集賢殿修’는 誤記이다. 版式의 邊欄은 四周單邊이며, 每半葉에는 界線이 있으며 본문의 行字數는 10行19字이고 註文은 小字雙行이다. 板口는 白口이며 魚尾는 上下下向黑魚尾이다.

指定申請本 「資治通鑑」(卷129-132)의 수록내용은 卷129는 宋紀十一(世祖孝武皇帝下)이고 卷130은 宋紀十二(太宗明皇帝上之上)이며, 卷131은 宋紀十三(太宗明皇帝上之下)이고 卷132는 宋紀十四(太宗明皇帝中)이다.

指定申請本 「資治通鑑」(卷129-132)의 卷頭와 卷尾에는 ‘法成’, ‘行雲流水’, ‘今中有古’, ‘千秋’, ‘千江’, ‘權寧八印’, ‘崇山’, ‘韓國佛教/朝禪宗/聖佛寺印’ 등의 인문이 있으나, 근래에 날인하여 오히려 문화재가 훼손된 듯하다.

指定申請本 「資治通鑑」(卷129-132)과 동일한 同一 또는 類似的 版本이 國立中央圖書館·奎章閣 등에 소장되고 있으며 國家文化財로 지정된 事例는 보물 제1281호(권236-238, 국립중앙박물관), 보물 제1281-2호(권131-135, 권246~250, 서울역사박물관), 보물 제1281-3(권193-195, 원각사), 보물 제1281-4호(권226-229, 울산박물관) 등 數件이 있다.

指定申請本 「資治通鑑」(卷129-132)은 歷史學·政治學·行政學·書誌學 등의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조선시대 초기의 金屬活字印刷術研究에도

크게 활용될 수 있을 자료이다. 따라서 指定申請本 『資治通鑑』(卷129-132)은 國家文化財로 指定하여 研究하고 管理·保存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 ○ 현 상

조사대상의 『자치통감(資治通鑑)』 4권 1책은 북송의 사마광(司馬光)이 편찬한 중국의 통사를 경북궁(景福宮)의 사정전(思政殿)에서 교정·주석하여 1436년(세종 18) 초주갑인자(初鑄甲寅字)로 간행한 294권 가운데 권129~132로, 1985년 4월 20일 경 승(僧) 수암(睡巖)이 승 법주(法朱)에게 기증하여 현재 대구광역시 성불사에서 소장하고 있다.

조사대상본은 앞뒤 표지와 본문 94장 가운데 뒷표지의 일부가 마모되어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대체로 온존하게 보존되어 있다.

### ○ 서지사항

금속활자본(初鑄甲寅字本 : 1436년 추정)

사주단변/ 반곽 27.5×19.6cm/ 유계(有界)/ 반엽 10행 19자/ 주소자쌍행(註小字雙行)/ 상하하향흑어미(上下下向黑魚尾)/ 선장본(線裝本 ; 오침안정)

제 침 제 : 資治通鑑集賢殿脩

권 수 제 : 資治通鑑卷第一百二十九

저술정보 : 端明殿學士兼翰林侍讀學士朝散大夫集賢殿脩撰提舉西京嵩山崇福宮上柱國河內郡開國侯食邑一千八百戶食實封六百戶賜紫金魚袋臣司馬光奉 勅 編集/ 思政殿訓義

관 심 제 : 通鑑卷第一百二十九 一

권 미 제 : 資治通鑑卷第一百二十九

내 용 : 권129(宋紀十一 ; 世祖孝武皇帝下), 권130(宋紀十二 ; 太宗明皇帝上之上), 권131(宋紀十三 ; 太宗明皇帝上之下), 권132(宋紀十四 ; 太宗明皇帝中)

인 문 : 法成, 行雲流水, 今中有古, 千秋, 千江, 權寧八印, 崇山, 韓國佛教/朝禪宗/聖佛寺印 등

### ○ 내용 및 특징

조사대상의 『자치통감』 4권 1책은 북송의 사마광(司馬光)이 영종의 명령을 받아 1065년부터 1084년까지 19년 동안 편찬한 중국 통사를 세종 때 경북궁(景福宮)의 사정전(思政殿)에서 교정·주석하여 1436년(세종 18) 초주갑인자(初鑄甲寅字)로

간행한 294권 가운데 권129~132이다. 『자치통감』은 중국의 전국시대부터 당나라 말기까지 1,362년 동안의 중국역사를 편년체로 편찬한 기록유산으로, 통치자에게 현실정치의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통치자의 정치교본이므로, 조선 사회에서도 국왕의 경연에 채택하는 등 왕조사회를 안정적으로 경영하는 핵심텍스트로 활용되었다. 때문에 세종은 1434년 윤회(尹淮)·권도(權蹈)·설순(偈循) 등에게 명령을 내려 『자치통감』을 교정하고 해설 내용을 취사선택하게 하여 『통감훈의(通鑑訓義)』를 편찬하고, 김말(金末)·류의손(柳義孫) 등에게 참교(參校) 절차를 거치게 한 다음, 자신이 직접 검토하고 1436년 주자소(鑄字所)에서 간행하여 여러 신하들에게 보급하였다. 이 때 편찬·간행된 『통감훈의』는 『자치통감훈의(資治通鑑訓義)』이라고도 하며, 특히 편집을 경복궁의 사정전(思政殿)에서 수행하였으므로 『사정전훈의(思政殿訓義)』·『자치통감사정전훈의(資治通鑑思政殿訓義)』·『사정전훈의자치통감(思政殿訓義資治通鑑)』이라 별칭되기도 한다.

조사대상본은 주황색의 실로 엮은 오침안정법의 선장본으로 황색 표지로 장황되어 있으며, 닥종이에 묵서된 제첨제가 있다. 판식은 변란이 사주단변이고, 판심이다. 본문은 행자수가 10행 19자이고 계선이 있으며, 주(註)는 소자쌍행(小字雙行)이다. 판구(板口)는 백구(白口)이며, 어미는 상하하향흑어미(上下下向黑魚尾)이다. 제첨제는 ‘자치통감집현전수(資治通鑑集賢殿脩)’라 오기되어 있어 후대에 개장된 듯하다. 전체적으로는 앞표지와 격지를 이어 권수제-편찬정보-본문-권미제-격지-뒷표지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앞뒤의 격지와 권129의 제1장 및 권132의 제21장에는 근래에 ‘법성(法成)’, ‘행운류수(行雲流水)’ 등의 인문(印文)이 붉은색으로 날인되어 있다.

권수제와 권미제는 ‘자치통감권제일백이십구(資治通鑑卷第一百二十九)’와 같이 책명+권+제+권차의 형식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판미제는 ‘통감권일백이십구 일(通鑑卷一百二十九 一)’처럼 약책명+권+권차+장차의 방식으로 되어 있다. 제1장의 2~4행에는 ‘사마광이 황제의 명령을 받아 편집하였다(司馬光奉 勅編集)’ 및 ‘사정전훈의(思政殿訓義)’ 등의 편찬내용이 표시되어 있으며, 제5행부터 ‘송기십일(宋紀十一)’/ ‘세조효무황제하(世祖孝武皇帝下)’라는 분류 내용을 이어 편년체로 본문이 표기되어 있다. 상란에는 ‘기해(己亥)’ 등 해당 연도의 간지가 두주 형식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좌변 밖에 있는 상단의 서이(書耳) 부분에는 ‘송효무제(宋孝武帝)’와 같이 해당왕조명+해당황제묘호가 표기되어 있다. 본문 가운데는 문장을 구분할 수 있게 백권(白圈)이 표시되어 있기도 하다.

조사대상본의 권129는 송(宋)나라 세조효무황제하(世祖孝武皇帝下) 부분으로 대명(大明) 3년(459) 정월 초하루부터 편년으로 기술되어 있으며, 권130은 송나라 태종명황제상지사(太宗明皇帝上之上) 부분으로 태시(泰始) 원년(466) 정월 초하루부

터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 권131은 송나라 태종명황제사지하(太宗明皇帝上之下) 부분으로 태시 2년 정월 초하루부터, 권132는 송나라 태종명황제중(太宗明皇帝中) 부분으로 태시 3년 정월부터의 역사 내용이 각각 기술되어 있다.



앞표지



권129 제1장 앞면



권132 제21장 뒷면



뒷표지

조사대상의 『자치통감』 4권 1책은 인출 발문이 없어 인출시기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으나, 각권의 제1장 4행에 ‘사정전훈의(思政殿訓義)’라는 내용이 표기되어 있으며, 1436년 8월 간행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자치통감』 권제266(보물 제 1281호) 등과 서지학적 형태, 서체 등에서 유사하므로, 세종의 명령으로 1436년 주자소에서 간행하여 신하들에게 보급한 초주갑인자본과 동일 계통의 기록유산으로 판단할 수 있다. 때문에 조사대상본은 세종 때의 현실정치의 운영철학 및 역사 인식과 함께 출판인쇄문화의 실체와 역량 등을 진단할 수 있는 원천정보를 담고

있는 등 역사·문화적인 가치를 가지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조사대상본과 동일한 기록유산은 『자치통감』 권236~238 등 총 5건 정도가 보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권44~47 등이 경상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 ○ 문헌자료

『세종실록』 권64, 세종 16년 6월 신미.

『세종실록』 권72, 세종 18년 4월 경자.

안지(安止), 「자치통감훈의서(資治通鑑訓義序)」 『동문선』 권94, 서(序).

문화재청/ 문화유산정보/ 문화재검색

한국고전전적종합목록시스템(<https://www.nl.go.kr/korcis>)

#### ○ 지정사례

보물 제1281-1호 『자치통감』 권236~238(국립중앙박물관 1998년 6월 지정)

보물 제1281-2호 『자치통감』 권131~135, 권246~250(서울역사박물관 2012년 8월 지정)

보물 제1281-3호 『자치통감』 권193~195(원각사 2012년 12월 지정)

보물 제1281-4호 『자치통감』 권226~229(울산박물관 2015년 4월 지정)

보물 제1281-5호 『자치통감』 권57~60(취정사 2017년 8월 지정)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565호 『자치통감』 권44~47(신흥사 2015년 1월 지정)

□

#### ○ 書誌事項

資治通鑑. 卷129-132. / 司馬光(1019-1086, 宋朝) 奉勅撰 ; 思政殿(朝鮮) 訓義. -- 金屬活字(初鑄甲寅字)本. -- [漢城] : [鑄字所], [世宗 18(1436)年 推定].

4卷1冊(零本) 95장 : 四周單邊, 半郭 27.5×19.6cm, 無界, 10行19字, 註雙行, 上下下向黑魚尾 ; 36.7×24.5cm. 楮紙. 線裝(五針眼訂).

題簽題: 資治通鑑集賢殿修

卷頭題: 資治通鑑

版心題: 通鑑

卷尾題: 資治通鑑

印 文: 法成, 行雲流水, 今中有古, 千秋, 千江, 權寧八印, 崇山, 韓國佛教/朝禪宗/聖佛寺印 등

○ 현상

1985년 4월 20일 경 승(僧) 수암(睡巖)이 승 법주(法朱)에게 기증하였다고 전해짐. 조사대상본은 오침안정법의 선장본으로 황색 표지로 개장하였고, 닥종이에 묵서된 제첨제가 있다. 권수와 권미에는 ‘法成’, ‘行雲流水’, ‘今中有古’, ‘千秋’, ‘千江’, ‘權寧八印’, ‘崇山’, ‘韓國佛教/朝禪宗/聖佛寺印’ 등의 근래에 찍은 인문이 많다. 표지와 본문 95장 가운데 일부가 마모되어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보존상태가 좋은 편이다.



자치통감 권제129 卷首 / 表紙

○ 內容 및 價値

『資治通鑑』은 중국 북송(北宋) 중기의 정치가이며 사학가인 사마광(司馬光, 1019~1086)이 황명(皇命)으로 1065년(治平 2)부터 1084년(元豐 7)까지 19년간에 걸쳐 편찬한 편년체(編年體)의 역사서이다.

사마광은 북송의 정치가·학자로 자는 군실(君實)이고 호는 우부(迂夫)·우수(迂叟) 등이며, 시호는 문정(文正)이다. 출생지인 산서성 하현(夏縣) 속수향(涑水鄉)을 따라 ‘속수선생(涑水先生)’이라고도 하며, 사후에 ‘온국공(溫國公)’에 봉하여졌으므로 ‘사마온공(司馬溫公)’이라고도 부르고 있다.

사마광은 1064년(治平 元年)에 『春秋左氏傳』을 모방하여 전국(戰國)과 진대(秦代)의 사실(史實)을 서술한 『통지(通志)』 8권을 찬진하였는데, 이를 확대하여 편찬하라는 영종(英宗)의 황명으로 이듬해(1065)부터 승문원(崇文院)에 사국(史局)을 설치하고 국가의 적극적인 후원 아래 유반(劉放, 1023~1089)이 전한(前漢)과 후한

(後漢)을, 유서(劉恕, 1032~1078)가 삼국(三國)부터 남북조(南北朝)까지를, 범조우(范祖禹, 1041~1098)가 당조(唐朝) 및 오대(五代)를 각각 분담·기술하여 착수한지 19년만인 1084년에 전국의 주(周) 위열왕(威烈王) 23년(BC 403)에서 오대 후주(後周)의 현덕(顯德) 6년(959)에 이르는 1,362년간의 역사를 294권으로 편년하여 찬진하였다. 편찬 당시까지의 정사는 물론 實錄·野史·小說·墓誌類 등 무려 322종의 각종 자료를 참고로 하여 지어졌고, 신종은 “지난 역사를 거울삼아 치도(治道)에 도움이 되리라”는 의미에서 ‘資治通鑑’이라는 서명과 서문을 내렸다.

『자치통감』은 역대의 사실을 밝혀 정치의 규범으로 삼고 왕조의 흥망성쇠의 원인과 대의명분을 밝히려는데 목적을 두었다. 따라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지 않고 독특한 사관으로 기사를 선택하였으며, 정치나 인물의 득실을 평론하여 감계(鑑戒)가 될 만한 사적들을 주로 습록(拾錄)하였다. 또한 편년에 있어서도 삼국의 경우에는 위조(魏朝)의 연호를, 남북조의 경우에는 남조(南朝)의 연호를 사용하여 각각 정통(正統)을 명시하였다. 특히 중요한 기사에는 ‘臣光曰’이라는 안어(按語)로 사마광 자신의 평론을 첨가하고 있어, 그가 지냈던 사관을 뚜렷이 엿볼 수 있다. 사실의 진위여부에 대해서는 사마광 자신이 별도로 『통감고이(通鑑考異)』 30권을 저술하여 사실의 고증에 참고가 되도록 하였다.

『자치통감』의 판본은 원대 이후로 거의 모든 판본이 호삼성(胡三省)의 주석본이며, 조본(祖本)은 원우 연간(元祐年間)에 간행된 항주각본(杭州刻本)이나 이조차 이미 실전되고 1132년(紹興 2)년에 여요(余姚)에서 간행된 중각본(重刻本)이 현존하고 있다.

『자치통감』은 정치와 군사의 서술을 위주로 통치자에게 국가의 치란흥망(治亂興亡)의 차감(借鑑)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만큼, 조선에서도 국가의 경영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서적이었다. 그 결과 1434년(세종 16)에 세종의 명으로 윤희(尹淮, 1380~1436)·권도(權韜, 1387~1445)·설순(薛循, ?~1435) 등이 「通鑑源委」·「通鑑集覽」·「通鑑釋義」 등을 참고하여 『자치통감』의 난해한 곳에 주석을 붙이고 김말(金沫, 1383~1464)·유의손(柳義孫, 1398~1450)·이중윤(李中允, ?~?)·이사증(李師曾, 1398~1464)·이계전(李季甸, 1404~1459)·최항(崔恒, 1409~1474)·남계영(南季瑛, 1415~?)·어효침(魚孝瞻, 1405~1475)·강맹경(姜孟卿, 1410~1461)·민원(閔媛, ?~1458) 등에게 함께 참고하도록 하여 세종이 친히 일일이 검토한 후 도합 294권으로 편찬을 완료한 바 있다. 본서의 편집이 경복궁의 사정전(思政殿)에서 행하여진 관계로 국왕이 ‘사정전훈의(思政殿訓義)’로 사명(賜名)하여 ‘資治通鑑思政殿訓義’로 불리며, ‘思政殿訓義資治通鑑’ 또는 ‘通鑑訓義’라 별칭되기도 한다.

성불사 소장본 『자치통감』은 1434년(세종 16)년에 편찬에 착수한지 2년만인 1436년(세종 18)에 편찬이 완료되자마자 유의손의 서문을 붙여 주자소(鑄字所)로



하여금 초주갑인자(初鑄甲寅字)로 간행하여 경외에 배포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판본 가운데 권129~132의 4권 1책이다.

권수제 및 권미제는 ‘資治通鑑’이고 관심제는 ‘通鑑’이며, 제침제(題簽題)의 ‘資治通鑑集賢殿修’는 후대 임의적으로 붙인 명칭이다. 판식(版式)의 변란(邊欄)은 사주단변이며, 매 반엽에는 계선이 있으며 본문의 행자수는 10행19자이고 주문(註文)은 소자쌍행(小字雙行)이다. 판구(板口)는 백구(白口)이며 어미는 상하하향흑어미(上下下向黑魚尾)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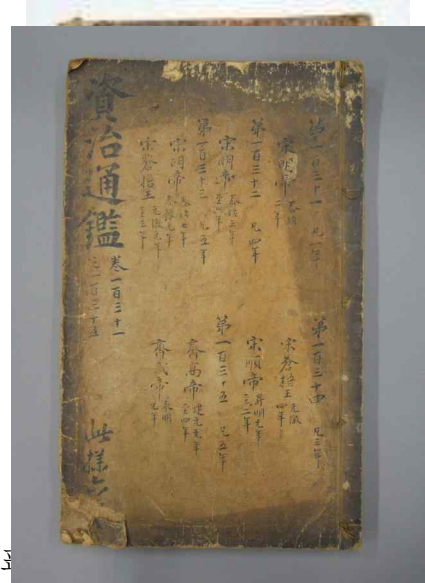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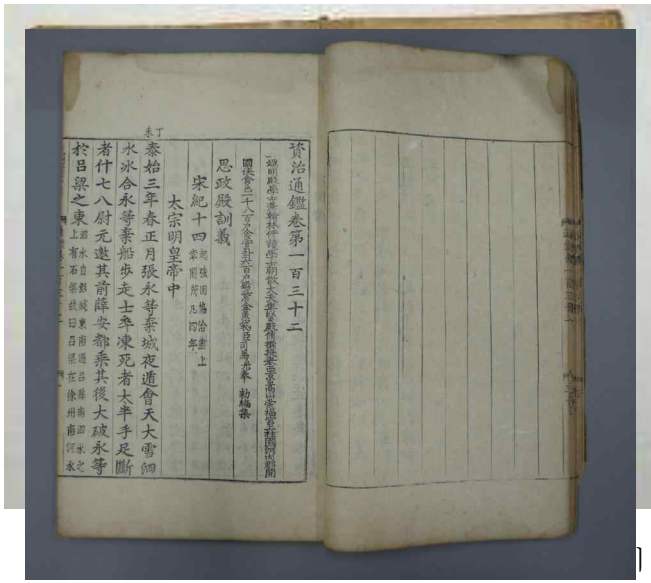
이 책에 수록된 내용은 권129는 宋紀十一(世祖孝武皇帝下) 24장, 권130 宋紀十二(太宗明皇帝上之上) 19장, 권131 宋紀十三(太宗明皇帝上之下) 31장, 권132 宋紀十四(太宗明皇帝中) 21장이다. 그 중 권131 및 권132는 현재 보물 제1281-2호로 지정된 「자치통감 권131~135, 권246~250」에 포함된 자료와 동일한 것이나, 권129 및 권130은 초주갑인자본으로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다.



권132 권수



권 130 권수



보물 제1218-2호 권제131-135 앞표지 / 권132 권수

○ 지정사례

- 보물 제1281-1호 『자치통감』 권236~238(국립중앙박물관 1998년 6월 지정)
- 보물 제1281-2호 『자치통감』 권131~135, 권246~250(서울역사박물관 2012년 8월 지정)
- 보물 제1281-3호 『자치통감』 권193~195(원각사 2012년 12월 지정)
- 보물 제1281-4호 『자치통감』 권226~229(울산박물관 2015년 4월 지정)
- 보물 제1281-5호 『자치통감』 권57~60(취정사 2017년 8월 지정)

○ 문헌자료

- 서울역사박물관 편, 2010 홍두선 기증유물특별전, 서울, 서울역사박물관 유물관리과, 2010.

# 검 토 사 항

## II.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예고

안건번호 동산 2018-07-005

### 05. 군위 법주사 괘불도(軍威 法住寺 掛佛圖)

#### 가. 검토사항

‘군위 법주사 괘불도’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사)정보문화재연구원이 문화재청의 「전국 사찰 소장 대형불화 정밀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조사한 ‘군위 법주사 괘불도’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6.2.16)이 있어 관계전문가 조사 및 과학조사(’16.7.14)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의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30일간 지정예고 하려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군위 법주사 괘불도(軍威 法住寺 掛佛圖)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법주사
- 소재지 : 경북 군위군 소보면 달산 3길 215
- 수 량 : 괘불 1폭, 괘불함 1점
- 규 격 : 전체: 1,029.0×629.2cm, 화면: 909.6×605.8cm, 괘불함 682.0×605.8cm
- 재 질 : 비단에 채색(상하축 부분 삼베)
- 형 식 : 족자
- 조성연대 : 1714년(숙종 40)
- 제작자 : 杜迢, 卞哲, 致謙, 心安, 益三, 溥閑, 幸詳, 廣演, 鵬眼

####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 (지정 가치 있음)

이 괘불도는 1714년에 조성되어 경북 군위 법주사에 봉안되었던 괘불도로서, 杜迢를 수화승으로 하여 卞哲, 致謙, 心安, 益三, 得閑, 幸詳, 廣演, 鵬眼 등의 화원이 함께 조성하였다. 16폭의 비단을 이어 만든 세로 1,029.0cm(화면 909.6cm), 가로 629.2cm(화면 605.8cm)의 거대한 화면에는 보관을 쓰고 두 손을 좌우로 벌려 연꽃을 받들고 있는[戴寶冠 持蓮華] 입상의 여래가 화면에 꽉 팔 정도로 큼직하게 그려져 있다. 이 괘불도에서처럼 본존이 두 팔을 벌리고 다불이 표현된 보관을 쓴 모습은 신원사 노사나불괘불도(1644년), 수덕사 노사나괘불도(1673년), 흥국사 노사나괘불도(1759년)에서 볼 수 있으며, 설법인은 아니지만 다불이 표현된 보관을 쓰고 두 손으로 연꽃을 들고 있는 모습은 수도사 노사나괘불도(1704년)의 본존과 유사하다. 물론 장엄형에 다불 보관을 쓰고 두 손으로 연꽃을 들고있는 모습은 석가모니불의拈花示衆을 표현한 마곡사 석가모니괘불도(1687년) 및 통도사 석가모니괘불도(1792년)의 본존에서도 볼 수 있지만, 설법인의 손모양은 일반적으로 노사나불의 수인인 점을 생각하면 법주사 괘불도의 본존은 노사나불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 괘불도는 과거 보존처리 때 부분적으로 보건과 보채가 이루어졌고 현재 화면의 오염과 훼손, 일부 색채의 박락 등이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담채기법의 색감과 세필에 의한 정교한 필선, 다양한 문양의 사용 등에서도 뛰어난 작품성을 엿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조선 후기에 성행한 ‘보관을 쓰고 연꽃을 들고 있는’ 도상을 보여주고 있어, 국가문화재(보물)로 지정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현재 법주사에는 괘불도와 같은 해(1714년)에 동일한 시주자 및 목수에 의해 제작된 괘불함이 남아있는데, 괘불함 또한 조성당시의 모습이 잘 남아있으므로 괘불도와 함께 지정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다.

### ○ (지정 가치 있음)

괘불도는 야외에서 거행되는 靈山齋, 遷度齋, 豫修齋 등 대규모 齋會와 관련되어 제작된 것으로, 유·무형의 종교의식과 예술이 장엄하게 어우러져 나타난 불교 예술의 장르 중 가장 웅장하고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독창적인 분야이다. 특히 고려시대의 초대형 석불과 조선시대의 괘불은 우리나라 초대형 불교미술의 쌍두마차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남아 있는 괘불 중 가장 오래된 것은 1622년에 제작된 나주 죽림사 괘불이며 괘불인데, 이 괘불은 크기가 509x263cm로 괘불치고는 작은 규모이다. 현전하는 괘불 중 1945년 이전에 제작된 괘불은 약 118점으로 추산되며, 이 중 44점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국보로 지정된 괘불은 7점이며, 보물은 37점이다. 국가지정문화재 중 17세기 작품은 22점이고, 18세기 작품은 32점이며, 시기가 가장 내려오는 괘불은 1793년작 화순 만년사 괘불도

이다. 이 법주사 괘불은 1714년에 제작된 괘불로서 시기적으로 18세기 전반기에 해당하며, 17세기에 활발하게 제작되던 괘불이 18세기 대에도 도상과 양식이 단절되지 않고 변화 발전되어 가는지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군위 법주사 괘불도는 도상적으로 報身 盧舍那佛과 化身 釋迦如來의 도상을 결합한 듯 융·복합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다. 佛身은 보관과 장신구로 화려하게 장엄한 보살형이며, 두 손을 수직으로 나란히 어깨 까지 들어 엄지와 중지를 맞댄 노사나불 수인을 보이면서도, 지물로 꽃을 채택하고 있다. 등장하는 권속 또한 독특한데, 화면의 하단 좌우에 龍王과 獻珠龍女를 협시보살처럼 등장시키고, 천공에는 아미타여래삼존이 아닌 一位의 如來과 觀音菩薩, 一位의 如來와 大勢至菩薩을 화면 좌우에 각각 분리 배치한 사례는 유례를 찾기 힘든 것으로, 이 괘불은 본존의 도상뿐만 아니라 화면에 등장하는 권속들을 통해 색다른 시도를 하고 있다. 화기나 관련 자료에 존명을 추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은 아쉽지만, 본존과 협시, 등장인물의 짜임새 있는 배치와 구도, 섬세하고 화려한 표현 방식, 화사하고 다채로운 색채 감각과 선묘 등은 18세기 전반기에 제작된 다른 불교 회화 작품과 비교해서도 수준 높은 작품성을 지니고 있다.

오랜 세월을 겪는 동안 보존 관리의 어려움이 있어 화면의 손상과 수리 흔적이 확인되지만, 정확한 제작시기와 봉안장소, 그림 제작을 주도한 당시 소임자들과 재정을 뒷받침한 시주자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고, 더불어 괘불과 함께 제작된 괘불함도 온전하게 갖추어져 있어 18세기 전반기 불화 및 괘불연구에 기준자료로 활용하기에는 충분하다. 괘불함과 함께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보호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 ○ (지정 가치 있음)

법주사 <괘불도>는 화기로 보아 ‘杜迢’가 수화승을 맡고 ‘致謙, 益三, 幸詳, 鵬 眼’ 등이 참여하여 강희 53년인 1714년에 조성하였음이 명확하게 밝혀지고, 1687년 조성의 마곡사 <석가불괘불도>를 이어받은 ‘연지인보관불’형 부처그림 이라는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하단에 용왕(또는 일월천자)과 용녀(또는 현주천녀)를 두고 본존불 머리광배 좌우에 1불상 및 1보살상으로 이루어진 불·보살상을 배치하여 다른 괘불화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화면 구성법을 보여줌으로써 학술적 자료 가치 또한 크다고 하겠다. 그리고 밝은 색채의 채용 및 담채기법의 표현법과 함께 정지한 표현법을 보여주어 작품성이 뛰어나, 비록 부분적인 훼손과 오염도가 엿보인다고 하더라도 국가문화재인 보물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하겠다.

##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예고함

### 조사보고서



### ○ 현 상

10년전(2008년)에 보존처리를 시행하여 현재는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임. 당시 후배지를 전면적으로 교체하고 손상이 심했던 본존의 향좌측 목과 어깨의 바탕천을 보건하고 보채한 흔적이 엿보임. 일부 채색의 박락과 변색 및 화면긁임, 가로주름, 화면접힘, 들뜸현상이 관찰되며, 특히 광배의 녹색안료가 습해로 인해 박락되었음. 보광명전 내부에 보관 중임.

### ○ 내용 및 특징

법주사 괘불도는 1714년에 화승 杜迢, 卞哲, 致謙, 心安, 益三, 得閑, 幸詳, 廣演, 鵬眼 등이 조성하여 군위 靑華山 法住寺에 봉안했던 괘불도로서, 현재 법주사 보광명전에 보관되어 있다. 법주사는 신라 소지왕 때 창건되었다고 전해오는데, 고려 후기에 普照知訥이 주석하였으며 一然이 叢林을 설치하고 1407년(태종7)에 조계종의 資福寺刹로 지정되는 등 고려말~조선초기에 寺勢를 떨쳤다. 그러나 1623년(인조1) 화재로 소실되어 1660년(현종1)에 재건하였으며, 1690년(숙종 17)에 보광명전을 중건했다. 1977년 보광명전의 용마루를 중수할 때 『화엄경』, 『법화경』, 『전등록』 등 귀중한 불교 경서가 많이 발견되었는데, 기록에 의하면 본당 서편에 손상된 불상인 破佛 15좌를 매몰하고 5불은 대법당 앞에 매몰했다고 한 것으로 보아 화재나 재난을 당하기 전 사찰의 규모가 웅대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괘불도는 총 16폭의 비단을 이어 만든 바탕에 5불이 표현된 보관을 쓰고 연꽃을 든 부처를 6구의 과거불 및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 2구의 여래, 용왕과 용녀 등이 둘러싸고 있는 간단한 구도를 취하고 있다. 화면 중앙에는 보관을 쓰고 양손으로 연꽃가지를 들고 정면을 향해 서 있는 본존이 화면의 1/2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크게 그려져 있다. 반면 본존의 두광 좌우에 3구씩 배치된 6구의 여래, 2구의 여래 및 관음보살, 대세지보살, 그리고 화면 하단 좌우에

배치된 용왕과 용녀는 상대적으로 작게 그려져 있어, 본존에게로 시선을 집중시키는 효과를 준다.

본존은 원형의 두광과 온몸을 감싸는 듯한 거대한 신광을 배경으로 화염문과 원문, 연화문으로 장식된 보관을 쓰고 두 다리를 비스듬히 벌린 채 연꽃대좌 위에 서있다. 두 손은 어깨 위로 올려 좌우로 벌리고 오른손으로는 연꽃줄기를, 왼손으로는 백색의 연꽃을 받쳐들고 있는데, 다리를 벌리고 팔을 벌려 연꽃을 들고 있는 모습이 당당해 보인다. 얼굴은 턱부분이 둥글어 원만상을 이루고 있는데, 반원형의 눈썹과 눈꼬리가 약간 위로 치켜 올라간 눈, 콧망울이 둥근 아담한 코, 꼭 다문 작은 입 등이 조화를 이루었다. 눈동자 안에 명암을 표현한 점, 코와 입 부분에 명암을 주어 입체적으로 표현한 점이 특이하다. 녹색의 두광은 가장자리에 분홍색, 주황색, 적색, 황색의 테두리가 표현되었으며, 신체를 따라 길게 표현된 녹색의 신광은 영락과 적색의 화염문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었다.

두광의 좌우로 뻗어나간 방사형 色帶의 아래쪽에는 정병을 들고 있는 관음보살과 합장한 여래(향좌), 정병을 얹은 백련을 들고 있는 대세지보살과 합장한 여래(향우)가 표현되었으며, 위쪽에는 좌우 각각 3구씩의 여래가 그려져 있다. 6구의 여래는 과거불로 추정되는데, 모두 커다란 광배 속에 결가부좌하고 합장을 한 모습이다.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은 좌우 위치가 바뀌어 있는 것이 눈길을 끈다.

착의법은 통견식으로 화려한 꽃무늬가 그려진 백색의 균의 위에 적색의 대의를 걸쳐 입었다. 적색의 대의 끝단에는 주화녹화문, 대의 안에는 백색의 원문이 그려져 있고, 가슴과 복부에는 화려한 영락이 가득 장식되어 있다. 넓게 벌린 두 팔에 걸쳐 흘러내린 좌우 각 2줄의 천의자락과 옷자락은 본존의 몸 좌우로 넓게 신광 밖으로까지 뻗어나가듯 표현되어 있어 본존을 더욱 장대해 보이게 한다. 화면 하단 좌우에는 용왕(향우)과 용녀(향좌)가 각각 지물을 들고 본존을 향해 서있다. 용왕은 복숭아와 괴석이 담긴 연잎을 받쳐 들고 있으며, 용녀는 적색의 火焰寶珠를 두 손으로 받들고 있다. 보통은 용왕이 보주를 들고 용녀가 공양물을 들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용왕과 용녀의 지물이 바뀌어 있는 점도 특이하다.

화면의 상단에는 두 줄의 붉은 風帶가 좌우로 드리워져 있으며, 상측 아래에 20자의 梵字가 기록되어 있다. 범자는 연화문 바탕에 2중 원을 그리고 그 안에 한 자씩 적었는데, 향좌측부터 차례로 <造像經>의 出悉地, 入悉地, 秘密悉地, 阿闍佛眞言 등을 각각 다섯 자씩 적었다. 그리고 하단의 중앙에는 괘불도를 조성하는 데 참여했던 시주자들과 시주물목, 당시의 소임자들, 화원 등이



적힌 畫記가 기록되어 있다.

화기에 의하면 이 괘불도는 강희53년, 즉 1714년 5월 15일에 완성되어 軍威西嶺 靑華山 法住寺에 봉안되었으며, 上畫員인 杜迢를 비롯하여 卞哲, 致謙, 心安, 益三, 得閑, 幸詳, 廣演, 鵬眼 등의 화승이 조성하였다고 한다. 수화원인 杜迢를 비롯한 다른 화원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어 알 수 없지만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鵬眼은 1725년작 순천 송광사 영산전 팔상도와 응진전 16나한도(1·3·5존자도와 11·13·15존자도), 응진당 사자도, 1741년작 곡성 도림사 신덕암 지장시왕도 조성에 참여한 것으로 보아 전라도 지역에서 활동한 화승으로 추정된다. 봉안은 1714년 괘불도 제작 때는 제일 마지막에 이름을 올렸지만, 10년후인 1724년~1725년에 義謙과 제자들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진 송광사 불화조성 불사에서는 수화승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아, 법주사 괘불도 조성 후 실력을 인정받은 듯 하다.

한편, 법주사에는 괘불도와 같은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괘불케가 남아있다. 괘불케는 긴 장방형으로 앞·뒷면 널을 맞댄 후 그 사이에 바닥(밑널)과 좌우측 널을 끼워 넣고, 사개측에는 쇠못과 귀싸개 장식을 박아 몸체를 구성하였으며, 판재의 이음마다 장식과 격쇠, 못을 촘촘히 박아 벌어진 틈을 방지하였다. 덮개의 내부에는 오른쪽 끝 부분에 목서가 있는데, 조성연대의 일부가 지워져 있으나 괘불도의 시주자(李千貴)와 목수(呂弘)의 이름이 일치하고 있어 괘불도와 같은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 ○ 관련자료(화기 및 참고문헌)

[괘불도 화기]

時維康熙五十三年歲次甲午十五日」畢功於安于軍威西嶺靑華山法住寺奉爲」主上殿下壽萬歲」王妃殿下壽齊年」世子邸下壽千秋」掛佛婆幘兼供養普施後排」引燈燭大施主嘉善李千貴兩主」供養大施主李順業兩主 李順南李聖興兩主」普施供養大施主通政金高公保體 金氏召吏」供養大施主通政卞三立兩州 卞萬守卞召吏兩主」婆幘大施主金起哲兩主」供養大施主陳少立兩主 鄭鶴單身 金氏召吏 徐二天兩主」供養大施主通政韓得昌兩主 姜好善兩主 都召吏兩主」供養大施主通政李覺悅兩主」普施大施主安德生兩主 少子丕善令長 陳善奉兩主」供養大施主權又連兩主 權普連兩主 金福以 劉江阿兄兩主 白順業兩主」普施大施主鄭萬歲兩主 金氏今歲兩主 金七立兩主 崔一天單身」供養大施主權貴發兩主 李承龍 金丁敏兩主」供養施主比丘宗順保體 比丘知衍保體 比丘 妙安保體 比丘 明澄 比丘 文玉保體」山中大德拓鑿比丘 宗順比丘」緣化比丘等同成正覺」證師大德 藏六比丘」知□ □□比丘」上畫員 杜迢比丘 卞

哲 致謙比丘 心安 益三比丘 溥閑 幸詳比丘 廣演 鵬眼比丘」時和尚太稔比丘 三輔卓澄比丘 知事印敏比丘」時書記性默比丘」供養主守一比丘 天順比丘 竺心比丘 妙□」都監嘉善智俊 監役信雲比丘」木手比丘呂弘保體」別座比丘玄淨保體」大化士比丘信英保體」寺中秩」山中老德嘉善海明比丘 宗信比丘 道源比丘 宗哲比丘」通政大夫 道眞 呂眞比丘 是湖」通政大夫 德連比丘」通政大夫 勝禪 普彥 就遠比丘」通政大夫 坦宗」通政大夫 自覺比丘 能濟 就能比丘」嘉善大夫 弘悅 覺天 熙淑比丘 性信 法森比丘 愼淨 靈照 德雲比丘 文汁 文玉比丘」通政大夫 就汁 戒閑 義淳比丘 思衍 元湜比丘 熙運 贊信比丘 明誓 慧英比丘 尙宗比丘 草閑 淨淳比丘」圓環大施主 崔碩萬兩主」

[괘불괘 화기]

康熙五十□年三月日掛□□」造成了□□慶尙左道軍□□」住寺單」施□□」嘉□□夫李千貴兩主」羅阿只兩主」金氏莫介兩主」比丘尙衍保體」木手呂弘兩主」冶匠崔存良」

#### ○ 참고문헌

- 문명대, 「군위 범주사 1714년작 보관 석가불괘불도」 『강좌미술사』 32호, 한국미술사연구소/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09.6. pp.337-348.
- 『대형불화 정밀조사보고서』 8-범주사 괘불탱, 문화재청/정보문화재연구원, 2017. 3.

[도판]



법주사 괘불도, 1714년, 세로 1,029.0cm 가로 629.2cm, 경북 군위 법주사



본존



관음보살과 여래, 3불



용녀



용왕



화기(사중질)



괘불궤



화기



괘불궤 내부 명문



### ○조사내용

범주사 괘불도의 도상은 머리에 다섯 여래가 앉아 있는 보관을 쓰고, 두 손을 어깨 높이까지 나란히 들어 꽃을 받쳐 들었으며, 몸에는 화려한 팔찌와 영락 등으로 화려하게 장엄한 보살형 괘불도이다. 장기간 보관상의 문제인지 표면에는 전반적으로 얼룩이 폭넓게 내려앉아 있으며, 최근 사찰에서 자체적으로 수리할 때 손상된 부분은 보강하고, 채색도 부분적으로 새로 올린 흔적이 군데 군데 확인된다.

괘불탱은 부채꼴 모양의 상축과 둥근모양의 하축을 갖추고 있으며, 최근 수리 때 상축은 교체하고, 하축은 원래의 것을 재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바탕의 주재료는 絹이며, 모두 16쪽을 직물을 바느질하여 큰 화면을 마련하였다. 상·하축을 잇는 부분은 질긴 麻를 사용하였다. 두 곳에는 낙영을 그려 길게 드리웠고, 邊兒부분에는 20자의 梵字 圓文을 적어 넣었다. 범자문은 『造像經』의 거한 ‘阿闍佛眞言’, ‘秘密悉地’, ‘入悉地’, ‘出悉地’ 각 5자를 화면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적어 나갔다. 테두리는 붉은색으로 테두리를 둘렀으며, 상단의 변아 부분은 검은 바탕에 범자문을, 하단은 검은 바탕에 연화당초문을 시문하였다.

화면 하단에 마련된 화기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붉은 바탕에는 제작 시기와 봉안사찰, 시주자, 화원, 화주 등 제작에 직접 관련 있는 내용을 적시하였고, 흰색바탕에 먹 글씨로 쓴 부분은 寺中秩을 기록하였다. 화기에 따르면, 강희 53년(1714, 숙종 40) 경오 5월 15일에 제작을 마치고 청화산 범주사에 봉안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에는 상화원 杜迢를 비롯하여 卞哲 致謙 心安 益三 得閑 幸詳 廣演 鵬眼 등 모두 9명의 승려화원들이 참여하였다.

본존은 둥근 두광과 꽃잎형의 신광을 갖추었으며, 붉은색의 대의에 흰색의 치마를 입었다. 머리에는 5구의 화불이 표현된 화려한 보관을 쓰고, 불신에는 장신구로 장엄하였으며, 불의는 여러 가지 장식적인 효과를 낸 불의를 입었고, 두 손은 어깨 위로 들어 연꽃을 받쳐 들었다. 이와같이 두 손을 나란히 어깨 위로 들어 설법인을 짓는 장면은 신원사 노사나괘불탱이나 수덕사 노사나괘불탱 등 삼신불 중 報身 노사나불의 수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도상적 특징이며, 팔상도 중 녹야원에서 『화엄경』의 내용을 설법하는 석가의 장면에서 이와 같은 수인을 볼 수 있다. 다만 이곳에서는 노사나불의 수인에 연꽃을 첨가하여 복합적인 도상적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이와 가장 유사한 수인을 보이는 괘불은 1792년에 제작된 통도사 괘불탱(보물 제1351)이다. 노사불의 설법인을 취하면서 꽃을 지물로 채택한 契印의 도상은 염화시중의 석가불 또는 용화꽃을 든 미륵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지만, 지금으로선 정확한 尊名을 부여하기 어렵다. 더욱이 화기에 정확한 존명을 밝히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염화시중의 석가불인지, 아니면 용화꽃을 든 미륵불인지

아직까지 특정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도상을 혼합해서 작가의 창의력이 발현된 도상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와 같이 본존은 장신구 등으로 화려하게 장엄한 보살형의 모습을 띤다. 상단의 천공 오색구름 속에는 하나의 광배 속에 3구의 화불이 연꽃대좌에 앉아 나투었으며, 본존의 양 어깨 쪽에는 합장한 여래 1구와 보살상 1구를 각각 배치시켰다. 즉 화면의 왼쪽에는 본존을 향해 합장한 여래상과 연꽃위에 정병을 올려 둔 지물을 든 대세지보살상을 배치하였고, 화면의 오른쪽에는 본존을 향해 합장한 여래상과 백의를 입은 관음보살상을 배치하였다. 이들은 꼬리가 길게 늘어진 구름을 타고 도량으로 강림하는 모습이다. 본존의 단정한 모습인데, 도톰한 입술은 새초롬하게 내밀어 수줍은 인상을 주고, 건장한 불신에 비해 얼굴이 작은 편이다. 보관의 아래로는 실타래처럼 동글동글 말린 머리카락이 앙증맞게 노출되어 있으며, 양귀를 타고 흘러내린 탐스러운 보발은 어깨 위에서 두겹의 U자형으로 늘어뜨렸고, 끝자락은 그 아래로 흘러내려 마무리 하였다. 상의는 붉은색 가사를 걸쳤고, 하의로는 하얀색 치마를 입었다. 치마주름은 푸른색 선으로 상큼하게 처리하였다. 붉은색 상의에 표현에는 구름과 소용돌이가 어울어진 圓文을 일정한 간격으로 시문하였고, 치마 표면에는 붉고 푸른 태평화를 번갈아 가며 그려 넣었다. 신체에는 각종 보석으로 이루어진 영락으로 화려하게 장엄하였다. 얼굴에 비해 신체를 건장하게 묘사한 점이 특징이며, 먹선, 주색선, 청색선, 흰색선 등 다양한 선묘를 활용하여 섬려하면서도 장대한 괘불의 특징과 요소를 효과적으로 드러내었으며, 문양과 색감은 대비와 대조, 그리고 상호 어울리도록 치밀하게 계획하고 배필었다.

화면 하단에는 용왕과 용녀가 협시처럼 배치되어 있어 특색이 있다. 용녀는 화염이 너울대는 용왕의 여의주를 받쳐 들었고, 용왕은 荷葉의 쟁반에 담긴 복숭아 등 공양물을 받쳐 들었다. 용왕은 길게 늘어진 흰 눈썹, 자애로운 눈빛, 붉고 또렷한 입술, 멋스럽게 휘날리는 흰 수염이 상호 대비와 조화를 이루고 있어 인상적이고 세부 묘사도 섬세하다. 용왕의 신발코에는 파련문을 덧대어 세부의장에 신경을 썼다. 용왕의 허리 아래로 늘어진 金衣에는 붉은색으로 격자문을 치고 꽃무늬를 시문하였고, 남색의 옷깃에는 흰색으로 화문을 시문하였다. 치마에는 붉고 푸른 초화문을 싱그럽게 배필었고, 신발코에는 청색계통의 파련문을 시문하여 붉은 계통의 용녀의 그것과 대비를 이루도록 하였다.

용왕과 용녀는 주로 설법이나 회상의 장면에서 크게 부각되지 않는 일부 권속으로 표현된다. 괘불에서 그 사례를 살펴보면, 1735년의 봉선사 삼신불괘불도에서는 하단의 구름 속에 용왕과 용녀가 권속 중 일부로 작게 등장하는데, 용왕은 여의보주를 들었고 용녀는 과일 등 공양물이 담긴 쟁반을 받쳐 들었다. 이곳에서 보이는 도상과 구도, 날이 선 옷 주름의 표현 방식 등에서 미황사 괘불탱의 용왕 용녀와

비교되는데, 시기적으로 보면 미황사 괘불탱이 법주사 괘불도의 도상을 부분적으로 접목하여 받아들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근위 법주사 괘불도



그림 2 고성 운흥사 관음보살도(1730년 부분(용왕과 용녀))

<화기1>

時維康熙五十三年歲次  
 甲午五月十五日畢功於安  
 于軍威西嶺青華山法住  
 寺 奉爲  
 主上殿下壽萬歲  
 王妃殿下壽齊年  
 世子邸下壽千秋  
 掛佛婆幘兼供養普施後排  
 引燈 燭大施主嘉善李千貴 兩主  
 供養大施主李順業 兩主  
 李順男



李聖興 兩主」  
 普施供養大施主通政金高公 保体」  
 金氏召吏」  
 供養大施主通政卞三立 兩主」  
 卞萬守 單身  
 卞召吏  
 婆楨大施主金起哲 兩主」  
 供養大施主陳少立 兩主」  
 鄭鶴 單身  
 金氏召吏  
 徐二天 兩主」  
 供養大施主通政韓得昌 兩主」  
 姜好善 兩主」  
 都召吏 兩主」  
 供養大施主李覺悅 兩主」  
 普施大施主安德生 兩主」  
 少子丕善 令長」  
 陳善奉 兩主」  
 供養大施主權又連 兩主」  
 權普連 兩主」  
 金福以 兩主」  
 劉江河只 兩主」  
 白順業 兩主」  
 普施大施主鄭萬歲 兩主」  
 金氏今歲 兩主」  
 金七立 兩主」  
 崔一天 單身」  
 供養大施主權貴發 兩主」  
 李承龍 兩主」  
 金丁敏  
 供養施主比丘宗順 保体」  
 比丘知衍 保体  
 比丘妙安

比丘明誓 保体  
比丘文玉  
山中大德 拓鑿比丘」  
宗順比丘」  
緣化比丘等同成正覺」  
證師大德 藏六比丘」  
知○ ○○ 比丘」  
上畫員 杜迢 比丘」  
卞哲 比丘  
致謙  
心安 比丘  
益三  
得閑 比丘  
幸詳  
廣演 比丘  
鵬眼  
時和尚太稔比丘」  
三輔卓澄比丘」  
知事印敏比丘」  
時書記性默比丘」  
供養主守一比丘天順比丘竺心比丘妙護」  
都監嘉善智俊 監役信雲比丘」  
木手比丘呂弘 保体」  
別座比丘玄淨 保体」  
大化士比丘信英 保体」

<화기 2>(흰마당에 먹글씨)

寺衆秩」  
山中老德嘉善海明比丘」  
宗信 比丘」  
道源  
宗哲 比丘」  
通政大夫道眞

呂眞 比丘」  
是湖  
通政大夫德連 比丘」  
通政大夫勝禪  
普彦  
比丘」  
就遠  
通政大夫坦宗  
通政大夫自寬 比丘」  
能濟」  
就能 比丘」  
嘉善大夫弘悅」  
覺天」  
熙淑 比丘」  
性信」  
法森 比丘」  
慎淨」  
靈照」  
德雲 比丘」  
文汁」  
文玉 比丘」  
通政大夫就汁」  
戒閑」  
義淳 比丘」  
思衍」  
元湜 比丘」  
熙運」  
贊信 比丘」  
明警」  
慧英 比丘」  
尙宗 比丘」  
草閑」  
淨淳 比丘」  
圓環大施主崔碩万兩主」

<괘불함>

법주사 괘불함은 긴 장방형 상자형으로, 앞·뒤면 널을 맞댄 후 그 사이에 바닥 널과 좌우측 널을 끼워 넣고 사개측에는 쇠못과 귀싸개 장식을 박아 몸체를 구성하였다. 손잡이는 앞면에 6개, 뒷면에 6개, 측면 각 1개, 덮개에 2개 달았다. 전체 크기는 길이 682cm, 높이 32cm, 두께 3cm이다. 덮개의 내부 오른쪽 끝부분에 제작과 관련된 목서가 남아있는데, 목서에는 제작시기를 기록한 일부분에 목서가 뭉개져 확인하기 어렵지만, 괘불도의 화기에 기록된 시주자와 목수의 이름이 동일하게 등장하므로 괘불이 만들어지던 시기인 康熙 53년에 함께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90 법주사 괘불함



그림 91 법주사 괘불함 조성 목서

<괘불함 목서>

康熙五十〇年三月日卦〇〇」  
 造成了〇〇慶尙左道軍〇〇」  
 住寺單」

施○○」

嘉○○夫李千貴 兩主」

羅阿只 兩主」

金氏莫介兩主」

比丘尙衍保体」

冶匠崔存良」

## ○ 참고문헌

문명대, 「군위 법주사 1714년작 보관 석가불 괘불도」, 『강좌미술사』 32, 2009.  
「법주사 괘불탱-대형불화 정밀조사 보고서 8」, 문화재청·(사)성보문화재연구원, 2016.



## ○ 현 상

2008년 후배지 전체 교체와 함께 바탕천을 보완하고 보완된 부분에 개채를 가하여 현재는 보존상태가 양호하나, 곳곳에 화면의 가로 꺾임 흔적과 얼룩현상 및 채색안료의 박락 흔적이 보인다.

## ○ 내용 및 특징

- 세로로 길어진 화면에 ‘蓮枝印寶冠佛’ 형 부처를 화면에 가득 차게 그린 독존도 형식의 괘불도로서, 하단 좌우로는 龍王(또는 日月天子)과 龍女(또는 獻珠天女)를 두고 머리광배 좌우에는 각각 강림하는 모습의 좌불상 3구씩과 입불상 2구와 관음·세지보살상이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상단 변에는 2중의 원 안에 梵字를 적은 20개의 범자등근무늬가 그려져 있다.
- 등근 머리광배에 장방형 몸 광배를 구비한 본존불의 경우 다섯 분의 化佛이 안치되어 있는 보관을 쓴 채, 두 손을 좌우로 벌려 연꽃가지를 받쳐 들고 紅蓮座를 딛고 서 있다.

법이는 菩薩衣 형식으로서 드러난 두 팔에 天衣자락이 걸쳐 흘러내렸으며, 적색 大衣에 백색 裙衣를 착용하였다. 턱이 둥글어진 얼굴에는 이목구비의 표현이 선명하며 어깨 위로는 寶髮이 굵실굵실 흘러내리고 있다. 가슴과 복부에는 영락장식이 치렁치렁 화려하게 드리워져 있으며, 꽃무늬가 자연스러운 군의에 는 무릎 아래쪽과 다리 사이로 치레장식이 화려하다.

특히 양 팔에 걸쳐 흘러내린 천의자락을 새의 날개깃과도 같이 몸 광배 바깥쪽으로 뻗치듯 표현하여, 경쾌함과 더불어 자칫 왜소해 보일 수 있는 본존불을 장대하게 보이는 효과를 더해주고 있다.

- 하단 좌우에 자리한 용왕과 용녀상의 경우 용왕은 연잎에 천도복숭아를 담아 공양물로 받쳐 들고 있으며, 용녀는 火焰寶珠를 공양물로 두 손으로 받들고 있다.

머리광배 좌우측의 입불상과 보살상은 좌측(向右)의 경우 약사불과 대세지보살상으로, 우측(向左)의 경우는 아미타불과 관음보살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관음보살상과 대세지보살의 모습 중 보관에 상징인 化佛과 淨瓶이 그려져 있지는 않으나, 관음보살상의 경우 白衣를 착용하여 白衣觀音의 전형적인 모습임을 알 수 있으며, 대세지보살상은 연화 위에 세지보살상의 상징인 정병을 올려 놓고 있어 대세지보살상으로 판단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이렇듯 좌우측에 약사불과 아미타불을 두는 경우는 석가불을 본존불로 하는 三世佛 도상으로서, 법주사 괘불도 또한 1687년 조성의 공주 마곡사 〈석가모니불괘불도〉로부터 시작되는 보살 모습의 석가불로 보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 법주사 괘불도는 화면 하단 중앙부에 묵서되어 있는 화기 중의 ‘時維康熙五十三年歲次甲午五月十五日畢功於安于軍威西嶺青華山法住寺奉爲 … … 上畫員 杜迢比丘 卞哲 致謙比丘 心安 益三比丘 得閑 幸詳比丘 廣演 鵬眼比丘 … …’ 라는 내용으로 보아, 1714년 ‘두초’가 수화승을 맡고 ‘치겸, 익삼, 행상, 봉안’ 등이 보조화승으로 참여하여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 밝고 경쾌한 느낌의 홍색과 연하늘색 및 연녹색을 사용한 담채기법 등 18세기 초중반 괘불화의 경향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턱이 둥근 원만형의 얼굴에 섬세하고 치밀한 표현기법 등으로 작품성이 돋보인다.

[畫記]

時維康熙五十三年歲次甲午十五日  
 畢功於安于軍威西嶺青華山法住寺奉爲  
 主上殿下壽萬歲  
 王妃殿下壽齊年  
 世子邸下壽千秋  
 掛佛婆幘兼供養普施後排  
 引燈燭大施主嘉善李千貴兩主  
 供養大施主李順業兩主 李順南李聖興兩主  
 普施供養大施主通政金高公保體 金氏召吏  
 供養大施主通政卞三立兩州 卞萬守卞召吏兩主  
 婆幘大施主金起哲兩主  
 供養大施主陳少立兩主 鄭鶴單身 金氏召吏 徐二天兩主

供養大施主通政韓得昌兩主 姜好善兩主 都召吏兩主  
供養大施主通政李覺悅兩主  
普施大施主安德生兩主 少子丕善令長 陳善奉兩主  
供養大施主權又連兩主 權普連兩主 金福以 劉江阿兄兩主 白順業兩主  
普施大施主鄭萬歲兩主 金氏今歲兩主 金七立兩主 崔一天單身  
供養大施主權貴發兩主 李承龍 金丁敏兩主  
供養施主比丘宗順保體 比丘知衍保體 比丘 妙安保體 比丘 明澄 比丘 文玉保體  
山中大德拓鑿比丘 宗順比丘  
緣化比丘等同成正覺  
證師大德 藏六比丘  
知□ □□比丘  
上畫員 杜迢比丘 卞哲 致謙比丘 心安 益三比丘 得閑 幸詳比丘 廣演 鵬眼比丘  
時和尚太稔比丘 三輔卓澄比丘 知事印敏比丘  
時書記性默比丘  
供養主守一比丘 天順比丘 竺心比丘 妙□  
都監嘉善智俊 監役信雲比丘  
木手比丘呂弘保體  
別座比丘玄淨保體  
大化士比丘信英保體

#### 寺中秩

山中老德嘉善海明比丘 宗信比丘 道源比丘 宗哲比丘  
通政大夫 道眞 呂眞比丘 是湖  
通政大夫 德連比丘  
通政大夫 勝禪 普彦 就遠比丘  
通政大夫 坦宗  
通政大夫 自覺比丘 能濟 就能比丘  
嘉善大夫 弘悅 覺天 熙淑比丘 性信 法森比丘 慎淨 靈照 德雲比丘 文汁  
文玉比丘  
通政大夫 就汁 戒閑 義淳比丘 思衍 元湜比丘 熙運 贊信比丘 明警 慧英比丘  
尙宗比丘 草閑 淨淳比丘  
圓環大施主 崔碩万兩主

○ 참고문헌

- 문명대, 「군위 법주사 1714년작 보관 석가불괘불도」 『강좌미술사』 32호, 한국미술사연구소·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09.6. pp.337-348.
- 『대형불화 정밀조사보고서』 8-법주사 괘불탱, 문화재청/정보문화재연구원, 2017. 3





그림 92. 군위 법주사 괘불도

## 06. 예산 대련사 비로자나불 괘불도 (禮山 大蓮寺 毘盧遮那佛 掛佛圖)

### 가. 검토사항

‘예산 대련사 비로자나불 괘불도’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사)정보문화재연구원이 문화재청의 「전국 사찰 소장 대형불화 정밀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조사한 ‘예산 대련사 비로자나불괘불도’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6.2.16)이 있어 관계전문가 조사 및 과학조사('16.7.14)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의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30일간 지정예고 하려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예산 대련사 비로자나불 괘불도(禮山 大蓮寺 毘盧遮那佛 掛佛圖)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대련사
- 소재지 :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동산 2길 119
- 수 량 : 1폭, 괘불함 1점
- 규 격 : 전체: 712.0×381.0cm, 화면: 691.5×361.2cm, 괘불함 460.8×34.0cm
- 재 질 : 삼베에 채색
- 형 식 : 족자
- 조성연대 : 1750년(영조 26)
- 제작자 : 竺明, 思慧, 仁察, 海澄

###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 (지정 가치 있음)

대련사 괘불도는 1750년에 旵明, 思慧, 仁察, 海澄 등 4명의 화승이 조성한 것으로, 세로로 긴 화면에 비로자나불을 큼직하게 배치하고 좌우로 문수보살과 보현보살, 아난존자와 가섭존자를 상하로 배치하여 짜임새있는 구도를 보여준다. 旵明을 비롯한 조성화원들은 대부분 수화승 鵬友와 함께 1741년에 천안 광덕사 삼세불도 및 괘불도를 제작했던 화원들로서, 얼굴에 비해 좁은 어깨, 뽀족한 육계, 턱이 둥글고 살이 찢 듯한 보살의 얼굴, 길죽한 귀, 대의 깃의 걸린금문 등에서 공통점을 엿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날씬하고 비례가 적당한 인물표현, 홍색, 하늘색, 분홍색, 노랑색 등 밝고 부드러운 색채 또한 18세기 전반경 충청도 지역 불화의 양식을 계승하고 있다.

19세기 이전에는 비로자나괘불도가 거의 남아있지 않으며, 학림사 비로자나괘불도(1774년 보수)에서 보듯이 석가모니불, 노사나불과 함께 삼신불 형식으로 표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괘불도는 19세기 이전의 유례가 드문 비로자나불괘불도이자 18세기 중엽 충청도지역 괘불도의 양식을 보여주는 작품으로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여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괘불도와 함께 대련사에 전해오는 괘불제도 함께 지정, 보존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된다.

### ○ (지정 가치 있음)

비로자나불을 주존으로 하는 괘불은 주로 보신 노사나불과 화신 석가불로 조합된 삼신괘불도가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이처럼 문수와 보현, 가섭과 아난존자를 대등하게 등장시켜 오존도의 구성하였다. 비로자나불을 주존으로 하는 괘불도는 안성 칠장사 오불회괘불도(1628년), 공주 감사 삼신불괘불도(1650년, 국보 제298호), 홍천 수타사 삼신불괘불도(1690년, 비지정), 남양주 봉선사 비로자나삼신괘불도(1735년, 보물 제1792호), 서울 학림사 괘불도 등이 있지만, 이들은 대부분 삼신불 또는 삼신·삼세불로 구성된 것이다. 비로자나불과 문수·보현, 아난·가섭으로 구성된 비로자나불오존도는 괘불뿐만 아니라 불화 전체에서도 드물어 도상적 의미가 크다.

이 괘불도는 18세기 전반기 불화에 비해 중간색의 사용 빈도는 줄이고 명도가 낮은 적색과 청색의 강한 보색대비를 통해 화면의 무게가 다소 무거워진 듯하고, 선묘와 장식, 장엄도 한층 간결해지는 등 18세기 중반경의 시대적 특징을 또렷하게 반영하였다.

이 괘불도는 화기를 통해 1750년이라는 제작 시기는 물론, 대련사라는 봉안 사찰, 旵明 등 충청도 일원에서 활동한 화원, 시주자 등이 남아 있어 불화연구에 기준이 된다. 특히 이 괘불을 그린 화원들은 지금까지 알려진 작품이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작품은 18세기 중엽경 충청도 일원에서 활동했던 旵明畫派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는데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따라서 오존도로 구성된 이 비로자나불괘불도는 도상적으로도 매우 드문 사례이어서 18세기 괘불도의 도상 및 신앙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므로, 괘불함과 함께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보호할 가치가 있다.

### ○ (지정 가치 있음)

예산 대련사 〈비로자나불괘불도〉는 畵記에 의해 건륭 15년인 1750년 ‘竺明’이 수화승을 맡고 ‘思慧, 仁察, 海澄’ 등이 보조로 참여하여 조성된 괘불도로서 조성 연대와 조성화원이 명확할 뿐만 아니라, 비로자나삼존을 전면에 배치하고 밝은 홍색과 연하늘색 등의 부드러운 색채를 채용함으로써 18세기 괘불화의 구성과 화풍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담채풍의 채색기법과 각 상의 상호 표현에 치밀함이 엿보여 작품성 또한 뛰어나다고 하겠다. 이에 대련사 〈비로자나불괘불도〉는 국가문화재인 보물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하겠다.

###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예고함

조사보고서

□

### ○ 현 상

2014년에 상·하측 연결 부분을 보강하고 덧대어진 뒷면 광목천을 교체하는 등 부분적으로 수리가 이루어졌으나 전반적인 보존처리는 실시되지 않았다. 현재 화면에 긁임과 결실, 표면의 얼룩과 오염, 들뜸현상이 많이 발견되며, 일부 좌우 가장자리부분은 배접지와 분피되는 등 보존상태는 양호하지 않다. 안료는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이지만, 일부 녹색안료의 박락과 변색 및 육색의 박락이 보인다.

### ○ 내용 및 특징

이 괘불도는 1750년에 화승 竺明, 思慧, 仁察, 海澄이 조성한 비로자나불괘불도로서, 충남 예산군 광시면소재 대련사 극락전에 보관되어 있다. 대련사는 백제부흥운동이 있었던 대흥 임존성 아래에 위치하며, 백제 의자왕 때 창건했다고 전해

진다. 사찰의 내력에 대해서 알려진 것은 많지 않지만 고려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삼층석탑이 남아있어 늦어도 고려시대에는 창건된 것으로 추정된다. 1836년(헌종2년)에 보월이 수선당을 중수하였으며, 1975년 원통보전 해체 때 대들보 속에서 「대련사법당중수상량문」(1849년)이 발견됨으로써 1849년에도 중수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괘불도가 보관된 극락전은 1975년까지 원통보전이라 하였으나 해체 보수시 극락보전이라고 쓴 현판이 발견되어 법당의 이름을 바꾸었다고 한다.

10폭의 삼베를 이어 만든 세로 712.0(화면 691.5)cm, 가로 381.0(화면 361.2)cm의 화면 중앙에는 비로자나불이 다리를 약간 벌린 채 정면을 향해 서 있으며, 본존의 왼쪽에는 문수보살과 가섭존자, 오른쪽에는 보현보살과 아난존자가 협시하고 있다. 본존을 비롯한 권속들은 화면에 딱 차게끔 배치되었으며, 빈 공간에는 彩雲으로 장식되었다.

본존 비로자나불은 녹색의 두광을 지니고 두 손을 가슴 앞으로 모아 智拳印을 결하고 서있다. 본존은 화면의 1/2 정도를 차지할만큼 큼직하게 그려졌는데, 반면 권속들은 본존의 반 정도쯤 되게 작게 그려져 있어 본존이 더욱 더 장대해 보인다. 턱선이 가름한 타원형의 얼굴에는 반원형의 눈썹, 눈꼬리가 올라간 가늘고 긴 눈, 두툼한 코, 작은 입이 가는 선으로 표현되었으며, 육계가 높이 솟은 나발의 머리에는 반원형의 中央髻珠와 보주형의 頂上髻珠가 표현되어 있다. 신체는 어깨가 좁아 다소 왜소해 보이는데, 두 손을 앞으로 모아서인지 더 움츠러든 듯 보인다.

비로자나불은 가슴 앞으로 두 손을 모아 오른손으로 왼손을 감싼 후 오른손 검지로 왼손의 검지를 누르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은 조선후기 비로자나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지권인의 형태이다. 착의법은 붉은 대의로 두 어깨를 감싸고, 안에 황색의 花文이 그려진 覆肩衣를 입었다. 붉은 대의 안에는 황색 선의 작은 圓圈文이 띠엄띠엄 배치되었으며 끝단에는 渦文이 그려져 있다. 가슴 위로 드러난 승각기에는 금박 바탕에 청색의 운문이 그려져 있고, 흰색의 띠매듭이 일부 드러나 있다.

비로자나불의 좌우에는 하단에 문수보살(향우)과 보현보살(향좌), 상단에 가섭존자(향우)과 아난존자(향좌)가 2열로 배치되어 있다. 화려한 보관을 쓰고 각종 영락으로 화려하게 장식한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은 모두 녹색의 두광을 지니고 양손에 연꽃가지를 든 채 본존을 향해 서 있는데, 보현보살이 들고 있는 연꽃 위에는 日月이 그려진 經冊이 얹혀져 있다. 두 보살은 본존에 비해 크기가 현저하게 작지만 가는 선으로 그려진 둥근 눈썹과 눈꼬리가 올라간 가늘고 긴 눈, 큼직한 코, 작은 입 등은 본존과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며, 본존을 향해 배를 내밀고 당당하게 서 있는 자세는 정적인 화면에 움직임은 느끼게 한다.

두 보살 위로는 아난존자와 가섭존자가 상반신을 드러낸 채 본존을 향해 서있다. 우측에는 젊은 비구 모습의 아난존자가 합장을 하고 중앙의 여래를 향하고 있는

데, 눈을 가늘게 뜨고 입을 꼭 다문 채 합장한 모습에서 젊은 수도자로서의 경건한 모습이 잘 드러나 있다. 반면 좌측의 가섭존자는 입을 벌리고 있는 웃는 모습이라던지 얼굴과 목의 주름, 백발의 머리와 눈썹, 수염 등에서 노비구의 여유로움이 잘 드러나 있다.

화면의 하단 중앙에는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화기가 길게 기록되어 있다. 화기에는 건륭15년 경오, 즉 1750년(영조 26) 9월에 괘불을 조성하여 鳳首山 大蓮寺에 봉안한다는 내용과 괘불탱을 조성하는 데 직접적으로 참여한 證師(覺旻), 持殿(泰華), 誦呪(性宇), 畫員(竺明, 思慧, 仁察, 海澄), 供養主(快性, 弘禪, 義識), 別座(玉日), 大都監(妙喜), 負木僧(亘仁), 化主(淨觀) 등의 緣化秩과 本寺秩, 施主秩이 기록되어 있다. 이 괘불도 조성에 참여한 연화질, 본사질, 시주질은 총 38명으로, 다른 괘불도와 달리 비교적 적은 수의 인물들이 참여한 것이 눈에 띈다.

화원으로는 수화원 竺明을 비롯하여 思慧, 仁察, 海澄 등 4명이 참여하였다. 수화원 축명(竺明 또는 驚明)은 18세기 중반경에 활동한 화승으로, 자세한 약력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으나 1741년에 수화승 鵬友 밑에서 광덕사 대웅전 삼세불도 제작에 참여하였다. 사혜와 인찰도 축명과 함께 1741년에 천안 광덕사 삼세불도와 괘불도 조성에 참여한 것으로 보아, 이들은 축명의 사제 또는 제자로 충청도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던 화승들로 추정된다.

한편, 괘불탱의 뒷면 중앙에는 <造像經> 板을 찍은 종이 6매가 부착되어 있다. 6매의 종이는 대략 가로 47.5~48cm 세로 82~91cm 크기이며, 여기에 동일한 <조상경> 판을 3개씩 찍었는데, 판의 내용은 2종류로 五輪種子, 秘密悉地, 眞心種子, 入悉地眞言, 寶齒眞言, 準提九字, 淨法界眞言, 六字大明王眞言, 出悉地眞言, 補闕眞言이 기록된 것과 大佛頂首楞嚴神呪가 기록된 것이다.

현재 대련사에는 괘불도와 함께 괘불궤가 전해온다. 괘불궤는 향나무로 만들어졌으며 개폐형 덮개(윗널)와 바닥, 앞·뒷면과 측널로 구성되었다. 거친 표면을 대패로 성글게 마감하였으며 앞·뒤 시건장치와 같은 금속 장식은 없고, 중앙 좌우로 대칭되는 위치에 활형들쇠 2개를 고리못으로 고정하여 달았다. 길이 460.8cm, 높이 34cm, 폭 29cm, 두께 2.7~3.1cm로 소형 괘불궤에 속하지만, 괘불도와 같은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 ○ 관련자료(화기 및 참고문헌)

[화기]

乾隆拾伍年庚午」九月日成造卦佛」安于鳳首山大蓮寺」主上殿下壽萬歲」王妃殿下壽千秋」世子邸下壽齊年」願以此功德」普及於一切」我等與衆生」皆共成佛道」

緣化秩」證師無○堂禪師覺旻」持殿兼勸供 泰華」誦呪山人 性宇」畫員 竺明」畫員  
思慧」畫員 仁察」副員 海澄」供養主 快性」弘禪」義識」別座 玉日」大都監 妙  
喜」負木僧 亘仁」化主 舍堂淨觀」

本寺秩」明玉比丘」泰明比丘」玉均比丘」海淨比丘」宗密比丘」智行比丘」道訓比  
丘」覺謙比丘」自心比丘」覺禪比丘」雷允比丘」

施主秩」嘉善金重萬兩主」洪氏庚午生保体」金尙萬兩主」金○○兩主」李萬益兩  
主」馬順才兩主」吳尙位兩主」

### ○ 참고문헌

『대형불화 정밀조사보고서』 9-대련사 괘불탱, 문화재청/정보문화재연구원,  
2017. 3.

[도판]



대련사 비로자나불괘불도, 1750년, 세로 712.0cm 가로 381.0cm,  
충청남도 예산 대련사





비로자나불



보현보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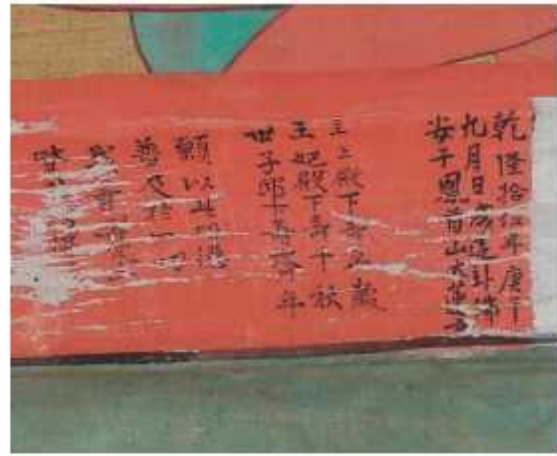
아난존자



가섭존자



화기(연화질)



화기(조성기 및 축원문)



괘불궤 (정면 및 덮개)



괘불궤(측면)



### ○조사내용

대형의 화면에 비로자나불을 주존으로, 문수와 보현보살과 아난과 가섭 존자들이 상하에 배치한 비로자나오존도이다. 본존은 녹색 바탕에 오색 띠를 둘러 두광을 갖추었고, 협시들은 짙은 녹색의 두광으로 표현하여 격을 맞추었다. 본존불은 뽕족하게 솟은 육계와 낮고 넓게 자리 잡은 지발부를 가졌으며, 육계의 정상에는 등근 계주를 표현하였고, 머리와 육계의 경계에는 초승달 모양의 중앙계주를 표현하였다. 얼굴은 둥글 넓적하며 시선은 눈을 내려 떠 사바세계를 향했으며, 콧날은 큼직하게 표현하여 작가의 개성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큼직한 콧날이 둥글게 아래로 처지고 콧망울이 두드러진 이와 같은 얼굴과 비슷한 사례는 천안 광덕사 노사나괘불도(1749년, 보물 제1261호)에서 찾을 수 있다. 착의는 이중착의법으로, 녹색의 上衣 위에 붉은 색의 大衣를 걸쳤으며, 上衣의 표면에는 금빛으로 모란문을, 大衣의 표면에는 소용돌이 원문을, 옷깃에는 화문과 녹화결련금, 광두정녹화문을 시문하였다. 옷깃에 다양한 錦文은 이 보다 앞선 시기와 뒤따르는 괘불에서도 확인되는데, 특히 영천 수도사 괘불도(1704년, 보물 제1271호), 포항 보경사 괘불도(1708), 안동 봉정사 영산회괘불도(1710년, 보물 제1642호) 등 18세기 전반기의 괘불과 비교된다. 치마의 끝단에는 파도문을 시문하여 도량으로 강림하는 여래의 역동적인 모습을 부각시켰는데, 인근 관촉사 미륵보살상에서도 구름문을 하단부에 표현하여 천상에서 강림하는 보살상임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과 같은 장치이다. 두 손은 가슴 앞에서 맞잡아 쥐듯이 하여 특징 있는 지권인을 걸하였다. 연화족좌는 왼발은 홍련을 딛었고, 오른 발은 황련을 디었는데, 예측하지 못한 반전을 통해 색다른 연출을 시도하고 있다.

본존을 향해 7-8분면으로 자리 잡은 좌우 협시보살상은 키가 본존의 허리 정도까지로 작은 편이다. 머리에는 화려한 보관을 쓰고 두 손으로는 연꽃을 잡았다. 좌협시는 아직 만개하지 않은 연봉형태이며, 우협시는 활짝 핀 연꽃 위에 日月이 그려진 경책을 올려놓았다. 좌협시는 녹색의 천의와 붉은색 치마를 입었고, 우협시는 붉은색 천의와 흰색의 치마를 입었다. 좌협시의 足座는 靑蓮과 黃蓮이며, 우협시의 足座는 紅蓮과 靑蓮으로 하여, 본존불과 마찬가지로 다른 색감을 가진 足座를 선택한 점은 흥미롭다. 두 협시 모두 측면관을 한 얼굴은 풍만하며, 큼직한 콧날을 강조하였다. 천의의 깃과 표면에는 녹화결련금과 오색구름문, 금색으로 세밀하게 시문한 각종의 꽃무늬를 시문하였고, 특히 치마 위에 올려 입은 요의 깃에는 박지기법처럼 꽃무늬를 그려넣은 점도 특색이 있다.

협시불의 바로 위쪽에는 본존을 향해 합장하고 선 가섭과 아난 양대 존자를 배치하였다. 가섭은 겨우 몇 남은 이를 드러낸 인자한 노비구의 모습이다. 탄력

없이 늘어진 목주름은 여러 겹으로 주름을 겹쳐 기괴하게 표현하였는데, 옷 주름도 이와 같은 표현방식을 취하였다. 이러한 피부의 주름과 옷주름은 안성 청룡사 패불도(1658년)과 안성 칠장사 삼불회패불도(1710년, 보물 제1256호) 등의 선행 패불도의 도상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전반적으로 같은 작가들이 참여하여 그린 광덕사 노사나불패불탱(1749년, 보물 제1261호)과 흡사하다. 아난은 단정히 입을 다물고 총기 찬 젊은 비구의 모습으로 녹색 계통의 장삼에 적색의 가사의 정갈하게 차려 입어 노쇠한 가섭과 대조를 이루게 하였다.

인물의 주름과 귀, 옷자락 등에는 색 바림과 색의 톤을 달리하여 음영을 주어 입체적인 효과를 주었다. 18세기 전반기 불화에 비해 적색과 청색의 명도와 채도가 낮아 다소 무거운 분위기를 연출하였고, 색선의 사용도 줄고 선의 탄력도 앞시기에 비해 다소 둔해졌지만 이는 18세기 중엽경의 시대성이 반영된 것이다. 구도는 중앙에 크게 자리 잡은 본존불이 중심으로, 그 上下左右에 협시불과 권속을 대등하게 배치하여 안정된 구도를 이루고 있다. 쉽게 드러나는 옷깃에는 화려하고 산뜻한 금문을 묘사하여 화려함을 더 하였고, 大衣나 天衣의 옷깃에는 금색으로 다양한 꽃무늬를 섬세하게 베풀었다.

대련사 비로자나패불도는 주존불과 협시와 권속 등이 오존도를 이루는 형식이다. 이와같은 오존도 형식은 경북 예천군 용문사 영산회패불도(1705년) 등과의 패불과 비교할 수 있는데, 용문사 패불도는 석가여래와 협시보살이 대등하게 부각시키고 아난과 가섭존자의 존재감은 그다지 크지 않아 확연한 차이점이 있다. 대련사 패불처럼 화면이 수직으로 상승하면서 축소율이 크게 고려되지 않은 예는 이 보다 1년전에 그려진 천안 광덕사 노사나패불도에서 나타난다. 광덕사 노사나패불도도 대련사 패불도를 그린 작가군들이 참여하였기 때문에, 이들 유파의 화풍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가섭과 아난존자의 존재를 중시한 작자의 어떤 사상적 의도도 반영되었던 것으로도 보인다.

이 불화는 乾隆15年 庚午 9월, 즉 조선 영조 26(1750)년에 완성하여 봉수산 대련사에 봉안한 패불이다. 畫員은 축명, 사혜, 인찰, 해징 등 4명의 화원이 참여하였는데, 다른 패불에 비해 지극히 적은 인원이 참여한 점이 눈에 띈다. 이 패불의 수화원 축명은 천안 광덕사 삼세불도(1741년, 수화원 鵬友)를 보조화원으로 참여하였으며, 사혜는 죽림사 극락보전 영산회상도(18세기)와 천안 광덕사 삼세불도(1741년) 제작에 보조화원으로 참여하였고, 천안 광덕사 노사나패불도(1749년) 제작에는 수화원으로 참여하였다. 대흥사 석가모니불도(1749년)를 보조화원으로 참여하였다. 인찰은 천안 광덕사 노사나패불도와 천안 광덕사 삼세불도를 그렸다. 따라서 이 패불을 그린 화원들은 대체로 18세기 중엽 경 충청도 일원에서 활동한 화원들로 볼 수 있다. 그림의 전체 크기는 세로 712×381cm로 패불도로서는 적은

규모에 속하고, 참여인원도 다른 괘불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었는데 당시 사찰과 인근 지역의 경제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 <화 기>

吳尙位兩主」

馬順才兩主」

金萬益兩主」

金〇〇兩主」

洪氏庚午生保体」

嘉善金重萬兩主」

施主秩」

乾隆拾伍年庚午」

九月日成造掛佛」

安于鳳首山大蓮寺」

主上殿下壽萬歲」

王妃殿下壽千秋」

世子邸下壽齊年」

願以此功德」

普及於一切」

我等與衆生」

皆共成佛道」

緣化秩」

證師無〇堂禪師覺旻」

持殿兼勸供泰華」

誦呪山人性宇」

畫員 竺明」

畫員 思慧」

畫員 仁察」

副員 海澄」

供養主 快性」

弘禪」  
 義識」  
 別座 玉日」  
 大都監 妙喜」  
 負木僧 亘仁」  
 化主舍堂 淨觀」  
 本寺○」  
 明玉比丘」  
 泰明比丘」  
 玉均比丘」  
 海淨比丘」  
 宗密比丘」  
 智行比丘」  
 道訓比丘」  
 覺謹比丘」  
 自心比丘」  
 覺禪比丘」  
 自心比丘」  
 雷允比丘

<괘불함>

대련사 괘불함은 자귀로 치목한 널을 대패로 다듬은 후 앞·뒷면과 바닥 널을 맞대고 좌·우측 널은 일자사개로 물린 후 사개측에는 쇠못을 상·하부에 박아 몸체를 구성하였다. 몸체는 긴 상자형으로 개폐형 덮개와 바닥, 앞·뒷면과 측널로 구성되어 있다. 손잡이는 앞과 뒷면 각 2개씩 부착하였다. 전체 크기는 길이 460.8cm, 높이 34.0cm, 폭 29.0cm, 두께 2.7~3.1cm이다. 제작과 관련된 기록은 없으며, 특이하게 향나무로 제작되었다.



그림 96. 대련사 괘불함

○ 참고문헌

「대련사 괘불탱-대형불화 정밀조사 보고서 9」, 문화재청·(사)정보문화재연구원, 2016.



그림 97 예산 대련사 비로자나불괘불도



## ○ 현 상

전반적으로 보아서는 비교적 보존상태가 좋아 보이나 화면의 갈라짐 현상과 안료 박락으로 인해 배접지 면이 드러나 보이며, 화면 변의 경우 부분적으로 배접지와 화면 바탕천이 분리되어 들떠 있는 곳과 밀려 있는 부분이 보인다. 이로 말미암아 전체 화면의 변형이 발생하여 말았을 경우 틀어짐 현상을 볼 수 있다.

\* 2014년 국립중앙박물관 해외전시(조선미술대전) 시 상·하축 연결부의 부분적인 보강과 덧대어진 뒷부분의 광목천을 교체하였다고 함.

## ○ 내용 및 특징

-세로로 길어진 화면 중앙부에 비로자나불상을 화면을 다 차지할 정도로 큼직하게 배치한 다음 하부 좌우로 문수·보현보살상을 협시보살상으로 둔 비로자나불패불도로서, 상부 좌우에 가섭존자와 아난존자상을 배치하여 5존 형식의 구성을 보인다.

-중앙의 본존불은 가슴 앞에 두 손을 모아 오른 손으로 왼 손을 감싸 권 모양의 智拳印을 지은 비로자나불입상으로서, 양어깨를 모두 덮은 通肩衣에 둥근 머리광배를 구비하였다. 팽이처럼 솟아오른 큼직한 육계에 中央髻珠와 頂上髻珠를 갖추었으며, 턱이 둥글어진 원만형의 얼굴에는 이목구비의 표현이 단정하다. 두 귀는 적당한 길이로 대의 깃에 닿을 듯 말 듯하며, 목에는 三道 표현이 뚜렷하다.

-본존불의 적색 大衣에는 안쪽에 동심원을 표현한 작은 크기의 둥근 무늬가 시문되어 있고, 대의 깃에는 어자문 모양의 문양과 결련금문으로 장식되어 있다. 그리고 금색 바탕의 승각기에 시문되어 있는 구름무늬를 비롯하여 複肩衣 의 화문 및 연하늘색 裙衣의 영락장식 등으로 화려함이 돋보인다.

-본존불에 비하여 크기가 현저히 줄어든 좌우협시보살상의 경우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상으로서, 둥근 모양의 녹색 머리광배를 구비한 채 배를 약간 내밀고 본존불 쪽으로 몸을 틀고 서서 각기 두 손으로 연꽃가지를 받쳐 들고 있다.

거의 대칭적인 모습의 두 상 중 왼 어깨에 연꽃가지를 비껴 든 문수보살상의 경우 팔이 노출된 菩薩衣에 팔에 걸쳐 내린 천의자락과 영락으로 화려함이 엿보인다. 이에 비해 경책이 올려진 연꽃가지를 오른 어깨에 걸쳐 받쳐 든 보현보살상의 경우는 양어깨를 모두 덮은 佛衣形 法衣를 착용하고 있다.

-화면 상단 좌우에 위치한 노비구 모습의 가섭존자와 청년 비구 모습의 아난존자상은 본존불을 향해 합장하고 서 있다.

-화면 하단 테두리에 마련된 화기 중의 ‘乾隆拾伍年庚午九月日成造卦佛安于鳳首山大蓮寺 … … 畫員 竺明 畫員 思慧 畫員 仁察 副員 海澄 … …’라는 내용



으로 보아, 대련사 괘불도는 건륭 15년인 1750년 ‘축명’이 수화승을 맡고 ‘사혜, 인찰, 해징’ 등이 보조 화승으로 참여하여 4명의 화승에 의해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비로자나삼존을 전면에 배치한 구성법에 밝은 홍색과 연하늘색 등의 부드러운 색채를 채용함으로써 18세기 괘불화의 구성과 화풍을 잘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담채기법의 채색방법과 정밀하고 치밀한 표현법을 보여주어 작품성 또한 뛰어나다고 하겠다.

[畫記]

乾隆拾伍年庚午  
九月日成造卦佛  
安于鳳首山大蓮寺

主上殿下壽萬歲  
王妃殿下壽千秋  
世子邸下壽齊年

願以此功德  
普及於一切  
我等與衆生  
皆共成佛道

緣化秩

證師無○堂禪師覺旻  
持殿兼勸供 泰華  
誦呪山人 性宇  
畫員 竺明  
畫員 思慧  
畫員 仁察  
副員 海澄  
供養主 快性  
弘禪

義識

別座 玉日

大都監 妙喜

負木僧 亘仁

化主舍堂 淨觀

本寺秩

明玉比丘

泰明比丘

玉均比丘

海淨比丘

宗密比丘

智行比丘

道訓比丘

覺謙比丘

自心比丘

覺禪比丘

雷允比丘

施主秩

嘉善金重萬兩主

洪氏庚午生保体

金尙萬兩主

金○○兩主

李萬益兩主

馬順才兩主

吳尙位兩主

#### ○ 참고문헌

- 『대형불화 정밀조사보고서』 9-대련사 괘불탱, 문화재청/정보문화재연구원, 2017. 3.



그림 98. 예산 대련사 괘불도

## 07. 상주 남장사 영산회 괘불도 (尙州 南長寺 靈山會 掛佛圖)

### 가. 검토사항

‘상주 남장사 영산회 괘불도’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사)성보문화재연구원이 문화재청의 「전국 사찰 소장 대형불화 정밀조사 사업」 일환으로 조사한 ‘상주 남장사 영산회 괘불도’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7.1.10)이 있어 관계전문가 조사(‘17.7.18) 및 과학조사(‘17.7.16~’17.7.19/9.6), 관련유물 보완조사(‘17.9.6)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의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30일간 지정예고 하려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상주 남장사 영산회 괘불도(尙州 南長寺 靈山會 掛佛圖)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남장사
- 소재지 : 경상북도 상주시 남장1길 259-22
- 수 량 : 괘불 1폭, 불사성공록 1책
- 규 격 : 전체 1,066.7×645.5cm, 화면 1,034.4×626.9cm, 불사성공록 38.0×31.0cm
- 재 질 : 삼베에 채색
- 형 식 : 족자
- 조성연대 : 1788년(정조 12)
- 제작자 : 尙謙, 戒寬, 海淳, 瑞洪, 道淨, 德旻, 性日, 永輝, 弘旻, 德敏, 性日, 永輝, 弘旻, 德敏, 性允, 快允, 快全, 法成, 有弘, 處洽, 處弘, 處澄

###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 (지정 가치 있음)

남장사 영산회괘불은 10미터가 넘는 큰 규모에 짜임새 있는 구성과 진하고 밝은 채색과 장식적인 화면을 이루고 있으며 명료하고 능숙한 필선으로 각 존상을 표현하여 높은 예술성을 보여주고 있어 18세기 후반기 경상북도 지역의 대표적인 불화의 하나로 주목할 수 있다. 당대 대표적 화승인 상겸이 수화사로 제작하였으며 그의 화풍이 잘 표현되어 있다. 상겸은 경기도와 경상도를 오가며 작업을 하여 당시 양 지역 불화화풍의 형성에 큰 기여를 한 주목되는 화사이다. 전반적으로 보존 상태가 양호하여 그림의 양식과 도상을 명료하게 알 수 있고 채색도 훼손이 극히 미미하여 상태도 매우 양호하여 예술성과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또한 괘불 뿐만 아니라 조성의 전말을 기록한 『불사성공록』은 괘불의 조성 배경과 동참한 화사, 도상의 사상적 근거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당시 괘불뿐만 아니라 지장도와 시왕도 등 1788년의 佛事 전반에 대한 기록과 시주질과 시주의 내용 등 18세기 불사활동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도 역사적, 불교사적 의미가 있다.

이외에도 괘불함과 복장을 넣었던 복장주머니와 복장물 및 동경 등 관련 유물들이 함께 전해지고 있으나 현 대상 괘불과 함께 조성되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어 일괄 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상의 특징으로 보아 상주 남장사 영산회괘불도는 18세기 후반기 불화의 예술성과 역사성 그리고 학술성을 모두 지니고 있는 유물로서 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관련 기록인 『불사성공록』은 본 괘불 조성의 전말을 기록하였다는 점에서 일괄로 지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 (지정 가치 있음)

남공철(南公轍)의 비문(영천 은혜사 영파대사비)에 의하면, 영파는 구류(九流)에 통달하고 글씨를 잘 써서 원교의 문하에 참여할 정도였다고 하였다. 영파는 화엄의 종지와 선교의 요령을 모두 터득하고 함월(涵月)에게 의발을 전해 받으니 서산(西山)의 6세(청허-편양-풍담-월담-환성-함월-영파)가 되었다. 이렇듯 영파당 성규는 학문과 더불어 예술에도 남다른 높은 감식안을 지닌 인물이었는데, 그가 남긴 『불사성공록』을 통해 봐도 남장사 영산회괘불도 제작시 얼마나 정의껏 증사(證師)의 역할을 하였는지를 알 수 있다.

『불사성공록』에 의하면, 제일 먼저 불화는 화신(化身)의 연장선상에 있는 개념임을 명확히 한 후, 괘불을 새롭게 제작하게 된 연유와 그림 그리는 원칙 등을 밝히고, 남장사의 의견을 모아 호남과 영남, 경성에서 온 70여 명의 장인들에게 각각 나눠 그리게 하는 등 일련의 불사의 진행과정을 볼 수 있다. 집단제작의 효

울성을 최대한 살린 결과, 괘불화 등 일련의 방대한 불사는 20여 일만에 끝내고 그 결과를 “높이 (괘불을) 허공에 걸었을 때 부처님의 금빛 용모가 눈에 환하여 그 빛남이 마치 다보탑에서 인간과 천상의 백만 대중들과 더불어 큰 기러기가 날개를 펴고 내려와 묘법을 설하고 듣는 듯”(高掛半空 金容煥目 晃然如多寶塔中 與人天百萬衆 說聽妙法之鴻儀也)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어 임금에서부터 법계의 모든 생명들에게 축원을 하고, 은혜사에서 내려와 남장사에 와서 증사가 된 연유를 적고 있다.

영과당 성규는 『불사성공록』의 기록에서도 인지되는 것처럼 치밀하고도 정성스럽게 영산회괘불탱의 구도와 도상, 색채, 필세, 심지어 마음자세까지도 증명하고 지도하였음에 틀림없다. 당시 불교계의 최고 지성 영과당 성규와 역시 경성 최고의 화사 상겸이 만나 이룬 작품이 남장사 영산회괘불탱이므로, 지정하여 관리·보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됨.

### ○ (지정 가치 있음)

이 괘불은 괘불을 조성할 당시 불사의 내용을 기록한 『불사성공록』과 괘불의 복장낭과 복장유물, 괘불함, 복장낭의 보관함까지 모두 온전하게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특히 1788년 남장사에서 진행된 불사의 전말을 기록한 『불사성공록』은 괘불의 도상적 전거를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불화승들의 동향과 활동, 불사에 들어간 제반적인 여건까지 담고 있어 18세기 후반 불교회화 뿐만 아니라 사원경제 연구에도 귀중한 정보를 제공한다. 복장유물을 담은 복장낭에도 ‘作針 元察’이라는 제작자를 기록해 두고 있어 이 또한 드문 사례로서 귀중한 연구 자료가 된다.

이 괘불은 꽃을 든 여래를 主尊으로 삼고 있는데, 『불사성공록』의 기록을 통해 염화시중의 장면을 도상화한 영산회상도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 기록이 없는 다른 ‘蓮花契印形 掛佛’ 도상 연구에도 典據자료가 된다.

세로로 긴 화면 가득 본존과 협시 권속들이 여백 없이 밀도 높게 배치되었으나 상호 유기적인 결속이 흐트러짐 없이 안정된 구도를 형성하고 있으며, 비교적 명도가 높은 적·녹의 강한 대비를 바탕으로 여러 밝고 짙은 색감들이 조화롭게 배풀어 수준 높은 화격을 보여준다. 길쭉한 얼굴에 이목구비를 오밀조밀하게 표현한 여래와 보살, 그리고 梵字문양을 주 문양으로 중 하나로 과감하게 사용한 점은 상겸계 화풍의 특징을 잘 드러내었다. 화면의 상태도 제작 당시 그 모습 그대로 변형 없이 잘 유지해오고 있으며, 보존 상태도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복장유물과 복장낭함 등 괘불관련 유물을 괘불과 함께 모두 일괄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예고함

조사보고서



### ○ 현 상

화면 중앙에 오른손으로 연꽃을 든 불입상과 이를 중심으로 6위의 보살, 범·제석천, 가섭과 아난을 비롯한 6명의 제자, 사천왕 등의 권속이 좌우에 배치되어 있는 군도형식의 괘불이다. 화면 바탕은 삼베와 비단 18폭을 이어 만들었고 배접지는 13겹이 확인되었으며, 화면을 정의한 4면의 테두리에는 범자원문을 넣어 들렀다.

작품상태는 전반적으로 손상이 심하진 않으나, 축봉이 가늘어(지름 8.1cm) 접고 펴는 과정이 되풀이됨에 따라 화면 전반적으로 꺾임현상이 드러나 있다. 하단의 화기는 축봉 위로 덮혀져 있어 언제인가 개장되었을때 하단을 자르고 종이를 덧대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화면에 습기가 퍼져있고 곰팡이도 보여 혹시 언젠가 비를 맞았을 가능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관련 유물로는 『불사성공록(佛事成功錄)』이 전해지고 있어 괘불조성과 관련된 사항을 정확하게 알 수 있으며 괘불케, 복장낭 및 복장물과 동경도 함께 전하고 있다.

### ○ 내용 및 특징

이 괘불은 화면 중심에 본존불을 중심으로 권속을 주위에 배치한 구도형식을 취한다. 본존 주위에는 6위의 보살, 아난과 가섭을 포함한 제자 6인, 그리고 사천왕이 본존 좌우에 배치하였고, 화면 상부 광배 좌우에는 범회에 참여한 타방불 2위도 표현되어 있다. 한편 연판형 두광과 신광의 테두리를 따라 좌상의 화불 9구, 화면의 최상부에 2구를 정연히 배치하여 영산설법의 장엄하고 극적인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효과를 주고 있다. 이렇게 입상의 주존을 중심으로 여러 권속들이 에워싼 구성의 괘불 도상은 상주 북장사괘불탱(1688년, 보물 제1278호), 문경 김룡사괘불탱(1703년, 보물 제1640호), 안동 봉정사괘불탱(1710년, 보물 제1642호) 등 18세기부터 경상도지방에서 즐겨 활용되던 도상이다.

본존불은 화면을 압도하듯 거대한 입상으로 표현되어 있어 의식도량에 顯現한 부처의 모습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오른쪽 팔을 어깨쪽으로 굽혀 올려 연꽃을 잡고 있는 모습은 유명한 ‘拈花示衆’ 설화를 시각화한 것이다. 이는 석가모니불이 영축산에서 설법하며 꽃을 들어보이자 가섭존자 만이 그 뜻을 알고 미소

를 지었다는 내용으로 선종의 기원을 알려주는 설화로 유명하며 따라서 화기에는 적시하지 않았으나 본존이 석가모니불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또한 이 불사를 완료한 후 기록한 『불사성공록』의 「남장사괘불신화성기(南長寺掛佛新畫成記)」에서도 ‘世尊說終一大事於靈山…’으로 시작하여 영산에서의 설법주인 석가모니불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석가모니불이 꽃을 든 도상은 범주사간 묘법연화경(1655) 변상도와 선석사 영산회괘불탱(1702년, 보물 제1608호), 용문사 괘불탱(1705년, 보물 제1445호), 남장사영산회괘불탱(1788년), 김룡사 응진전 석가모니후불탱(1803년) 등 법화경의 영산회상도를 표현한 불화, 그리고 선종 조사들에 대한 예경절차와 예참문을 기록한 『선문조사예참문(禪門祖師禮懺文)』(1660년, 夫人寺)의 본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는 법화경으로 대표되는 교와 선을 일치하는 禪教合一思想을 도상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협시보살 역시 꽃을 들고 있는데 특히 우협시 보현보살은 양손으로 꽃송이를 잡은 모습으로 변화를 주었다. 본존과 협시보살 및 사천왕 등 신체에 비해 두상이 큰 편이고 얼굴이 기름한 특징을 보인다. 십대제자 중 6명의 제자의 모습 역시 긴 얼굴에 깊게 패인 주름과 수염 등 각기 개성적인 특징이 잘 표현되어 있다.

괘불의 형태상 필요시 감고 펴기를 반복한 결과 화면에 가로 꺾임이 생긴 점과, 녹색 안료가 일부 갈라진 점을 제외하고 바탕천과 안료의 상태는 비교적 안정된 편이다. 불상의 대의와 보살의 천의 및 보관 등에 선명한 적색을 주조색으로 사용하여 화면이 전반적으로 붉은 빛을 띠고 있고 각 존상의 얼굴 등 신체의 색감도 붉은 기운이 도는 특징을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이 시기 불화 중에서는 채도가 높은 편이다. 특히 화면 상부의 십대제자상과 타방불의 얼굴은 더욱 밝게 채색되어 있어 상부로 갈수록 밝은 화면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밝은 색감과 함께 다양한 문양이 배풀어진 복식, 영락장식으로 장엄된 화관, 사천왕상의 치밀한 갑옷표현 등 전체적으로 화려하고 장엄한 법회의 장면이 잘 표현되어 있다.

이 불화 제작과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影波 聖奎가 기록한 『불사성공록』의 「남장사괘불신화성기」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이전 괘불(1776년작 영산회상도, 현재에도 사중에 유존되어 있으나 훼손이 심한상태임)을 십여년간 사용하던 중 기우제를 지내던 도중 비를 맞아 화면이 손상되어 이 괘불을 京城에서 온 17명의 화승들에게 맡겨 새로이 조성하였다고 한다. 화기의 연화질에 의하면 증명은 당대 대표적인 화엄강학인 影波堂 聖奎, 南岳堂 暎晤, 括虛堂 取如스님들이고, <繪畫所秩>에는 화승 龍峰堂 敬還, 都畫師 尙謙, 그리고 戒寬 등 총 17인의 화승이 기록되어 있다.

『불사성공록』에도 ‘경성화공’으로 언급되어 있듯이 영산회를 그린 상점 등은 18세기 후반 서울·경기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화승들이다. 상점은 남양주 봉선사



대웅전의 중수개금시(1780년) 雪訓과 함께 참여하였고, 수원 용주사의 감로도(1790)에서는 수화사로 참여하여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한편 황령사 아미타불도(1786년)와 남장사 괘불 및 십육나한도(1790년) 등 상주를 중심으로 한 경상도지방에서도 활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남장사괘불의 안정된 구도와 늘씬하고 가름한 얼굴형태, 다양하면서도 화려한 문양을 시문하여 장식성이 강한 특징은 그가 그린 황령사 아미타불도와도 공통되는 상경 화풍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남장사에는 괘불탱과 관련된 유물들이 전하고 있다. 『불사성공록』은 표지 포함 14매로 이루어진 필사본 서책(38×31cm)으로 「南長寺掛佛新畫成記」, 「掛佛腹藏願文」, 「幽冥教主地藏大聖新畫成腹藏願文」, 「佛事錢穀雜物等所入記」, 「掛佛橫成造雜物所入記」, 「緣化秩」이 기록되어 있어 괘불 조성 배경과 동참한 화사, 도상의 사상적 근거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한 괘불을 보관하였던 목제 괘불궤(길이 689.7, 너비 33, 높이 29.5cm)도 함께 전해지고 있는데, 앞뒷면의 널과 덮개 등 목재를 교체한 부분이 많다.

이외에 복장낭은 78×63cm의 규모이며 주머니는 청색, 덮개는 홍색이며 운보문이 새겨진 비단주머니이다. 정면에 금색실로 범자(옴 아 흠 람)가 수놓아져 있으며, 표면에는 ‘願針切德元察’이라 쓴 금니서, 내부에는 ‘作針元察’이라는 목서명이 있다. 그 위에 동경(지름 37.6cm)을 매달아 걸었는데, 동경 표면에는 화문과 범자가 시문되어 있다. 복장낭에는 『묘법연화경』의 권1과 권3이 분책되어 들어있었고, 『수륙무차평등재의활요』,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 후령통, 유리(지름 6.5cm) 1점이 들어 있었다.

또한 이 복장낭을 보관했던 목제함(79×73.7×17.7cm)도 전하고 있는데 내부에 ‘乾隆四十八年癸卯五月日造成 省學 振樞’라는 목서가 있어 1783년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보아 이 복장낭은 1776년 괘불 조성시 제작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 □

### ○ 현 상

화면은 압도적인 크기의 불입상과 그 주위를 6위의 보살, 범·제석천, 가섭과 아난을 비롯한 6명의 제자, 사천왕 등의 권속이 배치된 군도형식의 괘불이다. 화면 바탕은 비단과 삼베 18폭을 이어 만들었고, 화면의 가장자리인 상하좌우 변아(邊兒)에는 범자원문을 둘러쌌다.

작품의 보존 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화면 곳곳에 황으로 드러난 꺾인 자국이 두드러져 있다. 화면에는 부분적으로 안료의 박락과 얼룩이 있으며, 화면 가장자리와 상하 축의 연결부위에 손상이 있다.

이와 함께 1788년 남장사의 불사 전말을 기록한 『불사성공록(佛事成功錄)』이 남아있어 괘불 조성과 관련한 저간의 사정을 알 수 있다. 그밖에 북장낭과 동경, 괘불케 등도 함께 전한다.

## ○ 내용 및 특징

괘불은 본존불인 석가모니를 중심으로 주위에 그 권속을 배치한 군도형식을 취하고 있다. 구도는 본존을 감싸면서 피어나는 꽃잎처럼 주위에는 6위의 보살과 범·제석천, 상부에는 법회에 참여한 타방불 2위가 모두 초록빛 두광을 하고 배치되어 있다. 본존불 어깨 윗부분에 해당하는 상부에는 아난과 가섭을 포함한 제자 6인과 사천왕 2위를 좌우에 배치하였다.

여러 권속들이 입상의 주존을 에워싼 구성의 괘불은 상주 북장사괘불탱(1688년, 보물 제1278호), 안동 봉정사괘불탱(1710년, 보물 제1642호) 등과 비교될 수 있다. 남장사 영산회괘불탱에 보이는 도상의 질서정연한 배열과 존상들에 부여된 안정된 색채 감각은 17~18세기 이 형식의 괘불에 나타나는 전형성을 잘 보여주고 있으면서도 좀 더 자유로운 구성과 설명적인 도상의 특징을 보인다.

주존인 석가모니의 연관형 두광과 신광의 테두리를 따라 좌상의 화불 9위, 화면의 최상부에 2위를 배치하여 헤아릴 수 없는 화신(化身)의 오고감을 표현해 놓았다. (“化身來往 安可以記其數乎” 『佛事成功錄』) 이는 상주의 남장사에서 영산회괘불도를 모시는 일을 마치 “석가모니가 영축산에서 영산회의 일대사를 설한 것이 빛이 되어 백억세계에 균등하게 빛으로 충만하게 하였다”(『佛事成功錄』)는 증사(證師)로 참여한 영파당(影波堂) 성규(聖奎)의 언설을 괘불에 구현한 듯한 표현인 것이다.

이렇듯 1788년 남장사에서 있었던 불사의 내용은 『불사성공록』의 「남장사괘불신화성기(南長寺掛佛新畫成記)」에 잘 정리되어 있다. 「남장사괘불신화성기」에 의하면, 종전 괘불(1776년작 영산회상도)은 제작한지 10여 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기우제를 지내던 도중 비에 젖어 새로 조성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 당시 불사에는 영남에서 활동한 화사뿐 아니라 호남이나 경성에서 온 화사들도 참여하고 있었는데, 이 괘불은 경성에서 온 17명의 화승들에게 맡겨 새로이 조성하였다고 하였다. 화기에 의하면 용봉당(龍峰堂) 경환(敬還), 도화사(都畫師) 상겸(尙謙) 등 총 17인의 화승이 기록되어 있다.

『불사성공록』에 ‘京城良工’으로 기록되어 있듯이 영산회괘불탱을 그린 상겸은 18세기 후반 서울·경기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유명한 화사이다. 상겸은 남양주 봉선사 대웅전의 중수개금시(1780년)에도 참여하였고, 수원 용주사의 감로도(1790)의 제작시에는 수화사로 참여하기도 하였다. 용주사감로도의 제작은 액정서(掖庭署)

사알(司諫)을 지냈던 황덕순(黃德諄)이 감동관(監董官)이 되었을 정도로 국가적인 불사였는데, 실제 그 묘사에서도 탁월한 완성도를 보여줄 뿐 아니라 조선시대 감로도에서는 처음으로 한국적인 복식을 등장시킨 불화이기도 하다.(현재 분실됨) 또한 상겸은 오세창의 『근역서화징』에 소개된 화사이며, 그의 대표작인 용주사의 감로도가 부재한 상황에서 남장사 영산회괘불탱은 상겸의 얼마 남지 않은 작품 중 단연 대표작으로 꼽을 만한 것이다.

□

### ○ 조사내용

이 괘불은 본존불을 중심으로 6대보살과 제석·범천, 가섭과 아난존자를 비롯한 제자, 벽지불, 타방불, 사천왕 등 모두 24위의 존상을 화면 가득히 배치한 군도형 괘불화이다. 본존불은 화면 중심에 크고 우람하게 배치하여 존재감을 드러내었고, 화면의 구성은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상승하면서 협시와 권속들의 비율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배치한 이른바 수직 상승구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구도는 군도형 불화에서는 일반적인 것으로, 이는 본존불을 더욱 웅장하게 보이는 효과를 준다. 화면은 삼배와 비단 18폭을 이어 붙여 화면을 마련하였는데, 그림이 베풀어지는 16폭은 모두 비단으로 이루어져 있고, 삼배는 좌우측 변아 부분만 삼배로 덧대어 걸 때의 안전을 고려하였다.

화면의 중심에 자리한 본존불은 꽃잎 두 장으로 이어 만든 꽃잎형 광배(또는 키형광배)를 배경으로 당당히 선 모습이다. 머리는 삼각형으로 육계가 뾰족한 편이고, 중앙에는 초승달 모양의 중앙계주와 정상에는 구슬모양의 정상계주가 표현되었다. 정상 계주에서 뻗어 나온 오색빛깔의 瑞光은 천공으로 뻗어 나가 도량의 상서로운 분위기를 돋우는 역할을 한다. 본존의 얼굴은 둥글 넓적하지만, 이목구비는 작고 오밀조밀하여 작가의 개성이 분명히 드러난다. 붉은색 대의를 편단우견으로 걸쳤으며, 청색의 裙衣를 입었다. 군의의 표면은 짙고 옅은 청색으로 음영을 주었으며, 붉은 색 띠로 묶어 다리 아래로 드리웠다. 大衣의 표면에는 여러 가지 구름과 꽃무늬를 조합시킨 圓卷文을 베풀었고, 특히 원문 가운데 ‘옴마니반메훔’의 육자대명왕진언을 문양으로 사용한 점이 특색이 있다. ‘육자대명왕진언’같은 범자를 主 문양으로 채택한 사례는 지극히 드문 편인데, 이 괘불화 외 같은 화원인 尙謙의 황령사 아미타설법도에서 확인되므로 그의 특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상겸은 17세기 信謙, 18세기 전반의 경상도의 義謙과 더불어 불화계의 ‘三謙’으로 통한다.

이 괘불에서 주목되는 점은 본존불의 지물이다. 본존은 특이하게 어깨 높이까지 들어 올린 오른손으로 활짝 핀 연꽃을 들었고, 왼손은 엄지와 중지를 가볍게

맞대어 설법인을 짓고 있다. 여래가 꽃을 드는 도상은 영산회상의 釋迦 아니면, 미륵여래가 용화도량에서 삼회의 설법을 하는 장면일 것이다. 17-18세기에 미륵 괘불도의 미륵은 대체로 보살형으로 등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곳의 연꽃은 석가가 영산회상 때 연꽃을 대중에게 들려 보였을 때 오직 가섭존자만이 그 의미를 알고 미소를 지었다는 禪宗의 拈花示衆의 장면을 도상화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1788년 이루어진 남장사 불사의 전말을 기록한 <불사성공록>에도 분명히 ‘靈山會’를 제작하였다는 기록이 보이므로 더욱 명확해 진다. 이로써 오덕사 괘불도 등 보살이 아닌 여래가 꽃을 들고 회상에 등장하는 괘불도는 영산회의 장면을 도상화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이 괘불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여래의 광배는 꽃 잎 두 장을 잇대어 붙인 모습인데, 불꽃이 떠오르는 테두리를 따라 모두 9位の 화불을 배치하였다. 상단 중앙에는 智拳印의 비로자나불을 돋보이게 배치하고, 내려가면서 좌우측에 연꽃대좌에 앉은 <설법인과 선정인>의 여래, <설법인과 설법인>의 여래, <설법인과 합장인>의 여래, <설법인과 설법인>의 여래를 화불로 배치하였다. 이 9位の 화불이 어떠한 도상적 의미와 규칙에 따라 배치되었는지는 가늠하기 어려운데, 괘불을 조성하면서 별도로 기록한 『佛事成功錄』에 “빛으로 여러 분신 석가를 불러 삼변정도에 충만케 하셨다”라는 기록을 통해 여러 석가의 분신을 도상화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하지만 다른 괘불에서도 화불 중에서 法身 비로자나불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곳의 화불도 三身佛과 더불어 시방법계에 상주하는 여러 부처님의 화현한 모습을 나타낸 것일 수도 있다.

화면의 하단과 중단에는 협시보살상과 보살상이 배치되었다. 좌협시 보살상은 붉은색 천의를 입고 두 손으로 연꽃줄기를 잡았으며, 우협시 보살은 푸른색의 천의를 입고 두 손으로 연꽃을 받쳐 들었다. 그 위쪽 좌측에는 합장한 보살을, 우측에는 여의를 든 보살을 배치하였고, 다시 그 위쪽에는 여의를 든 보살과 합장한 보살을 배치하여 아래쪽 배치와 상반되게 변화를 주었다.

화면의 상단에는 제석과 범천, 가섭과 아난존자를 비롯한 6위의 제자, 2위 벽지불, 2위의 화불이 배치되었다. 좌측에 배치된 2위의 존자는 엄숙한 도량에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해학적인 장면을 그렸고, 우측에는 圓點文이 베풀어진 두건을 쓰고 깊은 생각에 잠긴 존자와 범자가 적힌 책을 펼쳐 든 엄숙한 분위기의 존자를 배치하여 좌우측이 뚜렷한 대비를 이루도록 연출하였다. 이곳에 표현된 나한들은 손이 유달리 크고, 입가를 뼈에로 입술처럼 과장되게 묘사한 점이 인상적인데, 불화의 인물묘사에서 흔히 사용하는 방식이다. 하늘은 채색구름으로 가득 채웠는데, 구름 사이에는 높고 큰 肉髻를 갖춘 벽지불이 얼굴을 내밀어 부처를 향해 합장하였으며, 그 옆쪽에는 도량으로 강림하는 화불 1위를 각각 배치하였다.

구름은 청색계열과 적갈색 계열을 번갈아 가며 사용하였고 구름 끝은 색바림을 통해 상서로운 분위기를 돋구었다. 사천왕은 화면의 상하좌우 네 면에 배치하여 도량을 옹호와 전체 화면을 마감 결속을 담당한다. 좌측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비파(북방), 보검(동방), 용과 여의주(남방), 보탑(서방) 등 조선후기 사천왕 조각과 같은 배치형식과 도상이며, 과장된 표정과 역동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다.

불보살상과 권속들은 적색계통과 청색계통의 색을 주조 색으로 사용하였고, 이외 여러 가지 중간색을 조채하여 화려한 색감을 보여준다. 필선은 먹 선을 기본으로 하였으며, 피부의 윤곽선은 옅은 먹 선으로 하였고, 신체의 윤곽은 짙은 먹 선과 색선을 같이 사용하였다. 강조할 부분은 금색과 백색의 명도가 높은 색선을 사용하였고, 금박은 寶冠과 持物, 裝身具 일부에 제한적으로 사용하여, 이들을 부각시키거나 고급스럽게 장엄할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그림 99 상주 남장사 영산회괘불도

상·하·좌·우 邊兒부분에는 조상 의식과 관련된 범자문을 돌렸다. 그 내용은 상단 중앙에서 시계방향으로 ① 음·아·흙 3자 ② 비밀실지 5위 ③ 입실지 5위 ④ 열금강왕여래 12위 ⑤ 육자대명왕진언 6위 ⑥멸죄진언 6위 ⑦ 문수보살법인능소정업다라니 8위 ⑧치림 1위 ⑨불공성취불진언 7위 ⑩ 음·람의 정법계진언 2위 ⑪금강바라밀보살진언 6위 ⑫음·람의 정법계진언 2위 ⑬칠구지불모심대준제다라니 10위 ⑭열금강여래 12위 ⑮ 진심중자 5위 ⑯ 출실지 5위 돌려 화면을 마감하였다. 이들 진언들은 『造像經』의 觀想을 바탕으로 한 복장의식과 의식집에 수록된 진언들로 구성되어 있다.

화면에 하단에는 화기란을 마련하고 제작시기와 봉안처, 제작에 참여한 시주자와 화사 등을 일목요연하게 기록하였다. 제작시기는 건륭 53년 무신 4월, 즉 1788년(정조 12) 4월이며 봉안장소는 남장사이다. 시주자는 대시주 가선대부 성학을 비롯하여 30명이 동참하였다. 그림의 증명은 영파당 성규가 맡았으며, 화원은 영봉당 경환과 도화사 상겸 등 23명의 승려화원들이 참여하였다. 화원중에 제일 앞서 영봉당 경환이 등장하지만, 불사성공록에 경성의 상겸이 영산회괘불도를 그렸다고 기록하고 있으므로 상겸이 괘불을 주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경환은 현등사 지장암 신중도(1790)과 청계사 극락보전 아미타설법도(18세기)를 그렸다. 도화사 상겸은 선암사 아미타설법도(1780, 안동 애련암 소장), 상주 황령사 아미타설법도와 신중도(1786), 관음사 이미타설법도(1788, 서산 천장사 소장), 남장사 십육나한도(1790), 용주사 감로도(1790)을 그렸다.

## ○ 괘불관련 유물

### 1. 불사성공록

이 불화는 괘불화의 1788년 상주 남장사 불사를 완료하면서 그 전말을 기록한 『佛事成功錄』과 복장유물이 남아 있다. 『불사성공록』에는 「南長寺掛佛新畫成記」, 「掛佛腹藏願文」, 「幽冥教主地藏大聖新畫成腹藏願文」, 「佛事錢穀雜物等入記」, 「掛佛櫃成造雜物所入記」, 「緣化秩」 등이 수록되어 있다. 여기서 괘불과 관련된 기록은 남장사괘불신화성기와 괘불복장원문이며, 이를 통해 영산회괘불도를 조성한 배경과 불사에 참여한 화원, 그리고 남장사괘불의 사상적 근거를 알 수 있어 중요하다. 연화질에는 괘불과 지장회 및 각부탱 조성에 참여했던 대중들의 명단을 기록하였고, 여기에는 경성과 호남, 경상도를 대표하는 화원 60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당시 화승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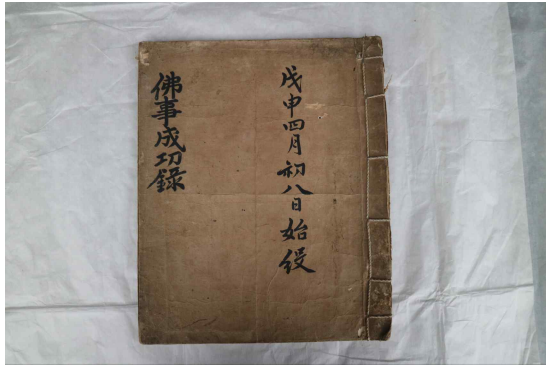


그림 100 불사성공록, 178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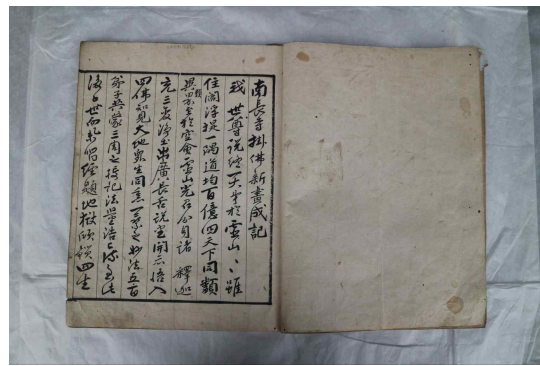


그림 101 불사성공록 부분

## 2. 쾌불함

쾌불함은 앞면과 뒷면 바닥은 맞대고 좌우측 널은 일자사개로 물린 후 사개측에는 거멸감잡이를 촘촘히 박아 몸체를 구성하였다. 크기는 길이 689.7cm, 높이 29.5cm, 너비 33.0cm, 두께 2.2~3.1cm로 측정된다.



그림 102 쾌불함

## 3. 복장낭

남장사 쾌불도는 쾌불의 복장유물을 안립한 복장주머니도 조성당시의 모습 그대로 온전하게 전하고 있어 중요하다. 복장낭은 전체크기가 세로 67.4cm 가로 66.0cm로 산모양의 뚜껑과 타원형의 주머니로 구성되어 있다. 복장낭의 안쪽에서 바깥으로 끈을 내어 걸 수 있도록 하였고, 아래 쪽에는 비단색실로 만든 수술이 달려 있다. 바탕 재질은 견이며, 안쪽에는 종이로 뽀뽀하게 배접하여 형태가 일그러지지 않도록 하였다. 복장낭의 앞면에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쓰기로 ‘옴·아·흠·람.’ 사방주를 네 글자를 금박으로 찍었다. 뒷면 좌측 끝에는 ‘願針功德元察’이라고 금니로 적었고, 윗부분의 안쪽에도 ‘作針元察’이라는 목서가 있어 元察이 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불사성공록』에는 元察이 圓察로 나오지만 동일인으로 판단되며, 그는 1788년 불사때 化主 소임을 맡았다. 따라서 이 쾌불 복장낭은 쾌불과 함께 조성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복장낭에는 분책된 『묘법연화경』,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 후령통, 유리편 등이 납입되었다. 분책된 책들은 대부분 조선 후기에 찍은 목판본이다.

후령통은 종이로 만든 사각형으로 겉에는 ‘文殊師利法印能消定業呪’를 적은 朱書 띠지를 감아 봉했다. 띠지 안쪽 면에는 ‘○卍基謹封이라고 적은 것이 어렴풋이 보인다. 후령통의 표면에는 남면이라고 묵서하여 정면을 표시하였다. 후령통의 크기는 세로 15.1cm, 가로 22.2cm, 두께 9.2cm이다.



그림103 복장낭



그림104 복장낭 명문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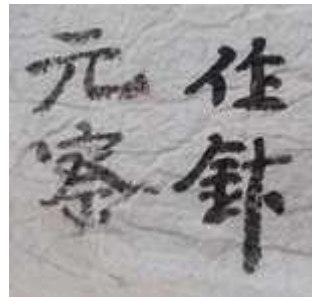


그림 105 복장낭 명문2



그림 106 복장내 납입 복장유물



#### 4. 복장낭 보관함

상자모양으로 여러 판을 이어 붙여 만들었다. 각 면이 만나는 가장자리를 나무못과 국수형 거멸감자이로 잡고 네면은 모를 죽였다. 상자의 정에는 자물쇠가 달려 있다. 전체 크기는 폭 79.0×73.7cm, 높이 17.7cm, 두께 1.2cm이다. 상자의 내부에는 乾隆四十八年癸卯五月日造成 省學 振樞라는 목서가 있어 1783년이라는 제작시기와 省學 振樞라는 제작자를 알 수 있다.



그림 107 복장낭 보관함



그림 108  
복장낭 보  
관함 명문

#### 5. 동경

복장낭 앞 쪽에 매달았던 동경이다. 형태는 원형이며 앞면은 매끈하게 처리하였고, 뒷면은 꼭지 중심에 두고 내구와 외구로 구획하였다. 내구에는 81개의 화문과 6개의 범자원문을 도드라지게 새겼다. 크기는 전체 지름 37.7cm, 두께는 0.61cm이다.



그림 109 복장 동경

<화가>

乾隆五十三年戊申四月日奉安于南長寺」

施主秩

大施主嘉善比丘省學」

大施主嘉善比丘鍊秋」

大施主 朴時重」

母 姜氏」

大施主 徐泰日

兩主」

李 氏

比丘 漢桂」

父嘉善大夫朴呂輝

兩主」

母 文氏

嘉善崔致重

兩主」

朴氏

金成才

兩主」

金氏

嘉善張碩龍

兩主」

黃氏

朴文柱

兩主」

金氏

坤命乙巳生張氏

孫爽快

通政金山重」

朴貴萬」

比丘 取玉」

朴尙淳」

父嘉善朴基雄

兩主」

母李氏

錫環施主黃世才」

嘉善大夫比丘旻玄」

張山老味」

本寺秩」

前卿嘉善 宗豈」

前卿嘉善 曇裕」

前卿通政 冠允」

前卿通政 法淳」

前卿通政 性三」

時和尚通政普閑」

通政文習」

通政位策」

廣先」

通政寬英」

通政漢一」

頓珠」

碧初」

煥宇」

煥希」

平益」

濟鑑」

有仁」

如官」

普擘」

勝輝」

覺性」

行岑」

月坦」

謹悅」

濟希」

洪彥」

祖弘」

世希」

勝活」

三綱 萬澄」

濟淑」

戒甘」

記室 日贊」  
持殿 天智演」  
月城堂上管靚」

## 2

緣化秩」  
證明法師  
影波堂聖奎」  
括虛堂取如」  
誦呪 進花」  
時敬」  
振明」  
体寶」  
道澄」  
善眞」  
祐湜」  
呂雲」  
諷圓」  
能忍」  
斗定」  
如幻」  
性密」  
再聰」  
極愍」  
瑞彦」  
德弘」  
順澄」  
快淳」  
說寬」  
利性」  
性能」  
戒訓」  
有澄」  
奉益」

義軒」  
脫華」  
有誠」  
宇忍」  
有眼」

繪畫所秩」

龍峯堂敬還」

都畫師尚兼」

戒寬」

海淳」

瑞洪」

道淨」

德旻」

性日」

永輝」

弘旻」

德敏」

性允」

快全」

法成」

有弘」

處洽」

處澄」

上供 彩和」

取慧」

幸初」

下供 抱心」

道淨」

世甘」

負木 永弘」

鍾頭 平日」

景玄」

景修」

蔡淑」

等恒」  
書梵 惠確」  
來往 喚宇」  
大都監 振樞」  
別佐 取玉」  
元曄」  
外都監 定旻」  
化主花潭圓察」  
南嶠戒永」  
智演」  
義澄」  
緇俊」  
法磷」  
喚攝」  
大都 位冊」  
性三」  
漢日」  
寬英」

木手 李萬取」  
李日才 淨桶」  
僧處益」

## 08. 백자 청화 ‘성화3년’명 황수신 묘지 (白磁 靑華 ‘成化3年’銘 黃守身 墓誌)

### 가. 검토사항

‘백자 청화 성화3년명 황수신 묘지’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경기도지사로부터 ‘백자 청화 성화3년명 황수신 묘지’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신청(‘16.3.16)이 있어 과학조사(‘17.8.11) 및 관계전문가(‘18.7.30)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의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30일간 지정예고 하려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백자 청화 ‘성화3년’명 황수신 묘지(白磁 靑華 ‘成化3年’銘 黃守身 墓誌)
- 소유자(관리자) : 경기도(경기도박물관)
-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 6
- 수 량 : 1건 4점
- 규 격 : 1판: 28.0×39.0×1.8cm, 2판: 27.5×38.0~38.5×1.9cm, 3판: 28.0×39.5×1.8cm  
4판: 28.0×38.5~39.5×1.8cm
- 재 질 : 도자
- 조성연대 : 1467년(세조 13)

###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 (지정 가치 미흡)

이 묘지는 조선시대 초기 청화백자묘지로 중요한 자료이나, 청화백자로 가장 이른

시기의 묘지인 白磁 靑畫 興寧府大夫人 墓誌와 石函이 보물 제1768호로 기지정되어 있어 시도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편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 ○ (지정 가치 미흡)

- 15세기는 묘지가 직사각판형으로 정형화되기 이전의 단계로 다양한 형태의 묘지들이 존재함. 분청사기의 경우는 위패형(位牌形), 묘비형(墓碑形), 접시형(盤形), 사각기둥형, 원통형, 장방형, 종형, 병형(瓶形) 등으로 제작된 예가 알려져 있고, 백자의 경우는 사이즈가 큰 직사각형 등이 제작되었음. 또 직사각판형의 묘지는 16세기에 들어서서 크기가 작아지고 6매, 혹은 9매로 제작되는 사례가 보편화됨.
- 이중에서도 백자에 청화로 글씨를 쓴 예는 매우 귀한 편이어서 1467년경 관요가 설치되기 이전의 현전 사례로는 보물 제1768호로 지정된 1456년 기년의 <백자청화 흥녕대부인 묘지(세조의 장모)>가 유일함. 황수신 묘지는 흥녕대부인 묘지와 크기가 동일하며 현전하는 청화백자 묘지로는 두 번째 편년자료에 해당함. 또한 황수신 묘지의 제작연대인 1467년은 관요가 설치되던 시기와 맞물려 있어 조선 초 관요설치 시기에 청화안료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잘 알려주는 정보를 제공함. 이러한 점에서 학술적 가치는 무엇보다도 높다고 할 수 있음.
- 묘지의 주인공인 황수신은 부친으로 영의정부사를 지낸 황희(黃喜)의 3남으로 명문가에 해당함. 특히 세조 때에는 남원부원군(南原府院君)으로 봉해지고, 1467년에는 부친에 이어 영의정부사까지 올랐으나 곧바로 운명한 인물임. 묘지의 내용은 조선 초 황수신이라는 인물의 일대기를 잘 서술하고 있어 자료적 가치가 높은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현재 조선 초 15세기에 제작된 자기제 묘지는 국가기정문화재로 지정된 사례가 다수 존재함. 황수신 묘지는 학술적인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나 현재 동일한 형태의 흥녕대부인 묘지가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는 점, 향후 또 다른 묘역에서 유사한 묘지가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선뜻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부담이 있음. 이에 현재 해당 유물은 우선 ‘경기도 유형문화재’로 지정하고 충분한 학술적 검증을 거친 후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지정문화재로 재상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함.

### ○ (지정 가치 미흡)

고려에 이어 조선전기까지도 왕실등에서는 석제 지석을 사용하고 있었으나 성리학의 발달로 주자가례가 도입되고 상장문화가 확대되면서 묘지석을 자기로 제작하는 사례



가 증가하였다. 이 묘지는 도자 지석이 확대되고 직사각관형으로 정형화되기 이전 단계의 상황을 보여준다. 분청사기의 경우 位牌形, 墓碑形, 盤形, 육면체형, 원통형, 장방형, 종형, 瓶形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제작되고 있었고, 왕실 가족을 위한 지석중에는 백자로 만든 대형장방형관상 지석도 제작되었다.

이 가운데 본 유물과 가장 유사한 사례로는 보물 제1768호로 지정된 경태7년(1456)에 조성된 인천이씨 지석인 “백자청화 흥녕대부인 묘지”가 있다. 이 자료는 아직 경기도 광주 분원에 관요설치가 확실치 않았던 시기 진상용 백자를 구웠을 것으로 추정되는 광주요장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광주 관요는 1466~67년 즈음에 설립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1467년에 조성된 황수신 묘지는 바로 조선관요의 성립과정의 백자제작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도자사적으로 의미있는 학술 자료이다. 또 황수신이 黃禧의 3남으로 세조때 南原府院君, 1467년에 영의정부사에 올랐으므로 사료적 가치도 높다고 본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15세기에 제작된 자기 지석은 분청사기와 백자 등 여러점이 국가지정으로 되어 있고, 거의 같은 크기와 형식을 보여주는 경태7년(1456)에 백자청화 흥녕대부인 묘지와 비교할 때 백자의 질과 청화발색 제작상태, 보존 상태 등에서 미흡하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동시기 비교유물이 많지 않은 상태이므로 국가지정을 보류하고 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사료로서 또 미술사적 유물로서 연구와 활용한 후 재검토 할 것을 권함.

## 마. 의결사항

- 부결

조사보고서

□

## ○ 현상 및 특징

과주시 탄현면 금송리 황수신의 묘역에서 출토된 청화백자묘지이다. 묘지는 板形으로 총 4매로 이루어졌는데 조선시대 묘지로는 비교적 대형에 속한다. 제 1장의 한 면에는 중앙에 烈成公黃公墓誌라는 墓題만이 쓰여 있고 誌文은 裏面에서 시작되어 2, 3장까지 이어져 있는데 지문이 있는 면에는 우측 중앙에 一, 二, 三으로 張數를 명기했으며, 마지막 장인 4장은 백자로 비어 두었다. 지문은 묘주의 신분,

묘지의 撰者, 그리고 序, 銘의 순으로 구성되었으며 成化3年8月 日로 마감하여 묘지의 제작시기를 알 수 있다.

묘지에 의하면 황수신의 본관은 長水이며 자는 季孝이며 호는 懶夫로 황희의 아들이다. 벼슬은 사헌감찰, 호조정랑, 도승지 등을 거쳐 영의정에 이르렀다. 1467년 5월 향년 61세 돌아가셨으며 그 해 8월 초9일에 交河 北面 金堀里에 부인인 益山郡夫人 김씨와 부장하였다. 묘지를 찬하고 명을 지은 사람은 강희맹이다.

이 묘지는 전체적으로 휘어있으며 부풀은 흔적이 많으며 특히 3장은 심하게 휘어 있고 3, 4장은 상부 1/3부분을 접합하였다. 유는 회백색의 백자유가 얇게 시유되었는데 빙렬이 가득하며 1, 2장은 산화되어 열린 황색이 비껴 있다. 네 매 모두 長側面 한 곳에 유를 훑어내고 가는 모래를 받친 흔적이 남아있는데, 이는 장 측면을 바닥으로 하여 옆으로 세워 번조할 때문이라 생각된다. 또한 지문이 없는 후면에는 태토 받침 띠 흔적이 남아있어 세워 번조할 때 휘거나 서로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생각된다. 청화발색은 철분 등 불순물이 포함되어 갈색이 비낀 청색을 띠고 있으며 일부 露胎部는 갈색을 띠고 있다.



## ○ 현 상

총 4매로 구성되어 있으며 번조과정에서 판이 조금씩 휘어짐. 3판과 4판의 경우 위로부터 1/3 지점이 부러져 접합수리. 제작과정에서 자판의 일부 표면에 기포가 부풀어 올라 울퉁불퉁한 부분이 전체 묘지에서 확인됨.

## ○ 내용 및 특징

- ① 태토 : 태토는 고운 점토를 사용했으나 미량의 철분이 포함되어 있어 미세한 반점이 태토 전면에서 확인됨. 이로 인해 태토가 갈끔하지 못하고 검은 반점이 조금씩 보임. 태토색은 전체적으로 밝은 회색에 가까움.
- ② 성형 : 판 성형을 기본으로 모서리를 잘라 직사각형으로 기본판을 만들었으나 정교하게 자르지 못하여 세로변의 길이가 서로 차이를 보임.
- ③ 안료와 글씨 : 청화안료를 이용하여 묘지의 내용을 작성함. 글씨의 색조는 일부 푸른빛을 띠기도 하나 대부분은 불순물이 포함된 듯, 철화로 쓴 것 같은 색조를 보이기도 함. 특히 일부 유약이 덜 묻어 태토가 노출된 부분의 글씨들은 철화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 만큼 짙은 갈색조에 가까움. 글씨는 각 판의 전면(前面)에 해서체(楷書體)로 황수신과 관련된 이력을 종서(縱書)하였고 1판에 한하여 뒷면에 ‘열성공황묘지(烈成公黃墓誌)’ 라는 글씨를 종서함. 또 1, 2, 3판의 묘지는 전면부의 중앙부 우측 모서리에 각각 ‘一’, ‘二’, ‘

三' 이라는 글씨를 써서 각 판의 순서를 부여하였음. 4판의 경우는 전·후면에 글씨를 쓰지 않고 백지상태로 남겨 놓아 부장 당시에는 아마도 책의 표지처럼 4판을 가장 위에 놓았을 것으로 판단함.

- ④ 유약과 번조 : 이 묘지는 안료로 글씨를 쓴 후, 전체 시유를 하고 세로 변에 해당하는 한쪽 부분의 유약을 닦았음. 유층(釉層)은 매우 얇은 편으로 이는 아마도 유약층이 두꺼울 경우 글씨가 안 보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얇게 시유한 것으로 판단됨. 유약면은 미세한 균열로 가득 차 있으며 완전하게 환원 번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듯 유색은 황백색조를 띠는 부분이 많음. 번조는 가마 안에서 각 판을 세워 구운 것으로 추정함. 가마 안에 세로로 세워 적재한 묘지는 쓰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내용을 쓰지 않은 뒷면이 서로 맞닿도록 2판씩 점토로 붙여 고정하였으며 4매의 묘지 뒷면에서는 이러한 흔적이 발견됨. 관찰결과 1판과 3판, 2판과 4판이 서로 등을 대고 고정된 상태에서 구워졌을 가능성이 있음.

#### <묘지 원문과 번역문>

**[원문]** \*경기도박물관 제공

有明朝鮮國推忠佐翼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藝文館春秋館弘文館觀象監領事 世子侍講院事南原君贈諡烈成公黃守身墓誌銘并敘

崇政大夫行禮曹判書兼成均館知事 世子侍講院左賓客五衛都摠府都摠管姜希孟撰

公姓黃諱守身字季孝號懶夫其先南原府長水縣人也贈正憲議政府參贊諱均庇於公爲大父參贊生資憲判江陵府事贈議政府左議政諱君瑞議政生大匡輔國領議政府事翼成公諱喜爲相二十七年碩德茂烈爲吾東方相業稱首以公故贈純忠補祚功臣之號封南原府院君卽公考也娶工曹典書清州楊震之女生公公稟性寬厚器宇魁偉年五六歲與群兒遊嬉有一兒墮井群兒駭走公獨平拯之其父母來謝翼成聞之曰吾家亦有宰相蓋知有濟人之量而多之也稍長就學約儕輩數十人受業於興天寺住釋時我 世廟在潛邸適至方丈試誦四韻詩一首較先後公最先焉甚奇之仍訊其門地翼成出爲平安道都巡問使兼尹平壤府時 中朝使太監黃儼宴筵賓館公往側稔人中儼目之曰這箇誰兒公對以實儼語翼成曰生子當如是可善教之遂命坐饋酒饌因留玉頂子及珍寶數件爲別行到黃州又送食物曰囊見黃相之子可愛難忘儼其善相者歟歲戊戌翼成謫南原公隨歸侍側奉養之孝滫瀡甘旨之具或有闕者公必求隣里鄉黨以自給翼成憐之曰兒何自若乃爾癸卯公赴司馬試試官有辱公者公憤不作文書一絕以自見其志曰澤民濟世非科第不恨平生作腐儒自是不肖舉子業然照膺庭訓專志經史百家學問大進鬱有

令譽 世廟謂銓曹曰黃喜諸子仕者幾人對以二人散一人少 上曰少者莫是興天寺誦詩兒耶特除 宗廟副丞階通仕歷宗簿直長屢遷爲司憲監察歷導官署令遷司憲持平由持平爲戶曹正郎陞司宰副正階朝奉屢遷爲司憲掌令時巫妖多聚都中眩以禍福士女發波公盡黜之都外識者快之移內贍寺尹替中訓轉知司諫院事會 朝啓參判高若海請罷守令六則請頗罪旨 上怒卽令憲府覆之將抵罪公諫曰若海本以布衣躬耕草野不求聞達宰相遷之遂遇知 聖上知無不言乃其職也今若以言坐罪其如外間物議何恐爲言事者戒以累 聖明上爲之霽怒只罷其職庚申除忠武衛上護軍兼知刑曹事裁決盤錯庭無留訟由知刑曹遷知兵曹事俄入爲承政院右副承旨丙寅陞爲都承旨舊制例授儒臣以公學優才瞻故特膺是選而潤色 絲綸得古制誥體頗傳誦人口雖號爲大手莫之或過也丁卯公薦才士除吏職宗室有忌公昔訊以交結爲黨伍 上罷公職■告身未幾丁外艱尋 命還告身蓋慰之也庚午 文宗卽阼公服闋拜僉知中樞院事陞同知中樞院事兼三軍都鎮撫 上囑公曰治軍當如細鄉營今 行幸陣內或有被盜者或部伍喧擾予甚恨焉任卿軍政卿其勉之卽■兵曹參判公專揔兵政番陣郊外嚴號令整部伍 上親閱■其師律賜廐馬一匹當公丁內艱■ 殿下在潛邸屢過喪次或諛詰移時其兒童如是甲戌服闋拜漢城府尹出爲慶尙道都觀察使乙亥 殿下卽阼以公爲議政府右參贊是年秋 上賜推忠佐翼功臣之號封南原君仍賜土田藏穫白銀■■內廐馬丁丑公以兼判禮曹事撰定園丘祀天儀制百官隸儀無一事欠缺 上曰非守身之深於禮文詎能爾耶 天順皇帝復登極■ 皇太子公往賀中朝人見公風度莫不嘆服戊寅 上幸成均館取士公與掌試取都夏等五人非文臣掌試古未有也忠清道饑公爲賑恤使荒政得宜民不饑孳令 皇帝卽位公往賀 登極丙戌陞左議政越今年正月驟嬰微痾漸至沈綿累辭職 盟嘗吞不允命內醫遂日診視以聞 上必親自搜方酌定藥餌以■ 分御■珍羞絡繹四月陞領議政一家相繼爲冢宰世固未有時論榮之公■猶未瘳一日 上送中使賜酒饌曰卿毋以不得詣■介懷專心治療國家大事臥而治之甚無妨也其 眷荷如是五月甲申卒于正寢享年六十有一訃聞 上震悼輟朝三日遣禮官弔祭 王世子遣侍講官弔祭仍致賻儀諡烈成公哀榮終始可謂兩盡矣公娶益山郡夫人金氏判典農寺事金俊德之女也生一男二女男曰脊通政大夫僉知中樞府事女適前郡事李繼重次適宗簿寺僉正崔漢良僉知娶我先大人知敦寧府事戴敏公姜碩德之女生六男一女長曰■昌娶兼執義鄭垠之女次曰誠昌餘皆幼郡事生二男一女長曰樟■兵曹正郎權恪之女女適伊城令墀次男幼側室摠男女十餘人長曰心秉節校尉次曰眞果毅校尉餘皆幼以是年八月初九日壬寅有司具儀衛葬于交河北面金堀里與夫人金氏並葬公之志也公與吾先大人同入銀臺交契分深公■乎昔視余猶子胤子僉知又姻于吾門則知公終始莫吾若也而僉知愿有銘義不敢辭遂作銘曰

孰爲德門惟南原兮世積其慶有顯聞兮赫矣我公把餘芬兮少有大忠既學文兮角藝詞場恥受屈兮隘視天綱奮鵬程兮九萬扶搖程篇極兮掌 帝絲綸斯潤色兮 眷注其隆日三接兮薦庭士類反見忌兮良驥蹶蹶竟千里兮于南宣化憇棠樹兮入登鈞軸嚴瞻具兮山河鐵券藏盟府兮既撰祭儀又掌試兮帝庭再朝稱使乎兮遂表百寮箕裘業兮鬱鬱雙槐蔭門闕兮胡爲不弔天遽

■兮殄瘁之嘆泪泉■兮彼美佳城青鳥卜兮公歸無所此■宅兮書銘薦辭自珉刻兮維德維績  
所立卓兮

成化三年八月 日

**[번역문]** \*경기도박물관 제공

유명조선국(有明朝鮮國) 추충좌익공신(推忠佐翼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의정부영의정(議政府領議政) 겸(兼) 예문관(藝文館) 춘추관(春秋館) 홍문관(弘文館) 관상감영사(觀象監領事) 세자시강원사(世子侍講院事) 남원군(南原君) 증시(贈諡) 열성공(烈成公) 황수신(黃守身) 묘지명(墓誌銘) 병서(并敘)

승정대부(崇政大夫) 행(行) 예조판서(禮曹判書) 겸(兼) 성균관지사(成均館知事)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 좌빈객(左賓客) 오위도총부(五衛都總府) 도총관(都總管) 강희맹(姜希孟) 지음

공(公)의 성(姓)은 황(黃)이요 휘(諱)는 수신(守身)이다. 자(字)는 계효(季孝), 호(號)는 나부(懶夫)이며, 그 선계(先系)는 남원부(南原府)의 장수현(長水縣) 사람이다. 정헌(正憲, 정헌대부) 의정부참찬(議政府參贊)에 증직(贈職)된 휘 균비(均庇)는 공(公)에게 대부(大父, 증조부)가 되고, 참찬공(參贊公, 均庇)은 자헌(資憲, 자헌대부) 판강릉부사(判江陵府事)를 지내고 의정부 좌의정에 증직된 휘 군서(君瑞)를 낳았다. 의정공(議政公, 君瑞)은 대광보국(大匡輔國)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익성공(翼成公) 휘 희(喜)를 낳으니 재상(宰相)으로 있는 27년동안 석덕(碩德, 높은 덕)과 무열(茂烈)이 있어 공(公)을 우리나라의 재상 역할에서 으뜸으로 칭송한다. 돌아가심에 순충보조공신(純忠補祚功臣)의 호(號)를 추증(追贈)하고 남원부원군(南原府院君)에 봉(封)하니 곧 공(公)의 아버지이다. 공조전서(工曹典書)를 지낸 청주(淸州) 양진(楊震)의 따님과 결혼하여 공(公)을 낳았다.

공(公)의 품성(稟性)은 관후(寬厚)하고 기우(器宇, 기량)는 괴위(魁偉, 뛰어남)하였다. 5~6세 때 여러 아이들과 함께 놀기를 즐기다가 한 아이가 우물 속으로 떨어져 다른 아이들이 모두 놀라 달아났지만, 공은 홀로 평정심을 가지고 이를 구하여 그 부모가 와서 감사를 표시하였다. 익성공(翼成公)이 이를 듣고 말씀하시기를 “우리 집안에 또 재상이 있었구나”라고 하였으니 대개 사람을 구제하는 기량이 많음을 알고 계신 것이었다. 점차 성장하여 취학(就學)해서는 동료 수십여명이 흥천사(興天寺)에 주석(住釋)하며 수업하기로 약속하였는데, 이때는 우리 세묘(世廟, 세조)께서 잠저(潛邸, 왕위에 오르기 전)에 계실 때로 서로 만나 방장(方丈)에게 가서 사운시(四韻詩) 1수를 암

송하는 것으로 시험하여 그 선후(先後)를 비교함에 공이 가장 뛰어나 이를 매우 기특하게 여겨 그 문지(門地, 門閥가문)를 거듭 알렸다. 익성공께서 외직(外職)인 평안도도순문사(平安道都巡問使)로 나가 평양부윤(平壤府尹)을 겸직하게 되었는데, 이때 중조(中朝, 명나라)의 사신인 태감(太監) 황엄(黃儼, ?~1423)을 위한 잔치가 빈관(賓館)에서 열렸다. 공(公)이 가서 조인(稠人, 여러 사람)과 함께 곁에서 수발을 하게 됨에 황엄이 이를 보고 말하기를 “이는 누구의 아이인가”라고 하여 공(公)이 사실대로 말하자 황엄이 익성공에게 말하기를 “자식이 이와 같으니 정말 잘 가르쳤다”고 하고 마침내 자리에 앉아 주찬(酒饌)을 먹도록 하였으며, 빈관에 머무르게 하여 옥정자(玉頂子, 갓 꼭대기에 옥으로 만들어 단 장식)와 진귀한 보물 여러 개를 선물로 주며 별행(別行)을 삼았다. 황주(黃州)에 도착하여 또 먹을 것을 보내며 말하기를 “이 자루를 황상(黃相)의 아들에게 보이도록 하라”고 하니 황엄이 훌륭한 재상을 잇기 어려워 애뜻함을 보여준 것이로다.

무술년(戊戌年, 1418년 태종18)에 익성공께서 남원(南原)으로 유배되자 공(公)은 모시고 돌아와 시측(侍側)하며 부드럽고 맛있는 음식으로 봉양의 효성을 다하였다. 혹 빠지는 것이 있으면 공은 반드시 인근 마을이나 향당(鄉黨)에서 구하여 자급(自給)하였다. 익성공께서 이를 가련하게 여기며 말씀하시기를 “아이가 어찌 그리 태연하던지”라고 하였다. 계묘년(癸卯年, 1423년 세종5)에 공은 사마시(司馬試)에 응시하였는데, 시관(試官)이 공을 옥보이는 일이 있자 공은 분하게 여기며 문장을 짓지 않고 시 한 구절로 그 뜻을 나타내기를 “백성들을 윤택하게 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과거의 등제만이 아니니 평생 썩은 선비로 살며 한스럽지 않게 하리요[澤民濟世非科第 不恨平生作腐儒]”라고 하며 이때부터 과거공부를 본받지 않았다. 그러나 집안의 가르침에 조응(照應)하여 오로지 그 뜻을 경사백가(經史百家)에 두니 울울(鬱鬱)한 것 같이 학문에 크게 진전을 보여 명성을 얻었다. 세묘(世廟)께서 전조(銓曹, 이조)에 이르기를 “황희(黃禧)의 여러 아들 중에 벼슬을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인가”라고 하여 두 사람은 산관(散官)이고 한 사람은 어리다고 대답하니 왕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린 아이가 흥천사(興天寺)에서 시를 읊은 아이가 아닌가”라고 하시며 특별히 종묘부승(宗廟副丞)을 제수하였으니 품계는 통사(通仕)였다. 종부직장(宗簿直長)을 역임하고 여러 차례 옮겼다가 사헌감찰(司憲監察)이 되었고, 도관서령(導官署令)을 역임하고 사헌지평(司憲持平)으로 옮겼으며, 지평에서 호조정랑(戶曹正郎)이 되었고 사재부정(司宰副正)으로 승진하였으니 품계는 조봉(朝奉)이었다.

여러 곳을 옮겼다가 사헌장령(司憲掌令)이 되었는데, 이때 요사스러운 무당이 많아 도성(都城) 안으로 몰려다니며 화복(禍福)으로 선비와 부녀자들을 현혹시켜 의외의 곡절을 일으켜서 공이 이들의 거의 모두를 도성 밖으로 쫓아내니 식자(識者)들이 이를 통쾌하게 여겼다. 내섬시윤(內贍寺尹)으로 옮겼다가 중훈(中訓, 중훈대부)으로 바

꿨다. 지사간원사(知司諫院事)로 전보되어서는 조회(朝會) 때 참판 고약해(高若海)가 수령의 6가지 준칙(準則)을 어겼다고 하여 파직을 청하는 건의가 있자 자못 죄를 물으려는 왕의 뜻이 있어 왕께서 화를 내시며 사헌부에게 이를 다시 조사하라는 명을 내렸다. 공이 간쟁(諫諍)하여 말하기를 “약해(若海)는 본래 포의(布衣)로 초야(草野)에서 몸소 농사를 지으며 명성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기를 구하지 않았는데, 재상이 이를 천거하여 마침내 지우(知遇)를 얻게 되었으니 성상(聖上)께 아는 것은 말하지 않음이 없어 곧 이 직(職)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만약 소문으로 죄를 묻는다면 밖에서의 물의(物議), 어떤 사람 또는 단체의 처사에 대하여 많은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논평하는 상태가 이와 같으니 어찌 언사(言事)하는 것을 두려워하겠습니까”라고 하며 누차에 걸쳐 성명(聖明)을 삼가도록 하였다. 이에 왕께서 노여움을 푸시고 단지 파직하는데 그쳤다.

경신년(庚申年, 1440년 세종22)에 충무위상호군(忠武衛上護軍)을 제수하고 지형조사(知刑曹事)를 겸직하였는데 반착(盤錯, 매우 처리하기 어려운 사건)을 재결(裁決, 옳고 그름을 판단함)하니 조정에 지체되는 송사(訟事)가 없었다. 지형조(知刑曹)를 거쳐 지병조사(知兵曹事)로 옮겼는데, 갑자기 옮겨 승정원우부승지(承政院右副承旨)가 되었다. 병인년(丙寅年, 1446년, 세종28)에 승진하여 도승지(都承旨)가 되었는데, 옛 제도[舊制]에는 유신(儒臣)에게 제수하는 것이 상례였지만 공(公)의 학문이 우수하고 재주가 뛰어난 까닭에 이 같은 선발이 있었던 것이다. 사륜(絲綸, 詔勅)을 윤색(潤色)하는데 고제(古制)를 얻었고 고체(誥體)가 자못 사람들에게 전승(傳誦)되어 비록 명성은 대문장가에 비견되었지만 혹 지나침도 있었다. 정묘년(丁卯年, 1447년)에 공은 재주가 있는 선비를 천거하면서 이직(吏職)을 제외하였는데, 종실(宗室)은 공을 시기하며 예전부터의 교결(交結, 서로 사귀)로 당오(黨伍)를 결성하였다고 비난하여 왕께서는 공의 벼슬을 파직하고 고신(告身)을 거두어 들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외간(外艱, 부친상)을 당하였고 다시 고신을 돌려주라는 왕명이 있었으니 대개 위로의 뜻이었다.

경오년(庚午年, 1450년 세종32) 문종이 즉위하시면서 공은 상을 마치고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를 제수하였고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로 승진하여 삼군도진무(三軍都鎭撫)를 겸직하였다. 왕께서 공에게 당부하여 이르시기를 “군사를 다스리는데는 지방의 영문(營門)까지 세세하게 파악해야 한다. 지금 진영(陣營)의 안까지 행행(行幸)하려는데 혹 도둑을 맞은 사람이 있거나 혹 부오(部伍, 軍陣의 隊伍)에서 흰요(喧擾, 시끄럽게 떠들어 댄)하는 사람이 있을까 내가 매우 유감스럽게 여긴다. 경(卿)이 군정(軍政)을 맡았으니 그대는 이에 힘써주기 바란다”고 하였다. 이에 곧 병조참판(兵曹參判)으로 옮겨 공은 오로지 병정(兵政)을 총괄하게 되어 교외의 진영을 순시하면서 호령(號令)을 엄하게 하고 부오(部伍)를 정비하였다. 왕께서 친히 그 사율(師律)을 시찰하시고 구마(廐馬) 1필을 하사하셨다. 공이 내간(內艱, 모친상)을 당했을

때는 전하(殿下, 세조)께서 잠저(潛邸)에 계실 때로 여러 차례에 걸쳐 상가(喪家)에 오셔서 혹 상구힐의(詳究詰議, 자세히 따지고 물어 논의함)하였는데, 행차할 때 아이 때와 같은 모습이 보이기가 이와 같았다. 갑술년(甲戌年, 1454년, 단종2)에 복(服)을 벗고 한성부윤(漢城府尹)을 배수하였다가 외직인 경상도도관찰사(慶尙道都觀察使)로 나갔다.

을해년(乙亥年, 1455년, 세조1)에 전하(殿下, 세조)께서 즉위하시자 공을 의정부우참찬(議政府右參贊)으로 삼고 이해 가을에 왕께서 추충좌익공신(推忠佐翼功臣)의 호(號)를 하사하시고 남원군(南原君)에 봉하는 한편, 토전(土田, 전답)과 장획(藏穫, 노비), 백은(白銀), ~2자(字) 결(缺)~ 내구마(內廐馬)를 하사하였다. 정축년(丁丑年, 1457년, 세조3)에 공은 판예조사(判禮曹事)를 겸직하면서 원구단(園丘壇)에서 하늘에 제사 지내는 의례와 제도[園丘祀天儀制]를 찬정(撰定)하였는데, 백관(百官)들이 그 의절의 살펴보니 한 가지라도 흠결(欠缺, 일정한 수요에서 부족이 생김)이 없었다. 왕께서 말씀하시기를 “수신(守身)이 예문(禮文)에 갇지 않았더라면 어찌 능히 이를 수 있었겠는가”라고 하셨다. 천순황제(天順皇帝)가 다시 등극하여 황태자(皇太子)가 정해져서 ~1자(字) 결(缺)~ 공은 이를 축하하기 위해 중조(中朝, 명나라)에 가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공의 풍도(風度)를 보고 탄복하지 않음이 없었다. 무인년(戊寅年, 1458년)에 왕께서 성균관(成均館)에 납시어 인재를 선발하자 공은 함께 시험을 주관하여 도하(都夏) 등 5명을 뽑았는데 문신(文臣)이 시험을 주관하지 않은 사례는 예부터 있지 않았다. 충청도(忠淸道)에 기근이 들자 공은 진휼사(賑恤使)가 되어 황정(荒政)을 다스리는데 마땅함을 얻어 백성들이 굶어죽지 않았으며, 황제가 즉위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공은 등극을 축하하기 위한 사신으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병술년(丙戌年, 1466년, 세조12)에 좌의정(左議政)으로 승진하였고 금년(今年, 1467년) 정월 갑작스럽게 체력이 떨어져 미아(微痲, 가벼운 병)가 점차 심해지고 오래도록 끊어지지 않아 사직(辭職)을 청하였으나, 윤택하지 않고 내의(內醫)에게 명하여 매일 진료하여 살펴보게 하고 이를 보고 받아 왕께서 반드시 친히 스스로 그 처방을 찾고 약이(藥餌)를 정하시고 왕실의 진수(珍羞, 珍饌)를 하사하시며 낙역(絡繹, 사람이나 수레의 왕래가 끊이지 않음)하도록 하였다. 4월에 영의정(領議政)으로 승진하였으니 한 집안에서 서로 연이어 총재(冢宰)를 배출한 것은 세상에서 진실로 드문 일로 시론(時論)이 이를 영광스럽게 여겼다. 공의 병이 오히려 더 나아지지 않자 왕께서는 중사(中使)를 보내 주찬(酒饌)을 하사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경(卿)은 조정에 나오지 못함을 전혀 개회(介懷, 언짢은 일을 마음에 끼워 둠)하지 말라. 치료에 온 마음을 쏟는 것이 나라의 큰일이니 병석에 누워서 정무를 보는 것도 매우 무방(無妨, 거리낄 것이 없음)하다”라고 하였으니 그 돌봄이 이와 같았다. 5월 갑신일(甲申日)에 정침(正寢)에서 돌아가시니 향년 61세였다. 부음(訃音)을 듣고 왕께서 진도(震



悼)하여 3일 동안 철조(輟朝)하였고, 예관(禮官)을 보내 조제(弔祭)하였으며, 왕세자(王世子)께서도 시강관(侍講官)을 보내 조제(弔祭)하며 거듭 부의(賻儀)하였으며, 열성공(烈成公)이라는 시호(諡號)를 내렸으니 그 애영(哀榮, 喪中의 영예)의 처음과 끝이 모두 이루어졌다고 하겠다.

공(公)은 익산군부인(益山郡夫人) 김씨(金氏)와 혼인하였으니 판전농시사(判典農寺事)를 지낸 김준덕(金俊德)의 따님이다. 1남2녀를 낳았으니 아들은 신(愼)으로 통정대부(通政大夫)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이고, 딸은 전군사(前郡事)인 이계중(李繼重)에게 출가하였고 다음은 종부시첨정(宗簿寺僉正) 최한량(崔漢良)에게 출가하였다. 첨지(僉知, 黃膺)는 우리 선대인(先大人)이신 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 대민공(戴敏公) 강석덕(姜碩德)의 따님과 혼인하여 6남 1녀를 낳으니 장남은 ■창(■昌)으로 겸집의(兼執義) 정은(鄭垠)의 딸과 혼인하였고, 다음은 성창(誠昌)이며 나머지는 모두 어리다. 군사(郡事, 李繼重)는 2남 1녀를 낳았는데 아들은 고■(槁□)으로 병조정랑(兵曹正郎) 권각(權恪)의 딸과 결혼하였고 딸은 이성령(伊城令) 지(墀)와 결혼하였으며, 다음의 아들은 어리다. 측실(側室)에서는 모두 아들과 딸 십여인을 두었는데, 큰아들은 심병(心秉)으로 절교위(節校尉)이고 다음은 진과(眞果)로 의교위(毅校尉)이며 나머지는 모두 어리다.

이 해 8월 초9일 임인일(壬寅日)에 유사(有司)가 의위(儀衛)를 갖추어 교하(交河)의 북면(北面) 금굴리(金堀里)에 장례하였고 부인 김씨를 함께 부장하였으니 공의 뜻이었다. 공은 우리 선대인(先大人, 姜碩德)과 함께 은대(銀臺, 승정원)에 들어가 서로 사귀는 정분이 아주 깊었는데 애달프다. 옛날에 내[묘지명의 지은이 姜希孟]가 유자(猶子, 돌아가신 분)를 보았고, 만아들 첨지공(僉知公, 黃膺) 또한 우리 집안에 인척이어서 공의 처음과 끝을 나만큼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하여 첨지공(僉知公)이 그 명(銘)을 부탁함에 의리상 감히 사양할 수 없어 마침내 명(銘)을 짓는다.

누가 덕이 있는 집안으로 오직 남원(南原)을 손꼽았던가[孰爲德門惟南原兮]  
 대대로 그 선행(善行)을 쌓아 현창(顯彰)함을 떨쳤네[世積其慶有顯聞兮]  
 혁혁(赫赫)함은 우리 공(公)에 이르러 풍성한 향기로 모아져[赫矣我公把餘芬兮]  
 어려서부터 큰 충절이 있었고 학문 또한 빛났다네[少有大忠既學文兮]  
 재주를 겨루는 사장(詞場)에서 부끄러이 굴욕을 당해[角藝詞場恥受屈兮]  
 하늘의 기강이 좁게 보였어도 봉정(鵬程, 앞으로 가야 할 멀고도 먼 길)을 떨쳤다네  
 [隘視天綱奮鵬程兮]  
 구만리 같은 부요(扶搖, 힘차게 움직여 일어남)는 그 정편(程篇, 노정표)의 지극함이  
 니[九萬扶搖程篇極兮]  
 황제의 사륜(絲綸)을 담당하여 그 윤색(潤色)을 다했다네[掌帝絲綸斯潤色兮]

임금의 돌보심 융성하여 하루에도 세 번을 뵈었으나[眷注其隆日三接兮]  
 조정에 천거한 선비들은 도리어 시기를 받았다네[薦庭士類反見忌兮]  
 훌륭한 준마(駿馬)는 잠깐 사이에도 천리를 갈 수 있으니[良驥蹶躑竟千里兮]  
 남쪽지방의 관찰사로도 당수(棠樹)를 쉬게 했다네<sup>224</sup>[于南宣化憇棠樹兮]  
 조정에서 균축(鈞軸, 大臣)에 올라 살펴봄과 갖춤을 엄하게 하니[入登鈞軸巖瞻具兮]  
 산하(山河)의 철권(鐵券, 공신녹권)이 맹부(盟府, 忠勳府)에 보관되었네[山河鐵券藏盟府兮]  
 앞서 제의(祭儀)를 찬정(撰定)하고 또 시험을 주관하였고[既撰祭儀又掌試兮]  
 황제의 조정을 두 번이나 다녀와 사신으로 칭송을 받았다네[帝庭再朝稱使乎兮]  
 마침내 백료(百寮, 百官)의 표상이 되어 가업을 이어 받아[遂表百寮箕裘業兮]  
 울울창창(鬱鬱蒼蒼)한 느티나무 한 쌍은 문벌(門閥)을 이루었네[鬱鬱雙槐蔭門閥兮]  
 어찌 하늘의 도움을 주지 않는가[胡爲不弔天遽■兮]  
 진취(殄瘁, 병들어서 시름)의 한탄은 황천(黃泉)까지 눈물 뿌렸다네[殄瘁之嘆泪泉■兮]  
 저 아름다운 가성(佳城, 무덤)은 청조(靑鳥)가 점지해준 곳으로[彼美佳城靑鳥卜兮]  
 돌아갈 곳 없는 공(公)에게 이곳은 그 실 곳이라네[公歸無所此■宅兮]  
 추천받은 명(銘)함을 사양하지 못하고 옥돌에 새기니[書銘薦辭自珉刻兮]  
 그 덕망과 업적 우뚝하게 설 것이라네[維德維績所立卓兮]

성화(成化) 3년(1467년, 세조13) 8월 일

#### ○ 문헌자료

『世宗實錄』, 『文宗實錄』, 『端宗實錄』, 『世祖實錄』, 『新增東國輿地勝覽』, 『三灘集』, 『海東雜錄』, 『燃藜室記述』, 『筆苑雜記』, 『慵齋叢話』, 『海東名臣錄』, 『國祖人物考』,  
 전봉덕, 「경국대전해제」, 『한국의 명저』, 현암사, 1970 등 다수

#### ○ 기 타(소장 경위 등)

- 이 유물은 2012년 9월 25일 황수신 묘역을 정리하던 중 수습되었으며 장수황씨 열성공파총회(총무 황준하)에서 2012년 11월에 경기도박물관에 기증함.
- 2015년 1월 29일 조사 결과 ‘사료적 가치가 높고, 15세기 청화백자의 연구에 도움이 되는 편년자료(국내 두 번째 편년자료)로서의 중요성을 인정’ 하여 국가 지정문화재(보물)로 상신하였음.

224) 지방을 잘 다스려 백성들에게 끊임없는 사모를 받을 것이라는 뜻이다. 감당(甘棠)은 팔배나무를 말하는데, 주(周) 나라 소공(召公)의 선정(善政)에 감격하여 백성들이 그가 일찍이 쉬었던 곳에 있는 팔배나무를 소중히 여겼다는 데서 온 말이다. 《詩經》, 國風, 召南 참조.

○ 지정사례

[백자]

- ① <백자청화 흥녕대부인 묘지 및 석함> 1456년, 보물 제1768호, 고려대박물관
- ② <진양군영인정씨묘출토유물> 1466년, 국보 제172호, 리움

[분청사기]

- ① <분청사기 상감'정통4년'명 김명리 묘지> 1439년, 보물 제1830호, 경기도박물관
- ② <분청사기 상감'정통5년'명 어문 반형묘지> 1440년, 보물 제577호, 리움
- ③ <분청사기 상감사각묘지 및 분청사기 인화문 사각편병> 1448년, 보물 제1450호, 아모레퍼시픽박물관
- ④ <분청사기 상감'정통13년'명 묘지 및 분청사기 일괄> 1448년, 보물 제1428호, 리움
- ⑤ <분청사기 상감'경태5년'명이선제묘지> 1454년, 보물 제1993호, 국립중앙박물관

○ 유물사진



활수신 묘지 4매 전면



묘지 1판 전면



묘지 1판 후면



묘지 2판 전면



묘지 2판 후면



묘지 3판 전면



묘지 3판 후면



묘지 4판 전면



묘지 4판 후면



명무의 청화안료 상태



불순물이 포함된 안료 상태



묘지 전면부 우측의 매수표시



묘지 판의 기포 상태



묘지 측단면의 유약 제거 상태

○ 참고사진



백자청화흠녕대부인묘지(6매)의 석함



백자청화흠녕대부인묘지 전면



백자청화흠녕대부인묘지 후면



백자상감 진양군영인정씨 묘지, 1466년



분청사기 상감 선덕 10년명 묘지 1435년



분청사기 상감 정통 4년명 김명리 묘지, 1439년



분청사기 상감 사각묘지, 1448년



분청사기 상감 정통 5년명 어문 반형 묘지, 1440년



## ○ 현 상

판상 성형한 백지지석. 총 4매로 구성되어 있으며 번조시에 측면으로 세워 구워 약 간씩 휘었음. 3판과 4판의 경우 위로부터 1/3 지점이 부러져 접합수리된 상태임. 흠 반죽과정에서 공기를 빼는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표면에 크고 작은 기포가 울퉁불퉁하게 부풀어 있음. 환원번조 완전하지 않아 일부 황색조를 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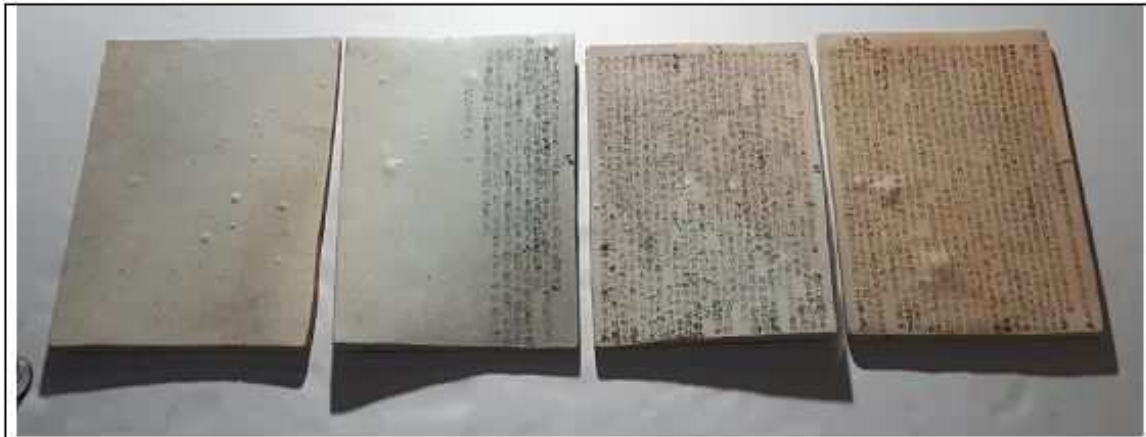
## ○ 내용 및 특징

태토는 전반적으로 옅은 회백색을 띠며 전체적으로 수비가 완전하지 않아 미량의 잡물이 섞여 작은 반점이나 티가 보인다. 판형으로 성형한 후 장방형으로 가르고 모서리를 살짝 다듬어 만들었으나 각 판의 좌우 상하, 두께 등에 차이가 있다. 지석의 지문은 청화안료를 사용하여 필사했는데 청화안료에 금속 불순물이 섞여 색조가 어둡고 발색이 거칠다. 일부 시유가 덜 되어 바탕이 드러난 부분을 보면 글자색이 어두운 갈색을 띠고 있어 철사안료로 쓴 것 같은 느낌을 준다.

각 면의 지문은 해서체로 縱書하여 황수신에 대한 이력과 행장을, 제 1판 뒷면에는 커다란 해서로 ‘烈成公黃墓誌’ 라는 표제를 써 넣었다. 제1, 2, 3째 판은 중앙부 우측 모서리에 각각 ‘一’, ‘二’, ‘三’ 으로 표기하여 순서를 표시했다. 제 4판에는 앞뒤에 글자 없이 같은 크기로 만들어 誌蓋石 또는 誌底石의 기능을 했던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지석은 판상으로 성형한 후 초벌하고 그 위에 청화 안료로 지문을 쓰고 유약을 입혀 구운 것으로 보인다. 지석은 크기가 크고 측면으로 세워 구웠는데 접지면의 모래흔적 외에 1판과 3판, 2판과 4판의 지문이 없는 뒷면끼리 맞붙여 지지하여 세운 듯한 흔적이 남아 있다. 유약은 전면 시유했으나 부분적으로 시유가 덜 된 것이 있으며 유층도 얇다.

\* 백자청화 황수신묘지 사진



우->좌 순서로 제1~4판



제1판 전체






제 1판 차수표기



제1판 뒷면 표제



제2판 전면	제2판 차수표기	제2판 뒷면
제2판 측면 번조받침	제2판 지문 번조상태	
제3판 전면	제3판 지문 번조상태	제3판 뒷면

	
<p>제4판 앞면</p>	<p>제4판 뒷면</p>
	
	
<p>각면의 지문 발색 상태</p>	

\*참고도판 <백자청화 흥녕부대부인묘지 및 석함> 1456년, 보물 제1768호, 고려대박물관



○ [지석원문] \*경기도박물관 제공

有明朝鮮國推忠佐翼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藝文館春秋館弘文館觀象監領事 世子侍講院事南原君贈諡烈成公黃守身墓誌銘并敘

崇政大夫行禮曹判書兼成均館知事 世子侍講院左賓客五衛都摠府都摠管姜希孟撰

公姓黃諱守身字季孝號懶夫其先南原府長水縣人也贈正憲議政府參贊諱均庇於公爲大父參贊生資憲判江陵府事贈議政府左議政諱君瑞議政生大匡輔國領議政府事翼成公諱喜爲相二十七年碩德茂烈爲吾東方相業稱首以公故贈純忠補祚功臣之號封南原府院君卽公考也娶工曹典書清州楊震之女生公公稟性寬厚器宇魁偉年五六歲與群兒遊嬉有一兒墮井群兒駭走公獨平拯之其父母來謝翼成聞之曰吾家亦有宰相蓋知有濟人之量而多之也稍長就學約儕輩數十人受業於興天寺住釋時我 世廟在潛邸適至方丈試誦四韻詩一首較先後公最先焉甚奇之仍訊其門地翼成出爲平安道都巡問使兼尹平壤府時 中朝使太監黃儼宴筵賓館公往側棚人中儼目之曰這箇誰兒公對以實儼語翼成曰生子當如是可善教之遂命坐饋酒饌因留玉頂子及珍寶數件爲別行到黃州又送食物曰囊見黃相之子可愛難忘儼其善相者歟歲戊戌翼成謫南原公隨歸侍側奉養之孝滌滌甘旨之具或有闕者公必求隣里鄉黨以自給翼成憐之曰兒何自若乃爾癸卯公赴司馬試試官有辱公者公憤不作文書一絕以自見其志曰澤民濟世非科第不恨平生作腐儒自是不肖學子業然照膺庭訓專志經史百家學問大進鬱有令譽 世廟謂銓曹曰黃喜諸子仕者幾人對以二人散一人少 上曰少者莫是興天寺誦詩兒耶特除 宗廟副丞階通仕歷宗簿直長屢遷爲司憲監察歷導官署令遷司憲持平由持平爲戶曹正郎陞 司宰副正階朝奉屢遷爲司憲掌令時巫妖多聚都中眩以禍福士女發波公盡黜之都外識者快之移內瞻寺尹替中訓轉知司諫院事會 朝啓參判高若海請罷守令六則請頗罪旨 上怒卽令憲府覆之將抵罪公諫曰若海本以布衣躬耕草野不求聞達宰相遷之遂遇知 聖上知無不言乃其職也今若以言坐罪其如外間物議何恐爲言事者戒以累 聖明上爲之霽怒只罷其職庚申除忠武衛上護軍兼知刑曹事裁決盤錯庭無留訟由知刑曹遷知兵曹事俄入爲承政院右副承旨丙寅陞爲都承旨舊制例授儒臣以公學優才膽故特膺是選而潤色 絲綸得古制詰體頗傳誦人口雖號爲大手莫之或過也丁卯公薦才士除吏職宗室有忌公昔訊以交結爲黨伍 上罷公職 告身未幾丁外艱尋 命還告身蓋慰之也庚午文宗卽阼公服闕拜僉知中樞院事陞同知中樞院事兼三軍都鎮撫 上囑公曰治軍當如細鄉營今 行幸陣內或有被盜者或部伍喧擾予甚恨焉任卿軍政卿其勉之卽 兵曹參判公專摠兵政番陣郊外嚴號令整部伍 上親閱 其師律賜廐馬一匹當公丁內艱 殿下在潛邸屢過喪次或諛詰移時其兒童如是甲戌服闕拜漢城府尹出爲慶尙道都觀察使乙亥 殿下卽阼以公爲議政府右參贊是年秋 上賜推忠佐翼功臣之號封南原君仍賜土田藏穫白銀 內廐馬丁丑公以兼判禮曹事撰定園丘祀天儀制百官隸儀無一事欠缺 上曰非守身之深於禮文詎能爾耶 天順皇帝復登極 皇太子公往賀中朝人見公風度莫不嘆服戊寅 上幸成均館取士公與掌試取都夏等五人非文臣掌試古未有也忠清道饑公爲賑恤使荒政得宜民不饑孳令 皇帝卽位公往賀 登極丙戌陞左議政越今年正月驟嬰微痾漸至沈綿累辭職 盟嘗不允命內醫逐日 診視以聞 上必親自搜方酌定藥餌以 分御 珍羞絡繹四月陞領議政一家相繼爲冢宰世固未有時論榮之公 猶未瘳一日 上送中使賜酒饌曰卿毋以不得詣 介懷專心治療國家大事臥而治之甚無妨也其 眷荷如是五月甲申卒于正寢享年六十有一訃聞上震悼輟朝三日遣禮官弔祭 王世子遣侍講官弔祭仍致賻儀諡烈成公哀榮終始可謂兩盡矣公娶益山郡夫人金氏判典農寺事金俊德之女也生一男二女男曰眷通政大夫僉知中樞府事女適前郡事李繼重次適宗簿寺僉正崔漢良僉知娶我先大人知敦寧府事戴敏公姜碩德之女生六男一女長曰 昌娶兼執義鄭垠之女次曰誠昌餘皆幼郡事生二男一女長曰樞 兵曹正郎權恪之女女適伊城令擘次男幼側室摠男女十餘人長曰心秉節校尉次曰眞果毅校尉餘皆幼以是年八月初九日壬寅有司具儀衛葬于交河北面金堀里與夫人金氏並葬公之志也公與吾先大人同入銀臺交契分深公 乎昔視余猶子胤子僉知又姻于吾門則知公終始莫吾若也而僉知愿有銘義不敢辭遂作銘曰

孰爲德門惟南原兮世積其慶有顯聞兮赫矣我公把餘芬兮少有大忠既學文兮角藝詞場恥受屈兮隘視天綱奮鵬程兮九萬扶搖程篇極兮掌 帝絲綸斯潤色兮 眷注其隆日三接兮薦庭士類反見忌兮良驥蹏躅竟千里兮于南宣化憩棠樹兮入登鈞軸嚴瞻具兮山河鐵券藏盟府兮既撰祭儀又掌試兮帝庭再朝稱使乎兮遂表百寮箕裘業兮鬱鬱雙槐蔭門閥兮胡爲不弔天遽■兮疹瘳之嘆洎泉■兮彼美佳城青鳥卜兮公歸無所此■宅兮書銘薦辭自珉刻兮維德維績所立卓兮

成化三年八月 日

○ [지석번역문] \*경기도박물관 제공

유명조선국(有明朝鮮國) 추충좌익공신(推忠佐翼功臣) 대광보국승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의정부영의정(議政府領議政) 겸(兼) 예문관(藝文館) 춘추관(春秋館) 홍문관(弘文館) 관상감영사(觀象監領事) 세자시강원사(世子侍講院事) 남원군(南原君) 증시(贈諡) 열성공(烈成公) 황수신(黃守身) 묘지명(墓誌銘) 병서(并敘)

승정대부(崇政大夫) 행(行) 예조판서(禮曹判書) 겸(兼) 성균관지사(成均館知事)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 좌빈객(左賓客) 오위도총부(五衛都總府) 도총관(都總管) 강희맹(姜希孟) 지음

공(公)의 성(姓)은 황(黃)이요 휘(諱)는 수신(守身)이다. 자(字)는 계효(季孝), 호(號)는 나부(懶夫)이며, 그 선계(先系)는 남원부(南原府)의 장수현(長水縣) 사람이다. 정헌(正憲, 정헌대부) 의정부참찬(議政府參贊)에 증직(贈職)된 휘 균비(均庇)는 공(公)에게 대부(大父, 증조부)가 되고, 참찬공(參贊公, 均庇)은 자헌(資憲, 자헌대부) 판강릉부사(判江陵府事)를 지내고 의정부 좌의정에 증직된 휘 군서(君瑞)를 낳았다. 의정공(議政公, 君瑞)은 대광보국(大匡輔國)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익성공(翼成公) 휘 희(喜)를 낳으니 재상(宰相)으로 있는 27년동안 석덕(碩德, 높은 덕)과 무열(茂烈)이 있어 공(公)을 우리나라의 재상 역할에서 으뜸으로 칭송한다. 돌아가심에 순충보조공신(純忠補祚功臣)의 호(號)를 추증(追贈)하고 남원부원군(南原府院君)에 봉(封)하니 곧 공(公)의 아버지이다. 공조전서(工曹典書)를 지낸 청주(淸州) 양진(楊震)의 따님과 결혼하여 공(公)을 낳았다.

공(公)의 품성(稟性)은 관후(寬厚)하고 기우(器宇, 기량)는 괴위(魁偉, 뛰어난)하였다. 5~6세 때 여러 아이들과 함께 놀기를 즐기다가 한 아이가 우물 속으로 떨어져 다른 아이들이 모두 놀라 달아났지만, 공은 홀로 평정심을 가지고 이를 구하여 그 부모가 와서 감사를 표시하였다. 익성공(翼成公)이 이를 듣고 말씀하시기를 “우리 집안에 또 재상이 있었구나”라고 하였으니 대개 사람을 구제하는 기량이 많음을 알고 계신 것이었다. 점차 성장하여 취학(就學)해서는 동료 수십여명이 흥천사(興天寺)에 주석(住釋)하며 수업하기로 약속하였는데, 이때는 우리 세묘(世廟, 세조)께서 잠저(潛邸, 왕위에 오르기 전)에 계실 때로 서로 만나 방장(方丈)에게 가서 사운시(四韻詩) 1수를 암송하는 것으로 시험하여 그 선후(先後)를 비교함에 공이 가장 뛰어나 이를 매우 기특하게 여겨 그 문지(門地, 門閥)가문을 거듭 알렸다. 익성공께서 외직(外職)인 평안도도순문사(平安道都巡問使)로 나가 평양부윤(平壤府尹)을 겸직하게 되었는데, 이때 중조(中朝, 명나라)의 사신인 태감(太監) 황엄(黃儼, ?~1423)을 위한 잔치가 빈관(賓館)에서 열렸다. 공(公)이 가서 조인(稠人, 여러 사람)과 함께 곁에서 수발을 하게 됨에 황엄이 이를 보고 말하기를 “이는 누구의 아이인가”라고 하여 공(公)이 사실대로 말하자 황엄이 익성공에게 말하기를 “자식이 이와 같으니 정말 잘 가르쳤다”고 하고 마침내 자리에 앉아 주찬(酒饌)을 먹도록 하였으며, 빈관에 머무르게 하여 옥정자(玉頂子, 갓 꼭대기에 옥으로 만들어 단 장식)와 진귀한 보물 여러 개를 선물로 주며 별행(別行)을 삼았다. 황주(黃州)에 도착하여 또 먹을 것을 보내며 말하기를 “이 자루를 황상(黃相)의 아들에게 보이도록 하라”고 하니 황엄이

훌륭한 재상을 잇기 어려워 애뜻함을 보여준 것이로다.

무술년(戊戌年, 1418년 태종18)에 익성공께서 남원(南原)으로 유배되자 공(公)은 모시고 돌아와 시측(侍側)하며 부드럽고 맛난 음식으로 봉양의 효성을 다하였다. 혹 빠지는 것이 있으면 공은 반드시 인근 마을이나 향당(鄉黨)에서 구하여 자급(自給)하였다. 익성공께서 이를 가련하게 여기며 말씀하시기를 “아이가 어찌 그리 태연하던지”라고 하였다. 계묘년(癸卯年, 1423년 세종5)에 공은 사마시(司馬試)에 응시하였는데, 시관(試官)이 공을 옥보이는 일이 있자 공은 분하게 여기며 문장을 짓지 않고 시 한 구절로 그 뜻을 나타내기를 “백성들을 윤택하게 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과거의 등제만이 아니니 평생 썩은 선비로 살며 한스럽지 않게 하리요[澤民濟世非科第 不恨平生作腐儒]”라고 하며 이때부터 과거공부를 본받지 않았다. 그러나 집안의 가르침에 조응(照應)하여 오로지 그 뜻을 경사백가(經史百家)에 두니 울울(鬱鬱)한 것 같이 학문에 크게 진전을 보여 명성을 얻었다. 세묘(世廟)께서 전조(銓曹, 이조)에 이르기를 “황희(黃喜)의 여러 아들 중에 벼슬을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인가”라고 하여 두 사람은 산관(散官)이고 한 사람은 어리다고 대답하니 왕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린 아이가 흥천사(興天寺)에서 시를 읊은 아이가 아닌가”라고 하시며 특별히 종묘부승(宗廟副丞)을 제수하였으니 품계는 통사(通仕)였다. 종부직장(宗簿直長)을 역임하고 여러 차례 옮겼다가 사헌감찰(司憲監察)이 되었고, 도관서령(導官署令)을 역임하고 사헌지평(司憲持平)으로 옮겼으며, 지평에서 호조정랑(戶曹正郎)이 되었고 사재부정(司宰副正)으로 승진하였으니 품계는 조봉(朝奉)이었다.

여러 곳을 옮겼다가 사헌장령(司憲掌令)이 되었는데, 이때 요사스러운 무당이 많아 도성(都城) 안으로 몰려다니며 화복(禍福)으로 선비와 부녀자들을 현혹시켜 의외의 곡절을 일으켜서 공이 이들의 거의 모두를 도성 밖으로 쫓아내니 식자(識者)들이 이를 통쾌하게 여겼다. 내섬시윤(內贍寺尹)으로 옮겼다가 중훈(中訓, 중훈대부)으로 바뀌었다. 지사간원사(知司諫院事)로 전보되어서는 조회(朝會) 때 참관 고약해(高若海)가 수령의 6가지 준칙(準則)을 어겼다고 하여 파직을 청하는 건의가 있자 자못 죄를 물으려는 왕의 뜻이 있어 왕께서 화를 내시며 사헌부에게 이를 다시 조사하라는 명을 내렸다. 공이 간쟁(諫諍)하여 말하기를 “약해(若海)는 본래 포의(布衣)로 초야(草野)에서 몸소 농사를 지으며 명성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기를 구하지 않았는데, 재상이 이를 천거하여 마침내 지우(知遇)를 얻게 되었으니 성상(聖上)께 아는 것은 말하지 않음이 없어 곧 이 직(職)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만약 소문으로 죄를 묻는다면 밖에서의 물의(物議, 어떤 사람 또는 단체의 처사에 대하여 많은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논평하는 상태)가 이와 같으니 어찌 언사(言事)하는 것을 두려워하겠습니까”라고 하며 누차에 걸쳐 성명(聖明)을 삼가도록 하였다. 이에 왕께서 노여움을 푸시고 단지 파직하는데 그쳤다.

경신년(庚申年, 1440년 세종22)에 충무위상호군(忠武衛上護軍)을 제수하고 지형조사(知刑曹事)를 겸직하였는데 반착(盤錯, 매우 처리하기 어려운 사건)을 재결(裁決, 옳고 그름을 판단함)하니 조정에 지체되는 송사(訟事)가 없었다. 지형조(知刑曹)를 거쳐 지병조사(知兵曹事)로 옮겼는데, 갑자기 옮겨 승정원우부승지(承政院右副承旨)가 되었다. 병인년(丙寅年, 1446년, 세종28)에 승진하여 도승지(都承旨)가 되었는데, 옛 제도[舊制]에는 유신(儒臣)에게 제수하는 것이 상례였지만 공(公)의 학문이 우수하고 재주가 뛰어난 까닭에 이 같은 선발이 있었던 것이다. 사륜(絲綸, 詔勅)을 윤색(潤色)하는데 고제(古制)를 얻었고 고체(誥體)가 자못 사람들에게 전승(傳誦)되어 비록 명성은 대문장가에 비견되었지만 혹 지나침도 있었다. 정묘년(丁卯年, 1447년)에 공은 재주가 있는 선비를 천거하면서 이직(吏職)을 제외하였는데, 종실(宗室)은 공을 시기하며 예전부터의 교결(交結, 서로 사귀)로 당오(黨伍)를 결성하였다고 비난하여 왕께서는 공의 벼슬을 파직하고 고신(告身)을 거두어 들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외간(外艱, 부친상)을 당하였고 다시 고신을 돌려주라는 왕명이 있었으니 대개 위로의 뜻이었다.

경오년(庚午年, 1450년 세종32) 문종이 즉위하시면서 공은 상을 마치고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를 제수하였고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로 승진하여 삼군도진무(三軍都鎭撫)를 겸직하였다. 왕께서 공에게 당부하여 이르시기를 “군사를 다스리는 데는 지방의 영문(營門)까지 세세하게 파악해야 한다. 지금 진영(陣營)의 안까지 행행(行幸)하려는데 혹 도둑을 맞은 사람이 있거나 혹 부오(部伍, 軍陣의 隊伍)에서 혼요(喧擾, 시끄럽게 떠들어 댐)하는 사람이 있을까 내가 매우 유감스럽게 여긴다. 경(卿)이 군정(軍政)을 맡았으니 그대는 이에 힘써주기 바란다”고 하였다. 이에 곧 병조참판(兵曹參判)으로 옮겨 공은 오로지 병정(兵政)을 총괄하게 되어 교외의 진영을 순시하면서 호령(號令)을 엄하게 하고 부오(部伍)를 정비하였다. 왕께서 친히 그 사율(師律)을 시찰하시고 구마(廐馬) 1필을 하사하셨다. 공이 내간(內艱, 모친상)을 당했을 때는 전하(殿下, 세조)께서 잠저(潛邸)에 계실 때로 여러 차례에 걸쳐 상가(喪家)에 오셔서 혹 상구힐의(詳究詰議, 자세히 따지고 물어 논의함)하였는데, 행차할 때 아이 때와 같은 모습이 보이기가 이와 같았다. 갑술년(甲戌年, 1454년, 단종2)에 복(服)을 벗고 한성부윤(漢城府尹)을 배수하였다가 외직인 경상도도관찰사(慶尙道都觀察使)로 나갔다.

을해년(乙亥年, 1455년, 세조1)에 전하(殿下, 세조)께서 즉위하시자 공을 의정부우참찬(議政府右參贊)으로 삼고 이해 가을에 왕께서 추충좌익공신(推忠佐翼功臣)의 호(號)를 하사하시고 남원군(南原君)에 봉하는 한편, 토전(土田, 전답)과 장획(藏穫, 노비), 백은(白銀), ~2자(字) 결(缺)~ 내구마(內廐馬)를 하사하였다. 정축년(丁丑年, 1457년, 세조3)에 공은 판예조사(判禮曹事)를 겸직하면서 원구단(園丘壇)에서 하늘에 제사지내는 의례와 제도[園丘祀天儀制]를 찬정(撰定)하였는데, 백관(百官)들이 그 의절의 살펴보니 한 가지라도 흠결(欠缺, 일정한 수효에서 부족이 생김)이 없었다. 왕께서 말씀하시기를 “수신(守身)이 예문(禮文)에 깊지 않았더라면 어찌 능히 이를 수 있었겠는가”라고 하셨다. 천순황제(天順皇帝)가 다시 등극하여 황태자(皇太子)가 정해져서 ~1자(字) 결(缺)~ 공은 이를 축하하기 위해 중조(中朝, 명나라)에 가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공의 풍도(風度)를 보고 탄복하지 않음이 없었다. 무인년(戊寅年, 1458년)에 왕께서 성균관(成均館)에 납시어 인재를 선발하자 공은 함께 시험을 주관하여 도하(都夏) 등 5명을 뽑았는데 문신(文臣)이 시험을 주관하지 않은 사례는 예부터 있지 않았다. 충청도(忠淸道)에 기근이 들자 공은 진휼사(賑恤使)가 되어 황정(荒政)을 다스리는데 마땅함을 얻어 백성들이 굶어죽지 않았으며, 황제가 즉위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공은 등극을 축하하기 위한 사신으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병술년(丙戌年, 1466년, 세조12)에 좌의정(左議政)으로 승진하였고 금년(今年, 1467년) 정월 갑작스럽게 체력이 떨어져 미아(微痾, 가벼운 병)가 점차 심해지고 오래도록 끊어지지 않아 사직(辭職)을 청하였으나, 윤택하지 않고 내의(內醫)에게 명하여 매일 진료하여 살펴보게 하고 이를 보고 받아 왕께서 반드시 친히 스스로 그 처방을 찾고 약이(藥餌)를 정하시고 왕실의 진수(珍羞, 珍饌)를 하사하시며 낙역(絡繹, 사람이나 수레의 왕래가 끊이지 않음)하도록 하였다. 4월에 영의정(領議政)으로 승진하였으니 한 집안에서 서로 연이어 총재(冢宰)를 배출한 것은 세상에서 진실로 드문 일로 시론(時論)이 이를 영광스럽게 여겼다. 공의 병이 오히려 더 나아지지 않자 왕께서는 중사(中使)를 보내 주찬(酒饌)을 하사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경(卿)은 조정에 나오지 못함을 전혀 개회(介懷, 언짢은 일을 마음에 끼워 뒀)하지 말라. 치료에 온 마음을 쏟는 것이 나라의 큰일이니 병석에 누워서 정무를 보는 것도 매우 무방(無妨, 거리낄 것이 없음)하다”라고 하였으니 그 돌봄이 이와 같았다. 5월 갑신일(甲申日)에 정침(正寢)에서 돌아가시니 향년 61세였다. 부음(訃音)을 듣고 왕께서 진도(震悼)하여 3일 동안 철조(輟朝)하였고, 예관(禮官)을 보내 조제(弔祭)하였으며, 왕세자(王世子)께서도 시강관(侍講官)을 보내 조제(弔祭)하며 거듭 부의(賻儀)하였으며, 열성공(烈成公)이라는 시호(諡號)를 내렸으니 그 애영(哀榮, 喪中の 영예)의 처음과 끝이 모두 이루어졌다고 하겠다.

공(公)은 익산군부인(益山郡夫人) 김씨(金氏)와 혼인하였으니 판전농시사(判典農寺事)를 지낸 김

준덕(金俊德)의 따님이다. 1남2녀를 낳았으니 아들은 신(昫)으로 통정대부(通政大夫)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이고, 딸은 전군사(前郡事)인 이계중(李繼重)에게 출가하였고 다음은 종부시첨정(宗簿寺僉正) 최한량(崔漢良)에게 출가하였다. 첨지(僉知, 黃昫)는 우리 선대인(先大人)이신 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 대민공(戴敏公) 강석덕(姜碩德)의 따님과 혼인하여 6남 1녀를 낳으니 장남은 ■창(■昌)으로 겸집의(兼執義) 정은(鄭垠)의 딸과 혼인하였고, 다음은 성창(誠昌)이며 나머지는 모두 어리다. 군사(郡事, 李繼重)는 2남 1녀를 낳았는데 아들은 고■(槁■)으로 병조정랑(兵曹正郎) 권각(權恪)의 딸과 결혼하였고 딸은 이성령(伊城令) 지(墀)와 결혼하였으며, 다음의 아들은 어리다. 측실(側室)에서는 모두 아들과 딸 십여인을 두었는데, 큰아들은 심병(心秉)으로 절교위(節校尉)이고 다음은 진과(眞果)로 의교위(毅校尉)이며 나머지는 모두 어리다.

이 해 8월 초9일 임인일(壬寅日)에 유사(有司)가 의위(儀衛)를 갖추어 교하(交河)의 북면(北面) 금굴리(金堀里)에 장례하였고 부인 김씨를 함께 부장하였으니 공의 뜻이었다. 공은 우리 선대인(先大人, 姜碩德)과 함께 은대(銀臺, 승정원)에 들어가 서로 사귄 정분이 아주 깊었는데 애달프다. 옛날에 내[묘지명의 지은이 姜希孟]가 유사(猶子, 돌아가신 분)를 뵈었고, 만아들 첨지공(僉知公, 黃昫) 또한 우리 집안에 인척이어서 공의 처음과 끝을 나만큼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하여 첨지공(僉知公)이 그 명(銘)을 부탁함에 의리상 감히 사양할 수 없어 마침내 명(銘)을 짓는다.

누가 덕이 있는 집안으로 오직 남원(南原)을 손꼽았던가[敦爲德門惟南原兮]  
 대대로 그 선행(善行)을 쌓아 현장(顯彰)함을 떨쳤네[世積其慶有顯聞兮]  
 赫赫(赫赫)함은 우리 공(公)에 이르러 풍성한 향기로 모아져[赫矣我公把餘芬兮]  
 어려서부터 큰 충절이 있었고 학문 또한 빛났다네[少有大忠既學文兮]  
 재주를 겨루는 사장(詞場)에서 부끄러이 굴욕을 당해[角藝詞場恥受屈兮]  
 하늘의 기강이 좁게 보였어도 봉정(鵬程, 앞으로 가야 할 멀고도 먼 길)을 떨쳤다네[隘視天綱奮鵬程兮]  
 구만리 같은 부요(扶搖, 힘차게 움직여 일어남)는 그 정편(程篇, 노정표)의 지극함이니[九萬扶搖程篇極兮]  
 황제의 사륜(絲綸)을 담당하여 그 윤색(潤色)을 다했다네[掌帝絲綸斯潤色兮]  
 임금의 돌보심 융성하여 하루에도 세 번을 뵈었으나[眷注其隆日三接兮]  
 조정(朝廷)에 천거한 선비들은 도리어 시기를 받았네[薦庭士類反見忌兮]  
 훌륭한 준마(駿馬)는 잠깐 사이에도 천리를 갈 수 있으니[良驥躡蹶竟千里兮]  
 남쪽지방의 관찰사라도 당수(棠樹)를 쉬게 했다네<sup>225)</sup>[于南宣化憇棠樹兮]  
 조정에서 균축(鈞軸, 大臣)에 올라 살펴봄과 갖춤을 엄하게 하니[入登鈞軸巖瞻具兮]  
 산하(山河)의 철권(鐵券, 공신녹권)이 맹부(盟府, 忠勳府)에 보관되었네[山河鐵券藏盟府兮]  
 앞서 제의(祭儀)를 찬정(撰定)하고 또 시험을 주관하였고[既撰祭儀又掌試兮]  
 황제의 조정을 두 번이나 다녀와 사신으로 칭송을 받았네[帝庭再朝稱使乎兮]  
 마침내 백료(百寮, 百官)의 표상이 되어 가업을 이어 받아[遂表百寮箕裘業兮]  
 울울창창(鬱鬱蒼蒼)한 느티나무 한 쌍은 문벌(門閥)을 이루었네[鬱鬱雙槐蔭門閥兮]  
 어찌 하늘의 도움을 주지 않는가[胡爲不弔天遽■兮]  
 진취(殄瘁, 병들어서 시듦)의 한탄은 황천(黃泉)까지 눈물 뿌렸다네[殄瘁之嘆泪泉■兮]  
 저 아름다운 가성(佳城, 무덤)은 청조(靑鳥)가 점지해준 곳으로[彼美佳城靑鳥卜兮]

225) 지방을 잘 다스려 백성들에게 끊임없는 사모를 받을 것이라는 뜻이다. 감당(甘棠)은 팔배나무를 말하는데, 주(周) 나라 소공(召公)의 선정(善政)에 감격하여 백성들이 그가 일찍이 쉬었던 곳에 있는 팔배나무를 소중히 여겼다는 데서 온 말이다. 《詩經》, 國風, 召南 참조.



돌아갈 곳 없는 공(公)에게 이곳은 그 쉼 곳이라네[公歸無所此■宅兮]  
추천받은 명(銘)함을 사양하지 못하고 옥돌에 새기니[書銘薦辭自珉刻兮]  
그 덕망과 업적 우뚝하게 설 것이라네[維德維績所立卓兮]

성화(成化) 3년(1467년, 세조13) 8월 일

## ○ 문헌자료

『世宗實錄』, 『文宗實錄』, 『端宗實錄』, 『世祖實錄』, 『新增東國輿地勝覽』, 『三灘集』, 『海東雜錄』, 『燃藜室記述』, 『筆苑雜記』, 『慵齋叢話』, 『海東名臣錄』, 『國祖人物考』  
전봉덕, 『경국대전해제』, 『한국의 명저』, 현암사, 1970 등 다수

## ○ 기 타

본 지식 1건 4점은 2012년 9월 25일 황수신 묘역을 정리하던 중 수습되었으며 장수 황씨 열성공파종회(총무 황준하)에서 2012년 11월에 경기도박물관에 기증. 2015년 1월 29일 위원의 조사로 사료가치가 높고, 15세기 청화백자의 연구에 기준이 되는 편년자료라는 점을 근거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상신한 바 있음.

## \*참고 : 15세기 자기지식 국가문화재 지정사례

- ① <백자청화 흥녕대부인묘지 및 석함> 1456년, 보물 제1768호, 고려대박물관
- ② <진양군영인정씨묘출토유물> 1466년, 국보 제172호, 리움미술관.
- ③ <분청사기상감'정통4년'명 김명리 묘지> 1439년, 보물 제1830호, 경기도박물관
- ④ <분청사기상감'정통5년'명 어문 반형묘지> 1440년, 보물 제577호, 리움
- ⑤ <분청사기상감 사각묘지 및 분청사기 인화문 사각편병> 1448년, 보물 제1450호, 아모레퍼시픽미술관
- ⑥ <분청사기상감'정통13년'명 묘지 및 분청사기 일괄> 1448년, 보물 제1428호, 리움미술관.
- ⑦ <분청사기상감'경태5년'명이선제묘지> 1454년, 보물 제1993호, 국립중앙박물관

## 09. 백자 철화운룡문 항아리 (白磁 鐵畫雲龍文 壺)

### 가. 검토사항

‘백자 철화운룡문 항아리’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청-국립중앙박물관의 「문화재청-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보존관리 협력에 관한 협약」(’13.8.9)의 일환으로 국립중앙박물관장으로부터 ‘백자 철화운룡문 항아리’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신청(’16.6.1)이 있어 관계전문가 조사(’17.11.30)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의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30일간 지정예고 하려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백자 철화운룡문 항아리(白磁 鐵畫雲龍文 壺)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중앙박물관)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 수 량 : 1점
- 규 격 : 높이 36.1cm, 구경 17.6cm, 동경 38.5cm
- 재 질 : 도자
- 조성연대 : 17세기 중엽 추정

###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 (지정 가치 미흡)

이 항아리는 조선 중기인 17세기에 청화안료의 부족으로 인해 철화로 대체하여 용문양을 표현했던 시대양상을 잘 보여줌. 또 2008년 경기도자박물관(당시 관요박물관)

에서 발굴조사했던 가평 하판리 요지에서는 유사한 파편이 발견되기도 하여 생산지 추정에 도움이 되었음. 이러한 측면에서 이 유물은 학술적 가치를 갖고 있음.

- 현존하는 국공사립 박물관 소장품 중에는 다소 품질의 차이가 있으나 이와 유사하거나 예술성, 완성도가 높은 사례가 존재함. 특히 형태, 철화문양의 상태, 번조상태, 전체적인 완성도, 현재 상태 등은 동일사례 중에서 상기 유물이 비교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움. 이에 신청유물은 현 시점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기에 미흡하다고 판단됨.

### ○ (지정 가치 미흡)

이 유물은 17세기의 전형적인 원호[달항아리] 형태에 동체 전면에 철화안료로 빠른 필치와 대담한 생략과 변형으로 운룡문을 그려 넣었다. 구연부는 짧게 외반했는데 가장 자리를 모나게 은행알 측면과 유사하게 깎았다. 동체는 원형에 가깝게 등글게 팽만하고 구연부와 비슷한 크기의 굽을 만들었다. 굽은 바닥쪽으로 약간 사선으로 좁아든 다리굽으로 굽 안바닥을 얇게 깎았다. 굽 안바닥에도 시유했으나 덜 녹아 유층의 박락현상이 보인다. 노태된 부위의 태토는 어두운 회백색을 띠고 있어 태토에 철분과 잡물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면에 그려진 용은 매우 생략되어 몸체의 비늘과 여의주의 화염, 그리고 군데군데 구름무늬 정도만 알아볼 수 있다. 그러나 애초에 구름속에서 여의주를 희롱하는 용의 모습을 그리려 했던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 용을 표현하기 어려웠던 지방요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현존하는 유물 가운데도 태질과 크기 등에서 유사한 것으로는 국박소장 철화백자운룡문호 몇 점과 경기도 가평 하판리요지에서 출토된 철화백자운룡문호 등이 있는데 가평 하판리 경우를 제외하면 비교적 문양이 세세하여 용의 몸체와 구름 등이 나뉠 기면위에 정확하게 그려져 있어서 본 유물과는 달리 경기도 관요에서 제작되었을 것이라 추측된다. 또 사용감이 많으며 보존상태가 양호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유면의 탈락과 파손부위가 있어 국가지정문화재로는 부적합하다고 생각된다.

현재 국가 및 지방문화재 가운데 철화백자용문호는 이화여대박물관 소장 백자철화운룡문호(보물645)외에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아무리 거칠게 그려진 문양을 가진 경우라도 운룡문이 있는 백자호들은 대체로 공적인 의례나 행사에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송인희 석사논문) 본 유물이 활달한 문양으로 현대적인 미감을 보여주지만, 운룡문을 그려 넣어 사용하고자 했던 17세기 당시 백자 본연의 쓰임과 목적 등 의의를 감안하면 이 유물은 상대적으로 그 가치가 낮다고 생각된다. 특히 국립박물관 소장품 가운데는 본 유물 외에 동시기 관요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다른 사례들도 있어 재고를 요한다.

### ○ (지정 가치 미흡)

<백자철화운룡문호(白磁鐵畫雲龍文壺)>는 각이 지게 밖으로 벌어진 입부분이 사선으로 완만하게 곡선을 그리면서 벌어지다가, 동체(胴體) 중앙에서 다시 좁아져, 굽으로 이어진 모습이다. 유색(釉色)은 회백색(灰白色)을 띄고 있다. 동체(胴體)는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따로 만든 후, 두 부분을 접합하였다. 문양은 생동감 있는 용의 모습과 간략화 된 구름을 표현하였다. 이와 같은 특징의 <백자철화운룡문호>는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리움미술관, 경기도자박물관, 호림박물관, 부산박물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또한 용과 구름의 표현뿐만 아니라 유색(釉色)이 좋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白磁靑畫雲龍文壺>가 있다. 따라서 <백자철화운룡문호>는 학술적 가치는 있지만 그 수량이 많아 희소성이 없으며, 유색(釉色)이 좋지 못하고, 굽의 접지면과 그 안쪽 바닥의 유약의 용융(熔融)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 마. 의결사항

#### ○ 부결

조사보고서

□

#### ○ 현 상

제작 당시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파손부는 없음. 사용하면서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 검은 때가 우툴두툴한 유약 표면과 굽 안바닥에 착색되어 깔끔하지 못함.

#### ○ 내용 및 특징

- ① 태토 : 태토는 고운 점토를 사용했으나 미량의 철분덩이들이 포함되어 있어 이들에 의해 태토가 깔끔하지 못하고 검은 반점이 보임. 또 전체적으로도 태토 속에는 미세한 철분이 녹아있어 태토색이 회색에 가까움.
- ② 성형 : 물레성형을 기본으로 제작했으며 상하부를 따로 만들어 붙이는 접동법(接胴法)을 사용함.
- ③ 정형 : 접동법에 의한 흔적으로 항아리 중앙부의 내외 면에는 기물을 붙인 흔적이 황선대를 이루고 있음. 일반적인 경우 외부의 접동법 흔적은 정형과정에

서 이를 없애는 것이 상례이나 이 유물은 일부만 닦아내고 일부는 그 흔적이 남아 있음. 굽은 내부를 깎아냈는데 엮어놓고 보았을 때 중앙부 바닥이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음. 항아리의 외면 하단부는 정형과정에서 굽칼로 깎아낸 흔적이 보이는데 마치 사과껍질을 깎은 것처럼 층을 이루고 있음.

- ④ 기법과 문양 : 항아리의 외면에는 전체에 걸쳐 철화기법으로 구름과 용을 그림. 문양구성은 항아리 상단부에 용과 구름을 번갈아 가면서 묘사하였고 하단부에는 도식화된 구름을 배치하였음. 상단부의 운룡문은 빠른 필치로 용 문양을 그렸는데 머리와 꼬리, 다리 등이 거의 생략된 채 비늘이 보이는 몸체를 중심으로 표현하였음. 이처럼 정확하지 않은 표현으로 인해 운룡문은 한 마리의 용이 구름 사이를 뚫고 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인지, 아니면 두 마리의 용이 각각 구름 사이를 날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음.
- ⑤ 안료 : 철분안료는 같은 필선 안에서도 농담이 달라 농도가 짙은 부분은 산화된 철색(갈색)을 띠며 많이 변저 있고, 농도가 옅은 부분은 흑갈색에 가까운 색조를 보임. 특히 문양이 묘사된 부분의 유약은 오히려 문양이 없는 곳에 비해 유약 면이 살짝 패어 들어가 있어 유약을 바른 후 철화기법을 시도한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함.
- ⑥ 시유와 유면(釉面) : 유약은 백자유를 전면 시유한 후 굽의 접지면과 안바닥의 유약을 긁어냄. 유약은 번조과정에서 잘 녹아 광택이 은은하게 비치나, 유면은 전체적으로 고르지 않아 미세하게 우툴두툴함. 이로 인해 사용과정에서 착색된 것으로 판단되는 검은 때가 항아리의 하단부와 굽 안바닥에서 확인됨.
- ⑦ 번조 : 성형 당시에는 비교적 좌우비례가 일정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번조과정에서 구연부를 포함한 기면이 전체적으로 살짝 뒤틀림. 또 유태색과 철화안료의 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완전한 환원번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물에는 전체적으로 회색조가 보이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 비교유물

- ① 기 지정유물 : 조선시대 철화백자 중에서 유사한 국가지정문화재로는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의 보물 제645호인 <백자철화운룡문항아리[白磁鐵畫雲龍文立壺]>가 있음. 이 항아리는 구연이 직립하고 어깨에 무게중심이 있는 입호의 형태에 운룡문을 묘사한 것으로 철화기법은 거칠지만 문양의 짜임새가 청화로 그려진 운룡문호와 동일하며 관요산 백자로 추정됨.
- ② 기타유물 : 현존하는 유물로 국가지정이 아닌 철화운룡문항아리는 여러 점 알려져 있음.
  - 국립광주박물관 소장품 : 원호

- 호림박물관 소장품 : 입호
- (前) 해강도자미술관 소장품 : 원호
- 이밖에 해외소장 문화재 중에 백자철화운룡문 항아리 여러 점 분포

□

## ○ 현 상

이 유물은 17세기의 전형적인 원호[달항아리] 형태에 동체 전면에 철화안료로 빠른 필치와 대담한 생략과 변형으로 운룡문을 그려 넣었다. 구연부는 짧게 외반했는데 가장자리를 모나게 은행알 측면과 유사하게 깎았다. 동체는 원형에 가깝게 둥글게 팽만하고 구연부와 비슷한 크기의 굽을 만들었다. 굽은 바닥쪽으로 약간 사선으로 좁아든 다리굽으로 굽 안바닥을 얇게 깎았다. 굽 안바닥에도 시유했으나 덜 녹아 유층의 박락 현상이 보인다. 노태된 부위의 태토는 어두운 회백색을 띠고 있어 태토에 철분과 잡물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면에 그려진 용은 매우 생략되어 몸체의 비늘과 여의주의 화염, 그리고 군데군데 구름무늬 정도만 알아볼 수 있다. 그러나 애초에 구름속에서 여의주를 희롱하는 용의 모습을 그리려 했던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 용을 표현하기 어려웠던 환경에서 제작되었을 것이라 추정된다.

## ○ 내용 및 특징

백자의 철화기법은 백토로 기물을 만들고 초벌구이 한 후에 철사 안료로 그림을 그린 후 유약을 입혀 굽는것으로, 철사안료의 특성상 고온에서 불안정하게 이동하는 성향이 있어 문양이 번지거나 유면 위로 투과하여 뚫어오르는 경우가 있다. 광주(廣州) 관요에서 제작된 것 중에도 17세기 선동리요지 등에서 철화로 용문을 그린 백자가 있지만, 유약과 태토의 질로 보아 이 경우는 지방 요지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현전하는 유물가운데 태질과 크기 등에서 유사한 것으로는 가평 하판리 요지에서 출토된 철화백자운룡문호나 국립소장 철화백자 운룡문호 몇 점이 남아 있다. 그러나 가평 하판리 경우를 제외하면 비교적 문양이 세세하여 용의 몸체와 구름 등이 나뉠 기면위에 정확하게 그려져 있어서 본 유물과는 차이가 있다.

\*철화백자운룡문 호 세부사진



철화백자운룡문호 전면



철화백자운룡문호 용의 몸체비늘



철화백자운룡문호 여의주



철화백자운룡문호 구름



구연부	구연부(부분 결실)
	
동체 실금 및 파손부	내부
	
굽	굽(부분)

○ 기 타

1909년 구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왕가미술관 이관품.



○ 비교자료

	
<p>철화백자운룡문호, 국박소장 높이31.3cm, 입지름18.7cm, 굽지름14.8cm</p>	<p>철화백자운룡문호, 가평 하판리요지 출토, 2008년 경기도자박물관 높이30.7cm</p>
	
<p>철화백자운룡문호, 국박소장 높이37.5cm, 입지름19.5cm, 굽지름15.4cm</p>	<p>철화백자운룡문호, 국박소장 높이28.2cm, 입지름18.5cm, 굽지름13.4cm</p>
	
<p>철화백자운룡문호, 국립민속박물관 소장</p>	<p>철화백자운룡문호, 이대박물관 소장 17세기, 높이45.8cm, 보물 제645호</p>

□

○ 현 상

<백자철화운룡문호(白磁鐵畫雲龍文壺)>는 각이 지게 밖으로 벌어진 입부분이 사선으로 완만하게 자연스러운 곡선을 그리면서 벌어지다가, 동체(胴體) 중앙에서 다시 좁아져, 굽으로 이어진 모습이다. 외면의 일부가 결실되었으나 양호한 상태이다.

○ 내용 및 특징

유색(釉色)은 회백색(灰白色)을 띄고 있다. 항아리 전체에 투명한 유약(釉藥)이 얇게 시유(施釉) 되었으나 굽의 접지면과 그 안쪽 바닥에는 유약이 용융(熔融) 되지 않아 깔끔하지 않은 상태이다. 동체(胴體)는 윗 부분과 아랫 부분을 따로 만든 후, 두 부분을 접합시켜 완성하였다. 문양은 생동감 있는 용의 모습과 간략화 된 구름을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 10. ‘경선사’명 청동북 (‘景禪寺’銘 金鼓)

### 가. 검토사항

‘경선사명 청동북’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경선사명 청동북’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6.6.14)이 있어 관계전문가 조사(’17.11.30)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의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30일간 지정예고 하려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경선사’명 청동북(‘景禪寺’銘 金鼓)
- 소유자(관리자) : 이○○(삼성문화재단)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 수 량 : 1구
- 규 격 : 최대 지름 38.3cm, 고면 지름 37.5cm, 측폭 10cm.
- 재 질 : 청동(구리, 주석, 납의 3원계 합금)
- 형 식 : 금구형(禁口形) 금고
- 조성연대 : 1218년(고려 고종 5) 추정

###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 (지정 가치 있음)

이 금고는 고려시대 1218년 13세기 전반의 기년명 자료로서, 긴 명문과 철제 형지를 사용하는 독특한 주조 기법, 그리고 앞뒷면이 유사하며 공명구가 아래부분에

마련된 독특한 형식 등으로 볼 때, 13세기 고려시대 금속공예품 연구에 매우 드물고 귀중한 자료이다. 지금까지 보물로 지정된 금고들은 모두 8점으로, 모두 뒷면이 뚫려서 공명구가 뒷면으로 형성된 형식이다.<sup>226)</sup> 그러므로 지금까지 지정된 금고 중에는 경선사명 금고와 같은 형식의 금고가 하나도 없다.

이 금고는 출토지가 다소 불확실하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고려시대 경선사에 대한 자료가 거의 남아 있지 않은 현재로서는 그 출토 위치나 상황을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 이 금고는 여러 번 국내 전시에 소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개인소장품이었기 때문에, 명문을 비롯한 유물에 대한 연구가 미진한 부분이 많았다. 그러나 명문에 나오는 내용이 13세기 전반 고려시대 무인(武人)의 불교문화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으며, 발원자인 이인간이 한산이씨의 선조 중 하나로 추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고려시대 사회 문화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있다. 한편, 이 금고는 고려시대 청동제 금고의 제작에 철제 형지를 사용한 독특한 제작기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고려시대 금속공예품 연구에서도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13세기 고려시대 금속공예품과 불교문화 연구에 귀중한 자료인 경선사명 청동북은 보물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 경선사명 금고의 보물 지정과 함께 이 유물에 대한 소개가 널리 대중들에게 공개되어, 향후 관련 자료의 발굴과 13세기 불교 금속공예품의 연구가 활성화되는 바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 (지정 가치 있음)

금고는 금구, 또는 반자로 불렀는데 뒷면이 일반적으로 명문을 통해 뒤가 뚫린 것은 반자, 앞 뒤면이 다 막힌 것은 금구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작품은 고려시대 명문을 가진 금구형 금고의 앞선 예 중 하나이다.

금고의 표면을 4개의 굽고 가는 동심원대를 돌려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금고의 그 상징적 의미를 시각화하였으며, 당좌구와 내구, 외구의 공간에는 연자와 팬촉 모양의 연꽃, 天空에서 둥둥 떠다니는 구름같은 여의두문을 배열하여 장식성을 강조하여, 조형적인 아름다움도 갖추었다. 특히 금고의 장식성은 시대가 흐름에 따라 당좌구에 외구로 점차 확장되어 가는 양상을 보이며, 문양도 사실적인 문양에서 도식화로 이행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금고는 문양이 점차 도식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금고로서, 고려 13세기의 시대적 특징을 잘 담고 있다. 특히 이 금고는 측면의 음각명문을 통해 고려의 2군에 소속된 하급 무관 6명이

226) 지금까지 보물로 지정된 금고는 ①보물 495호 고성 옥천사 청동북 (고려 1252년), ②보물 576호 봉업사명 청동북 (고려 1217년), ③보물 1141호 예천 한천사 금동자물쇠 및 쇠북 일괄품 (고려), ④보물 1604호 영천 은혜사 청동북 및 북걸이 (조선 1646), ⑤보물 1733호 부산 국청사 청동북 (조선 1666), ⑥보물 1734호 양산 내원사 청동북 (고려 1091년), ⑦보물 1810호 황리현명 청동북 (고려 1085년), ⑧보물 1907호 함통 6년명 청동북 (통일신라 865년) 등 8점으로 모두 뒷면이 뚫린 형식이다.

今生의 壽命長壽와 出世라는 현실적인 소망과 來生의 보리증득과 아미타불 친견이라는 궁극적인 소망을 담아 1218년 7월에 조성하여 경선사에 봉안하였다는 분명한 조성내력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금고이다. 특히 앞뒷면의 고면이 막힌 금고의 예로서 희귀한 사례이다.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보호 할 가치가 있는 고려시대 금속 공예품이라고 사료된다.

### ○ (지정 가치 있음)

이 작품은 앞·뒷면이 막혀있고 측면에 공명구가 뚫려있는 고려시대 금고의 귀중한 예이며 명문을 지닌 금구형 금고의 유일한 예이기도 하다. 일부분에서 녹이 슨 부분이나 주조결함 등이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문양표현도 우수하다. 이런 문양표현이나 표면의 주조상태도 당시 주조기술이 뛰어난 장인이 제작한 작품으로 생각된다. 또한 명문을 새긴 각자장도 솜씨가 뛰어난 장인이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 금고는 비교적 중형 크기에 속하는 고려시대 13세기 금고의 귀중한 자료이며, 금고의 명칭을 당시에 널리 쓰여지던 ‘반자(飯子)’로 표기하지 않고 ‘금구’로 표기한 점은 한국 금고 연구의 명칭과 형식을 규명해 주는 중요한 자료라는 점에서 국가 지정문화재로 지정 보호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예고함

조사보고서

□

### ○ 형 식

이 금속공예품은 사찰의 일상적 불교 의례에서 사용하는 불교의식구(佛敎儀式具)이자 범음구(梵音具)인 청동제 금고(金鼓)로서, 금구, 반자, 청동북, 쇠북 등으로 불린다. 현존하는 청동북들은 공명구의 위치와 형태에 따라 세 가지 형식 정도로 나누어지는데, 이중에서 경선사명 금고는 고면(鼓面)의 앞·뒷면이 모두 막히고 공명구가 측면 하단부에 뚫려 있는 독특한 “금구형(禁口形) 금고” 형식에 속한다(도 1, 2, 3).

고려시대의 금구형 금고는 현존례가 많지 않으며, 대부분 일본에 남아 있다. 경



도 1. 경선사명 청동북 앞면.



도 2. 경선사명 청동북 뒷면

선사명 청동북은 국내에 현전하고 있는 앞뒷면이 막힌 금구형 금고 형식의 기년명 작품 중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것이다. 이러한 형식 중에서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최근 확인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태화(泰和) 4년 관음사명 금고이다.<sup>227)</sup>

1204년에 제작된 관음사명 금고는 지름 32.5cm이며 공명구의 구연부가 다소 뭉툭하지만, 그보다 14년 뒤인 1218년에 제작된 경선사명 금고는 경선사명 금고는 38.3cm로서 좀 더 큰 편이며 공명구 부분의 형태와 마무리도 깔끔하고 우수하다.

227)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태화 4년 관음사명 금고에 대해서는 최응천, 「韓國禁口形金鼓의 造形과 展開」, 『동악미술사학』 13, 2012, pp. 18-19 및 도판 17 참조.



도 3. 경선사명 금고 측면 하부 공명구.

경선사명 금고는 앞면과 뒷면에 거의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같은 형태에 같은 문양을 새겨 넣었지만, 앞뒷면에는 형지 자국의 위치가 다소 차이가 있다. 또한 앞면에는 별다른 손상 흔적이 없지만, 뒷면 향좌측 위쪽에는 길이 1.8cm 정도로 날카롭게 찍혀서 손상된 흔적이 있으며, 한쪽 부분에는 수리한 흔적이 남아 있어서 일부 문양이 뭉개졌다. 앞뒷면은 모두 중앙 부분부터 3줄의 용기동심원을 돌려서 전체 고면을 당좌구(撞座區), 내구(內區), 중구(中區), 외구(外區) 등 4개의 구획으로 나누었다. 중앙의 당좌구에는 7개의 자방을 국화형으로 에워싼 당좌를 배치했으며, 그 바깥쪽의 내구에는 16개의 도식화된 연판문(蓮瓣文)을 간엽(間葉)과 함께 돌린 양각 문양을 새겨 놓았다. 당좌구에 자리한 연판문은 지름 6cm, 중앙의 자방 지름은 0.8cm, 당좌구의 지름은 8.7cm이며, 내구의 지름은 16.6cm 이다. 그 바깥쪽의 중구에는 아무런 문양이 없는데, 앞뒤면 모두 이 부분에 철제 형지 자국 3개가 남아 있다. 가장 바깥쪽의 외구에는 19개의 양각 여의두문을 둥글게 돌아가면서 장식하였다. 각 여의두문은 2.7x 3.8cm의 크기이다.

측면에는 중앙부의 테두리를 따라가면서 용기문이 형성되어 있고, 위쪽에는 3개의 고리가 적당한 간격으로 달려있다. 측면부의 하부에는 길이 11.8cm, 폭 7.2cm의 공명구가 뚫려 있는데, 공명구의 형태는 타원형에 가까운 사릉화형(四菱花形)이다. 측면의 맨 윗부분 고리부분부터 시계반대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음각의 명문이 2행으로 새겨져 있는데, 전체 명문은 약 100여자 이상에 달한다.

### ○ 조성연대

측면에 새겨진 음각 명문 중에 “貞祐二年 戊寅 七月日”이라는 명문이 있어서(도 4), 지금까지 정우 2년, 즉 1214년에 제작된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정우 2년의 간지는 “갑술(甲戌)”이고, 무인년은 1218년 흥정(興定) 2년에 해당하여 연호와 간지명이 불일치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정우와 흥정은 모두 금(金)의 선종(宣宗, 1213-1224 재위)의 연호이지만, 정우연간의 연호 표기는 종종 실제 연대와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정우 연호는 2년까지만 있었지만, 고려시대 금석문 중에는 정우 12년의 연호도 있기 때문이다.<sup>228)</sup> 이렇게 간지명과 연호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실제 생활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간지명이 정확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므로 경선사명 금고의 제작연대는 간지명인 “戊寅”을



도 4. 측면 간지명 명문 세부.

따라서 1218년으로 추정된다. 이 금고는 13세기 전반의 대표적인 기년명 작품으로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 ○ 현 상

이 금고는 정확한 출토지가 알려져 있지 않으며, 1977년 차명호로부터 이건희가 구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면과 뒷면에 모두 문양이 새겨져 있고, 일부분에서 철녹이 확인된다. 이러한 철녹은 주조할 때 곁틀과 안틀을 고정하는 형지를 철제품으로 사용하면서 철제 형지가 청동북의 몸 안에 남아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X선 사진에 의하면 앞뒷면에 각각 중구 주변에 3-4개, 외구와 측면부에 4개 이상 등 여러 개의 방형 형지 자국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위치는 육안으로 확인되는 철녹 부분과 같은 부분에 해당한다. 형지의 원래 형태는 방형으로 추정되는데, 현재는 부식이 심해서 형태를 알아보기는 어렵다. 공명구를 통해서 금고의 내부를 보면 철제 형지가 내외면을 관통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존재하고 있음이 확인된다(도 5). 청동제 금고의 제작에 철제 형지를 사용한 독특한 예로서, 고려시대 금속공예의 제작기법을 이해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맨 윗부분과 좌우에 달린 고리들은 형태가 조금씩 다르게 생겼으며, 뒷면의 한쪽 부분에는 수리한 흔적과 날카롭게 찍힌 흔적이 있다.

228) 정우 12년명의 명문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정우 12년 利義寺 금고의 예가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발원, 간절함 바람을 담다 - 불교미술의 후원자들』, 국립중앙박물관, 2015, pp. 138-139, 도판 44 참조.





도 5. 금고 내면. 철제 녹은 철제 형지 자국임.

### ○ 내용 및 특징

고려시대의 금고는 상당히 많이 전하고 있지만, 기년명과 발원자가 새겨진 예들은 그 수가 적은 편이다. 금고의 용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으나, 『금광명경』의 참회품에 의거하여 불교의 참회 의례에 사용하기 위해서 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시대가 내려오면 사찰의 대중을 모으거나, 공양 시간을 알리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했다. 현존하는 대부분의 고려시대 금고는 뒷면이 뚫려서 뒷면 전체, 혹은 일부분이 공명구를 형성하고 있다. 앞뒷면이 모두 막히고 공명구가 아래쪽에 만들어진 금고는 그 예가 상당히 적다.

경선사명 금고는 현존하는 고려시대 금고 중에서 앞뒷면이 막히고 공명구가 아래에 형성된 독특한 형식의 기년명 금고로서, 국내의 현존례가 희소한 귀중한 작품이다. 이 금고는 제작연대와 발원자를 확인할 수 있는 길고 확실한 명문을 가지고 있으며, 청동제 금속공예품의 제작에 철제 형지를 사용한 독특한 제작기법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고려시대 금속공예품의 제작방식과 발원자 및 불교문화를 연구하는 데에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된다.

이 금고에는 측면에 2줄로 새겨진 명문이 남아 있어서, 고려시대 불교문화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된다. 명문은 정면 맨 위의 고리 향좌측부분의 측면부에서부터 시작하여 시계 반대방향으로 중앙의 용기선을 따라 음각으로 새겨놓았다(도 6). 명문을 새긴 기법은 크고 날카로운 정으로 찍어서 새긴 것으로, 큰 정을 이용한 축조기법에 가깝다.



도 6. 경선사명 청동북 측면 명문 상태.

측면의 윗칸과 아래칸으로 나뉘어 2줄로 썩여져 있으며, 하단의 공명구 부분에서 명문이 일부 끊어져서 그 다음면으로 연결된다. 명문 전체를 연결하면 다음과 같다.

- 윗칸 1 : 高麗國龍一領隊正李仁幹爲棟梁與同領隊正鄭劉卜希載李孝清盧廷
- 윗칸 2(공명구 지나서) : 傑鷹揚府隊正全白齡等同誠發願今生則皆得長壽位至公卿  
來生則共證菩提親見
- 아래칸 1 : 阿彌陀佛之願鑄成鑼口一入重三十斤納景禪寺時貞祐二年戊寅七月 日謹記
- 아래칸 2(공명구 지나서) : 棟梁僧敦惠

이번 조사에서는 기존에 알려진 명문과 다른 곳을 세 곳 확인했다.

(1) 기존에는 발원자인 이인간(李仁幹)의 직위가 “용령대정(龍領隊龍)”이라고 알려져 있었으나, “龍”과 “領” 사이에 “一”자가 있어서 “용일령대정(龍一領隊正)”으로 수정하였다(도 7). 『고려사』 권 81에 나오는 병제(兵制)에 의하면, 당시에는 2군이 있었는데, 응양군은 1령(領), 용호군은 2령이었다고 하므로, 용일령이라는 것은 용호군의 2령 중 하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명문 중반부에 나오는 “응양부대정”이라는 것은 아마도 응양군의 대정일 것이다.

용1령 대정 이인간은 일설에 의하면 한산이씨 호장공파의 2세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추후 좀 더 검토될 필요가 있다. 한산이씨 호장공파의 세손 중에는 친불

교계 학자로 유명한 목은 이색 등이 있기 때문에, 고려시대 상류층의 불교 문화를 연구하는데도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2) 응양부 대정 전백령의 이름은 지금까지 “김백령(金白齡)”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명문에는 “전(全)”씨로 되어 있으므로(도 8), 여기에서 수정한다.

(3) 명문 말미에 보리(菩提)를 증명한다는 부분에서 보리의 “제(提)”자를 지금까지 “보살(菩薩)”의 “살(薩)”로 잘못 판독해왔으므로, 여기에서 수정한다(도 9).

명문의 해석은 기존 연구와 판독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도 7. “龍一領” 명문 세부.



도 8. “全白齡” 명문 세부.



도 9. “證菩提” 명문 세부.

“고려국 용(호군) 1령 대정 이인간이 동량이 되어 같은 령의 대정 정유, 복희재, 이효청, 노정걸과 응양부(응양군) 대정 전백령 등과 함께 정성으로 발원하였다. 금생에는 모두 장수하고 지위가 공경에까지 오르며, 내생에는 함께 보리를 증명하고 아미타불을 친견하기를 기원하여, 금구 1개를 주조하여 만드니, 무게가 30근이다. 경선사에 바친다. 때는 정우 2년 무인년(1218, 고려 고종 5년) 7월일에 삼가 쓴다. 동량은 승려 돈혜이다.”

명문중에 나오는 여러 명의 인물 중에서, 한산이씨의 2세로 알려진 이인간을 제외한 다른 인물들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또한 이 금고가 바쳐진 경선사에 대해서도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sup>229)</sup> 만약 발원자인 이인간이 한산이씨의

229) 이전에 차명호 소장의 承安 6년명(1201) 금고의 명문에 이 금고와 같은 “景禪寺”라는 사찰 이름이 나온다는 것이 알려져 있으나, 현재 이 금고는 소재지 및 형태가 확인되지 않는다. 차명호 소장 승안 6년명 경선사 금고에 대해서는 최응천, 「고려시대 청동금고의 연구 - 특히 주조방법과 명문분석을 중심으로」, 『불교미술』 9, 1988, p. 109의 부록 표 14항 참조. 이 두 금고의 명문 이외에는 경선사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2세가 확실하다면, 한산이씨의 활동 범위로 볼 때 충남 서천 지역의 사찰이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아직까지는 이 사찰에 대해서 알려진 바는 전혀 없다.

## ○ 기 타

1977년 인천에 사는 차명호로부터 구입했다고 알려져 있으며, 차명호의 구입 경위는 다소 불확실하지만 아주 일찍부터 소장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간단한 보존처리와 X선 촬영 및 비파괴 검사가 삼성미술관 리움과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실을 통해서 행해진 바 있다.

## □

### ○ 내용 및 특징

이 청동북은 1977년 인천에 거주하는 차명호로부터 구입한 구입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외의 출토지나 유입경로는 자세하지 않다. 이 금고는 측면에 새겨진 명문에 의해 貞祐二年 戊寅七月日, 즉 고려 1214년에 제작된 작품이다. 그런데 정우 2년 간지가 甲戌이며, 戊寅은 南宋의 嘉定 11년, 또는 金의 興定 2년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 연호를 차용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연호와 간지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는 흔히 볼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익숙했던 干支의 시기에 따라 제작연대를 결정하는 것이 상식이다. 따라서 이 금고는 1218년 戊寅에 제작된 금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 금고는 앞뒷면이 막혀 있고, 측면 아래쪽에 列口式 共鳴口가 뚫려 있는 이른바 ‘禁口形’ 금고이다. 고려시대 금구형 금구는 그 예가 드물다. 그동안 이 금고는 국내 유일의 금구식 금고로 알려져 있었지만, 최근에 1204년(泰和 4) 관음사명 금고가 최근에 추가로 확인되었다. 관음사 금고에 비해 크기도 다소 크고 세부처리도 깔끔하다. 이외 이와 크기와 형태가 거의 유사한 것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하고 있으나 명문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 금고의 고면은 같은 형태와 문양으로 처리하였는데, 고면의 구성은 당좌구-내구-중구-외구 4구면으로 구획하였다. 구획선은 중앙에 굵고 높은 선을 돌리고 좌우에 얇고 가는 결선을 덧붙여 시각적으로 입체감과 안정감을 고려하였고, 이와 같은 구획선의 처리 방식은 ‘함통 6년명 금고’ 통일신라시대 금고에서도 볼 수 있어 전통을 이어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용기동심원은 일정한 파장을 그리며 鼓面의 中心에서 바깥쪽으로 퍼져 나가는 모습인데, 이는 곧 부처님의 眞理光明이 十方法界로 퍼져 나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 당나라 義淨三藏이 703년에 번역한 『金剛明最勝王經』 卷3 ‘夢見金鼓懺悔品’의 내용에 의하면, “이때 信相菩薩이 그 날 밤 꿈에 금고를 보았는데 크기가 장대하고 밝음이 널

리 비치어 햇빛에 비유되었다. 다시 광명 가운데에 十方 無邊諸佛이 보이고 世尊이 寶樹 아래의 琉璃座에 무량한 百千眷屬에 둘러싸여 앉았는데, 그 소리는 懺悔 偈頌의 연설과 같더라”라고 설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조형화하면 이와같은 모습으로 표현될 것이다.

가장 중앙에 자리잡은 당좌구에는 중앙에 한 개의 자방을 주위에 6개의 자방이 에워싼 형태로 구성되었다. 날날의 자방의 둘레는 꽃무늬를 자리를 만들었고, 다시 6개의 자방 둘레에는 꽃모양으로 능선을 돌려 멋을 내었다. 내구에는 끝이 펜촉모양의 꽃무늬를 도들새김하였는데, 연꽃의 도식화된 표현으로 여겨진다. 主葉은 두 겹으로 크게 부각시키고, 간엽과 한 겹으로 主葉보다 조금 작게 표현하여 시각적으로 변화를 시도하였으나 그 효과는 미미한 편이다. 중구는 여백으로 처리하여 시원한 공간감을 살렸고, 외구에는 19개의 여의두문을 얇게 도들새김하였는데, 마치 천공에 둥둥 떠다니는 구름을 연상시킨다. 이러한 고면의 구성과 문양의 배치는 동경국립박물관 소장의 崇慶 2年 高嶺寺銘 금고와 거의 흡사하고, 1999년에 구입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금고(신수 15161, 그림3)도 이와 형태와 크기가 거의 같아 13세기 전반기에 유행한 금고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외구에 시문된 여의두문은 구름문의 변화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고려 초기에 제작된 금고는 주로 구름무늬로 외구를 하고 이것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구름무늬, 여의두문, 범자문, 넝쿨문, 연화문 등 다양한 문양으로 발전해 나간 것으로 이해된다. 현재 금고의 표면에는 사각 못처럼 붉게 부식한 것처럼 보이는 흔적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확인되는데 이는 주조 때 틀을 잡기 위한 형지자국이다.

이 금고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통일신라시대 ‘함통6년명 청동북’과 비교했을 때, 구획 면에서 중구가 추가되었고, 당좌구와 내구, 외구 등에 자방과 꽃무늬, 여의두문 등 장식적인 요소가 추가되었다. 이는 고려시대의 특징과 미적 감각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측면에도 굽은 중심선 좌우에 가는 곁 선을 덧붙여 돌렸다. 측면에는 고리와 공명구를 내었다. 고리는 상단부와 양쪽 어깨 부분 등 3곳에 달았다. 상단의 고리는 山모양이며, 구멍을 뚫은 주고리 좌우측에 날개를 달아낸 형태이다. 양 어깨에 달린 고리는 구멍이 뚫린 주고리 아래쪽에만 날개를 모양으로 달아내어 조형미를 갖추었다. 이와같은 고리의 형태는 국립중앙박물관 기축명 금고와 유사하다(그림 4). 밑면에는 공명구를 뚫었는데, 四稜形으로 멋을 낸 구름형태 또는 꽃모양을 띤다. 이외에도 측면에는 자유분방하고 고졸한 글씨체로 제작과 관련된 명문을 음각하였다.

高麗國龍一領隊正李仁幹爲棟梁與同領隊正鄭劉卜希載李孝清盧廷  
 傑鷹揚府隊正全白齡等同誠發願今生則皆得長壽位至公卿來生則共證菩提親見  
 阿彌陀佛之願鑄成金禁口一入重三十斤納景禪寺時 貞祐二年戊寅七月 日 謹記」  
 棟梁僧敦惠

명문에 따라 이 금고는 龍一鈴隊正 李仁幹과 鄭劉 卜希載 李孝清 盧廷傑, 鷹揚府  
 隊正 全白齡 등 6명이 발원하여 만든 금구이다. 중량 30근을 들어 주성한 후 경선  
 사에 봉안하고, 정유2년 戊寅에 棟梁僧 敦惠가 주성기를 기록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 금고를 발원한 계층은 龍一鈴 대정과 응양부 대정을 지낸 무관계급이 참여하  
 였고, 발원내용은 금생의 수명장수와 입신양명, 내생의 보리를 증득하고 아미타불  
 을 친견하기를 발원하고 있다. 발원자는 대정을 지낸 고위시대 하위 군관으로 이  
 루어져 있다. 고려시대의 군제는 2군 6위를 두었는데, 2군은 鷹揚軍 1領과 龍虎軍  
 2領으로 구성되어 있다. ‘龍一領’은 용호군 소속의 一領을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되  
 므로, 현존하는 미술품에서 고려 군제의 실제적 자료가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림 139 경선사명 청동북



그림 140 경선사명 청동북 공명구



그림 141 국립중앙박물관 금고(신수15161), 13세기



그림 142 기축명 금구 국립중앙박물관(13세기)

### ○ 참고문헌

최응천, 「韓國 禁口形 金鼓의 造形과 展開」, 『동악미술사학』 13, 동악미술사학회, 2012.



### ○ 현 상

‘정우이년 경선사’명 금고는 청동으로 만든 북으로써 절에서 쓰인 의식법구의 하나이다. 금고는 통일신라부터 사용되었지만 고려시대에 들어와서 뒷면이 넓게 뚫린 기본 형식과 함께 뒷면의 구연이 확정되어 共鳴口가 좁아지는 형식, 그리고 앞·뒷면이 모두 막혀 측면에 공명구가 뚫리는 형식 등의 다양한 형식이 나타난다. 그 가운데 13세기 초부터 중엽에 제작된 금고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시기의 작품들은 조형적으로도 가장 우수하다.

‘정우이년 경선사’명 금고는 앞·뒷면이 막힌 고려시대의 금구형 금고 가운데 명문이 새겨져 있는 예로서 100여자의 명문이 음각되었다. 그 내용은 ‘고려국에서 용령대정의 벼슬을 한 이인간 등 6명이 공동으로 발원하여 만든 금구로서 30근의 중량을 들여 경선사에 시납하고 정우2년 무인 7월일에 동량승 돈혜가 기록하였다.’로 해석된다.

### ○ 내용 및 특징

이 금구는 앞·뒷면이 모두 막혀 있고 금구 아래쪽에 가로 11.8cm, 세로 7.2cm 크기의 공명구가 뚫려 있는 모습이다. 앞·뒷면의 구분 없이 동일한 문양으로 시문하였으며 쌍사(雙絲)를 두른 넓은 선조(線條)가 자방부(子房部)를 중심으로 동심원상(同心圓狀)으로 면을 분할하였다. 3줄의 용기동심원을 돌려 전면은 당좌구, 내구, 중구, 외구의 4구로 구획하였다. 중앙부의 자방에는 화형(花形) 안에 모두 7개의 연자(蓮子)가

들어 있고 그 전체를 국화형 테두리로 둘러는데 이는 13세기에 널리 사용된 당좌형식이다. 그 바깥의 내구에는 뾰족한 형태의 16엽의 연판문을 간엽과 함께 시문하였다. 중구에는 문양이 없고, 외구에 가로 2.7cm, 세로 3.8cm 크기의 19개의 여의두문(如意頭文)을 둥글게 돌아가며 배치하였다. 측면에는 도드라진 선대(線帶)가 한줄 둘러지고 3개소에 가로 5cm ~ 6.7cm, 높이 2.4cm 크기의 구름모양 귀가 부착되었으며 그 여백면을 돌아가며 2행으로 100여자의 명문이 음각되었다.

현재 당좌를 중심으로 18~21cm 간격을 두고 5군데에 틀잡이의 흔적이 남아있다.



## 11. 장철 정사공신녹권 (張哲 定社功臣錄券)

### 가. 검토사항

‘장철 정사공신녹권’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장철 정사공신녹권’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6.10.26)이 있어 관계전문가 조사(’18.4.4) 및 과학조사(’18.8.27)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의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30일간 지정예고 하려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장철 정사공신녹권 (張哲 定社功臣錄券)
- 소유자(관리자) : 장○○(천안박물관)
- 소재지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429-13
- 수 량 : 1축
- 규 격 : 전체: 43.8×425.2cm, 화면: 33.3×351.4cm
- 재 질 : 종이
- 판 종 : 필사본
- 형 식 : 권축장(卷軸裝)
- 조성연대 : 1398년(태조 7) 추정

###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지정신청 고문서 <張哲定社功臣錄券>은 조선 정종 즉위(1398)년 11월에 功臣都監에서 제1차 왕자의 난을 평정하는데 공을 세운 中樞院副使 張哲(1359~1399)에게 발급된 錄券이다.

지정신청 고문서 <張哲定社功臣錄券>은 정사공신의 공적과 포상의 내역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 功臣都監의 조직과 운영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또한 본문에 吏讀의 사용이 많아 麗末鮮初의 吏讀研究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都評議使司의 出納書式은 조선조 초기의 공신녹권체제를 유지하고 있어서 고문서연구에도 중요한 자료이다.

따라서 지정신청 고문서 <張哲定社功臣錄券>은 정사공신 29명에게 발급된 녹권 중의 하나로서 현재로서는 唯一本이라는 점에서 國家文化財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제작된지 600여년이 지나는 동안 繕接을 잘못하여 原狀이 매우 훼손되어 있어, 지류문화재 보존처리 전문가의 보수 및 보존처리가 요구된다.

## ○ (지정 가치 있음)

### 가. 지정 가치

현재 천안박물관에 위탁 소장된 조사대상의 『장철 정사공신녹권』 1축은 중추원 부사 장철(張哲)이 1398년(태조 7) 8월 일어난 제1차 왕자의 난(戊寅定社)을 평정한 공로를 인정받아 같은 해 11월 수급한 정사공신 책봉증서로, 조선초기 공신녹권의 형태적 특징, 서체와 제작방식, 국왕과 왕실에 대한 인식, 태종 이방원의 정치세력 실체 등을 진단하고, 누락된 기록을 보완할 수 있는 원천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여말선초의 이두연구와 함께 당시 녹권발급 업무를 분담한 관료들의 구결연구에도 소중한 원천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조사대상과 동일한 조선초기의 공신녹권 가운데 정사공신녹권의 경우는 현재까지 1종만 확인되고 있으므로 자료적인 유일성·희소성도 확보하고 있다.

때문에 조사대상의 『장철 정사공신녹권』 1축을 보물로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하는 동시에 보존·관리하는 것이 국가적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나. 근거 기준

조선 태조~성종 때 발급된 24종 정도의 공신녹권 가운데 1392년(태조 1) 9월 발급된 『이화 개국공신녹권』(국보 제232호)과 1395년 9월의 『이원길 개국원종공신녹권』(국보 제250호) 및 1397년 10월의 『심지백 개국원종공신녹권』(국보 제69호) 등 8종의 개국공신녹권이 국보·보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조사대상의 공신녹권보다 이후인 1401년

(태종 1) 2월 발급된 『마천목 좌명공신녹권』(보물 제1469호) 및 『이형 좌명원종공신녹권 및 함』(보물 제1657호) 등 2종도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때문에 자료적 희소성과 학문적 기준지표를 확보하고 있는 조사대상의 『장철 정사공신 녹권』 1축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존·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 (지정 가치 있음)

지정신청 고문서 「장철 정사공신녹권」은 1398년(정종 즉위년) 11월에 공신도감에서 제1차 왕자의 난을 평정하는데 공을 세운 중추원부사 장철에게 발급한 문서이다. 이 문서는 조선초기의 역사상은 물론 공신 녹권의 발급과 관련된 사실 그리고 문서에 기록된 이두를 통하여 국어학적 연구 자료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학술적 가치가 있다. 더욱이 조선초기의 공신녹권 가운데 정사공신녹권의 경우는 조사 대상 외에는 현재까지 전해지는 것이 없어 희소하다.

따라서 「장철 정사공신녹권」은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예고함

조사보고서

□

### ○ 指定申請 古文書의 書誌記述 및 現狀

定社功臣錄券 / 國王(定宗) 發給 ; 張哲(1359~1399) 受給. -- 筆寫本. -- [筆寫地不明] : [功臣都監], [定宗 卽位(1398)年 11月 推定].

1軸(5梅連接) : 上下單邊, 33.3cm×351.4cm, 朱絲欄, 104行字數不定 ; 43.8×425.2cm. 楮紙. 卷軸裝(改裝).

印 文: 吏曹/之印(6.7×6.4cm, 10처)

卷 軸: 卷頭 44.4cm(반지름1.5cm) 卷尾 46.0cm(반지름3.0cm)

回 裝: 卷頭 41.3cm 卷尾 32.6cm.

每 張: 제1장(상67.0cm/하67.6cm내외), 제2장(상71.9cm/하72.3cm내외), 제3장(상73.0cm/하73.0cm내외), 제4장(상72.8cm/하72.8cm내외), 제5장(상65.7cm/하65.7cm내외)

狀 態: 오랜 세월로 朱絲欄이 흐린 부분이 많고 頭部의 下端에 損傷과 마멸된 부분이 있어 부분적으로 원문과악이 어렵다. 제작된지 600여년이 지나는 동안 배접을 잘못하여 원상이 매우 훼손되었으므로 지류문화재 보존처리 전문가의 보수 및 보존처리가 요구된다.

傳來歷: 안동 장씨 16세손 張哲의 功臣錄券으로로 世傳되다가 35세손 장충훈이 천안박물관에 기탁하여 소장·관리되고 있음.

原 文: [卷頭: 後世添筆補記]

[定宗朝推忠協贊靖難開國定社功臣案洪武三/  
十一年戊寅八月冊 恭靖大王爲世子九月禪位/  
鄭道傳南閻柳曼殊姜等挾芳碩芳蕃立僞世子/  
作亂義安大君和等十七員皆誅除奸反正載安/  
宗社]

- [001] 功臣都監
- [002] 推忠靖難定社功臣嘉靖大夫中樞院副使都評議使司使張哲
- [003] 右員乙定社功臣錄券良中奇是臥乎事叱段當使
- [004] ■■■議申言洪武參拾[壹]年玖月[十七日]
- [005] 都評議使司出納內洪武參拾壹年玖月■■■
- [006] 都承旨李文和次知口傳
- [007] 王旨國家創業未久誠宜端本正始以凝
- [008] 天命傳祚萬世不幸奸臣道傳南閻等當
- [009] 上王失豫彌留之際欲挾幼孽爲亂謀害我■■■■■■■■■■
- [010] 之業禍在不測義安公和益安公芳毅懷安公芳幹靖
- [011] 安公芳遠上黨侯伯卿左政丞趙浚右政丞金士衡參贊
- [012] 門下府事李茂參贊門下府事趙璞政堂文學河崙
- [013] 贊門下府事居易參知門下府事英茂等奮忠決策
- [014] 定難反正載安
- [015] 宗社功勞重大永世難忘是齊寧安侯良祐清原侯沈淙奉
- [016] 寧侯福根門下侍郎贊成事之蘭參贊門下府事思吉
- [017] 商議門下府事趙溫判中樞院事金輅前商議中樞院事
- [018] 朴苞前中樞院學士鄭擢同知[中]樞院事天祐商議中樞院
- [019] 事思靖同知中樞院事張湛中樞院副使張哲右副承旨
- [020] 叔蕃上將軍克禮大將軍無咎戶曹議郎無疾等推誠
- [021] 協謀定難反正載安
- [022] 宗社功勞重大永世難忘是去有等以褒崇之典有司宜亟舉行
- [023] 爲良如教右如教味出納是白置有良尔
- [024] 王旨內思審是白內乎矣右事叱段

- [025] 國家創業未久宜當端本正始傳祚萬世奸臣道傳南閩  
 [026] 等於  
 [027] 上王失豫彌留之際欲挾幼孽謀害  
 [028] 宗親幾覆大業禍在不測是去有乙義安公和益安公芳毅懷安  
 [029] 公芳幹靖安公芳遠上黨侯伯卿左政丞趙浚右政丞士衡  
 [030] 參贊門下府事李茂參贊門下府事趙璞政堂文學河崙參贊  
 [031] 門下府事居易參知門下府事英茂等奮忠決策定難  
 [032] 反正載安  
 [033] 宗社是雖反由我  
 [034] 殿下育德潛邸  
 [035] 天與人歸所致戡定禍亂  
 [036] 受命繼統是白教是乃名世之臣佐  
 [037] 命定社爲白乎所  
 [038] 王旨乃貌如功勞重大永世難忘是白置有良尔右員等乙良定社一  
 [039] 等功臣  
 [040] 稱下立閣圖形豎碑紀功封爵錫土父母妻超三等封贈  
 [041] 子乙良超三等蔭職無直子則甥姪女婿超二等田地幾結  
 [042] 奴婢幾口丘史柒名眞拜把領拾名許初入仕嫡長世襲不失  
 [043] 其祿子孫乙良政案良中定社一等功臣某之子孫是如施行  
 [044] 雖有罪犯宥及永世爲等如褒賞令是良如教是齊寧安  
 [045] 侯良祐清原侯沈淙奉寧侯福根門下侍郎贊成事之蘭  
 [046] 參贊門下府事思吉商議門下府事趙溫判中樞院事金輅  
 [047] 前商議中樞院事朴苞前中樞院學士鄭擢同知中樞院事  
 [048] 天祐商議中樞院事思靖同知中樞院事張湛中樞院副使張  
 [049] 哲右副承旨叔蕃上將軍克禮大將軍無咎戶曹議郎無  
 [050] 疾等推誠協謀定難反正載安  
 [051] 宗社爲白乎所  
 [052] 王旨內兒如功勞重大永世難忘是白有良尔定社二等功臣  
 [053] 稱下立閣圖形豎碑紀功父母妻超二等封贈直子超二  
 [054] 等蔭職無直子則甥姪女婿超等田地幾結奴婢幾口丘史  
 [055] 五名眞拜把領捌名許初入仕嫡長世襲不失其祿子孫  
 [056] 乙良政案良中定社二等功臣某之子孫是如施行雖有罪  
 [057] 犯宥及永世爲等如褒賞令是良如教是齊爲■如科■以  
 [058] 錄券成給爲遣立閣豎碑乙良繕工監圖形乙良圖畫院紀  
 [059] 功乙良藝文春秋館父母妻封贈子孫蔭職嫡長世襲子  
 [060] 孫政案施行乙良吏曹  
 [061] 賜給田地字號申  
 [062] 聞乙良戶曹給田司奴婢花名申  
 [063] 聞乙良刑曹都官丘史把領及初入仕乙良兵曹爲等如使內  
 [064] 向事出納各掌官爲良如教諭乃謹錄申  
 [065] 聞爲白乎亦中洪武參拾壹年拾月初一日都承旨通政大  
 [066] 夫經筵參贊官兼尙瑞尹修文殿直學士知製教充藝文春  
 [067] 秋館修撰官知吏曹事臣李文和伏奉  
 [068] 王旨依申教矣一等功臣乙良各田貳百結各奴婢貳拾五口各內廄馬

- [069] 壹匹鞍子具各金品帶一腰各表裏壹段式以賞
- [070] 賜爲齊二等功臣商議門下府事趙溫同知中樞院事天祐中樞
- [071] 院副使張哲右副承旨叔蕃上將軍克禮大將軍無咎戶曹
- [072] 議郎無疾等乙良各田壹百五拾結各奴婢拾五口各內廐馬
- [073] 匹各金銀品帶一腰各表裏壹段式以賞
- [074] 賜爲齊寧安侯良祐清原侯沈淙奉寧侯福根門下侍郎贊成
- [075] 事之蘭參贊門下府事思吉判中樞院事金輅前商議中樞
- [076] 院事朴苞前中樞院學士鄭擢商議中樞院事思靖同知中樞
- [077] 院事張湛等乙良各田壹百結各奴婢拾口各內廐馬壹匹
- [078] 各金品帶壹腰各表裏一段式以賞
- [079] 賜爲良如教右如教事是去有良尔錄券
- [080] 洪武參拾壹年拾壹月 日
- [081] 錄事都評議錄事張[手決]
- [082] 錄事權知式日都監錄事承仕郎膳官署丞全[手決]
- [083] 判官[空]
- [084] 判官通德郎右補闕藝文春[秋]館應教知製教兼尙瑞司丞李[手決]
- [085] 副使奉正大夫兵曹議郎安[手決]
- [086] 副使奉正大夫成均樂正知製教柳[手決]
- [087] 使中直大夫左諫義大夫直集賢殿知製教兼藝文春秋館編修官經筵侍講官趙[手決]
- [088] 使通政大夫成均大司成知製 教朴[手決]
- [089] 判事崇政大夫三司左僕射同判都評議使司事安[手決]
- [090] 判事特進輔國崇祿大夫醴泉伯集賢殿大學士領書雲觀事權[手決]
- [091] 都監員
- [092] 佐郎承議考功佐郎閔[手決]
- [093] 佐郎承議郎兼都評議使司經歷司都事申[手決]
- [094] 正郎通德郎考正郎知製教兼都評議使司事檢詳條例司檢詳權[手決]
- [095] 正郎通德郎尹[手決]
- [096] 議郎奉正大夫鄭[手決]
- [097] 議郎奉正大夫原[手決]
- [098] 知曹事[空]
- [099] 典書嘉善大夫集賢殿直學士經筵侍講官全[手決]
- [100] 典書嘉善大夫河[手決]
- [101] 吏曹員
- [102] 別監
- [103] 通政大夫中樞院都承旨經筵參贊官兼尙瑞司修文殿直學士知製教充藝文春秋館修撰官知吏曹事李[手決]
- [104] 折衝將軍雄武侍衛司上將軍柳[手決]
- [105] 中訓大夫試司憲中丞朴[手決]

## ○ 指定申請 古文書の 内容과 特徴 및 價値

지정신청 고문서 <張哲定社功臣錄券>은 조선 정종 즉위(1398)년 11월에 功臣 都監에서 제1차 왕자의 난을 평정하는데 공을 세운 中樞院副使 張哲(1359~1399)에게 발급된 錄券이다.

定社功臣은 조선 태조 7(1398)년에 태조의 제8남인 李芳碩과 그를 옹호하는 鄭道傳·南閻·沈孝生·張至和·李勤 등의 舊臣들을 몰아내고 새로운 정권기반을 마련하는데 공을 세운 李芳遠派들에게 1등과 2등의 두 등급으로 나누어 내린 훈공이다. 정사공신은 도합 29인으로 1등은 李和·李芳毅·李芳幹·李芳遠·李伯卿·趙浚·金士衡·李茂·趙璞·河崙·李居易·趙英茂 등 12인이고 2등은 李良祐·沈悰·李福根·李之蘭·張思吉·趙溫·金駱·朴苞·鄭擢·李天祐·張思靖·張湛·張哲·李叔蕃·辛克禮·閔無咎·閔無疾 등 17인이며, 이때 張哲은 부친 張思吉(1319~1418)과 숙부 張思靖(?-?)과 함께 2등 공신으로 책봉되었다.

지정신청 고문서 <張哲定社功臣錄券>의 受給者인 張哲은 麗末鮮初의 문신으로 本貫은 安東이고 字는 自明이며 諡號는 莊襄이다. 우왕 4(1388)년에 만호로 있을 때 李成桂를 따라 요동정벌에 종군한 뒤 威化島回軍에 동참하여 回軍功臣으로 조선개국에 기여하였다. 태조 2(1393)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都摠制使를 지내고 태조 7(1398)년에 中樞院副使가 되었다가, 동(1398)년 8월에 일어난 제1차 왕자의 난을 평정하는데 공을 세워 정사공신 2등에 책록되었다. 그 뒤 花城君에 봉하여지고 정종 원(1399)년 11월에 太上王을 新都에 호종하던 중에 등창으로 갑자기 사망하였다.

지정신청 고문서 <張哲定社功臣錄券>의 체제는 發給處와 受給者의 職銜과 姓名, 그리고 본문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공신책봉에 관한 왕명을 받아 이를 출납한 奉命者의 職銜과 姓名, 功臣으로 책봉하는 공로사례의 내용을 담은 王旨와 등급별 공신들의 職銜과 姓名, 이들 공신의 책봉사유 및 공신등급별 포상 및 특전의 규정과 이와 관련된 관서별 업무분장, 녹권의 시행일자 등은 물론 마지막 부분에는 녹권발급의 담당기관인 功臣都監員의 職銜과 姓氏 및 手決이 있다.

지정신청 고문서 <張哲定社功臣錄券>은 정사공신의 공적과 포상의 내역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 공신도감의 조직과 운영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또한 본문에 吏讀의 사용이 많아 麗末鮮初의 吏讀研究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都評議使司의 出納書式은 조선조 초기의 공신녹권체제를 유지하고 있어서 고문서연구에도 중요한 자료이다.

따라서 지정신청 고문서 <張哲定社功臣錄券>은 정사공신 29명에게 발급된 녹권 중의 하나로서 현재로서는 唯一本이라는 점에서 國家文化財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오랜 세월로 朱絲欄이 흐린 부분이 많고 頭部의 下端에 損傷과 마멸된 부분이 있어 부분적으로 원문파악이 어렵다. 또한 제작된지 600여년이 지나는 동안 繕接을 잘못하여 原狀이 매우 훼손되었으므로 지류문화재 보존처리 전문가의 보수 및 보존처리가 요구된다.



○ 현 상

조사대상의 『장철 정사공신녹권(張哲 定社功臣錄券)』 1축은 1398년(정종 즉위년) 11월 공신도감(功臣都監)에서 제1차 왕자의 난을 평정하는 과정에서 공을 세운 중추원부사(中樞院副使) 장철(張哲)에게 발급된 공신녹권으로, 집안에서 전하다가 안동 장씨 35세손 장충훈이 천안박물관에 기탁하여 소장·관리하고 있다. 형태는 권자본(두루마리)이고, 닥종이에 필사되어 있으며, 좌·우 변란에는 남색의 종으로 개장·장황되어 있다. 양쪽의 마지막 부분은 나무 권축(木卷軸)으로 앞부분이 반달형이며, 뒷부분이 둥근형이다.

조사대상의 녹권은 상·하란의 일부분이 손상되어 수리되어 있고, 4·5·9·17·57행 등의 일부 글자가 마모되어 있으며, 얼룩도 있으나, 교서 내용 및 관인(官印)은 거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서지사항]

장철 정사공신녹권(張哲 定社功臣錄券)/ 공신도감(功臣都監) 찬/ 국왕 발급(國王發給) ; 장철 수급(張哲 受給)

[한성(漢城)], [공신도감(功臣都監)], [1398년(정종 즉위년) 11월 발급 추정]

필사본/ 33.3×351.4cm/ 권축장(卷軸裝 : 개장)

1축(5매 이어 붙임) : 상하단변(上下單邊)/ 주사란(朱絲欄)/ 105행 자수부정(字數不定)/ 닥종이(楮紙)

인문(印文) : 이조(吏曹)/지인(之印 : 6.7×6.4cm, 10곳)

권축(卷軸) : 앞부분(길이 44.4×반지름 1.5cm)/ 뒷부분(길이 46.0×반지름 3.0cm)

회장(回裝) : 앞부분(41.3cm) 뒷부분(32.6cm)

매장(每張) : 제1장(상67.0cm/ 하67.6cm 내외), 제2장(상71.9cm/ 하72.3cm 내외), 제3장(상73.0cm/ 하73.0cm 내외), 제4장(상72.8cm/ 하72.8cm 내외), 제5장(상65.7cm/ 하65.7cm 내외)

발급시기 : 홍무삼십일년십일월 일(洪武參拾壹年拾壹月 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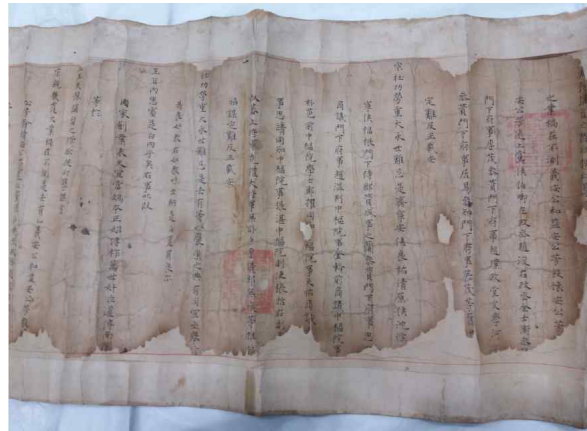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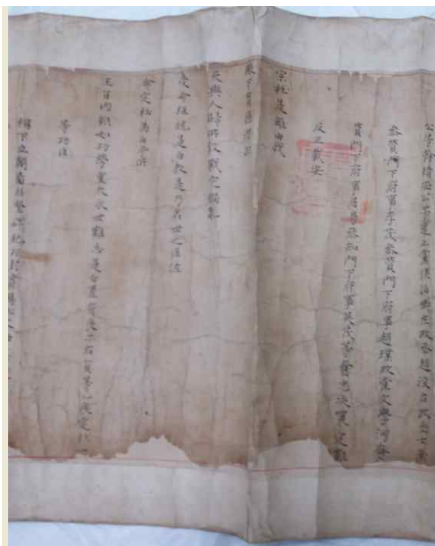
○ 내용 및 특징

조사대상의 『장철 정사공신녹권』 1축은 장철(張哲)이 1398년(태조 7) 8월 일어난 제1차 왕자의 난(戊寅定社)을 평정하는 공로를 인정받아 정사공신으로 책봉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로, 같은 해 9~10월 정사이등공신으로 책봉되었다가 11월에 수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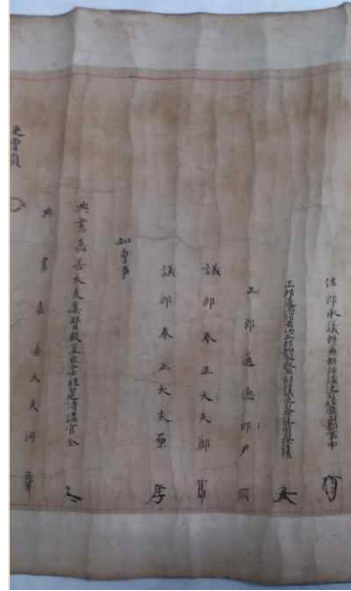
조사대상의 공신교서를 수급한 장철(?~1399)은 안동장씨(安東張氏)로, 1388년(우왕 14) 태조 이성계와 함께 요동정벌에 참전하였다가 위화도회군에 동참하여



조선의 개국에도 공로를 세웠으며, 정종 때까지 첨절제사(僉節制使)·중추원부사(中樞院副使)·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使)를 역임하였다. 1399년(정종 1) 11월 태상왕 태조를 호종하여 새로운 도읍지인 한양으로 갔다가 등창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화산군(花山君)으로 봉군되었으며, 시호가 장양(莊襄)이다.







조사대상의 공신녹권은 닥종이에 상하단변의 주사란(朱絲欄)을 긋고 정사공신 책봉의 발급관청(功臣都監)을 이어 제2행에 수급자의 공신호—품계—관직—성명의 순서로 필사하였으며, 3행부터는 수급자를 공신으로 책봉하는 녹권의 발급목적과 경위, 국왕 명령으로 공신책봉을 시행하는 관료의 관직과 성명, 공신으로 책봉하는 공로사례의 내용을 담은 국왕의 명령(王旨) 내용, 등급별 공신들의 봉작명·관직과 성명 및 공로사례·공신책봉사유, 그리고 공신의 등급별 포상 및 특전의 규정과 이와 관련된 관서별 업무분장, 녹권의 발급·시행일자 등을 한문과 이두(吏讀)로 혼용하여 묵서하였으며, 마지막 부분에는 녹권 발급을 담당한 공신도감·이조 관원들의 직임·품계·관직 등과 성씨 및 수결(手決)이 표기되어 있다. 본문의 내용은 왕지(王旨)·종사(宗社)·상왕(上王 : 태조)·종친(宗親)·전하(殿下) 등의 부분에 대두(擡頭)와 함께 개혁(改行) 방식을 적용하여 왕실과 국왕의 권위·존엄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의안군(義安公) 이화(李和)를 비롯하여 익안공(益安公) 이방의(李芳毅), 회안공(懷安公) 이방간(李芳幹), 정안공(靖安公) 이방원(李芳遠), 상당후(上黨侯) 이백경(李伯卿), 영안후(寧安侯) 이양우(李良祐), 청원후(淸原侯) 이심중(李沈淙), 봉령후(奉寧侯) 이복근(李福根) 등과 같은 종실의 경우에는 왕실의 국성(國姓)인 이(李)자를 의도적으로 생략하고 이름 ‘화(和)’자 등으로만 표기하였다. 그리고 녹권의 첫머리와 종이 이음 부분 및 발급 시기 등 10곳에 ‘이조지인(吏曹之印)’이 붉은 색으로 날인되어 있다.

수급자 장철의 공신호는 추충정난정사공신(推忠靖難定社功臣)이고 품계는 가정대부(嘉靖大夫)이며, 관직이 중추원부사(中樞院副使)·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使)이다. 국왕의 명령을 받아 시행한 책임자는 도승지(都承旨) 이문화(李文和)이다. 1

등 공신은 종실 이화·이방의·이방간·이방원·이백경을 비롯하여 좌정승(左政丞) 조준(趙浚), 우정승(右政丞) 김사형(金士衡), 참찬문하부사(參贊門下府事) 이무(李茂), 참찬문하부사 조박(趙璞), 정당문학(政堂文學) 하륜(河崙), 참찬문화부사 이거이(李居易) 참지문하부사(參知門下府事) 이영무(李英茂) 등 12명이며, 2등 공신은 종실 이양우·이심종·이복근을 포함하여 문하시랑찬성사(門下侍郎贊成事) 이지란(李之蘭), 참찬문하부사 장사길(張思吉), 상의문하부사(商議門下府事) 조온(趙溫),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 김로(金輅), 전 상의중추원사(前商議中樞院事) 박포(朴苞), 전 중추원학사(前中樞院學士) 정탁(鄭擢),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이천우(李天祐), 상의중추원사 장사정(張思靖), 동지중추원사 장담(張湛), 중추원부사 장철(張哲), 우부승지(右副承旨) 이숙번(李叔蕃), 상장군(上將軍) 신극례(辛克禮), 대장군(大將軍) 민무구(閔無咎), 호조의랑(戶曹議郎) 민무질(閔無疾) 등 17명으로 전체 29명의 종실과 관료들이 각각 필사되어 있다. 이들 가운데는 장철의 아버지와 숙부인 장사길 및 장사정도 포함되어 있다. 제80행의 발급·시행일자는 홍무삼십일년십일월 일(洪武參拾壹年拾壹月 日)로 1398년(정종 즉위년) 11월 어느 날이다.

발급일자의 다음 행부터는 공신도감의 소속으로 녹사(錄事)·판관(判官)·부사(副使)·사(使)·판사(判事)의 직임을 맡은 9명의 관료, 이조 소속의 관료 8명, 책임업무를 맡은 별감(別監) 3명 등 총 20명 관료들의 소속관청·직임·관직명·성씨와 함께 수결이 필사되어 있다. 이들 가운데는 공신도감의 녹사(錄事) 장합(張合), 판관(判官) 이은(李垠), 부사(副使) 안로생(安魯生)·류백순(柳伯淳), 사(使) 조용(趙庸)·박신(朴信), 판사(判事) 안익(安翊)·권중화(權仲和), 이조의 좌랑(佐郎) 민제(閔霽)·신상(申商), 정랑(正郎) 윤수(尹須), 의랑(議郎) 정절(鄭節), 별감(別監) 이문화·박은(朴崑)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조사대상의 공신녹권 앞 부분에는 안동 장씨의 후세들이 ‘정종조추충협찬정란개국정사공신안홍무삼십일년무인팔월(定宗朝推忠協贊靖難開國定社功臣案洪武三十一年戊寅八月)……의안대군화등십칠원개주제간반정재안종사(義安大君和等十七員皆誅除奸反正載安宗社)’라는 내용이 덧붙여 묵서된 부분도 있다.

조사대상의 『장철 정사공신녹권』 1축은 역사·문화적인 측면에서나 서지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가치를 담고 있다. 우선, 당대 정사공신녹권의 형태적 특징을 진단할 수 있는 원천자료로 주목된다. 조사대상의 공신녹권은 원형을 상당히 유지하고 있으므로, 조선 정종 때 공신녹권의 본문의 형태적 특징을 진단할 수 있는 원천텍스트로 활용할 수 있다. 둘째로, 제작 당시의 서체와 서지학적인 특성을 진단할 수 있는 원천자료로도 주목된다. 정종 당시 공신녹권의 작성체계와 방식 등도 이해할 수 있는 원천정보이다. 셋째로, 제작 당시의 역사인식을 진단할 수 있는 원천정보로도 활용할 수 있다. 조사대상의 공신녹권에는 국왕의 존엄성을 확보

하는 대두와 개행 방식이 적용되고 있으며, 종실의 경우에는 국성인 이(李)자를 생략하고 이름만 표기되어 있는 등 당대 국왕과 왕실에 대한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원천자료이다. 넷째로, 조사대상의 공신녹권에 표기된 원천정보는 관찬사서 등에서 현재 확인되지 않은 당대의 기록을 보완해 주기도 한다. 수급자인 장철이 역임한 관직 가운데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使)는 『태조실록』이나 『정종실록』 등에서 확인되지 않고 있는 등 당대의 기록을 보완할 수 있는 자료이다. 다섯째로, 여말선초의 이두연구에도 귀중한 원천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조사대상의 공신녹권은 이두를 함께 혼용하여 기술하고 있으므로, 당시 이두연구와 공신녹권의 작성서식을 이해할 수 있다. 여섯째로, 수결 연구의 원천자료로도 주목된다. 조사대상의 공신녹권에는 당시 녹권발급의 업무를 분담한 관료 20명의 수결이 새겨져 있으므로, 이들의 수결 모양과 특성을 진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료적 희귀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주목된다. 현재까지 확인되는 조선초기의 공신녹권은 개국공신녹권 12종, 정사공신녹권은 1종, 좌명공신녹권 3종, 좌익공신녹권 6종, 좌리공신녹권 2종 등 총 24종 정도가 확인되고 있다. 이 가운데 조사대상의 공신녹권과 같은 종류의 정사공신녹권은 장철을 포함하여 29명에게 발급되었으면서도 현재까지 1종만 확인되고 있으므로 자료적 희소성을 확보한다고 할 수 있다.

## ○ 문헌자료

『태조실록』 권15, 태조 7년 9월 기축

『태조실록』 권15, 태조 7년 10월 계묘

『정종실록』 권2, 정종 1년 11월 정묘, 「중추원사 장철 졸기」

진나영, 『朝鮮 前期 功臣錄券의 書誌學的 研究』,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2014.

진나영·송일기, 「『定社功臣錄券』의 書誌的 研究」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7-3, 한국문헌정보학회, 2013.

박성호, 「조선초기 공신교서와 녹권의 발급제도 변경 시기에 대한 재론」 『古文書 研究』 45, 한국고문서학회, 2014.

국가문화유산포털(www.heritage.go.kr)

문화재청/ 문화유산정보/ 문화재검색

## ○ 지정사례

국보 제69호 심지백 개국원종공신녹권(沈之伯 開國原從功臣錄券 : 동아대학교 박물관 1962년 12월 지정)

국보 제232호 이화 개국공신녹권(李和 開國功臣錄券 : 1986년 10월 지정)

국보 제250호 이원길 개국원종공신녹권(李原吉 開國原從功臣錄券 : 1989년 08월 지정)

보물 제437호 김회련 개국원종공신녹권(金懷鍊 開國原從功臣錄券 : 1966년 02월 지정)  
보물 제726호 장寬 개국원종공신녹권(張寬 開國原從功臣錄券 : 1981년 07월)  
보물 제1076호 김천리 개국원종공신녹권(金天理 開國原從功臣錄卷 : 1991년 07월 지정)  
보물 제1160호 진충귀 개국원종공신녹권(陳忠貴 開國原從功臣錄券 : 국립중앙  
박물관 1993년 06월 지정)  
보물 제1282호 최유련 개국원종공신녹권(崔有漣 開國原從功臣錄券 : 1998년 06월 지정)  
보물 제1469호 마천목 좌명공신녹권(馬天牧 佐命功臣錄券 : 2006년 04월 지정)  
보물 제1657호 이형 좌명원종공신녹권 및 함(李衡佐命原從功臣錄券 및 函 : 2010년 08월 지정)



### [書誌 事項]

張哲定社功臣錄券

1軸.(5매 연접) [정종 즉위년(1398)]

筆寫本. 上下單邊. 33.3×351.4cm. 卷子本. 有界(朱絲欄). 105행 자수부정.  
43.8×425.2cm.

卷末 : 洪武參拾壹年(1398)拾壹月 日.

印: [吏曹之印]

### ○ 현 상

안동장씨 35세손 장충훈이 천안박물관에 기탁하여 소장·관리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손상이 진행된 상태이다. 녹권의 앞부분은 상단과 하단 여러 곳의 본문이 결실되었고, 중간 중간 여러 곳이 천공되었다. 얼룩과 오염 그리고 종이의 꺾임과 접힘 현상이 곳곳에 확인된다. 더욱 배접한 지 오래되어 원지와 배접 당시 사용하였던 재료와의 차이로 인한 훼손도 많이 진행되는 상태이다. 시급한 보존처리가 요구된다.



### ○ 특징 및 가치

조사 대상 문서인 「장철 정사공신 녹권(張哲定社功臣錄券)」은 1398년(정종 즉위년) 11월에 공신도감(功臣都監)에서 제1차 왕자의 난을 평정하는데 공을 세운 중추원부사 장철(張哲, 1359~1399)에게 발급된 녹권이다.

장철은 1388년(우왕 1)에 만호로서 요동정벌에 종군하였다가 위화도회군(威化島回軍)에 가담하였다. 1398년(태조 7) 중추원부사가 되었고, 그 해 후일의 태종을 도와 정도전, 남은 등을 살해하고 방석의 난을 평정하였다. 그 공으로 정사공신(定社功臣) 2등에 책록되었고, 이후 화산군에 봉해졌다. 시호는 장양(莊襄)이다.

정사공신(定社功臣)은 1398년(태조 7)년에 태조의 제8남인 이방석(李芳碩)과 그를 옹호하는 정도전(鄭道傳)·남은(南鬮)·심효생(沈孝生)·장지화(張至和)·이근(李勤) 등의 구신(舊臣)들을 몰아내고 새로운 정권기반을 마련하는데 공을 세운 이방원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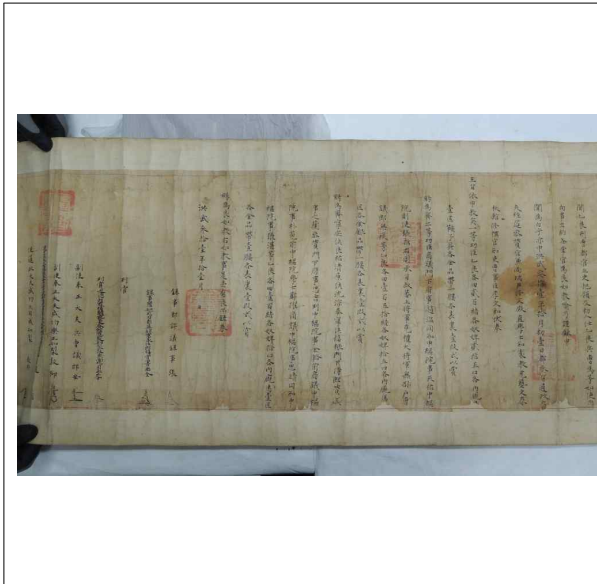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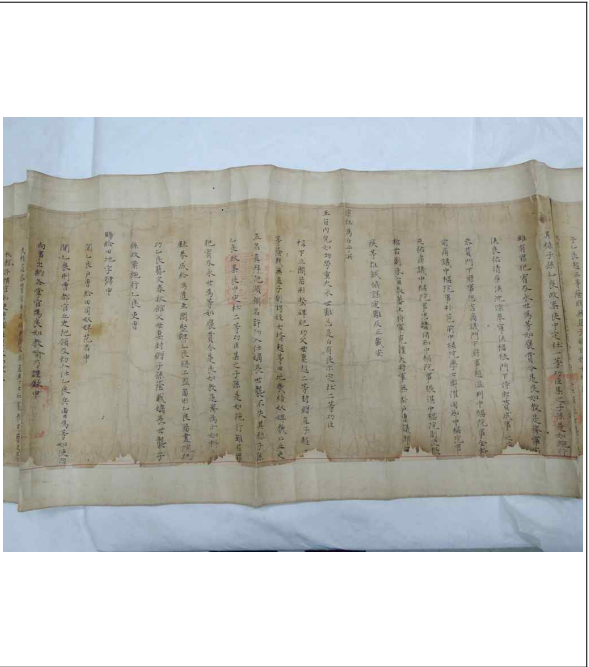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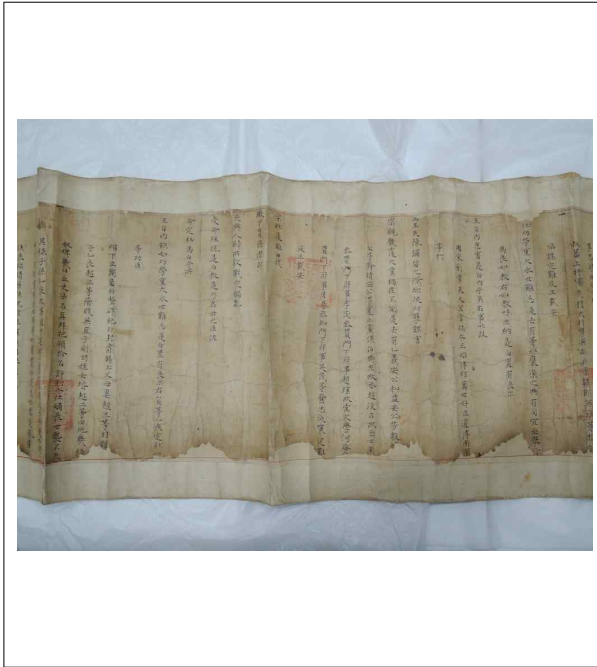
(李芳遠派)들에게 1등과 2등의 두 등급으로 나누어 내린 훈공이다. 정사공신은 모두 29인으로 1등은 이화(李和)·이방의(李芳毅)·이방간(李芳幹)·이방원(李芳遠)·이백경(李伯卿)·조준(趙浚)·김사형(金士衡)·이무(李茂)·조박(趙璞)·하륜(河崙)·이거이(李居易)·조영무(趙英茂) 등 12인이고 2등은 이양우(李良祐)·심중(沈淙)·이복근(李福根)·이지란(李之蘭)·장사길(張思吉)·조온(趙溫)·김락(金駱)·박포(朴苞)·정탁(鄭擢)·이천우(李天祐)·장사정(張思靖)·장담(張湛)·장철(張哲)·이숙번(李叔蕃)·신극례(辛克禮)·민무구(閔無咎)·민무질(閔無疾) 등 17인이다.

조사 대상 「장철 정사공신 녹권」은 상하단변의 주사란(朱絲欄)을 긋고 정사공신책봉의 발급관청(功臣都監)을 이어 제2행에 수급자의 공신호—품계—관직—성명의 순서로 필사하였으며, 3행부터는 수급자를 공신으로 책봉하는 녹권의 발급목적과 경위, 국왕 명령으로 공신책봉을 시행하는 관료의 관직과 성명, 공신으로 책봉하는 공로사례의 내용을 담은 국왕의 명령(王旨) 내용, 등급별 공신들의 봉작명·관직과 성명 및 공로사례·공신책봉사유, 그리고 공신의 등급별 포상 및 특전의 규정과 이와 관련된 관서별 업무분장, 녹권의 발급·시행일자 등을 한문과 이두(吏讀)로 혼용하여 묵서하였으며, 마지막 부분에는 녹권 발급을 담당한 공신도감·이조 관원들의 직임·품계·관직 등과 성씨 및 수결(手決)이 표기되어 있다. 특히 본문에는 왕지(王旨)·종사(宗社)·상왕(上王)·종친(宗親)·전하(殿下) 등의 왕실 관련 내용에는 대두(擡頭)와 함께 개행(改行)하였고, 의안군(義安公) 이화(李和)를 비롯하여 익안공(益安公) 이방의(李芳毅), 회안공(懷安公) 이방간(李芳幹), 정안공(靖安公) 이방원(李芳遠), 상당후(上黨侯) 이백경(李伯卿), 영안후(寧安侯) 이양우(李良祐), 청원후(淸原侯) 이심중(李沈淙), 봉령후(奉寧侯) 이복근(李福根) 등과 같은 종실의 경우에는 왕실의 국성(國姓)인 이(李)자를 의도적으로 생략하고 이름으로만 표기하였다.

녹권의 첫머리와 종이 이음 부분 및 발급 시기 등 10곳에 ‘이조지인(吏曹之印)’이 붉은 색으로 날인되어 있다. 인문의 크기는 가로 6.7, 세로 6.4cm이다.

발급일자의 다음 행부터는 공신도감의 소속으로 녹사(錄事)·판관(判官)·부사(副使)·사(使)·판사(判事)의 직임을 맡은 9명의 관료, 이조 소속의 관료 8명, 책임 업무를 맡은 별감(別監) 3명 등 총 20명 관료들의 소속관청·직임·관직명·성씨와 함께 수결이 필사되어 있다.





조사 대상 「장철 정사공신 녹권」은 모두 105행으로 본문 매 행 2자~28자 내외로 작성되었다. 그 내용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 [001] 功臣都監
- [002] 推忠靖難定社功臣嘉靖大夫中樞院副使都評議使司使張哲
- [003] 右員乙定社功臣錄券良中奇是臥乎事叱段當使
- [004] ■■■議申言洪武參拾[壹]年玖月[十七日]
- [005] 都評議使司出納內洪武參拾壹年玖月■■■
- [006] 都承旨李文和次知口傳
- [007] **王旨**國家創業未久誠宜端本正始以凝
- [008] **天命**傳祚萬世不幸奸臣道傳南閩等當
- [009] **上王**失豫彌留之際欲挾幼孽爲亂謀害我■■■■■■■■■
- [010] 之業禍在不測義安公和益安公芳毅懷安公芳幹靖
- [011] 安公芳遠上黨侯伯卿左政丞趙浚右政丞金士衡參贊
- [012] 門下府事李茂參贊門下府事趙璞政堂文學河崙
- [013] 贊門下府事居易參知門下府事英茂等奮忠決策
- [014] 定難反正載安
- [015] **宗社**功勞重大永世難忘是齊寧安侯良祐清原侯沈淙奉
- [016] 寧侯福根門下侍郎贊成事之蘭參贊門下府事思吉
- [017] 商議門下府事趙溫判中樞院事金輅前商議中樞院事
- [018] 朴苞前中樞院學士鄭擢同知[中]樞院事天祐商議中樞院
- [019] 事思靖同知中樞院事張湛中樞院副使張哲右副承旨
- [020] 叔蕃上將軍克禮大將軍無咎戶曹議郎無疾等推誠
- [021] 協謀定難反正載安
- [022] **宗社**功勞重大永世難忘是去有等以褒崇之典有司宜亟舉行
- [023] 爲良如教右如教味出納是白置有良尔
- [024] **王旨**內思審是白內乎矣右事叱段
- [025] 國家創業未久宜當端本正始傳祚萬世奸臣道傳南閩
- [026] 等於
- [027] **上王**失豫彌留之際欲挾幼孽謀害
- [028] **宗親**幾覆大業禍在不測是去有乙義安公和益安公芳毅懷安
- [029] 公芳幹靖安公芳遠上黨侯伯卿左政丞趙浚右政丞士衡
- [030] 參贊門下府事李茂參贊門下府事趙璞政堂文學河崙參贊
- [031] 門下府事居易參知門下府事英茂等奮忠決策定難
- [032] 反正載安
- [033] **宗社**是雖反由我
- [034] **殿下**育德潛邸
- [035] **天**與人歸所致戡定禍亂
- [036] **受命**繼統是白教是乃名世之臣佐
- [037] **命定社**爲白乎所
- [038] **王旨**乃貌如功勞重大永世難忘是白置有良尔右員等乙良定社一
- [039] 等功臣
- [040] 稱下立閣圖形豎碑紀功封爵錫土父母妻超三等封贈
- [041] 子乙良超三等蔭職無直子則甥姪女婿超二等田地幾結
- [042] 奴婢幾口丘史柒名眞拜把領拾名許初入仕嫡長世襲不失
- [043] 其祿子孫乙良政案良中定社一等功臣某之子孫是如施行
- [044] 雖有罪犯宥及永世爲等如褒賞令是良如教是齊寧安
- [045] 侯良祐清原侯沈淙奉寧侯福根門下侍郎贊成事之蘭
- [046] 參贊門下府事思吉商議門下府事趙溫判中樞院事金輅
- [047] 前商議中樞院事朴苞前中樞院學士鄭擢同知中樞院事

- [048] 天祐商議中樞院事思靖同知中樞院事張湛中樞院副使張
- [049] 哲右副承旨叔蕃上將軍克禮大將軍無咎戶曹議郎無
- [050] 疾等推誠協謀定難反正載安
- [051] **宗社**爲白乎所
- [052] **王旨**內克如功勞重大永世難忘是白有良尔定社二等功臣
- [053] 稱下立閣圖形豎碑紀功父母妻超二等封贈直子超二
- [054] 等蔭職無直子則甥姪女婿超等田地幾結奴婢幾口丘史
- [055] 五名眞拜把領捌名許初入仕嫡長世襲不失其祿子孫
- [056] 乙良政案良中定社二等功臣某之子孫是如施行雖有罪
- [057] 犯有及永世爲等如褒賞令是良如教是齊爲■如科■以
- [058] 錄券成給爲遣立閣豎碑乙良繕工監圖形乙良圖畫院紀
- [059] 功乙良藝文春秋館父母妻封贈子孫蔭職嫡長世襲子
- [060] 孫政案施行乙良吏曹
- [061] **賜**給田地字號申
- [062] 聞乙良戶曹給田司奴婢花名申
- [063] 聞乙良刑曹都官丘史把領及初入仕乙良兵曹爲等如使內
- [064] 向事出納各掌官爲良如教諭乃謹錄申
- [065] 聞爲白乎亦中洪武參拾壹年拾月初一日都承旨通政大
- [066] 夫經筵參贊官兼尙瑞尹修文殿直學士知製教充藝文春
- [067] 秋館修撰官知吏曹事臣李文和伏奉
- [068] **王旨**依申教矣一等功臣乙良各田貳百結各奴婢貳拾五口各內廄馬
- [069] 壹匹鞍子具各金品帶一腰各表裏壹段式以賞
- [070] **賜**爲齊二等功臣商議門下府事趙溫同知中樞院事天祐中樞
- [071] 院副使張哲右副承旨叔蕃上將軍克禮大將軍無咎戶曹
- [072] 議郎無疾等乙良各田壹百五拾結各奴婢拾五口各內廄馬
- [073] 匹各金銀品帶一腰各表裏壹段式以賞
- [074] **賜**爲齊寧安侯良祐清原侯沈淙奉寧侯福根門下侍郎贊成
- [075] 事之蘭參贊門下府事思吉判中樞院事金輅前商議中樞
- [076] 院事朴苞前中樞院學士鄭擢商議中樞院事思靖同知中樞
- [077] 院事張湛等乙良各田壹百結各奴婢拾口各內廄馬壹匹
- [078] 各金品帶壹腰各表裏一段式以賞
- [079] **賜**爲良如教右如教事是去有良尔錄券
- [080] 洪武參拾壹年拾壹月 日
- [081] 錄事都評議錄事張[手決]
- [082] 錄事權知式目都監錄事承仕郎膳官署丞全[手決]
- [083] 判官[空]
- [084] 判官通德郎右補闕藝文春[秋]館應教知製教兼尙瑞司丞李[手決]
- [085] 副使奉正大夫兵曹議郎安[手決]
- [086] 副使奉正大夫成均樂正知製教柳[手決]
- [087] 使中直大夫左諫義大夫直集賢殿知製教兼藝文春秋館編修官經筵侍講官趙[手決]
- [088] 使通政大夫成均大司成知製 教朴[手決]
- [089] 判事崇政大夫三司左僕射同判都評議使司事安[手決]
- [090] 判事特進輔國崇祿大夫醴泉伯集賢殿大學士領書雲觀事權[手決]
- [091] 都監員
- [092] 佐郎承議考功佐郎閔[手決]
- [093] 佐郎承議郎兼都評議使司經歷司都事申[手決]
- [094] 正郎通德郎考正郎知製教兼都評議使司事檢詳條例司檢詳權[手決]

[095]	正郎通德郎尹[手決]
[096]	議郎奉正大夫鄭[手決]
[097]	議郎奉正大夫原[手決]
[098]	知曹事[空]
[099]	典書嘉善大夫集賢殿直學士經筵侍講官全[手決]
[100]	典書嘉善大夫河[手決]
[101]	吏曹員
[102]	別監
[103]	通政大夫中樞院都承旨經筵參贊官兼尙瑞尹修文殿直學士知製教充藝文春秋館修撰官知吏曹事李[手決]
[104]	折衝將軍雄武侍衛司上將軍柳[手決]
[105]	中訓大夫試司憲中丞朴[手決]

한편 조사대상의 공신녹권 앞 부분에는 안동 장씨의 후손에 의해 보사한 글이 기록되어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定宗朝推忠協贊靖難開國定社功臣案洪武三/十一年戊寅八月冊 恭靖大王爲世子九月禪位/鄭道傳南閻柳曼殊姜等挾芳碩芳蕃立僞世子/作亂義安大君和等十七員皆誅除奸反正載安/宗社”

### ○ 문헌자료

『정종실록』 권2, 정종 1년 11월 정묘, 「중추원사 장철 졸기」

노인환, 「조선시대 공신교서 연구」(『고문서연구』 제39호, 2011.8)

진나영, 『朝鮮 前期 功臣錄券의 書誌學的 研究』,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2014.

진나영·송일기, 「『定社功臣錄券』의 書誌的 研究」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7-3, 한국문헌정보학회, 2013.

박성호, 「조선초기 공신교서와 녹권의 발급제도 변경 시기에 대한 재론」 『古文書研究』 45, 한국고문서학회, 2014.

### ○ 지정사례

국보 제69호 심지백 개국원종공신녹권(沈之伯開國原從功臣錄券) (1962.12.20 지정, 동아대 박물관)

국보 제232호 이화 개국공신녹권(李和開國功臣錄券) (1986.10.15 지정, 개인)

국보 제250호 이원길 개국원종공신녹권(李原吉開國原從功臣錄券) (1989.08.01 지정, 아단문고)

보물 제437호 김희련 개국원종공신녹권(金懷鍊開國原從功臣錄券) (1966.02.28 지정, 정읍시립박물관)

보물 제726호 장관 개국원종공신녹권(張寬開國原從功臣錄券) (1981.07.15 지정, 개인)

보물 제1076호 김천리 개국원종공신녹권(金天理開國原從功臣錄券) (1991.07.12 지정, 성균관대 박물관)

보물 제1160호 진충귀 개국원종공신녹권(陳忠貴開國原從功臣錄券) (1993.06.15 지정, 국립중앙박물관)

보물 제1282호 최유린 개국원종공신녹권(崔有漣開國原從功臣錄券) (1998.06.29 지정, 강릉최씨대중회)  
보물 제1469호 마천목 좌명공신녹권(馬天牧佐命功臣錄券) (2006.04.28 지정, 국립고궁박물관)  
보물 제1657호 이형 좌명원종공신녹권 및 함(李衡佐命原從功臣錄券및函) (2010.08.25 지정, 국립고궁박물관)

## 12. 청주 사뇌사지 동제현향로 (清州 思惱寺址 銅製懸香爐)

### 가. 검토사항

‘청주 사뇌사지 동제현향로’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청-국립중앙박물관의 「문화재청-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보존관리 협력에 관한 협약」(’13.8.9)의 일환으로 국립중앙박물관장으로부터 ‘청주 사뇌사지 동제현향로’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신청(’16.6.1)이 있어 관계전문가 조사(’16.11.11)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의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30일간 지정예고 하려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청주 사뇌사지 동제현향로((清州 思惱寺址 銅製懸香爐))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청주박물관)
-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명암로 143
- 수 량 : 2점
- 규 격 : 현향로1 : 크기 높이 46.5cm, 최대 지름 24.0cm  
몸체: 길이 24.0cm, 입 지름 16.2cm  
손잡이: 길이 23.0cm, 최대 너비 28.4cm  
뚜껑: 높이 7.7cm, 입 지름 16.2cm  
무게 : 4,041.7g, 몸체 3706.5g, 뚜껑 335.2g  
현향로2 : 크기 높이 22.4cm, 최대 지름 12.1cm  
몸체: 높이 11.7cm, 입 지름 8.4cm  
손잡이: 길이 9.4cm, 최대 너비 14.3cm

뚜껑: 높이 3.2cm, 입 지름 8.3cm

무게 : 651.9g, 몸체 544.6g, 뚜껑 107.3g

- 재 질 : 청동
- 조성연대 : 고려 12~13세기

##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 (보류)

현향로는 1993년 청주시 무심천변에서 발굴된 494점의 유물과 함께 크고 작은 2점이 출토되었다.

2점의 현향로는 공반 출토된 유물 중 쇠북 등 일부에서 ‘사뇌사(思惱寺)’라는 명문이 나와 ‘사뇌사지 현향로’라 부르지만, 본 유물에는 명문이 새겨져 있지 않아 확실하지 않다.

고려시대에는 불교의식이 발달하여 향완과 병향로, 현향로 등 다양한 종류가 만들어졌다. 이러한 향로 중 현향로는 한중일 삼국 중 우리나라에서만 발견되는 유일한 형식이어서 그 학술적 가치가 크다.

현존하는 고려시대 현향로는 대체로 구조와 형식이 공통된다. 타원형의 몸체, 연기 구멍이 뚫린 반구형 뚜껑, 몸체에 붙인 팔메트 문양과 역삼각형 리벳, 능화형 손잡이와 연봉 마감 등이 그것이다. 사뇌사지 현향로 2점은 현존 유물 중 크기가 가장 크고, 비교적 이른 시기에 해당되며 구조적이고 온전한 편이다. 더욱이 13세기부터 14세기 고려말 나전칠기나 청자상감에 유행한 능화형 문양이 현향로의 손잡이에 적용되어 제작시기를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2점의 현향로가 각각 제1형식과 제2형식에 해당되어 현향로의 시기적 변천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예술적 가치가 있다.

아울러 공예기술적인 면에서는 사뇌사지 현향로는 구리 합금에 주물기법으로 만들고 표면을 갈이틀에서 갈아내어 다듬는 기술, 손잡이의 능화형과 연봉 마감처리, 귀와 손잡이의 리벳 접합 등 리벳으로 접합 등 고려 금속공예 기술을 원형을 지니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존하는 여러 유물이나 전세품과의 비교를 통해 이 시대를 대표하는 가장 뛰어난 조형성을 보이는 유물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뇌사지 현향로 2점은 현재 고려시대 유적지에서 현향로의 발굴이 계속 이뤄지는 점, 유존하는 여러 유물과의 비교 검토가 필요한 점, 본 유물과 함께 동반 출토된 494점의 사뇌사지 유물과의 종합적인 조사연구 이후 국가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보류)

사뇌사지 현향로는 사지에서 직접 출토된 상태가 양호한 고려시대의 작품이지만 그 자체에 명문이 남아있지 않을 뿐 아니라 명문이 있는 다른 현향로도 발견된 바 있어 아직까지 국가 지정문화재로 승격되기에는 때 이른 점이 있다. 따라서 이후 다른 현향로와의 비교 조사를 통한 가치의 비교나 사뇌사지 출토의 일괄 유물이 동반 지정될 때 다시금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리라 본다.

○(보류)

사뇌사지 현향로는 고려시대의 불교문화 속에 탄생된 독자적인 향구기형인 점에서 중요한 유물이다. 사뇌사지 현향로와 같은 기형의 현향로는 고려시대의 懸香爐는 法泉寺址 출토 靑銅懸香爐, 국립청주박물관 소장 思惱寺址 출토 靑銅懸香爐 2점, 경희대학교 박물관 소장 靑銅懸香爐 등이 있다. 현향로는 고려시대 불교 금속공예의 독자성을 규명해 줄 수 있는 기형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금속공예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명문이 있는 법천사 향로 등이 연구되어 현향로의 용도와 기형적 성격이 세밀하게 파악된 다음 지정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사뇌사지 현향로의 가치가 더욱 부각될 것으로 생각한다.

마. 의결사항

- 보류 : 타 현향로와의 비교조사 필요

조사보고서

□

○ 현 상

가. 발굴경위

1993년 10월 18일 청주 무심천변의 제방도로를 확장하고 철제 전신주를 옮겨 세우고자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70번지에 1.5m의 구덩이를 팠는데 이곳에서 동제대호와 향로 2점 등 금속제 유물이 여럿 나와 청주시에 신고였고, 이에 청주대 박물관에서 1993년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긴급 발굴을 한 결과, ‘사뇌사(思惱寺)’ 명문이 새겨진 쇠북[金鼓]과 함께 현향로(懸香爐) 2점을 비롯한 494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그러나 당시 긴급발굴한 유구의 형태와 구조, 매납된 형태와



양상 등을 수록한 보고서는 발굴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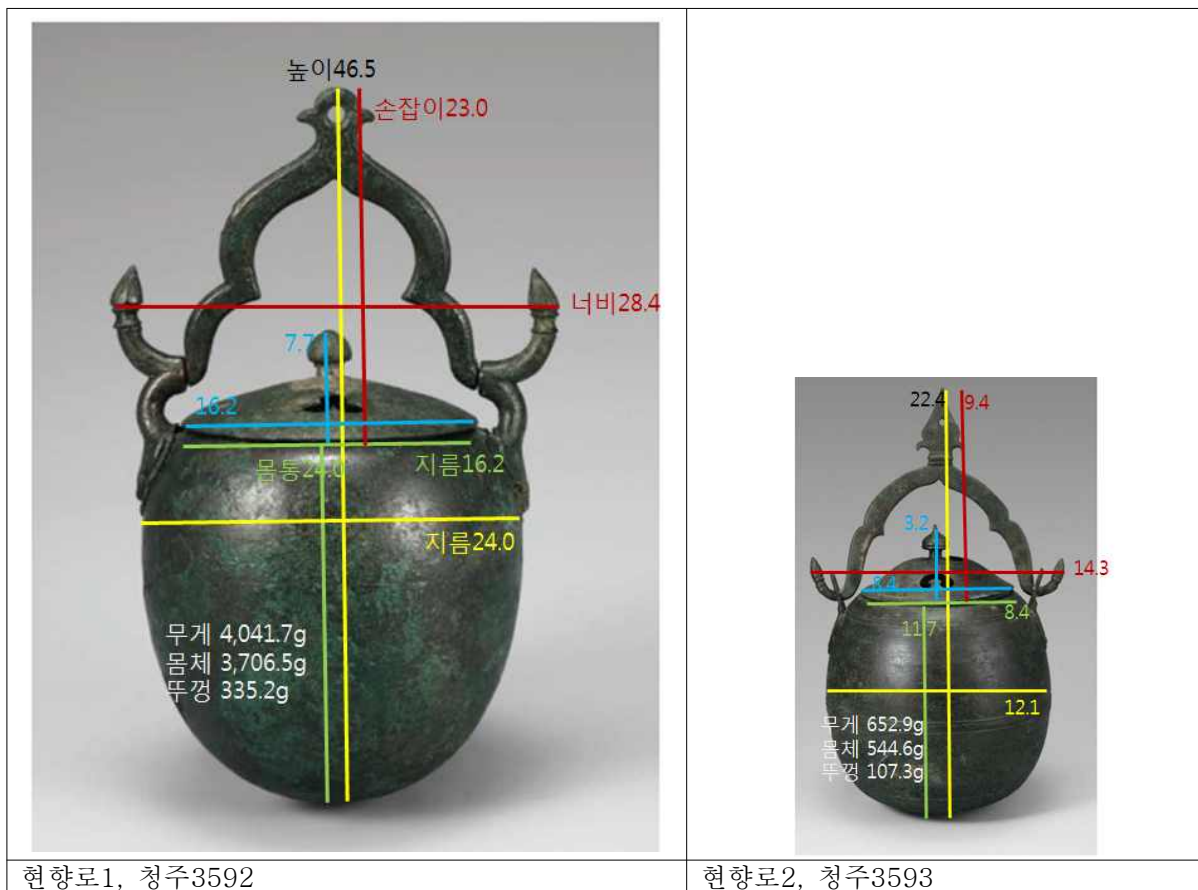
### 나. 현향로의 형태와 크기

현향로는 고려시대 향로 중 걸어서 사용하는 향로이며, 고려시대 불교의례와 관련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고려시대 현향로는 타원형의 몸체, 투공이 있는 반구형 뚜껑, 몸체에 연결된 능화형 고리가 특징이다.

사뇌사지 현향로 2점 또한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몸체가 둥글고 걸어 매달

수 있는 손잡이가 달린 기형이 공통된다. 두 향로는 구조적으로 향아리형 몸체, 보주형 뚜껑, 능화형 손잡이로 구성되어 있다. 크기는 현향로1이 현향로2보다 두 배 정도 큰 편이다.

현향로1과 현향로2는 크기가 다르고 나머지는 대체로 비슷하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전자가 둥그스름하고 세부를 생략하여 간략하게 처리한 반면, 후자는 작지만 뾰족하고 세밀하게 처리한 점으로 보아 양자의 조형감이나 세부를 제작하는 기술에서는 차이를 엿볼 수 있다.



<현향로1>의 몸체는 배 부분이 둥근 향아리형이고, 구연부와 상중하단의 네 곳에 두 줄의 음각선이 새겨져 있다. 주조기법으로 만들고 표면을 깎으면서 생긴 것이며, 원형의 몸체를 만들고자 가운데 부분을 제물땀으로 합쳐졌을 것이다. 몸체 양 옆면에는 고리를 걸 수 있도록 삼엽형 격쇠를 3개의 청동못으로 고정시켰다.

뚜껑은 보주형 꼭지가 달려 있으며, 대체로 밋밋한 반구형으로 되어 있다. 뚜껑 위에는 구름처럼 보이는 삼엽문양이 투각되어 연기가 피어오르도록 되어 있다. 하단에 턱을 두어 몸체와 여닫을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판단된다. 운문은 미륵사지

금동수각형 향로와 유사하다.

능화형 손잡이는 양 끝부분이 바깥으로 꺾여 위쪽으로 연봉이 솟아오르는 모양으로 장식되어 있다. 아래쪽 고리는 몸체 윗부분에 청동못으로 고정하고, 솟아오른 연꽃 봉오리 끝에 끼워 연결하였다. 손잡이의 내부가 둥글게 다듬어져 있지 않아 들고 다니기 어렵다. 이로 미루어 이 향로의 용도는 걸어두고 사용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현향로2>는 기형이나 구조 및 구성 등이 앞의 것과 일치하나 크기가 작다. 몸체는 두 부분으로 만들어 접합하여 가운데 부분에 가느다란 음각선이 확인된다. 손잡이의 경우도 형태나 문양은 같으나 접합기법은 달라서, 연결부위를 먼저 만든 다음 손잡이를 끼우고 있다. 이 때문에 뚜껑의 높이가 낮은 것이 특징이다.

뚜껑 부분은 뒤집어 놓은 완형으로서 연봉이 있는 부분은 평탄하나 옆으로 곡선을 이루면서 아구리가 벌어져 있다. 연봉형 꼭지가 뾰족하면서 제대로 된 형태로 되어 있다.

능화형 손잡이는 몸체 좌우에 세운 귀에 끼우고 양 끝부분이 각각 솟아올라 연봉우리 형태를 취하게 만들었다. 손잡이 중앙의 보주형이 뾰족하게 만들어지고, 중앙에 두 줄을 연결지은 모습이 두드러진다.

### 3. 고려시대 현향로의 양식변천

고려시대에는 불교를 국교로 삼아 불교의례가 많았고, 향공양도 중요시하여 향완과 병향로 및 현향로가 다수 남아 전한다. 예컨대 동국대박물관 소장 법천사지 청동현향로의 경우 ‘미타회’라는 명문을 통해 무자년 법천사 법회 때 사용된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定祐九年 海安寺銘 향완에는 “崔瑀施納海安寺百座排鑄香碗此樣一百”이라는 명문이 발견된다. 이를 통해 당시 최고의 권력자였던 최우가 百座道場을 열면서 같은 모양의 향완 100점을 제작한 예를 통해서도 당시 향공양이 유행하였고 그 규모가 대단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고려시대 향로는 주둥이 부분에 넓은 전이 달린 몸체와 나팔모양의 받침으로 구성된 향완의 형태나 병향로의 것이 대부분이다. 그중에서도 거는 형태의 현향로는 고려시대 향로 중에 유례가 많지 않다. 현존하는 고려시대 현향로는 사뇌사지 현향로를 비롯하여 그동안 여러 유적에 출토된 사례가 몇 가지 있다. 곧 서울 도봉서원 현향로, 원주 법천사지 현향로, 청주 사뇌사지 현향로, 하남 춘궁로 현향로, 동국대박물관 소장 무자명현향로, 마로산성 현향로, 횡성 현향로 등이 그것이다.



<고려시대 현향로의 현존 사례>

현향로는 몸체의 형태에 따라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제1유형은 몸체의 높이보다 지름이 긴 상하가 긴 계란형이고, 제2유형은 몸체의 높이가 지름보다 길어 좌우로 넓은 발우형이다. 제1유형의 것은 사뇌사지 청동현향로 2점을 비롯하여 원주 법천사지 청동현향로, 도봉서원현향로가 있다. 제2유형의 것은 흥덕사지현향로(3점), 무자명 청동현향로, 경희대박물관 소장 청동현향로, 하남 춘궁 현향로, 마로산성 현향로 등이다.

<p>1유형</p>	<div style="text-align: center;"> <p><b>1유형</b> ; 몸체 높이가 지름보다 긴 계란형</p> </div>
<p>2유형</p>	<div style="text-align: center;"> <p><b>2유형</b> ; 몸체 높이보다 지름이 넓어지는 타원 발우형</p> </div>

현존하는 현향로의 경우 사뇌사지 현향로1이 전체높이 46.5cm에 무게는 4,041.7g으로 가장 크고 무겁다. 그 다음이 하남 춘궁 현향로가 42cm에 해당된다. 사뇌사지 현향로2는 전체높이 21.5cm이고, 무게는 651g으로 1/2 정도로 크기가 작은 편이다. 하지만 이 또한 현재 출토되었거나 전세되어 내려오는 현향로 중에서는 크기가 큰 편에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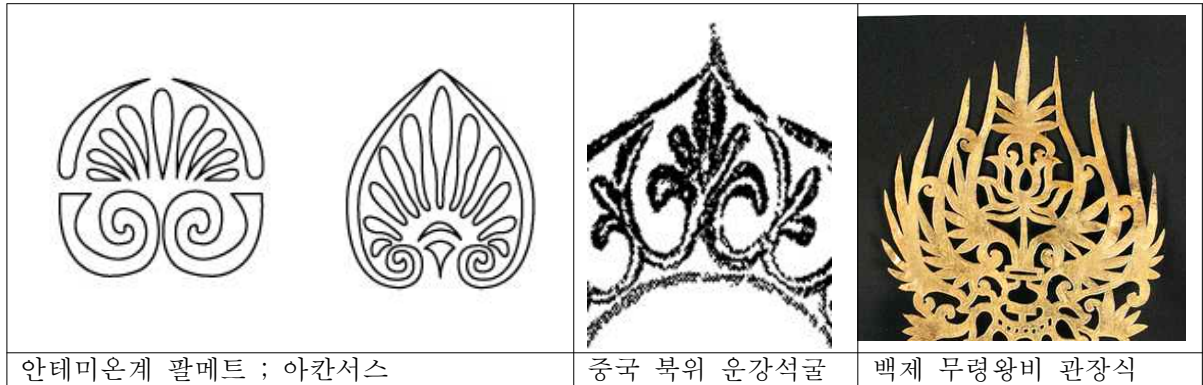
연번	유물명칭	크기(cm)	무게	몸체	구멍 형태	꼭지 형태	소장처
1	思惱寺址 靑銅懸香爐	높이 46.5 지름 16.5	전체 4,041.7g 몸체 3,706.5g	항아리형	삼엽형	연봉형	국립청주박물관
2	思惱寺址 靑銅懸香爐	높이 21.5 지름 8.4	전체 651.0g 몸체 544.6g	계란형	심엽형	연봉형	국립청주박물관
3	법천사지 현향로	높이 9.6	몸체; 105.1g	계란형	결실	연봉형	국립중앙문화재연구소
4	도봉서원 현향로	높이 27.3	전체 1,485g 몸체; 967.2g	계란형	삼엽형		한성백제박물관
5	홍덕사지현향로(3점)	높이 17.1	몸체 1,156.8g	타원형	심엽형	연봉형	국립청주박물관
6	戊子銘 靑銅懸爐	높이 17 지름15.7	몸체; 1.206g	타원형	결실	연봉형	동국대 박물관
7	하남 춘궁 현향로	높이 42	몸체; 2,672.3g	타원형	심엽형	연봉형	국립중앙박물관
8	마로산성 현향로	높이 19.8	몸체; 621.1g	타원형	결실	연봉형	순천대 박물관
9	靑銅懸香爐	높이 21 지름 18.5		발형	삼원형	연봉형	경희대박물관

<현존 고려시대 현향로의 크기와 형태 분류>

이처럼 사뇌사지 현향로1은 제 1유형에 속하고, 사뇌사지 현향로2는 제2유형에 속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까지 출토된 현향로 유물을 통해 볼 때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은 도봉서원이나 법천사지의 것이 가장 이른 시기의 것으로 여겨진다. 그 다음 사뇌사지 현향로, 그리고 하남 춘궁로의 것과 무자명 그리고 황성 현향로의 순이라 할 수 있다.

이제, 현향로의 기술적 특성을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현향로는 손잡이를 걸기 위해 몸체에 귀붙임을 한다. 귀붙임의 문양은 팔메트로 되어 있다. 팔메트란 좌우로 뻗은 나선 모양의 꽃받침 위에 아치형 선이 있고, 다시 부채꼴 모양으로 펼쳐진 꽃 문양이다. 이 문양은 이집트 신왕국(BC 1570-1085)에 전형화되어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에서 풍요와 승리를 상징하는 신성한 팔메트나무로 서아시아의 독자적 양식으로 발달되었다. 이후 그리스에서 채색도기에 팔메트 넝쿨장식이 받아들여, 아칸서스 문양을 독자적으로 창안하고 유행시켜 조각의 받침장식, 신전의 박공(gable)에 놓이는 머리 장식, 석비의 정상부 장식으로 애용되었다. 이것이 인도와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유입되어 고구려 고분벽화나 신라 와당 등에 포도문, 석류문, 보상화문과 결합되어 식물계 덩굴무늬로 장식 사용되었다.



현향로에 사용된 팔메트는 대체로 단순화된 삼엽형이 대부분이다. 현향로1은 삼엽 팔메트이고 잎사귀가 단순하게 처리된 상태이며, 현향로2는 오엽팔메트에 크기와 형태가 다양하게 구성되어 시기적으로나 양식적으로 기술적으로 발전된 양상을 엿볼 수 있다.



몸체에 팔메트형 장식을 붙이는 결합방식은 리벳을 역삼각 형태로 3개를 박은 것이다. 사뇌사지 현향로1과 춘궁로 및 흥덕사지 현향로의 경우 삼엽의 중앙에 3개의 못을 박은 것이 확인되고, 사뇌사지 현향로2의 경우 다섯 잎사귀여서 위쪽 좌우와 중앙의 것에 각각 박은 것을 알 수 있다.

<리벳과 몸체의 결합>



사뇌사지 현향로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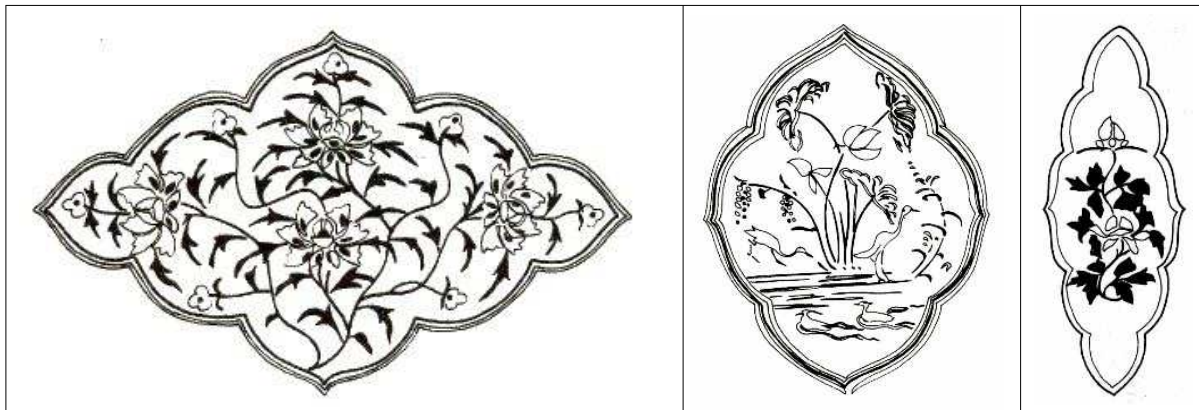
순공로 현향로



흥덕사지 현향로

거는 향로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은 손잡이 부분이다. 손잡이는 고려 말 공예의 조형적 공통점을 시사하는 능화문(菱花文)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능화문은 서역 이슬람 문양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동서문화의 교섭 결과 중국 원나라에 수용되어 청화백자 등에 유행되었다. 우리나라는 몽골간섭기에 원문화의 영향을 받아 고려 말에 유행한 문양이다. 12세기 중반부터 14세기까지 고려 청자상감을 비롯하여 나전칠기 등에 적용되어 고려말 공예품의 시대적 특징을 보여주는 유존유물이 많아 시대 판별에 도움이 되는 문양이다.

능화문은 문양의 형태는 마름모꼴의 둥근 곡선으로 이루어진 윤곽선을 두어 공간을 구획하는 문양이다. 나전칠기와 청자상감의 경우 평면에서 사용되면서 주문양을 배치하는 외곽선으로 이용되었는데, 현향로와 같은 금속기에서는 입체적인 외곽 형태로 손잡이 등에 사용되었다. 이를 통해 사뇌사지 현향로의 제작시기가 13세기부터 14세기에 해당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고려 상감청자에 보이는 능화문의 형태

현향로의 손잡이는 능화형 문양 중에서도 상하로 긴 병형이나 향아리 형태의 것에서 연유한 1번의 꺾임을 가진 문양이며, 그 반쪽을 사용하는 것이 공통된다. 사뇌사지 현향로1은 능화형의 구부러진 형태가 매우 또렷하고 강인한 느낌을 주며

아래쪽의 무거운 몸체를 들 수 있도록 굽기가 두꺼운 편이다. 이에 수반하여 꼭대기 부분에 고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주 가운데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이 확인된다. 같은 1유형에 해당되는 도봉서원 현향로의 경우에도 구불구불한 외형이 살아있을 뿐 아니라 꼭대기 보주가 다시 투각되어 있어 시기적으로 앞서는 현향로의 양식적인 공통점을 엿볼 수 있다.

반면 사뇌사지 현향로2는 능화형은 인식하게 하되 전체적으로 둥근 형태를 유지하여 몸체를 거는 손잡이로서의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조형적으로는 안정적으로 변화하는 경향을 엿볼 수 있다. 능화형의 꼭짓점에 해당되는 보주장식의 중앙에는 구멍이 뚫려 있되 작아지거나 점차 사라지는 경향도 발견된다.

이처럼 사뇌사지 현향로1처럼 1유형의 초기형식은 능화형의 구불거림이 강조되다가 사뇌사지 현향로2처럼 2유형으로 넘어가면서 조형적으로 과장된 형태가 정리되고 기능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현향로는 손잡이를 귀에 있는 구멍에 통과시켜 향로를 어딘가에 걸어두는 방식이다.

1형식은 귀의 고리에 있는 원형 투공에 손잡이를 통과시켜 거는 방식이다. 여기에 해당된 것이 사뇌사지 현향로1, 춘궁동 현향로, 법천사지 戊子銘 현향로, 강원 횡성 현향로이다. 귀의 결합방식을 보면 사뇌사지 현향로1을 비롯한 1유형의 경우 몸체에 붙인 귀에 구멍을 뚫어서 끼우는 형식이 아니라 귀와 접합을 시킨 방식으로 되어 있다. 이 경우 막상 현향로를 사용할 때 좌우로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되는 구조이다.

반면 사뇌사지 현향로2를 비롯한 2유형의 경우 몸체에 붙인 귀의 구멍 안쪽으로 능화형 손잡이가 끼워지고 끝부분이 연봉으로 마무리된 방식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사뇌사지 현향로2, 법천사지 현향로, 마로산성 현향로, 도봉서원 현향로이다. 이렇게 제2유형의 현향로를 사용할 때에는 걸어둔 향로가 좌우로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어 기능성과 조형성이 개선되고 발전된 구조를 엿볼 수 있다.





### ○ 참고문헌

- 강형태 외, 「청주 思惱寺址 청동기의 과학분석 I」, 『박물관보존과학』 제2권 국립중앙박물관, 2000, 57~68쪽.
- 국립청주박물관, 『청주 思惱寺』, 청주 사뇌사 금속공예 학술보고서 II, 2014.
- 국립청주박물관, 『청주 思惱寺』, 청주 사뇌사 금속공예 학술보고서 III, 2015.
- 김리나, 「菱花文의 東西交流」, 『美術史學研究』 242·243, 韓國美術史學會, 2004.
- 김정현, 「淸州 思惱寺 金屬遺物 研究」, 고려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김정효, 「신라시대 와당에 나타난 초화문의 유형과 비례분석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 김홍주, 「청주 사뇌사 유물의 발견경위」, 『고려공예전』, 국립청주박물관 1999.
- 김홍주, 「청주사직동출토 사뇌사명반자」, 『미술자료』, No.52, 국립중앙박물관, 1993.
- 이용진 「고려시대 불교 향로의 전통성과 독창성」, 『동악미술사학회』 23, 동악미술사학회, 2012.
- 장수진, 「淸州 思惱寺址出土 高麗 金屬工藝 研究」,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 정승은, 「고려시대 현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 정제규, 「청주 사뇌사지와 고려후기 나한신앙의 전개」, 『은지논총』 Vol.24. 2010.
- 제송희, 「중국 남북조시대 팔메트 문양의 발달과 전개」,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주윤아, 「고려자기 능화형 개광장식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최응천, 「사뇌사 유물의 성격과 의의」, 『고려공예전』, 1999.

### □

#### ○ 현상 및 특징

고려시대 사찰에서 사용된 향로 중에 이처럼 걸어서 사용하는 향로를 懸香爐로 불렀다. 이러한 향로는 고려시대에만 나타나는 향로로 고려시대 불교의례와 관련된 것으로 생각

된다. 고려시대 懸香爐는 타원형의 노신과 연공이 있는 반구형의 뚜껑, 노신 측면에 연결된 雲形의 고리가 달려있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고려시대 懸香爐는 남아있는 유물이 많지는 않지만, 대부분 기형이 비슷하고 손잡이의 모양에 차이가 있다. 현존하는 고려시대의 懸香爐는 동국대학교 박물관 소장 원주 法泉寺址 출토 靑銅懸香爐, 국립청주박물관 소장 思惱寺址 출토 靑銅懸香爐 2점, 경희대학교 박물관 소장 靑銅懸香爐 등이 있다.

이 작품은 청주 思惱寺址<sup>230)</sup>에서 일련의 불교 금속공예품과 함께 발견된 두 점의 고려시대의 현향로 가운데 대형의 작품이다. 노신의 배부분의 지름이 둥그렇게 부풀어져 마치 항아리와 같으며, 연봉형 꼭지가 달린 반원형의 뚜껑, 운형의 고리로 구성되어 있다, 항아리형의 노신에는 구연과 노신의 상,중,하단 네 곳에 두 줄의 양각선을 새겼다. 노신 상단 양측면에는 고리를 걸 수 있는 귀를 부착하여 리벳으로 고정시켰고, 양쪽 귀에 고리의 끝부분이 연봉으로 장식된 운형의 고리를 끼웠다. 운형 손잡이는 그 양 끝단이 바깥으로 꺾여 연봉형으로 장식되고 손잡이 중앙 상단에는 펜촉 같은 모습의 삼각형 장식이 부착되어 장식적이면서도 매우 세련된 감각을 풍긴다. 寶珠形의 꼭지가 달린 반구형의 뚜껑에는 心葉形의 투공을 뚫어 排煙口로 만들었고 하단에 턱을 두어 몸체와 개폐가 편하도록 하였다. 아래 고리는 몸체 윗부분에 청동 못으로 고정하였고, 여기에 휘어진 연꽃 봉오리형 고리의 끝을 끼워 연결하였다. 둥근 몸체와 바닥에 굽은 돌음 줄을 4곳에 돌렸다. 이와 유사한 향로가 경희대학교 박물관에도 소장되어 있다.

현향로는 용도상 향을 걸어놓고 피우기 위한 것으로 짐작되지만 정확한 용도는 분명치 않다. 그러나 동국대학교 박물관 소장 法泉寺址 출토 靑銅 懸香爐에 보이는 彌陀會라는 명문을 통해<sup>231)</sup> 아미타법회를 베푸는 의식 때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법천사 출토 현향로는 戊子年에 法泉寺에서 열린 彌陀會에 사용코자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靑銅懸香爐가 출토된 思惱寺 역시 『眞覺國師語錄』의 ‘有西原府思惱寺夏安居上堂’이라는 기록을 통해 思惱寺가 禪宗 계통의 사찰임을 알 수 있다.<sup>232)</sup> 따라서 선종 계통의 사찰인 思惱寺에서 靑銅懸香爐가 발견된 것은 禪宗系 사찰에서도 유사한 법회를 거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법회 때 현향로를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230) 청주 思惱寺址 출토 유물은 1993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의 무심천 제방도록 확장 공사에서 전신주를 이설하던 중 흙구덩이에서 발견되었다. 여기에서는 약400여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는데, 대부분이 불교공예품이었다. 국립청주박물관, 『고려공예전』, 1999

231) 고려시대에 사용된 彌陀會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彌陀法會를 의미하는 것으로 「玄化寺碑」에는 고려 顯宗이 부모를 위해 玄化寺에서 3일간 彌陀會를 열었다는 기록이 있다. 다른 하나는 阿彌陀佛畫로서 李崇仁의 『陶隱集』권4 「衿州安養寺塔重新記」에는 탑 안의 네 벽에는 동에 약사회, 남에 석가열반회, 서에 미타극락회, 북에 금경신중회를 그렸다고 기록되어 있어 불화를 지칭하는 의미로도 사용되었다.

232) 최응천, 「思惱寺 遺物의 性格과 意義」, 『고려공예전』, 국립청주박물관, 1999, p.137.

사뇌사지 현향로는 그 자체에 명문이 없어 제작시기를 확실히 편년지을 수 없지만 같은 절에서 발견된 명문 있는 자료를 검토해 보면 가장 이른 것이 997년에 제작된 統和15年銘 발우이고, 가장 늦은 것은 戊午年 羅漢堂銘 향로로 1258년 또는 1318년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편년이 가능한 유물만 가지고 본다면, 사뇌사지 출토유물의 편년은 10세기말부터 13세기 중엽 또는 14세기 초에 해당한다.<sup>233)</sup> 하지만 法泉寺址 출토 靑銅懸香爐의 편년을 고려하면 思惱寺址 출토 靑銅懸香爐도 12세기 후반 또는 13세기 전 반쯤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 《고려시대 현향로의 현황》

연번	유물명칭	크기(cm)	명문	노신 형태	연공 형태	꼭지 형태	고리 형태
1	戊子銘 靑銅懸爐	높이 17 지름15.7	유	타원형	결실	연봉형	운형
2	思惱寺址 靑銅懸香爐	높이 21.5 지름 8.4	무	계란형	삼엽형	연봉형	운형
3	思惱寺址 靑銅懸香爐	높이 46.5 지름 16.5	무	항아리형	십엽형	연봉형	운형
4	경희대박물관 소장 靑銅懸香爐	높이 21 지름 18.5	무	발형	삼원형	연봉형	운형

□

#### ○ 현 상

##### 가. 발굴경위

思惱寺의 현향로 2점 은 1993년 10월 18일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70번지에서 발견된 ‘思惱寺’銘 金鼓 등 494점 중에 속한 유물이다. 청주 무심천변의 제방도로를 확장하려고 전신주를 옮겨 심다가 발견되어 청주박물관에 의해 1993년 10월 26일에서 28일 사흘에 걸쳐 긴급하게 발견되었다. 정식 보고서는 아쉽게도 발간되지 못했다. 당시 공사를 담당하였던 분들의 증언을 요약한 경위서에 의하면 철제 전주를 심기위한 1.5미터 정도 크기의 구덩이 아래쪽 벽면에서 물이 흘러나와 그 부분을 파게 되었다고 한다. 그 과정 중에 동제대호와 향로 2점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전한다. 그 뒤쪽에도 금속 유물들이 가득하여 청주시에 신고하여 청주시학예사는 청주대학교 박물관에 의뢰하여 나머지 유물들이 수습된 것이다. 공사에 동원

233) 최응천, 앞의 논문, p.146.

된 중장비를 이용하여 주변 확인조사까지 이루어졌으나 유구의 형태와 구조, 매납된 형태와 양상 등이 전혀 기록되지 않아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이 유물들은 청주대학교 박물관 전시실로 옮겨졌으나 다시 10월 21일 국립청주박물관으로 이전하였다.

#### 나. 현향로의 기형



사뇌사지에서 출토된 현향로 2점의 기형은 둘 다 몸체가 둥글고 걸 수 있는 손잡이가 달린 공통점이 있다. 세부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현향로 1>

크기 길이 46.5cm, 최대 지름 24.0cm  
 몸체: 길이 24.0cm, 입 지름 16.2cm  
 손잡이: 길이 23.0cm, 최대 너비 28.4cm  
 뚜껑: 높이 7.7cm, 입 지름 16.2cm  
 무게 4,041.7g  
 몸체 3706.5g, 뚜껑 335.2g  
 유물번호 청주3592

몸체는 둥근 달걀형으로 저면에서 가까운 부분, 가운데 부분, 그리고 음각선이 둘러있다. 이 음각선은 주조기법으로 만든 다음 표면을 깎으면서 생긴 선으로 생각된다. 원형의 몸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운데 부분이 제물땀으로 합쳐졌을 것이다.

둥근 몸체 양옆에 삼엽형 꺾쇠를 3개의 청동 못으로 고정하였다. 그 안으로 연봉이나 보주형을 표현한 문양이 중에 표현한 손잡이를 걸었다. 손잡이의 양 끝은 연봉으로 마무리 하였다. 손잡이를 위로 세워놓으면 뚜껑부분에 투각된 운문처럼 보이는 삼엽문이 표현된다. 손잡이 내부가 둥글게 마무리 되지 않으면 들고 다니기가 힘들다. 이는 실용적인 용도보다 걸었을 때의 형태를 고려한 제작 의도로 보인다. 이는 현향로의 용도와 관계하여 시사되는 부분이 있다. 이러한 조형성과 용도가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뚜껑에 투각으로 표현된 운문은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금동수각형향로의 투각 운문과 비교된다. 이는 이 문양 사이로 향이 피어나오도록 설계했을 가능성이 높다.



## <현향로 2>

크기 높이 22.4cm, 최대 지름 12.1cm  
 몸체: 높이 11.7cm, 입 지름 8.4cm  
 손잡이: 길이 9.4cm, 최대 너비 14.3cm  
 뚜껑: 높이 3.2cm, 입 지름 8.3cm  
 무게 651.9g  
 몸체 544.6g, 뚜껑 107.3g  
 유물번호 청주3593

뚜껑과 몸체, 손잡이로 이루어진 이 현향로 앞서 살핀 현향로보다 소형이지만, 전체적인 기형은 비슷하다. 가운데 몸체를 두 부분으로 만들어 접합한 부분은 가늘게 음각선으로 확인된다. 손잡이의 형태도 삼엽분이나 운문을 형상화한 것으로 같으나 접합방식이 다르다. 여기에서는 사자의 모습으로 연결부위를

구축한 다음 손잡이를 끼운 방식이다.

뚜껑 부분은 앞서 본 향로보다 낮은 편인데, 이는 손잡이를 끼운 방식이 달라져서 뚜껑을 높힐 수 없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 ○ 내용 및 특징

고려시대에는 그 어느 때 보다 많은 수량의 향로와 향완이 남아있다. 이는 고려시대에는 국가 규모의 불교 행사도 많았고 이때 향공양을 다른 어떤 의례보다도 중요시 되었기 때문이다. 定祐九年 海安寺銘 향완에는 “崔瑀施納海安寺百座排鑄香완此樣一百”이라는 명문이 발견된다. 이를 통해 당시 최고의 권력자였던 최우가 百座道場을 열면서 같은 모양의 향완 100점을 제작한 예를 통해서도 당시 향공양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고려시대의 향로의 대부분은 주둥이 부분에 넓은 전이 달린 몸체와 나팔모양의 받침으로 구성된 향완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외에도 병향로의 기형도 있다. 거는 형태의 현향로는 고려시대 향로 중에 많이 보이는 기형은 아니다. 최근 도봉서원터, 하남 춘궁동, 청주 흥덕사지 등지에서 고려시대 현향로가 발견된 바 있다.

사늬사지에는 이외에도 청동향로, ‘태화 5년’이 새겨진 청동 향완, ‘사내사’가 새겨진 청동 향완 2점, 청동 수각향로 2점이 출토되어 현향로의 용도가 주목된다.

주지하다시피 인도에서 시작된 불교가 우리나라에 수용된 때는 삼국시대이다. 372년(소수림왕 2) 순도가 전진의 사신과 함께 와서 불경과 불상을 전하였고 이후 백제와 신라에서도 순차적으로 불교가 도입되었다. 이때 경전, 불상 등과 더불어 불교의례와 관련된 불교 공예품들도 수용되었을 것으로 이해되는데, 초기 불교와 관련하여 향을 피우는 香具가 불교의 神異와 관련되어 등장하는 것이 흥미롭다. 서역승으로 추정되는 묵호자가 고구려에서 신라로 와서 향을 피워 왕녀의 명을 낮게 하여 귀족들의 반발로 불교 포교가 어렵던 신라에 불교를 강하게 인식시켰던 예가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에서 확인된다. 또한 불교의례와 계율로서 행향(行香)이 진행되었던 기록도 찾을 수 있다

묵호자가 피웠던 향은 중국 남조 양에서 가져온 것으로 본래는 동남아시아산일 가능성이 크다. 불교경전에는 숯불을 피운 뒤 그 위에 향을 놓고 수지 분말을 뿌리면서 피우는 龍腦香, 끓는 물의 수증기를 이용하여 피우는 蘇合香 등 다양한 향들이 기록되어 있다.

향을 피우기 위해서는 향을 사르는 향로와 향을 담는 향합이 필요하다. 향로는 대개 그 형태에 따라서 놓고 사용하는 置香爐, 손잡이가 있는 柄香爐, 매달아 놓고 쓰는 縣香爐로 분류할 수 있다. 가장 많은 예가 남아있는 치향로는 다시 박산로, 정형향로, 향완 등으로 나눈다. 우리나라에서 향로는 낙랑 및 삼국시대에는 박산로가 그리고 통일신라시대에는 병향로가 그리고 고려시대에는 나팔 모양의 기대와 완의 몸체를 가진 향완이 많다. 향을 담는 향합은 통일신라시대에는 탑형뉴합이, 고려시대에는 높이가 높지 않은 원형의 합이 주류를 이룬다. 고려시대에는 향합과 향로가 일체형을 이룬 병향로가 확인되기도 한다.

고려시대에는 그 어느때보다 다양한 형태의 향로가 만들어지는데, 흥미있는 것은 사늬사지의 현향로와 같은 기형은 동시대의 중국이나 일본에서 그 비교 예를 찾아볼 수 없는 점이다. 사늬사지에서 현향로와 같이 팔메트와 연봉문, 그리고 중앙의 보주문으로 결합된 손잡이를 가진 현향로는 고려에서 독자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팔메트와 연화문을 결합하여 표현되기 시작한 것은 삼국시대부터 이다. 본래 연화는 중국의 연꽃(Nelumbo)을 모티프로 한 것과 이집트, 아시리아에 원류가 있는 로터스(Lotus) 두 종류가 있다. 재생, 부활, 영생을 상징하는 서방계 연화가 동아시아에서 유행하게 된 것은 4세기부터이다. 한국에 수용된 최초의 예는 357년 명문이 있는 안악 3호분의 묘주도가 얹은 평상 모양의 가구인 탑 위에 설치된 탑개에서 볼 수 있다. 삼국시대에서 백제의 연화문은 다른 나라에 비해 부드럽고 경쾌한 느낌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연화문의 끝이 뾰족해지고 연꽃잎 사이에 삼각형의 연관이 더해진 것은 남북조 시대에 새로이 창안된 유형인데, 웅진 시대의 유적에서부터 출토되고 있다. 또한 남조로부터 시작하여 남북조시대에 전역에서 유행한 생명의 나무를 상징하는 팔메트 문양과 결합한 연화문도 웅진시대 이후부터 사비시대에 이르기까지 표현되었다.



그림 4 손잡이의 팔메트와 연봉문

사뇌사지 현향로의 손잡이와 같은 형태는 하남 춘궁동 출토의 현향로에서도 볼 수 있다. 고려시대에 연화문과 팔메트 그리고 보주로 마감되는 문양에 대한 인식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주는 본래 보주는 개인을 보호하는 호부의 개념으로 쓰이던 것으로 서역에서는 팔링형으로 표현되지만 중국에 수용되면서 구형으로 변모한다.<sup>234)</sup> 보주는 보살들의 지물로도 사용되는데 이는 보주가 모든 중생이 바라는 소원을 모두 들어주는 진귀한 구슬일 뿐 아니라 중생들의 병을 고쳐주는 구슬을 상징하기 때문이었다. 또한 보주가 가진 광명으로 인하여 불국토에 도달할 수 있는 힘이 가졌다고 이해되었다.



그림 5 팔메트와 연화문으로 장식된 금제관식, 무령왕, 523, 백제



그림 6 현향로, 하남 춘궁동 출토, 고려

234) 김은영, 『寶珠의 圖像과 象徵』 (이화여대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3), pp. 6-26.

백제의 보주신앙은 삼국시대 불상에서 확인된다. 서안마애삼존불의 협시보살, 태안마애불 보살, 동남리 납석제보살입상, 보원사지출토 금동보살입상, 부여신리출토 보살입상 등을 양 손으로 보주를 들고 있다.

사뇌사지 현향로에 표현된 팔메트, 연화문(연봉문), 보주는 빛, 광명의 개념인 불국토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현향로가 아미타회에서 사용되었다는 지적이 주목된다. 1168년 원주 법천사의 아미타법회에 사용된 향구중에 현향로가 파악되었기 때문이다.

사뇌사지 현향로는 고려시대 의 불교문화속에 탄생된 독자적인 향구기형인 점에서 중요한 유물이다. 사뇌사지 현향로와 같은 기형의 현향로는 고려시대의 懸香爐는 法泉寺址 출토 靑銅懸香爐, 국립청주박물관 소장 思惱寺址 출토 靑銅懸香爐 2점, 경희대학교 박물관 소장 靑銅懸香爐 등이 있다. 현향로는 고려시대 불교 금속공예의 독자성을 규명해 줄 수 있는 기형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금속공예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명문이 있는 법천사 향로 등이 연구되어 현향로의 용도와 기형적 성격이 세밀하게 파악된 다음 지정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사뇌사지 현향로의 가치가 더욱 부각될 것으로 생각한다.

#### ○ 참고문헌

- 姜炯台 外3人, 「淸州 思惱寺址 靑銅器의科學分析 I」 『박물관보존과학』 제2권 국립중앙박물관, 2000, pp. 57~68.
- 국립청주박물관, 『청주 思惱寺』, 청주 사뇌사 금속공예 학술보고서 II, 2014.
- 국립청주박물관, 『청주 思惱寺』, 청주 사뇌사 금속공예 학술보고서 III, 2015.
- 김정현, 「淸州思惱寺金屬遺物研究」, 고려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김홍주, 「청주사뇌사 유물의 발견경위」, 『고려공예전』, 국립청주박물관 1999.
- 이용진 「고려시대불교향로의전통성과독창성」, 『동악미술사학회』 23, 동악미술사학회, 2012.
- 장수진, 「淸州 思惱寺址出土 高麗 金屬工藝 研究」,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 최응천, 「사뇌사유물의 성격과 의의」, 『고려공예전』, 1999.



### 13. 경주 얼굴무늬 수막새 (慶州 人面文 圓瓦當)

#### 가. 검토사항

‘경주 얼굴무늬 수막새’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청-국립중앙박물관의 「문화재청-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보존관리 협력에 관한 협약」(13.8.9)의 일환으로 국립중앙박물관장으로부터 ‘경주 얼굴무늬 수막새’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신청(16.6.1)이 있어 관계전문가 조사(17.3.24)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의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30일간 지정예고 하려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경주 얼굴무늬 수막새(慶州 人面文 圓瓦當)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경주박물관)
- 소재지 : 경상북도 경주시 일정로 186
- 수 량 : 1점
- 규 격 : 현존 지름 11.5 cm (추정 지름 14.0 cm)
- 재 질 : 토제
- 조성연대 : 신라 7세기

####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 (지정 가치 있음)

와당은 학문적 의의와 역사적 의미가 매우 크고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상

대적으로 연구와 관심이 부족하여, 문화재 지정에 있어서 다른 유물에 비해서 다소 소홀이 취급된 감이 없지 않다. 현재 와당이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단 한 점도 없다.

와당에 관하여는 종래 고고학적 관점에서 형태와 문양의 양식 비교를 통한 제작 시대의 추정이 주된 연구 대상이었다. 최근 들어서 와당의 미술사적, 문화사적, 역사학적 의미가 새롭게 조명됨으로써 학문적 중요성이 높이 부각되고, 공예품으로서의 예술성에 대한 관심도 고양되고 있다. 특히 동아시아 와당문화의 전파와 발전 과정에서, 한국 와당이 보여준 뛰어난 독창성과 예술성은 외국의 전문가와 소장가들이 모두 높이 평가하고 있으나 정작 한국에서는 관심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번 인면문 원와당(얼굴무늬 수막새)의 문화재 지정 조사를 계기로 한국 와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국가문화재 지정이 증가하기를 기대한다.

경주 사정동 출토 인면문 원와당은 동아시아 와당문화의 발전 과정에서 학문적, 역사적 가치가 크고, 신라 와공의 독창적인 예술적 걸작품이며, 국내외를 막론하고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희귀한 유물로서, 국민들 사이에서 문화적 상징성이 매우 높아서 일부 파손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할 가치가 크다.

#### 가. 학문적 가치 - 동아시아에 첫 등장한 양각의 미소 짓는 인면문 와당

와당은 중국 서주西周시대에 처음 제작되어 지금까지도 3천 년간 동아시아 지역에서 계속 사용되고 있는 특이한 유물이다. 중국의 와당문화는 한군현漢郡縣 시절 한반도에 전파되었고, 고구려와 백제, 신라 시대에 나라마다 특색을 가진 와당이 제작, 사용되면서 크게 유행하였다. 또 한국의 와당문화는 아스카飛鳥시대인 588년경에 백제 와공들을 통해서 일본에 전파되었다.

와당에 등장하는 문양은 제작 국가와 시대, 지역의 문화적 배경을 반영하고 있어서, 와당 문양을 통해 당시의 생활상과 문화를 엿볼 수 있다. 또 와당 문양의 비교를 통해서 문양의 상호 영향을 살펴보면, 그 문양의 등장 배경이 된 문화의 상호 교류 현상을 추적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와당이 유행했던 나라와 시대별로 문화와 예술의 특성이 어떠했고, 그 수준이 어떠했는지 비교해 볼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유물이다. 와당은 통치권의 상징이어서 고대 국가의 통치권이 어디까지 미쳤는지 그 강역을 추정하는 중요한 자료도 된다. 지난 3천 년간 한국과 중국, 일본에서, 와당처럼 연면히 상호 영향의 흔적을 명확히 남기면서 변화, 발전해온 유물은 찾아보기 어렵다. 와당은 한, 중, 일의 고대 문화 교류의 흔적을 추적하고, 통치 영역을 추정하면서 문화적, 예술적 특성과 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학문적 의의가 아주 높은 유물이다.

동아시아에서는 각양각색의 형태와 문양의 와당이 제작되었다. 이중에서 인면문 와당(人面紋瓦當)은 중국 전국시대의 제齊와 연燕에서 처음 제작되었다. 제의 수도였던 산둥성 임치臨淄에서 출토된 인면문 반원와당은 선각으로 묘사되었는데 카이젤 수염을 기르고 이목구비가 뚜렷한 문양(사진5)이다. 한漢나라에서도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선각의 인면문으로 보이는 반원와당이 제작되었고, 삼국시대에 오吳에서 제작된 적지 않은 인면문 원와당(사진6) 수십 종류가 남경과 그 주변에서 출토되었다. 오의 인면문 원와당은 선각으로 얼굴을 묘사하였고, 얼굴의 외곽이나 와당의 주연부에 사선문斜線紋이나 거치문鋸齒紋들로 둘러싸여 있다. 5호16국 시대에도 적지 않은 선각의 인면문 반원와당과 와질로 된 반원형태의 인면문 지붕 부착품들이 제작되어 사용된 것이 확인된다. 북조 후기의 인면문 원와당(사진7)은 양각이며 얼굴 위에 장식문양을 가진 것이 많다. 인면문 와당의 전통은 송과 명, 청 시대에도 계속되었으나 그 예술적 수준도 크게 떨어지고, 제작 사례도 많지 않다.



사진5. 인면문 반원와당, 제 (유금와당박물관)



사진6. 인면문 원와당, 오 (유금와당박물관)



사진7. 인면문 원와당 (유금와당박물관)

인면문이 왜 와당의 문양으로 등장하였으며, 왜 오에서 크게 유행하다가 또 단기간 사용 후 갑자기 소멸하였는지, 그 후에 왜 5호16국이나 북조 등에서 간헐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아직 명확히 규명되지 않고 있는 연구 과제다.

중국의 학자들은 중국 와당에 유행하던 인면문은 일반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당시 민간 신앙의 대상이던 신神이나 신선神仙을 형상화하여 묘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신과 신선의 얼굴을 지붕에 매달고 그 건물과 그 건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줄 것을 기원했다고 이해한다. 뜬금없이 일반 사람의 얼굴을 와당에 새겨서 지붕에 매달았을 이유가 없다고 본 것이다. 남경 주변에서 출토되는 오나라 인면문 원와당의 와당 면 외곽이나 주연부에 불상의 머리 주변에 광배로 표현되는 장식 문양과 유사한 문양이 등장하는 점, 또 북조 인면문 원와당의 얼굴에 장식 문양이 등장하는 것을 보아도 일반 사람의 얼굴이 아닐 것으로 추정된다. 이 얼굴 문양이 서진이나 동진 초기에 이르러 귀면문으로 변화, 발전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귀면문 와당은 위진남북조를 거쳐 당 이후에는 중국 와당의 주된 문양으로 계속 변천하여 왔으며, 중국의 귀면문 와당은 고구려, 백제, 신라에도 전파되어 왔다.

중국 와당문화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한국에서 귀면문 와당을 제작하는 외에 인면문의 와당도 별도로 제작하여 사용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게다가 중국에서의 얼굴무늬는 신이나 신선의 얼굴인데 비하여, 한국에서는 일반 사람의 얼굴로 보이는 문양으로 묘사한 것은 매우 흥미롭다. 경주에서는 고신라와 통일신라의 귀면문 원와당이 출토할 뿐 아니라, 조사 대상인 인면문 원와당은 중국 전통의 인면문 와당과는 달리 사람의 얼굴로 보이는 문양을 표현함으로써 독창성을 발휘하였다. 경주에서는 고신라의 인면문 원와당 이외에 통일신라의 것으로 보이는 인면문 원와당의 파편이 출토되었으며, 치미의 장식 문양으로도 얼굴이 표현되어 있다. 고구려에서는 귀면문 와당의 수용, 발전과는 별개로, 연화문과 함께 인면과 귀면이 섞여서 표현된 연화인면문 원와당(사진8)이 제작된 것도 독창적인 문양으로 평가되고 있다. 백제에서도 익산 미륵사지 출토의 인면문 원와당(사진9)이 출토되었으며, 이 또한 익살스런 눈매와 삐죽이는 입 모양 등으로 보아서 사람의 얼굴을 해학적으로 표현한 독창적인 문양이다.(이 와당은 통일신라의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고신라, 고구려, 백제에서 인면문 와당이 제작되던 비슷한 시기에 중국에서 일반 사람의 얼굴로 단정할 수 있는 와당 문양이 제작된 것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경주 출토 고신라의 인면문 원와당은 동아시아의 인면문 와당과 귀면문 와당이 변화, 발전하는 과정에서 일반 사람의 얼굴이 분명한 문양을 묘사하고, 또 와당 면에 처음 양각으로 미소 짓는 얼굴을 묘사한 사례로서, 국내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동아시아 와당 문양 변천 과정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매우 특이하고 의미 있는 독창적인 문양의 와당이다.



사진8. 연화인면문 원와당, 고구려 (유금와당박물관)



사진9. 인면문 원와당, 백제 (국립전주박물관)

이 와당의 얼굴이 신선이나 신적 존재의 얼굴이 아닌 사람의 얼굴이라고 한다면, 와공은 누구의 얼굴을 참고하여 묘사한 것일까? 그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흔한 신라인의 얼굴을 묘사하였을 가능성 보다는, 누군가 와공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람의 얼굴을 모델로 삼아 표현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전체적인 인상이 여인의 얼굴로 보이는 점에서 당시 신라 최초의 여왕이던 선덕여왕의 얼굴을 묘사하려고 시도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영묘사는 선덕여왕을 짝사랑하다 죽은 청년 志鬼의 설화가 남아 있는 곳이다. 영묘사는 이름으로 보아서 나라를 위해 싸우다 죽은 조상 특히 나라를 위해 희생된 화랑의 얼굴을 묘사했을지도 모른다. 또 이 와당의 얼굴과 국보 83호 청동 미륵보살반가사유상의 얼굴을 비교하면 눈썹 부위에서 콧등과 연결되는 부위 등 표현 방법과 미소 짓는 인상이 매우 유사하고, 눈은 석불상과 비슷해서, 그 당시 유행하던 미륵이나 부처의 이미지를 모델 삼아 묘사했을 수도 있다. 미륵이나 석불의 얼굴을 연상하고 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얼굴이 사람의 얼굴 모습인 것은 분명하다. 한편 이 와당이 벽사적인 의도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러한 점들에 대하여도 관심을 갖고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 나. 역사적 가치 - 고신라의 명승 양지良志 스님이 손으로 빚은 작품으로 추정

『삼국유사』 권4 ‘양지사석(良志使釋)’에 의하면, 양지는 여러 가지 기예에 통달하고 신묘함이 비길 데가 없는 예술적 재능이 뛰어난 신라의 승려이다. 그가 만든 여러 사찰의 작품 내역이 기록되어 있고, 최근의 발굴을 통해서 기록 내용에 부응하는 유물들이 출토되어 그 신빙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이 와당이 출토된 영묘사의 현판 글씨, 장육삼존상과 천왕상, 전탑의 기와는 양지 스님의 작품이라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다. 양지의 작품으로 ‘전탑의 기와(殿塔之瓦)’가 명기된 것으로 보아 이 와당도 양지가 제작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양지는 선덕여왕(632-647)에서 문무왕(661-680) 대에 걸쳐 활약한 예술가이고, 영묘사는 선덕여왕 재위 4년에 창건되었으므로, 이 와당은 양지가 고신라 때 제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독특한 문양인 점들을 고려하면 창건 기와일 가능성이 높다. 이 와당은 주연부에 연주문 등 장식문양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고신라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실도 양지의 제작 가능성을 높여주게 된다. 이처럼 이 와당은 신라에서 가장 뛰어난 예술성을 가진 승려로서, 이례적으로 역사서에 이름이 기록된 양지라는 인물이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물이어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

와당이 처음 제작되기 시작한 서주의 중환문 와당이나 진秦 초기의 극히 일부 와당을 제외하고 그 후의 모든 와당 문양은 와당과 함께 와범瓦范에 의하여 제작

되었다. 그러나 이 경주 출토의 인면문은 손으로 빚어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와당 표면의 거친 질감이 와범을 사용하여 제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도톰한 눈두덩과 뽀족하게 올라온 입술 부위는 도구를 사용하여 손질하여 높이를 올려 양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콧등에는 나무칼 등으로 손질한 흔적이 남아 있다. 낮게 가라앉은 눈 부위와 도톰하게 올라온 볼 부위에도 도구로 누른 흔적이 남아 있다. 잔존한 주연부의 왼쪽 부분에는 마치 흘러내린 여인의 머리카락을 표현한 것처럼 와당 면 쪽으로 흠을 덧대기 한 곳이 있는데, 이 덧대기를 한 주연부의 안쪽 두 군데는 손가락으로 누른 것처럼 약간 오목해 보인다. 주연부의 안쪽 아래 와당 면과의 경계 부위에도 손가락 끝이나 도구로 누른 흔적들이 보인다. 이 시기의 와당 중에서 문양을 와범이 아닌 손으로 빚은 것은 매우 특이한 사례이고, 따라서 같은 문양의 와당이 출토될 가능성도 매우 희박하다.

손으로 빚어서 이런 정도의 와당을 만들어내는 것은 일반인의 솜씨로 보기 어렵다. 상당한 예술적 재능과 경륜이 있는 예술가가 어찌면 즉흥적으로 짧은 시간에 그러나 정성을 쏟아 제작한 작품으로 보인다. 이 와당의 높은 예술적 솜씨를 보더라도, 이 와당은 양지가 직접 제작했거나 적어도 양지의 지도를 받은 예술적 재능이 상당한 수준의 사람이 제작했을 가능성을 더욱 높게 뒷받침한다.

#### **다. 예술적 수준 - 청출어람을 이루어낸 동아시아 최고 수준의 예술적 걸작품**

고대문명과 문화의 선진국이었던 중국 대륙의 문화가 홍수처럼 아시아 지역을 휩쓸 때, 오직 우리나라만이 이러한 홍수에 휩쓸리지 않고 문화적 정체성과 독창성을 유지하면서 중국문화에 버금가는, 때로는 이를 능가하는 문화적 창의력을 발휘해 왔음이 확인된다. 이러한 문화적 독창성과 정체성은 선천적 재능과 축적된 문화적 전통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고구려의 고분 벽화, 백제의 문양전과 청동용봉래산향로, 신라의 금관과 금장식을 비롯해서 석굴암과 다보탑, 고려의 상감청자와 불화 그리고 나전, 조선의 도자기와 초상화 등 청출어람의 현상을 성취해 낸 사례는 부지기수다. 중국의 고대 문명과 문화를 수용한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이러한 사례들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다.

와당문화도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이를 수용하였으나, 중국의 제1차 와당문화 전성기인 전국戰國시대와 제 2차 전성기인 진한秦漢시기를 뛰어넘는 제 3의 동아시아 와당문화 전성기를 이루어 냄으로써, 와당문화에 있어서도 청출어람의 사례를 성사시킨 것이다. 외국의 문화를 수용하면서도 이를 그대로 모방하지 않고 언제나 자신의 개성을 가미한 독특한 재창작의 과정을 거쳐 새로운 내용과 양식, 형태의 문화를 표출하는 한국문화의 특징이다.

경주 출토의 미소 짓는 인면문 원와당은 중국에서는 이전의 사례를 발견할 수 없는 사람 얼굴 문양의 와당일 뿐 아니라, 양각으로 표현된 자연스러운 표정과 아름다운 미소는 지붕의 부속품이기 보다는 뛰어난 조각 작품으로 느껴질 만큼 예술성이 높다. 중국의 얼굴무늬 수막새들은 사람 얼굴이 아닌 신 또는 신선의 얼굴로 표현되었기 때문인지 문양이 도식화되고 그 표정들도 대부분 경직되어 있다. 고신라의 이 인면문 원와당은 한국미의 특징이라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생동감이 느껴지는 한국미의 정수가 들어나는 유물이다. 국제적으로도 예술성이 가장 뛰어난 와당의 하나로 평가 받을 만하다.

#### **라. 희귀성 - 국내 유일의 희귀한 와당**

문화재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를 판정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학문적, 역사적 가치 그리고 예술적 우수성과 특색 이외에 그 유물의 희소성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다. 미소 짓는 인면문 원와당은 국립경주박물관 소장의 것이 유일하다. 신라에서 제작된 것으로서도 유일할 뿐 아니라, 국내외 어느 나라 어느 시대의 것도 이 와당처럼 확연하게 미소 짓는 사람의 얼굴이 양각으로 묘사된 와당은 아직 출토된 일이 없다. 와범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 손으로 빚은 것이어서 앞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문양의 와당이 출토될 가능성도 희박하다. 남조의 인면문 원와당 중에는 일부 미소를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 것도 있으나, 선각으로 표현되어 있을뿐더러 이 와당처럼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미소를 사실적으로 부조해 놓은 것은 찾아볼 수 없다.

#### **마. 높은 문화적 상징성과 해외문화재의 모범적 환수사례**

경주 출토 인면문 와당은 ‘신라의 미소’라는 별명으로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으며, 1000년 고도 경주의 문화적 상징물처럼 인식되어 왔다. 서산 용현리 소재 백제의 마애불상군(국보 84호)이 ‘백제의 미소’로 불려왔듯이, 이 와당은 ‘신라의 미소’로 불리면서 신라 문화의 대표적 성격이 강하다. 이 와당의 문양을 소재로 한 문화상품이 제작되고, 문학작품과 미술작품의 대상이 되었으며, 심지어 경주 특산 상품이 개발되기도 했다. 이 와당의 문화재 지정은 이 와당의 미소를 기억하는 많은 국민들에게 문화재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흥미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경주 시민들에게 문화적 자부심을 갖게 할 것이다.

이 와당은 일본으로 유출되었다가 소장자의 기증으로 국내로 환수된 유물이어서 모범적인 해외문화재 환수의 사례이기도 하다. 이 와당의 문화재 지정은 다른 해외의 한국 문화재 소장자들에게 적지 않은 자극과 기증의 계기가 될 것이다.

## 바. 기타(진정성, 명칭)

이 인면문 원와당이 실제로 사용했던 옛 와당인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등 한 때 논란이 있었으나, 위 연혁, 유래 항목에서 검토한 것처럼, 배면의 검토 결과 수키와와 접합했던 흔적이 명백하게 남아 있고, 파손된 부위와 표면의 상태로 보아 실제로 사용했던 오래된 와당인 점에 대하여 전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와당이 수백 년, 심지어 천년 이상 지하에 묻혀 있으면서 형성된 깨진 부위와 접합 장소, 표면 등의 독특한 질감(때갈, patina)은 위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이 와당이 처음 세상에 알려진 후 다나카씨에게 소장된 경위, 국립경주 박물관에 대한 기증 경위도 여러 문헌 자료에 의해 명백히 밝혀져 있다.<sup>235)</sup>

이 와당은 국립경주박물관에 ‘인면문 원와당(人面文圓瓦當)’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국가문화재로 지정되는 경우에 명칭을 어떻게 할지 검토가 필요하다. 출토지가 현재 사적 15호 흥륜사지로 지정되어 있지만, 이미 설명한 것처럼 이곳에서 ‘靈廟之寺’ 와편 출토 이후 영묘사지로 보는 견해가 많은 상태에서 ‘경주 흥륜사지 인면문 원와당’이나 ‘경주 영묘사지 인면문 원와당’으로 부르는 것은 부적절해보인다. 오히려 ‘경주 사정동 얼굴무늬 수막새 (慶州沙正洞人面文圓瓦當)’ 또는 ‘경주 사정동 인면문 원와당’ 등으로 호칭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참고로 보물 제343호로 지정된 부여 규암면 외리 출토의 문양전 8매는 ‘부여 외리 문양전 일괄 扶餘外里 文樣博 一括’이라는 명칭으로 지정되어 있다.

## ○ (지정 가치 있음)

경주 사정동 영묘사터(현 흥륜사)에서 수습된 얼굴무늬수막새는 내림새를 손으로 빚은 유일한 것임. 수막새제작은 당시 와장이 틀(瓦范)을 이용하여 윤곽을 제작한 것을 드림새는 良工(예술가)이 따로 손과 작은 도구등을 이용하여 제작했던 것으로 판단됨.

제작기법상 주연부는 태토를 나누어 넣으면서 거친 부분은 문질러 흔적을 지우고, 필요시 태토를 가감하면서 접착된 부분 중에는 흔적을 그대로 남기기도 한 것임. 이러한 제반 흔적들은 고신라 수막새 제작기법의 특징이면서도 기법을 잘 관찰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음.

따라서 얼굴무늬 수막새의 전체적인 제작기법은 숙달된 와장의 일반적인 기법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나, 손과 도구로 빚은 기법은 와장이 아닌 당시 최고의 良工이 함께 참여했을 가능성이 큼.

얼굴무늬의 우측 하단 일부는 결실되었지만, 이마와 두 눈, 오뚝한 코, 잔잔한 미소

235) 허형욱의 논고 말미 주석에서, 이 와당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의 주장은 ‘근거가 박약한 추정과 황당 무계한 전언들’이 대부분이고, ‘기증자 다나카 도시노부를 정체가 없는 가공의 인물이라 단정’하여 이를 ‘대전제’로 하는 등 ‘터무니없는 억측’임에 대하여 별도로 설명을 해놓았다.



와 양볼의 턱선의 조화와 미묘함은 당시 신라인 들이 수행하면서 만인을 품을 수 있는 염원과 이상향의 얼굴을 담은 것으로 판단됨. 얼굴에서 드러난 탈속과 집착, 학문의 경계까지 넘은 완성된 신라인의 무언가를 담아내는 당시 최고의 良工의 작품으로 보여짐.

얼굴무늬 수막새는 고신라의 건축부재의 한 기능을 담당한 것이나, 당시 숙달된 장인과 최고의 양공이 함께 완성함으로써 제작기법과 신라인의 이상적인 인간완성의 모습을 오늘날 미술사적인 가치 부분에서도 손색없는 작품으로 판단됨. 얼굴무늬 수막새의 수습지는 부분적인 조사였으나, 고고학적인 발굴작업에 의하여 많은 靈廟寺(靈妙寺) 명문 기와의 출토사례는 수습장소의 역사적인 측면과 고고학적인 구체적인 사찰명이 확인된 근거와 지정가치가 확인됨.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기록에서 靈廟寺(또는 靈妙寺)의 창건(635; 선덕왕4년)과 당시 良工인 良志法師의 丈六像 불사참여 내용이 확인되고 있고, 신라의 我道碑에서도 영묘사의 존재확인은 그 가치와 자료의 신빙성을 확인해주는 근거 자료임. 또 동 유물이 수습 출토되었던 영묘사는 국가 관청에서 관리가 나아가 국가적인 儀式 등을 주관 경영했던 근거로서 靈廟寺成典을 두었음을 삼국사기에 기록됨.

총체적으로 경주 인면문 수막새는 역사적 문헌기록과 고고학적인 수습출토 장소가 확인규명이 되었고, 수습출토 위치는 영묘사라는 신라 고찰로서의 가치와 근거, 영묘사가 국가관청에서 경영했던 근거인 靈廟寺成典(修營靈廟寺使院)의 역할을 했던 기록이 삼국사기에 실려 있음.

따라서 동 유물은, 역사적인 문헌 기록에서 보이는 영묘사지에서 수습되었고, 고고학적인 발굴조사에서 靈廟寺 명문와가 출토됨으로서 신라 古刹용 제작 유물이라는 점, 제작기법에서는 와장과 최고의 良工이 함께 참여하여 공동제작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은 다른 고대 수키와에서 확인할 수 없는 특징을 갖춘 점, 우리 수천 년 역사의 불교와 당시 신라인들의 염원이 깃든 최고 이상향의 얼굴을 빚은 작품이라는 특징을 갖추었음. 따라서 이러한 미술사적 및 고고학, 역사적인 의미를 지닌 인면문 수막새는 국가지정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교육 자료로서의 활용과 철저한 과학에 기반을 둔 보존에 만전을 기할 필요성이 제기됨.

## ○ (지정 가치 있음)

### 가. 희귀성

수막새는 암막새와 함께 목조건물의 처마 끝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문양기와로 수막새에는 삼국시대부터 연화, 보상화 초화, 금수, 귀면 등 다양한 문양을 시문하여 제작되었다. 이 중 얼굴무늬가 장식된 수막새는 삼국시대에 들어와 고구려나 백제, 신라 지역에서 특색을 이루며 제작되었으나 제작시기가 한정되어 있고 지

금까지 남아 있는 유물은 극히 소량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신라시대에 제작된 얼굴무늬수막새는 지금까지 밝혀진 삼국시대 기와 가운데 유일한 예이며, 출토지로 알려진 현재의 흥륜사지(영묘사지로 추정)에 대한 4차례에 걸친 부분적인 발굴 조사 과정에서도 확인된 바가 없다.

#### 나. 독창성과 예술성

얼굴무늬수막새의 제작기법은 통상의 다른 수막새와는 달리 막새 전체를 틀(와범)에 찍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와공이 와범을 이용하여 주연부를 만든 후 그 안에 바탕흙을 채워 가면서 숙련된 장인의 손으로 전체적인 얼굴 모습을 만들고 도구를 사용하여 세부적인 작업을 거친 끝에 만들어낸 예술품이다.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이목구비와 속눈썹까지 보일 듯한 미세한 손질, 잔잔한 미소를 머금은 위로 약간 빼뺏어진 오묘한 입술의 표현 등은 기술적으로 숙련된 와공이라 할지라도 만들어 낼 수 없는 예술적인 경지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예술적 감각에 대하여 관련 연구자들 사이에는 기록으로는 남아있지 않으나 삼국유사에 영묘사의 창건에 관여하였고, 사천왕사목탑의 사천왕상 등 많은 예술작품을 남긴 것으로 알려져 있는 양지법사(良志法師)의 손길이 닿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 다. 상징성

얼굴무늬수막새는 1972년 국립경주박물관에 기증된 이후 현재까지 수십년동안 국민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국내는 물론 대외적으로도 신라와 경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이미지로 정착되었다.

#### 라. 학술적 가치

얼굴무늬수막새는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수증한 이후, 지금까지 상설 전시되고 있으며 국립경주박물관의 『국립경주박물관명품선-신수품특별 전』(1974. 10. 15 ~ 11. 12.) 과 『신라와전 특별전』(2000. 8. 28 ~ 11. 12), 국립중앙박물관의 『한국박물관 개관 100주년 기념 특별전』(2009. 9. 29 ~ 1. 8.) 등에 출품되었다. 그리고 신라기와의 연구에 있어서 벽사적인 상징성을 지닌 특수무늬 기와의 한 형식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기와 관련 연구논문에도 자주 인용되는 중요한 미술사적 자료 중의 하나이다.

#### 마. 출토지와 진위문제

일제강점기 소장자와 유물은 처음으로 소개한 오사카 긴타로의 글에는 구입 당시 경주 사정동의 흥륜사지 출토품으로 밝히고 있는데, 현재 경주시 사정동에는 “천경림 흥륜사” 라는 사찰이 운영되고 있다. 1972년도 경부고속도로 진입로 개설공사시 사역 서북쪽에서 서회랑지로 추정되는 건물지의 일부가 확인되었고, 그 후 3차(1977~78년, 1981년)에 걸친 발굴조사를 통해 동서 목탑지와 동회랑지 유구 일부를 확인하였다. 발굴조사 결과 이 사지는 신라시대의 초기 가람들과는 달리 동서에 목탑을 배치한 쌍탑가람으로 확인되었고, 조사 과정에서 “영묘지사(靈廟之寺)” 명의 기와편이 다수 출토되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기록에 보이는 영묘사지 (635년 창건)로 추정됨에 따라 이 얼굴무늬 수막새의 출토지가 흥륜사지가 아닌 영묘사지였던 것으로 밝혀지게 되었다.

진위 문제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막새에서 관찰되는 고신라식의 제작기법과 사용흔으로 미루어 7세기 전반경에 제작된 신라시대 수막새가 분명하며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위작 주장은 전혀 설득력과 근거가 없다.

#### 바. 지정명칭에 대한 제안

이 유물은 수증 받을 당시 유물대장에 인면문원와당(人面文圓瓦當)으로 기재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지금도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막새기와를 지칭하는 용어로 와당(瓦當)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으며 일본 학계에서는 와당의 형태에 따라 원와당(圓瓦當)과 평와당(平瓦當)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우리 학계에서는 일찍부터 이에 대응하는 한글 용어로 암막새와 수막새라는 용어를 채택하여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기존의 지정명칭에는 출토지나 소재지를 표기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으나 현재의 흥륜사지에 대한 조사는 아직까지 부분적인 조사에 그치고 있고, 기존의 조사에 대한 정식보고서도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묘사지로 단정 지을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흥륜사지 일대는 사적 제15호로 지정 관리되고 있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흥륜사지가 소재하고 있는 행정동명을 부기하여 유물의 명칭을 「경주 사정동 얼굴무늬수막새(慶州 沙正洞 人面文圓瓦當)」로 제안하고자 하며, 이와 함께 기존의 관례대로 「경주 사정동 인면문원와당(慶州 沙正洞 人面文圓瓦當)」, 또는 「신라 얼굴무늬수막새」의 지정명칭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 지정(지정명칭: 경주 얼굴무늬 수막새)

### 조사보고서



#### ○ 현상 및 특징

국립경주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인면문 원와당(얼굴무늬 수막새)(사진1)는 와당 면의 일부와 주연부가 파손되었다. 와당 면을 +로 4등분하였을 경우, 와당 면의 우측 하단부의 아래쪽 3분지 2 이상과, 좌측하단부의 아래 부분이 조금 상실된 상태다. 주연부도 1시에서 7시 방향의 아래쪽 부분이 파손되어 상실됨으로써, 주연부의 절반가량만 남아 있다.

와당의 현존하는 지름은 11.5cm 가량이지만, 한쪽의 주연부가 파손된 것을 감안하면, 원래의 직경은 14cm가 약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인면이 새겨진 와당 면만의 직경은 9.1cm정도다. 남아 있는 주연부의 넓이는 좁은 부위는 1.2cm 가량인데, 7시에서 9시 방향 사이에 남아 있는 주연부는 2.6cm가량으로 2배 가량 넓다. 주연부의 바깥 높이는 2.4cm, 안쪽 높이는 1.3cm가량이다.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고신라 와당 중에서 중간의 크기이지만, 주연부가 비교적 넓어 와당 면은 좁은 편이다.

와당 면에 웃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 묘사되어 있다. 이마에서부터 솟아오른 큰 코와 콧구멍이 명료하게 표현되어 있다. 입체감을 높이기 위한 것인지 콧등을 아주 미묘하게 옆으로 표현하였다. 눈은 은행 열매 형태로 묘사하였는데, 눈두덩은 도톰하며, 눈 부위는 조금 내려앉게 손질했다. 볼은 윗부분이 약간 볼록하게 처리하였으며 양측이 비대칭이다. 위아래 입술이 모두 뾰족하게 솟아오르게 표현되었으며, 남아 있는 입의 오른쪽 끝은 위로 치켜 올라와 있다. 귀와 머리카락은 생략되어 있다. 입모양과 눈매, 조금 치켜 오른 볼의 긴장감 등으로 보아서 미소 짓는 모습이 역력하다. 해맑은 미소가 천진스럽고, 편안한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와당의 뒷면을 보면 수키와와 접합했던 흔적이 남아 있다.(사진2, 3) 뒷면에 남아 있는 접합 부위의 제일 넓은 곳은 1.8cm, 제일 좁은 곳은 1cm정도다. 수키와와 접합하는 부위의 주연부 위쪽 일부분은 주연부 중간 부위에 실을 끼워 돌려 깎아내고, 수키와도 두께의 일부를 주연부 바깥 높이만큼 깎아낸 다음, 깎아낸 주



사진1. 인면문 원와당



사진2. 뒷면



사진3. 도면1.  
뒷면과 접합부분 단면도

연부 상단에 수키와 굽어낸 부분을 접합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수키와의 굽어낸 부위는 주연부 위에 올라앉게 되고, 수키와의 굽어낸 부위의 높이에 해당하는 면은 와당의 뒷면에 부착된다.(도면1) 이와 같은 와당과 수키와의 접합 방법은 백제에서 유행하던 기법으로서, 이 와당의 제작에 백제 와공들이 참여하였거나

백제의 접합기술이 전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이 와당의 뒷면에 관한 자료가 공표된 일이 없었으나, 이번 조사를 통해서 수키와와 접합한 흔적과 접합 방법이 상세히 규명되고 파손 부위가 면밀히 관찰됨으로써 실제로 사용되었던 와당임이 더욱 분명해졌다.

와당의 태토는 견고한 편이다. 점토질이 많은 흙으로 제작되고, 비교적 높은 온도에서 구운 것으로 추정된다.

#### ○ 출토지 및 소장 경위(연혁, 유래, 문헌 자료)

이 인면문 원와당은 경주시 사정동에 소재하는 사적 15호 흥륜사지에서 출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사지의 발굴에서 ‘영묘지사靈廟之寺’라고 새겨진 암키와 파편(사진4)이 발견되어 지금은 이 곳을 영묘사(靈廟寺 또는 靈妙寺)지로 보는 견해가 많다. 국립경주박물관에서 2000년 발간한 [신라와전] 도록에도 출토지가 영묘사(靈廟寺)로 기재되었다. 영묘사는 신라 칠처가람七處伽藍 중의 하나로, 삼국유사에 의하면 선덕여왕(632-647) 재위 4년인 635년에 창건되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조선 초기쯤 폐허화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진4. ‘영묘지사靈廟之寺’명 암키와 파편  
(국립경주박물관)

이 와당의 출토지인 영묘사는 삼국의 통일 이전에 창건되었으며, 이 와당의 주연부에 연주문 등 장식 문양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이 와당은 고신라의 와당으로 추정된다. 주연부에 장식문양이 있는지의 여부는 통일 신라 이후의 와당인지 아니면 삼국시대 와당인지를 판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이 와당의 출토, 거래, 소장 경위 및 문헌 자료에 관하여는, 국립경주박물관이 발간하는 <慶州文物研究 8>(2015. 12. 16)에 게재

된 許亨旭의 <國立慶州博物館 所藏 人面文圓瓦當의 發見과 受贈 經緯>에 상세히 설명되었다. 필자는 당시 국립경주박물관의 학예연구사로 근무하면서, 이 와당에 관한 관련자들의 자료들을 모두 수집하여 시간 순서에 따라 기술하였다. 아래 내용은 위 논고의 내용을 인용, 발췌, 요약한 것이다.

“이 와당은 1934년 이전 수습 직후에 경주 시내의 일본인이 운영하던 골동상 율원栗原에 넘어갔다. 이를 1933년 오사카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해 5월 경주에 와서 山口의원에서 의사로 일하던 28세의 田中敏信(다나카 도시노부, 1905. 1. 1-1993. 8. 7)가 1934년 고가로 구입했다. 그는 이 와당 이외에 다른 신라 와당도 수집하였다. 조선총통부 박물관 경주분관장을 지낸 大坂金太郎(1877-1974이후)이 소장자의 동의를 얻어 大坂六村의 필명으로 “朝鮮” 229호(1934. 6. 1)에 이 와당을 ‘新羅의 假面瓦’로 소개하는 글을 실었으며, 이 글에는 당시에 흥륜사지로 알려졌던 출토지를 직접 ‘조사해보았더니 확실하다’는 내용이 있다. 그해 9월 일본경도제국대학 문학부 교실이 편찬한 보고서인 『新羅古瓦の研究』에도 도판과 설명문이 수록되었다. 설명문의 내용은 大坂金太郎의 위 글과 거의 비슷하다.

다나카씨는 1940년 전후에 와당을 일본으로 가져갔으며, 오랫동안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 있었다. 박일훈 전 국립경주박물관장(관장 재임 1963. 3. 14.-1973. 11. 22.)이 이 와당의 소재에 관심을 갖고 추적을 시작하여 1972년 일본 출장을 갔던 길에 大坂金太郎을 만나 그를 통해 다나카씨가 일본 기타큐슈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와당을 아직도 소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박일훈 관장은 두 사람에게 이 와당을 한국에 기증하여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하였으며, 다나카씨 부부가 1972년 10월 14일 경주를 방문해서 직접 쓴 기증서와 함께 국립경주박물관에 기증하였다. 일본에서는 이 기증 사실이 TV와 신문 등 여러 언론매체에 크게 보도되었다.

박일훈 전 관장은 정년을 앞두고 “文化財와 나” (<文化財> 7호. 1973.12)라는 회고록에 이

와당의 수증 경위 등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또 다나카씨는 이 인면문 원와당 이외의 기와 88점과 탁본 73점 등을 北九州市立歴史博物館에 기증하였고, 1975년 기증 도록도 발간되었다. 박일훈 전 관장이 이 와당의 기증과 관련하여 다나카씨, 大坂金太郎으로부터 받은 수십 통의 서신과 기증서는 현재 박일훈 전 관장의 유족이 보관하고 있다.”

□

### ○ 현 상

수막새 내림새의 얼굴무늬는 좌측하단 일부가 결실되었으나, 전체의 특징과 면모를 알 수 있는 두 눈과 코 입, 양 볼이 완전함.

### ○ 내용 및 특징

수막새 드림새의 외곽인 주연부 및 뒷면은 신라 와장들이 사용했던 제작틀을 사용했던 것으로 판단됨. 드림새의 문양은 틀이 아닌 손과 작은 도구를 함께 사용, 부조형식으로 빚은 것임. 내림새의 사람 얼굴은 눈과 코, 양볼과 턱선은 당시 신라인들의 가장 이상적인 완성된 얼굴을 표현했음. 눈과 코와 입에서 보이는 모습은 웃음은 잔잔하면서도 깊은 고뇌를 거쳐 이미 탈속하여 해탈한 자비의 모습임. 주연부에서 보이는 태토의 부착과정에서 모자라면 흠을 보태고, 튀어나오는 부분은 문지른 흔적, 자연스럽게 부착된 면은 접착선을 그대로 남겨두는 것은 신라 瓦匠들의 소탈한 고신라 수막새 제작기법의 특징을 잘 나타낸 것임.

### ○ 문헌자료

- 출토지는 沙正里(현 沙正洞)의 옛 靈廟寺(또는 靈妙寺)출토
- 1. 영묘사가 완성되다(635). (三國史記 본기 제5 선역왕 4년 )
- 2. 영묘사에 불이나다(662).(삼국사기 문무왕2년 春2월)
- 3. 영묘사의 문에 벼락이 치다(663).(삼국사기 문무왕3년 夏5월)
- 4. 영묘사에 불이나다(666).(삼국사기 문무왕6년 夏4월)
- 5. 영묘사에 불이나다(668).(삼국사기 문무왕8년 冬12월)
- 6. 영묘사 앞에서 군대를 사열하다(674).(삼국사기 문무왕14년 秋9월)
- 7. 靈廟寺成典은 경덕왕 18년(759)에 修營靈廟寺使院으로 고쳤으나, 후에 옛이름으로 회복되었다.
- 8. 靈廟寺丈六(三國遺事 제3 塔像 제4)

선덕왕이 절을 창건하여 소상을 만든 인연에는 관해서는 모두 良志法師傳에 자세하게 실려있다. 경덕왕 즉위23년에 장육존상을 개금하였는데 비용으로 租가23,700 섬이었다. 양지전에는 불상을 처음 만들 때의 비용이라고 하였다. 지금 두 설을

그대로 기록한다.

### ○ 얼굴무늬 수막새의 근·현대 소개 또는 소장경위 관련

※이하 1-4는 허형욱 논고 재인용

1. 大坂六村, 「新羅の假面瓦」, 『朝鮮』 229호(1934.6); 대판육촌은 필명이며, 원명은 大坂金太郎으로 조선총독부박물관 경주분관장을 지냈다.
  2. 『新羅古瓦の研究』.1934.9. 日本 京都帝國大學文學部 考古學教室 편찬.
  3. 朴日薰, 「문화재와 나」 『문화재』 7호, 1973.12(109-109).
  4. 이순우, 「하마터면 사라질 뻔했던 신라인의 미소」, 『얼굴무늬 수막새 제자리를 떠난 문화재에 관한 조사보고서·둘』 하늘재. 2003.
- 許亨旭, 「國立慶州博物館 所藏 人面文圓瓦當 發見과 受贈經緯」, 『新羅文物研究 8』. 2015.

### ○ 기 타

1934년 6월 일본인 田中梅信이 경주 栗原古物商에서 구입. 大坂金太郎이 1934년 朝鮮에 인면문 수막새를 소개하면서 출토지(경주 사정동 興輪寺; 발굴결과 실제로는 靈廟寺터로 확인)를 직접 답사 후 현지출토를 확인. 1972년 10월14일 국립경주 박물관 박일훈관장이 일본인 소장자인 田中梅信으로부터 기증받음.



### ○ 현 상

수막새의 우측부와 하단부가 일부 결실되었으나 장식 문양이 전체적으로 잘 남아 있다. 바탕흙은 회백색의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수막새의 뒷면 상단부에서 수키와의 접합 흔적이 뚜렷하게 관찰된다.

### ○ 내용 및 특징

미소짓는 모습의 얼굴무늬가 장식된 신라시대의 수막새로 막새 뒷면에 접합했던 수키와는 탈락되고 없으나 접합흔적으로 미루어 실제로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와범을 이용하여 수막새의 주연부를 만든 후 수키와의 접합부분인 상단부를 수키와 두께만큼 잘라내고 그 위에 얹어서 수키와의 선단부를 새 뒷면 상부 우측에 절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뚫었던 구멍의 흔적까지 잘 남아 있다. 주연부 안의 문양면에는 바탕흙을 채워 넣으면서 손가락과 도구를 사용하여 사람의 얼굴 모습을 정교하게 표현하였다.

일제강점기 소장자는 구입 당시 이 수막새의 출토지가 경주의 신라시대 사지인



홍륜사지로 밝히고 있는데, 홍륜사지는 그동안의 발굴조사와 연구 결과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등의 문헌에 기록이 남아 있는 영묘사지(635년 창건)로 밝혀지고 있는 점과 막새의 제작기법으로 미루어 7세기 전반경에 제작된 수막새로 판단된다.

### ○ 기 타(소장경위)

이 수막새 1점은 1933년부터 경주에서 야마구치의원(山口醫院)에 근무하던 다나카 도시노부(田中敏信)라는 일본인 의사가 경주의 쿠리하라(栗原) 고물상에서 구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입 시기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일제강점기에 간행된 『朝鮮』 229호<sup>236)</sup>에 오사카 로쿠손(大坂六村) - 오사카 긴타로(大坂金太郎)의 필명-이 6월 1일자로 기고한 「新羅の假面瓦」라는 글에서 처음으로 소개되었고, 이어서 같은 해 9월에는 일본 동경제국대학 문학부 고고학교실이 편찬한 『新羅古瓦の研究』<sup>237)</sup>에도 도판과 설명문이 수록되면서 일반에게 공개되었다. 이를 근거로 하면 다나카 도시노부가 쿠리하라 고물상에서 이 수막새를 구입한 시기는 1934년 6월 이전이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으며 구입 가격은 당시의 시가로 백원(百圓)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이었다고 한다.<sup>238)</sup>

이 후 이 수막새는 소장자가 직접 일본으로 반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시기는 확실하게 알 수 없다. 다만 그가 1940년에 군복무를 위해 일본으로 돌아 간적이 있고<sup>239)</sup>, 1944년에 수집품의 일부를 일본으로 가져갔다고 하며<sup>240)</sup> 국립경주박물관에 기증하기 전 일본 내의 신문기사에 인면문원와당을 昭和10년(1935년)에 일본으로 가지고 돌아와 비장하였다는 기사<sup>241)</sup> 등으로 미루어 소장자가 일본을 왕래했던 1935년, 1940년, 1944년 중의 한 시기일 것으로 보고 있다.<sup>242)</sup>

유물의 수증은 1972년 2월 일본 나라(奈良)시장의 초청으로 일본을 여행 중이던 박일훈 당시 국립경주박물관장이 1927~1929년의 경주공립보통학교(현재의 계림초등학교) 재학시 이 학교의 교장으로 재직하였고, 이 후 사제의 인연으로 1939~1940년에 조선총독부박물관 경주분관(국립경주박물관 전신)에 근무시 관장으로 재직했던 오사카 긴타로(大坂金太郎)와 만난 자리에서 인면문원와당의 소재를 확인하고 이 유물을 국립경주박물관에 기증하도록 설득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236) 大坂六村, 「新羅の假面瓦」, 『朝鮮』 229號, 1934年 6月, p.50.

237) 濱田耕作·梅原末治, 『新羅古瓦の研究』, 東京帝國大學文學部考古學研究報告 第13冊, 1949年 9月, p.47.

238) 朴日薰, 「文化財와 나」, 『文化財』 7號, 문화재관리국, 1973. 12, p.108.

239) 朴日薰, 앞의 글, 1973. 12, p.109.

240) 北九州市立歴史博物館, 「田中敏信氏蒐集古瓦塼圖錄作成にあたって」, 『新羅の古瓦塼』 圖錄, 1975.

241) 「韓國へ歸る“1400年前の面形」, 『讀賣新聞』 1972年 9月 17日字 記事.

242) 許亨旭, 「國立慶州博物館 所藏 人面文圓瓦當의 發見과 受贈 經緯」, 『新羅文物研究』 8, 국립경주박물관, 2015. 12, p.16.

있다. 이 후 1972년 3월부터 이 유물의 기증을 위하여 박일훈 관장과 오사카 긴타로, 다나카 도시노부는 수십차례의 편지를 통한 의견을 교환하였고, 마침내 결심을 굳힌 다나카 도시노부 부부가 1972년 10월 14일에 한국으로 건너와 국립경주 박물관에 직접 기증하였다.